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3

- 흑산면 편 -

2003. 12.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신 안 군



책을 내면서

이 책은 신안군의 의뢰로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가 2003년 5월부터 2003년 12월에 걸쳐 수행한 『島嶼 文化遺蹟 地表調査 및 資源化 學術用役 -압해, 비금, 흑산면편-』의 최종 성과품 중 흑산면 편이다.

신안군의 문화유적에 대한 지표조사는 그리 많지 않았다. 전남 도서지방의 민속 분야를 조사한 『한국민속종합보고서(전남편)』(1969), 고고학 관련 유적·유물의 분포상을 정리한 『도서지(島嶼誌)』(내무부, 1973) 등을 통해 부분적인 사정이 파악되는 정도였다. 그러다가 1987년에 비로소 종합적인 지표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성과는 『新安郡의 文化遺蹟』(목포대학 박물관·신안군)으로 발간되었다. 이 책은 신안군의 유·무형 문화재의 사정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이 책이 발간된 지 벌써 15년이란 긴 세월이 흘러 이미 낡은 조사가 되어버렸다.

이번에 우리 연구소에서 실시한 이 작업은 단순히 문화유적의 현황을 파악하는 그런 수준의 지표 조사는 아니었다. 물론 지표조사의 본래 의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한 전제였다. 그 위에 덧붙여 자원화를 위한 지표조사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작업을 진행하였다.

첫째, 지표조사의 성과들이 그대로 떠오르는 미래산업, 즉 문화콘텐츠산업의 원천자료가 되도록 하였다. 특히 '문화재'를 뛰어 넘어 '문화자원'으로서의 '문화'에 주목하였다. 이렇게 문화에 주목한 까닭은 문화재는 자연의 공공재들과 함께 권역과 '자연-인간'의 총체성, 즉 문화에 바탕을 두고 보존·활용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둘째,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자원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문화정보로 가공하여 제공하고, 문화에 토대를 둔 문화론적 지역개발로 이어질 수 있게 하였다.

셋째,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전방위적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 고유의 삶과 문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거나 사라졌다. 그리고 지역개발의 논리에 밀려 문화자원 역시 마구잡이로 훼손되어 버렸다. 심지어는 무엇이 의미 있는 문화자원인지도 모른 채 사라져 버리기도 하였다. 더 이상 이런 방관과 포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선 활용 가능한 문화자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수집·보존하는 일이 시급하다. 또 아울러 이를 지역활성화와 연계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이는 문화자원의 보존을 쉽게 하는 길일 뿐 아니라, 문화산업의 원천자료를 제공하는 투자의 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지표조사에서는 문화자원을 “보존하며 동시에 활용하고”, “활용하며 동시에 보존하는”, 이른바 <보존과 활용>의 상승효과를 올리는데 주목하였다. 이는 대립 개념인 ‘보존과 개발’을 상보개념으로 재정립해냄으로써 신차원의 개발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섬만으로 이루어진 신안군이 해양의 시대에 각광 받는 섬 문화관광지가 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풍부한 섬의 문화자원이 있다 해도 그저 흩어져 있다면 별 의미가 없다. 이번 작업은 그런 점에서 흩어져 있는 구슬들의 존재를 파악해서 이를 가장 아름답게 꿰어 그 상품가치를 최대화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 작업은 섬에 잠재되어 있는 문화의 소재들을 찾아내고 이를 문화자원화 함으로써 문화 및 관광산업에 창조적 원료를 제공해 주는 일이었다.

지표조사는 먼저 자연자원, 선사유적, 역사유적, 주거문화자원, 민속문화자원 등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주요 자원을 선별하고 각 분야 나름의 특성을 반영한 활용방향을 제안하였다. 다음 이런 지표조사의 결과 및 제언을 수용하여 문화유적의 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모색하였다. 특히 자원의 현장성과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독특하면서 매력적인 자원화 기본구상을 작성함으로써 이번 지표조사의 성과가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이번 작업은 주로 인문 분야에서 행하던 지표조사의 결과를 사회과학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상품화시켰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한다. 그리고 여기서 제안하는 자원화 기본 구상은 지금까지의 어떤 구상과도 다른 문화 창조성을 지닌다는 점을 자부하고 싶다.

이번 작업은 흑산면과 함께 압해면, 비금면을 동시에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각 섬들의 문화적 차이와 특징을 뚜렷이 비교할 수 있었다. 그래서 더욱 독창적인 자원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었다. 이제 신안군 1읍 13개면 중 겨우 3개 면에 대한 작업이 끝났다. 이 작업을 토대로 신안군 전체의 문화관광 계획이 새롭게 마련된다면 이는 획기적인 계획으로 주목받을 것이 틀림없고, 신안군 관광의 신기원을 이루기에 충분한 성과가 되리라 믿는다. 따라서 나머지 읍·면에 대한 조사도 하루 빨리 완료될 수 있기를 바란다.

준비하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번 작업의 성과로 신안군은 21세기 신해양의 시대에 새롭게 펼쳐질 해양문화관광의 신세계를 맞을 준비를 이제 막 시작하였다. 머지 않아 다도해 프로젝트의 찬란한 햇살이 신안군 전체를 밝게 비추리라 믿는다.

끝으로 이 과업에 같이 참여하여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헌신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연구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이런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신안군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3. 12.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장 고 석 규



목 차

책을 내면서 ————— 3

연구 개요 ————— 11

1부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활용방향 ————— 19

I. 자연자원 21

1. 자연자원 목록 ————— 21

2. 자연자원 현황 ————— 22

1) 흑산도의 지리적 위치 ————— 22

2) 흑산도의 크기와 형상 ————— 22

3) 쾌적한 해양성기후 ————— 23

4) 청정해양환경 ————— 23

5) 초령목 ————— 24

6) 가거도 후박나무 ————— 24

7) 紅島風蘭 ————— 25

8) 백동백 ————— 25

9) 가거도 희귀식물 ————— 26

10) 흑비둘기 ————— 26

11) 홍도 희귀동식물 ————— 26

12) 장도습지 ————— 27

13) 미네랄해수 ————— 28

14) 독실산 ————— 29

15) 선유산 ————— 29

16) 흑산도의 기암괴석 ————— 29

17) 永山八景 ————— 29

18) 가거도 8경 ————— 30

19) 홍도의 10경 ————— 32

20) 홍도의 33경 ————— 33

21) 흑산홍어 ————— 38

22) 예리항 경관 ————— 39

23) 한국의 알카트라즈 ————— 39

24) 구굴도 해조류 서식지 ————— 43

25) 홍도 천연자원 보호구역 ————— 43

26) 홍도 낚시터 ————— 43

27) 가거도 낚시터 ————— 44

28) 태도 낚시터 ————— 44

29) 영산도 낚시터 ————— 45

30) 흑산도 해수욕장 ————— 45

31) 홍도 해수욕장 ————— 45

32) 홍도 난전시설 ————— 45

33) 조망점 ————— 46

34) 다도해국립공원 ————— 47

3. 자연자원 활용방향 ————— 47

1) 지표조사의 기본방향과 성과 ————— 47

2) 자연자원의 활용방향 ————— 48

Ⅱ. 선사유적 52

1. 선사유적 목록 ————— 52

1) 흑산도 패총과 지식묘 ————— 52

2) 소흑산도 패총 ————— 52

3) 하태도 패총 ————— 52

2. 선사유적 현황 ————— 52

1) 흑산도의 선사유적 ————— 53

2) 소흑산도의 선사유적 ————— 55

3) 하태도의 선사유적 ————— 55

3. 선사유적 활용방향 ————— 56

Ⅲ. 역사유적 62

1. 역사유적 목록 ————— 62

1) 고대·고려시기의 유적목록 ————— 62

2) 조선~근현대기의 유적목록 ————— 62

2. 역사유적 현황 ————— 63

1) 고대·고려시기의 유적현황 ————— 63

2) 조선~근현대기의 유적현황 ————— 70

3. 역사유적 활용방향 ————— 79

1) 고대·고려시기 유적 활용방향 ————— 80

2) 조선~근현대기의 유적 활용방향 ————— 84

□ 분포지도 ————— 89

IV. 민속문화자원	102
1. 민속문화자원 목록	102
2. 민속문화자원 현황	106
1) 당제·갯제	106
2) 장승	132
3) 어로문화자원	132
4) 설화	152
5) 민요문화자원	153
3. 민속문화자원 활용방향	162
1) 지표조사의 기본방향과 성과	162
2) 활용방향	163
V. 주거문화자원	173
1. 주거문화자원 목록	173
2. 주거문화자원 현황	174
1) 가옥 건립 사례	174
2) 흑산도 주거문화의 특성	197
3. 주거문화자원 활용방향	202
1) 주거모델 개발	202
2) 관광자원화	210
□ 문화유적 종합목록	212
□ 문화유적 분포지도(종합)	214
2부 문화유적의 자원화 방안	219
1. 머리말	221
2. 자원의 특성과 의미	226

3. 자원화의 기본방향	227
4. 흥도·흑산도 관광의 현황	228
1) 여행객의 구성	228
2) 패키지 여행상품의 내용 및 홍보	228
3) 패키지 여행상품의 운영실태	229
4) 패키지 여행상품 운영의 문제점	230
5. 자원화 계획	230
1) 핵심복합사업	230
2) 개별사업	238
6. 관광기념품 및 문화콘텐츠 개발	247
1) 관광기념품	247
2) 문화콘텐츠	247
□ 흑산도 읍동 자원현황도	249
□ 흑산도 읍동 기본계획도	251
□ 흑산도 진리 자원현황도	253
□ 흑산도 진리 기본계획도	255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점차 소멸되어 가는 신안군의 각종 유·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지표조사를 수행하여 문화유적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 정리하여 디지털 자료화한다.

○ 도서 문화유적의 자원화

총체적으로 파악된 유·무형 문화재에 대한 장단기 전승·보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문화자원화하여 장단기 관광자원 및 상품화 계획을 수립한다.

2. 연구의 기본방향

- 유·무형문화재에 대한 문헌조사, 현지방문조사를 심도 있게 추진하고 파악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한다.
- 기존의 조사에서 누락되거나 미처 파악되지 못한 자연문화유산들을 초기에 면밀하게 문헌, 지표, 그리고 현장을 조사하여 이것들이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전승·보존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의 집중화를 기한다.
- 조사한 유·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보존 및 관광상품화를 통해 신안군의 문화관광사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학술적 방안을 모색한다.
- 21세기 바다의 시대, 해양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다도해 문화관광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 연구 대상지역은 압해면, 비금면, 흑산면 3개면으로 한다.

3. 연구의 내용과 범위

- 유·무형문화재 관련 문헌 및 도서(읍면) 현장방문 지표조사
- 유·무형문화재 구전기록 및 현장 영상기록(사진, 영상 디지털화) 보전 병행

○ 조사된 문화자원에 대한 장단기 전송·보존 계획 수립

- 조사가 완료된 읍면의 유산 중 학술적 가치나 전송 및 보존이 필요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국가, 도, 향토사료로 지정할 수 있는 학술적 근거자료 확보
- 자연 및 문화유산에 대한 유형별 분류 및 장단기 전송·보존 계획 수립
- 관련 자료의 매뉴얼화 및 CD-ROM, 스크랩 제작
- 유적지, 고문서, 고문헌, 구비전승, 굿, 당제, 민속자료, 고인돌, 독살, 해조류 번식지, 어구어법 등의 모든 자료를 원형대로 디지털 자료화
- 문화관광지도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조사된 자연문화유산의 산포지가 표기된 지도 작성

○ 조사된 문화자원의 장단기 관광상품화 계획 수립

- 도서(섬)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문화유산을 관광상품으로 개발
- 군민 스스로가 문화적 정체성 및 문화적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테마별로 기획 상품화
- 문화관광 상품 및 자원을 대외에 홍보하고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웹서비스나 학술토론 등을 개최

4. 연구의 의의

○ 문화유적의 현황만을 파악하는 기존의 지표조사와는 다른 “자원화를 위한 지표조사”

- 지표조사의 성과들은 그대로 미래산업, 즉 문화콘텐츠산업의 원천자료
- 섬의 문화자원에 대하여 콘텐츠 위주의 발전 전략을 세우고, 문화재를 뛰어 넘는 문화자원으로서의 문화에 주목
- 섬에 잠재되어 있는 문화의 소재들을 찾아내고 이를 문화자원화 함으로써 문화 및 관광산업에 창조적 원료를 제공
-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자원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문화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존과 조화를 이루고 문화에 토대를 둔 문화론적 지역개발로 이어질 수 있게 함

○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문화관광자원 개발

- 주로 인문학 분야에서 행하던 지표조사의 결과를 사회과학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상품화하고 문화적 창조성을 지닌 자원화 기본구상 제안

○ 지표조사의 집중화·체계화·디지털화

- 기존 조사와 연구에서 누락되거나 미처 파악되지 못한 문화유산에 대한 철저하면서도 체계적인 조사로 지표조사의 본래적 의미에 충실
- 자원의 현장성과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독특하면서 매력적인 자원화 기본구상을 작성함으로써 지표조사의 성과가 새롭게 탄생하도록 시도
- 관광자원화를 위한 실제적 응용 및 디지털 자료화 구축

5. 기대효과

- 신안군내 문화유산의 효과적인 계승·보존을 위한 종합적인 문화발전 전략 수립에 기여
- 문화관광자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문화콘텐츠라는 문화산업의 원천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신안군의 문화 역량 강화의 실질적 계기 마련
- 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두 개념을 조화시킴으로써 <보존과 활용>이라는 대립적 개념을 상보개념으로 재정립시킴으로써 문화론적 지역개발의 새로운 전기 마련
- 21세기 신해양의 시대에 새롭게 펼쳐질 해양문화관광의 신세계를 맞을 토대 마련

6. 연구진 구성

- 책임연구원 고석규(목포대 역사문화학부 역사학전공 교수, 도서문화연구소장)
이종화(목포대 정경학부 도시및지역개발학전공 교수, 임해지역개발연구소장)
- 공동연구원 나승만(목포대 어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교수)
김지민(목포대 건축조경토목공학부 건축학전공 교수)
강봉룡(목포대 역사문화학부 역사학전공 교수)
이헌중(목포대 역사문화학부 고고학전공 교수)

홍석준(목포대 역사문화학부 문화인류학전공 교수)
이덕안(초당대 관광학과 교수)
문병채(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연구교수, GIS전공)
이경엽(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연구교수, 민속학전공)
김경옥(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역사학전공)

- 연구보조원 이병삼(목포대 대학원 석사과정, 역사학전공, 압해종교 교사)
최용덕(목포대 역사문화학부 4년, 문화인류학)
박선형(목포대 건축조경토목공학부 4년, 건축학)
이승윤(목포대 역사문화학부 4년, 고고학)
이은정(전남대 대학원 석사과정, 사학)
이홍선(목포대 정경학부 3년, 도시및지역개발학)
이윤선(목포대 대학원 박사과정, 민속학)
엄수경(목포대 대학원 석사수료, 민속학)
송기태(목포대 대학원 석사과정, 민속학)
강평년(목포대 대학원 박사과정, 지적도시정책협동과정)
박정일(목포대 임해지역개발연구소 연구원, 도시계획)
최은정(목포대 역사문화학부 3년, 역사학)
김재정(목포대 역사문화학부 3년, 역사학)

7. 작업일지

- 1차 회의 : 2003년 6월 4일
 - 과업내용 설명과 업무 분담
 - 지표조사팀과 자원화팀 구분
 - 면별 책임자 선정

- 2차 회의 : 2003년 7월 10일

- [신안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워크숍] 개최

일시 : 2003년 7월 10일(목) 오후 3시

장소 : 교수회관 2층 대회의실

내용 :

1) 워크숍 주제 발표

제1주제 : 정보화시대에 요구되는 문화연구 - 문병채

제2주제 :新安군 문화·자연자원의 관광자원화 방안 - 이덕안

2) 진행 상황 보고 및 토의

○ 3차 회의 : 2003년 7월 30일

- [도서문화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구축 표준안 연구 용역 2차 워크숍] 개최

일시 : 2003년 7월 30일(수) 오후 4시

장소 : 교수회관 2층 대회의실

내용 :

1) 워크숍 주제 발표

제1주제 : DB의 작성 및 운영, 기술(안) - 문병채

제2주제 : 역사문화자원의 DB화 방안 - 고석규

2) 진행 상황 보고 및 토의

○ 4차 회의 : 2003년 8월 26일

- [도서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학술용역 중간보고를 위한 예비발표회] 실시

일시 : 2003년 8월 26일

장소 : 교수회관 2층 세미나실

내용 :

1) 지표조사 및 자원화 방안 중간보고를 위한 예비발표회

발표자: 연구자 전원

2) 중간보고서 작성 및 발표회 준비

○ 5차 회의 : 2003년 9월 29일

-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학술용역 중간보고 관련 2차 회의] 실시

일시 : 2003년 9월 29일

장소 : 교수회관 2층 대회의실

내용 :

1) 지표조사 관련 각 분야 점검 사항

① 문헌조사 결과 : 관련 문헌 및 문헌 소개의 문화제 내역 정리

② 현지 방문조사 : 현지 방문 일지, 면담자 일람, 면담 결과 정리

③ 조사대상 문화자원의 데이터베이스용 원고 작성 :

항목은 [명칭/소재지/조사(예정) 일시/조사결과물/자원 소개/전승·보존 계획/추후 계획] 등으로 구성하되, 자원의 특성에 따라 다소 변경 가능, 문화자원의 소재지를 지도에 표기

④ 문화유적 지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원화 및 활용에 유용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가능한 활용방안과 함께 제시

2) 자원화 분야 점검 사항

① 자원화 방안에 대한 일반안 제시

② 타 시군의 자원화 사례 검토

③ 현 신안군 자원화의 현황 및 장단점 파악

④ 자원화 방안 사례 발표

○ 6차 회의 : 2003년 11월 18일

-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학술용역 회의]

일시 : 2003년 11월 18일

장소 : 교수회관 2층 세미나실

내용 : 과제 수행 진행 상황 보고 및 토의

○ 7차 회의 : 2003년 12월 17일

-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학술용역 회의]
일시 : 2003년 12월 17일
장소 : 교수회관 2층 세미나실
내용 : 과제 수행 진행 상황 보고 및 자원화팀 현장조사 일정 논의

- 8차 회의 : 2003년 12월 29일
 -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학술용역 회의]
일시 : 2003년 12월 29일
장소 : 도서문화연구소
내용 : 자원화팀 흑산도·비금도·압해도 현장조사 준비 상황 점검

- 9차 회의 : 2004년 1월 14일
 -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학술용역 회의]
일시 : 2004년 1월 7일
장소 : 교수회관 2층 세미나실
내용 : 자원화팀 현장조사 내용 보고 및 토의

- 10차 회의 : 2004년 1월 27일 모임
 -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학술용역 회의]
일시 : 2004년 1월 27일
장소 : 교수회관 2층 세미나실
내용 : 최종보고서 작성 관련 점검 회의

- 11차 회의 : 2004년 2월 6일
 -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학술용역 회의]
일시 : 2004년 2월 6일(금) 오후 3시
장소 : 교수회관 2층 세미나실
내용 : 최종보고서 작성을 위한 최종 점검 회의



1부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활용방향

新安



I. 자연자원

1. 자연자원 목록

구 분		번호	자 원 명	주 소(위치)	규 모 및 사 양
1. 섬의 모습	위치와 지리	1	지리적 위치	신안군 흑산면 일원	125°26' E, N34°41'
	규모과 형태	2	크기와 형상	신안군 흑산면 일원	면적 19.7km ² , 해안선41.8km
2. 기후와 풍토	기후	3	쾌적한 해양기후	신안군 흑산면 일원	
	해수환경	5	청정해양환경	신안군 흑산면 바다	
3. 숲과 동·식물	숲과 나무	6	초령목	진리 산 77(당산)	표고20여m, 수령 500여년
		7	가거도 후박나무	흑산면 가거도	수고15m, 약500ha
	풀과 약초	8	홍도풍란	홍도 일원	천연기념물 제170호
		9	백동백	가거도와 홍도	
		10	가거도회귀식물	가거도 일대	
	새	11	홍도 회귀동식물	흑산면 홍도	
12		흑비둘기		100여마리 서식	
4. 물과 바다	습지 및 샘	13	장도습지	흑산면 장도	약5만평
5. 지형과 지질	산과 들	15	독실산	가거도 중앙에 위치	
		16	선유산	사리와 심리 사이	
	암석	17	흑산도 기암괴석	흑산면 일대	철성동굴 등
		18	영산필경	흑산면 영산도	비류폭포 등
		19	가거도 8경	흑산면 가거도	독실산 정상 조망 등
		20	홍도 10경	흑산면 홍도	남문바위 등
		21	홍도 33경	흑산면 홍도	도승바위 등
6. 지역산물	특산물	22	흑산홍어		연 50여마리 내외
7. 인문 경관	포구경관	23	예리항경관		
		24	한국의 알카트라즈		
	다리과 길	25	상라산성 가는 길		약800여m
8. 공원과 관광지	천연기념물	26	구홀도해조류번식지	흑산면 가거도 산2	천연기념물 제215호
		27	홍도천연자원보호구역	흑산면 홍도 전역	천연기념물 170호

구 분		번호	자 원 명	주 소(위치)	규모 및 사양
8. 공원과 관광지	낚시터	28	홍도낚시터	흑산면 홍도	돔, 농어, 방어, 우럭
		29	가거도낚시터	흑산면 가거도	돔, 농어, 방어, 우럭
		30	태도낚시터	흑산면 태도	돔, 농어, 방어, 우럭
		31	영산도낚시터	흑산면 영산도	돔, 농어, 방어, 우럭
	해수욕장	32	흑산해수욕장	흑산면 진리	길이 4.0km, 폭 50m
		33	홍도해수욕장	흑산면 홍도	
	포토존 및 조망점	34	홍도 일몰일출	홍도1리 송신소 언덕	
		35	홍도등대	홍도2리 등대	
공원 및 전시공간	36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면 전역	14번째(1981. 12. 23지정)	
	37	홍도난전시설	홍도 홍도1리		

2. 자연자원 현황

1) 흑산도의 지리적 위치

▶ 우리나라 행정 구역상 최 서남단에 위치

전남 신안군 흑산면 어미섬. 이 섬을 중심으로 홍도, 대둔도, 영산도, 다물도 등 크고 작은 유인도 11개, 무인도 89개의 총 1백 개 섬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군도로 이루어진 섬이다. 지리적으로는 동경125도 26분, 북위 34도 41분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 구역상 최 서남단에 위치한 흑산도는 북쪽으로는 홍도, 남쪽으로는 상대도, 소흑산도 등 부속섬 들의 교통 중심지이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흑산도는 옛날 유배의 섬에서 60년대에는 어업 전진기지가 들어선 풍어의 섬으로 그리고 1970년 이후 홍도의 절경이 널리 알려지면서부터는 홍도관광을 위한 발단이 섬 역할을 해오다가 1980년 이후로 영산팔경 등 스스로 볼거리를 장만해서 머물렀다 가는 섬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근해에서 오징어가 많이 잡혀 풍어의 섬으로서 옛 영광을 되찾고 있다.

2) 흑산도의 크기와 형상

흑산도는 면적 19.7km², 해안선 길이 41.8km, 인구 5천 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흑산이란 이름은 산과 바다가 푸르다 못해 검게 보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은 전형적인 아름다운 어촌으로, 홍도를 비롯하여 국민적 관광지로 자리잡은 영산도, 태도군도, 가거도, 만재도 등 수많은 섬을 북서쪽으로

넓은 오지랖으로 껴안고 있는 형국이어서 우리나라 거문도와 함께 천혜의 항만조건을 갖추고 있는 몇 안 되는 섬 중의 하나다. 또한, 먼바다로 파도작용이 심해 해식애가 발달한 지형에 기인하여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섬 주변의 기암괴석과 갯가지 이야기들이 담긴 동굴들이 널려 있다. 배를 타고 섬 주위를 일주하는 해상 유람은 흑산도 관광의 백미이다. 서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블루토파즈빛 바다와 기암괴석들이 눈을 땔 수 없게 만든다.

3) 쾌적한 해양성기후

▶ 하계서늘 동계온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불쾌감을 갖는 지수가 83임에 비해 압해지역은 75 정도이고, 체감온도를 나타내 주는 윈드칠지수(windchill index)가 내륙지역에 비해 10 정도 높고, 쾌청지수 역시 5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자연에 의해 받는 스트레스가 아주 낮음을 보여주고 있어, 육지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이곳에 오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곳이다. 또한, 여름에는 비교적 서늘하며 겨울에는 온화하여 쾌청한 날씨가 유지되는 날이 많고(최난월 26.5℃이고 최한월 2.3℃임), 해수온도 역시 겨울철 난류(쿠로시오해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평균 수온이 12℃로 유지되고 있어 인간에 적합한 기후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4) 청정해양환경

▶ 적조가 발생 못하는 해역

압해도 바다 밑에는 비옥한 점토 혹은 사질토가 두껍게 쌓여있어 갯것과 해초의 농장을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얕은 바다에는 김 등의 해초류 양식장이 널려있다. 그러나 이곳에는 지금껏 적조가 발생한 일이 없고 아니 앞으로도 발생하지 못할 것이다. 해안에는 평균 3m 이상의 큰 조차는 해수 해수를 수직적으로 섞고, 빠른 조류흐름(들물은 시계방향, 썰물은 시계반대방향, 사리 때에는 2~3노트의 속력을 보이고 연안과 섬 사이 유속은 6~7노트 되는 곳이 많음)은 해수를 수평적으로 섞어버리는 활발한 해수순환 운동은 적조 발생의 틈을 주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활발한 수직적 해수순환은 저층의 풍부한 영양염류 공급을 활발하게 하여 냉수에 적합한 어종의 생태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고, 조류가 활발한 지면과 접하는 해역은 먹이사슬의 기본적인 요소를 구비하게 하여 건전한 생태계를 갖게 하고 있다. 해안에는 부유성 식물이 많고, 어족

이 풍부한 어장이 형성되게 한다.

5) 초령목

▶ 귀신을 불러들이는 나무

초령목은 흑산도 진리 산 77번지(당산) 성황림에 위치한다. 초령목은 목련과에 속하며, 학명은 *Michelia compressa* (Maxim)이다. 초령목은 난대수종으로, 상록활엽수이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균락은 없고, 일본과 대만에서 자생한다. 초령목의 우리 나라 이름은 '귀신



초령목

나무'이다. 일본에서는 빗죽이 나무 혹은 신목이라 부른다. 초령목이라 불리게 된 까닭은 일본 사람들이 신단 앞에 초령목가지를 늘어 놓고 신령을 불러낸다는 뜻에서 붙여졌다고 한다. 흑산도 주민들 역시 가지를 꺾어 불전에 꽂아 영령을 부르는데 사용하였다. 대만에서는 '대만함소' 혹은 '편함소'라 칭한다.

흑산도 진리 초령목은 높이는 20m이고 수령은 500여 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제주도와 흑산도에서만 서식한 수목으로 거의 멸종되었다. 초령목은 봄철에 가지 끝에 흰색 꽃이 피고, 밑부분은 붉은 빛이 감돈다. 주머니처럼 생긴 열매 속에는 붉은 종자가 2개씩 매달려 있다. 흑산도 진리의 초령목은 현재 고사되었으나 주변에 어린 초령목 30여 그루가 자생하고 있고, 1992년 10월 26일 천연기념물 제369호로 지정되었다.

6) 가거도 후박나무

▶ 한약재로 이용되는 나무

후박나무는 가거도 일대에 자생하는 난대성 녹나무과의 상록교목이다. 큰 나무는 높이가 15m 이상 되는 것도 있고 잎은 동백잎과 비슷하게 생겼다. 후박나무 껍질은 해열제, 소화제 등 약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한약재 원료가 된다. 속성수이면서도 방풍림 역할을 하고 보통 7년이 되면 껍질을 수확하는데 늦봄부터 하얀색과 빨간 색깔의 꽃이 피고 6월에 열매를 맺는다. 약재부분인 껍질은 한창 물이 오른 6, 7월에 나무 밑둥을 통째로 베어 껍질만 채취하고 나무통은 빨감으로 쓴다. 후박

나무는 베어내면 그 자리에서 다시 새순이 나와 자라거나 씨가 떨어져 씨가 떨어져 번식하는데 요즘은 양묘사업으로 묘목을 생산하기도 한다. 신안군내 후박나무 자생지는 흑산, 소흑산, 홍도등 약 500ha나 되며 연간 껍질 12톤을 채취해서 한약재로 팔아 소득을 보고 있다.

7) 紅島風蘭

▶ 향기가 십리에 미치는 풍란

풍란은 보기 드문 난초과(科)의 다년생 관상식물로 깊은 바위틈이나 오래된 나무에 여러 개의 뿌리를 얽혀 붙어서 자라고, 짧은 줄기는 몇 개가 모여서 함께 자라며 잎은 좌우 두 줄을 밀생한다. 풍란의 잎은 녹색의 장타원형에 중간 부분을 위아래로 가르는 한줄기 선이 골지어 패어 있고 끝은 날카롭거나 몽뚱한 것이 특징이다. 밑부분이 약간 좁으며 꽃대는 옆에서 나와 3~7cm가량 자란다. 꽃은 7월에 피고 순백색이며 3~5개가 총상으로 달리는데 꽃송이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꽃의 향기는 아주 멀리까지 풍겨진다고 해서 모두들 탐을 내는 식물이다. 풍란이 언제부터 이곳에 자생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곳 주민들에 의해서 소중히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홍도가 천연기념물 제 170호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많은 관광객들에 의해 함부로 남획되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어 버린 탓으로 거의 멸종상태에 이르게 되자 군 당국은 풍란의 번식을 위해서 온상을 마련 각종 풍란을 기르고 있다. 홍도에 풍란이 언제부터 자생하기 시작하였는지는 모르나 한때는 섬을 덮었다고 한다. 그래서 홍도는 바다 내음 특유의 비릿함이 아닌 난 향기로 그득하였다고 전한다.

금새우난초는 남부 지방의 낙엽수림 밑에서 자라며 새우난초와 형태가 비슷하고 황색의 꽃이 피는데서 이름이 붙여졌다. 노랑새우난초라고 부르기도 한다. 나도풍란은 상록수림과 침엽수림의 나무나 바위에 붙어 자라며 풍란에 비하여 잎이 크다.

8) 백동백

▶ 분재인듯한 희귀 동백

흑산면 가거도와 홍도에는 희귀식물인 백동백이 자생하고 있다. 백동백은 흡사 인공으로盆栽를 植栽해 놓은 듯한 착각을 일게 하며 식나무의 大群落과 하늘을 뒤덮은 수림, 그리고 향기가 10리를 풍긴다는 무엽란, 나도풍란, 석곡층란에 裸子, 被子 식물등 274종의 희귀식물이 밀집되어 있다.

9) 가거도 희귀식물

▶ 700여 종의 희귀식물

가거도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은 700여 종이나 된다. 주로 활엽수가 많으며 타 지방에서는 볼 수 없는 희귀식물이 많다. 주요 식물로는 후박나무, 굴거리 나무, 난류(풍란, 새우란, 춘란), 천리향, 약초(하수오, 사삼, 현삼 등 19종이 자생하고 있음), 산과일(명, 보리뽕, 지근두 외 4종) 등이다.

10) 흑비둘기

▶ 진주 빛이 나는 새

흑비둘기는 흑산면에 약 100 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흑비둘기는 몸집이 38cm로 햇빛 아래 근거리에서는 진주 빛이 나는 녹색과 광택이 있는 흑자 색을 띤다. 1936년 8월 26일 울릉도에서 잡힌 암컷 1마리의 표본이 처음으로 학계에 소개되었다. 그 후 56년과 71년 울릉도에서 발견한 것을 비롯, 61년 1월에는 전남 완도군 보길도 예송리 동백나무 숲에서 확인되었고, 70년 8월에는 가거도에서 각각 확인되었다. 이 비둘기는 대개 일정한 채식지를 찾아 날아오며 잠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나무 위에서 뿐만아니라 땅 위에 내려 와서 채식을 한다. 5~6월에 1개의 알을 낳는다.

11) 홍도 희귀동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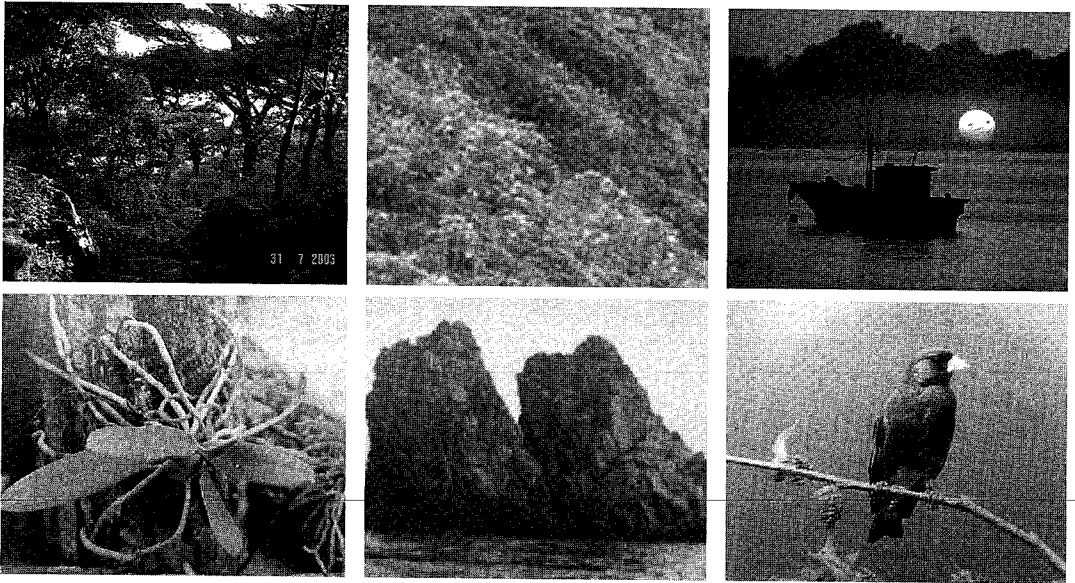
▶ 희귀 동식물의 보고

홍도는 지리적 위치와 해양성기후의 영향으로 내륙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희귀식물이 자생하고 있으며, 해안에는 수많은 기암절벽이 다양한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어 독창적인 경관을 연출하고 있는 생태적으로나 경관적으로 매력적이다. 그 중 대표적인 관광자원은 다음과 같다.

육상동물로는 복족류(복족류) 4종 · 다족류(다족類) 2종 · 곤충류 155종 · 파충류 4종 · 조류 54종 · 포유류 1종 등이 확인되고 있고, 새는 10목 19과 55종 이며 대부분 아열대계와 동양계의 종류로 구성되는데, 주목되는 새는 흑비둘기 · 염주비둘기 · 흑로 등이고, 특히 꿩이갈매기가 번식할 수 있는 천연적인 입지조건을 갖춘 관계로 4, 5월이면 약 3,000여 마리가 대집단으로 번식하고 있다.

수목은 동백나무, 구실잣밤나무 등 274종이 자라고 있는데, 특히 홍도1리의 당산림은 흰동백 · 식나무군락 등 상록활엽수 24종과 낙엽활엽수 30종으로 구성된 원시림을 이루고 있어 관광적 가치

가 크다. 최근에는 상록활엽수(후박·가시나무·잣밤나무) 군락지 447ha의 난대림자생군락이 발견되어 산림청은 이들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보호·관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초본식물은 양치식물(20종), 피자식물(233종) 등 총 5,445종이 분포하고 있는데, 특히 무엽란·나도풍란, 석곡·풍란 등 난과식물의 종류가 많이 자생하고 있다. 또한, 바다생물은 해조류 24종, 무척추동물류 117종, 어류 233종 등 총374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12) 장도습지

▶ '자연의 고문서'

흑산도 동쪽 2km쯤 떨어진 곳에 장도라는 섬이 있다. 섬에는 해발 267m를 이루는 제법 큰 산을 기점으로 약 180~200m에 이르는 산등성이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그 중앙에 분지형태의 습지가 거의 5만평 가량이나 펼쳐져 있다. 분지형 습지는 흑산도 본도 쪽으로 경사진 곳을 따라 개울을 만들며 흘러내리고 있다. 그래서 섬 하면 흔히 물이 귀한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곳 장도는 이 습지의 영향으로 예전부터 물이 풍부해 인근을 지나는 어선들이 배에 물을 선적하곤 했던 곳으로 이용되어져 왔다.

습지의 바닥에는 수 천년 동안 채 썩지 않은 식물들이 쌓인 泥炭層(보통 식물이 죽으면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땅 속에 묻히게 되는데 기온이 낮고 습기가 많은 습지에서는 식물이

죽은 뒤에도 썩거나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쌓여 연못 같은 형태로 짙은 갈색의 층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을 '泥炭層'이라 한다.)이 두껍게 층을 이루고 있어 스펀지처럼 빗물을 담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층 속에는 썩지 않고 남아 있는 식물줄기, 꽃가루 따위가 들어 있다. 이들을 분석하면 습지의 생성연대를 알 수 있어 수천 년에 걸친 그 지역의 기후 변화와 식물의 변천과정 설명해 낼 수 있다. 특히 이곳 습지는 고층·중층·저층습원 (장도습지는 아래로부터 갈대와 사초 등이 자라는 '저층습원', 이탄이 소규모 쌓여 있는 중간에는 예자풀이나 진퍼리새 등이 자라고 있는 '중간습원', 그리고 그보다 더 이탄이 두껍게 쌓여 있어 오직 빗물만으로 자랄 수 있는 물이끼류 등이 나타나고 있는 '고층습원' 등이 한 곳에 구분되어 한 곳에서 나타난다.)에서 나타나고 있어 다양한 동·식물 서식 환경을 담고 있어 가치가 더욱 크다. 그야말로 종합적인 자연의 '자연의 고문서' 또는 '타임캡슐'인 것이다. 따라서 장도습지는 한국 서남해역 더 나아가 우리나라 고지질 환경 및 기후변화를 주고 있는 열쇠인 것이다.

현재 이곳에는 약 400여 종의 식물과 30여 종의 나비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계곡에는 이 습지에 의해 정화된 1급수 물이 흐르고 있어 가재, 또 지금은 거의 자취를 감춘 토종 식용달팽이도 눈에 띄고 있다.

13) 미네랄해수

▶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는 해수

해수는 마음과 몸의 치유효과가 있다. 압해도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이다. 그리고 조류흐름이 빠르고 천해를 이루고 있어 해수순환이 잘 되는 해수여건으로 게르마늄과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다. 바다는 생물의 진원지로 알려져 있다. 해수에는 미네랄이 가장 다양하고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또한 사람 몸의 구성성분과 가장 가깝다고 알려져 있다. 수분과 염분의 비율이 같은 것이 그것이며, 인간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미네랄이 그것이다. 따라서 해수가 갖는 건강보양의 효과는 크다. 해수욕하면 샤워효과, 갯바람을 쏘이면 에어로졸 효과, 섬 경관을 바라보면 리럭스효과, 해수를 만지면 스트레스해소 효과, 해조를 몸에 붙이면 해저토백효과, 해염공기를 마시면 미네랄 흡수 효과 등이 그것이다. 신안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연자원을 마음과 몸의 치유에 도입하는 개념으로 하는 관광전략이 요구된다.

14) 독실산

신안군에서 가장 높은 산은 가거도에 있다. 바다가 깊은 만큼 위로도 높이 솟아 있다. 너무 높아 항상 안개를 산머리에 이고 있어 신비감을 더해 준다.

15) 선유산

큰 산이라고도 부르며, 흑산면 사리와 심리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뒤에 넓은 바위가 있고, 옆에는 동그랗게 생긴 바위(돌)들이 있는데 신선들이 장기를 두고, 공기놀이를 하던 곳이라고 한다.

16) 흑산도의 기암괴석

▶ 칠성동굴

칠성동굴은 높이가 20미터이고 한쪽 길이는 약 100미터로써 입구는 하나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7개의 동굴로 형성되었으며, 장보고가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흑산도를 거쳐서 당나라에 교역할 때 뱃길에 무사함을 빌기 위해서 이곳에 칠성탑을 쌓아놓고 용왕제를 모셨다 하는 전설이 있는 이 동굴은 물이 많이 들어오면 후면동굴로 작은 전마선을 타고 들어와 뱃놀이로 더위를 잊고 무엇이든 지 자기의 소원 하나씩 빌고 오면 소원이 성취된다는 유명한 칠성동굴이다.

▶ 석주대문

바다수면에 바윗돌로 만들어진 대문인데 이 대문을 해초선이 드나들며 낚시대를 드리우고 석주에 앉아있는 어부들도 적지 않아 한철 좋은 풍경이다. 모양새가 코끼리와 같다 하여 코끼리 바위라고도 불리우며, 구멍바위라고도 한다.

17) 永山八景

▶ 영산도의 비경

흑산도에서 남동쪽으로 6.4km 떨어져 있는 永山島는 永山八景으로 이름을 떨친다. 섬 전체가 태초의 신비 그대로 깎아 세운 듯한 기암절벽이며 자연의 조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한 폭의 그림이다. 거울같이 맑고 푸른 바닷물이 파도에 밀려 물보다 묘함에는 신선도 감탄했다는 곳이다. 영산팔

경은 堂山蒼松, 箕峰朝輝, 飛流瀑布, 天然石塔, 龍生岩窟, 鼻聲石窟, 石柱大門, 門岩歸雲을 일컫는다. 이를 소개하면, 당산창송은 어촌의 미신인 당산의 고송이 기와집 2체에 둘러 쌓인 채 아름다운 풍경을 이룬다는 뜻이며, 기봉조휘는箕가 세운 강산의 동쪽 높은 봉우리는 대초에 측량을 할 때 측량판을 놓은 흔적이 돌에 박혀 선명한 현상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 비류폭포는 아슬아슬한 층암절벽에서 폭우같은 폭포가 내리는데 몸에 맞으면 능히 만병을 치료한다고 아려졌으며 얼음물처럼 차갑고 겨울에는 따스한 기운이 스미는 것이 특징이다. 천연석탑은 석탑아래 우물이 있고 이 물을 세 번만 마시면 탑운을 받는다는 전설이 스며있다. 용생암굴은 아득한 옛날에 용이 뚫고 나와 승천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비성석굴의 신비는 수면 위에 떠있는 바위가 사람의 코처럼 생겼고 바닷물이 코로 들어가면 코고는 소리와 고탈소리처럼 들리는 진풍경을 보고들을 수 있다. 석주대문은 자연적으로 생긴 바위돌의 대문인데 수면위로 전마선이 지나들며 대문 돌기둥에 앉아 태공들이 낚시대에 드리우기도 한다. 문암귀운은 문암산의 높은 구름이 석주 대문 위에 둘러 쌓인 장관은 마치 신선이 구름을 타고 오르내리는 환상을 느끼게 한다.

18) 가거도 8경

▶ 가거의 아름다운 비경

홍도사람들이 크고 작은 여와 절벽에 갖가지 이름을 붙여 38경을 자랑하듯 이곳 가거도에서도 8경을 내세운다.

제1경 독실산 정상에 조망은 신안군에서 가장 높은 가거도의 주봉에 오르면 동쪽에 진도, 북쪽에 신안군의 여러 섬이 보인다. 산 위에서 섬을 내려다보면 거대한 거북이 북서쪽에 있는 국홀도를 향해 헤엄쳐가듯 보인다. 그러나 산아래 바다가 보이는 것은 일년 중 80여 일에 불과하고 대개는 안개가 산기슭을 감싸 운해에 떠가는 산봉우리의 신선감을 맛볼 수 있다. 정상에 전남 경찰청 통신시설과 막사가 있고 이곳에 생필품을 공급하는 작전도로가 나 있어서 지프차나 2톤 트럭이 오를 수 있다. 큰마을에서 도보로 1시간 반 가량 거리이며 주변식물들이 안개 때문에 이슬을 머금고 있다. 길 주변에서는 육지에서 볼 수 없는 꽃과 식생을 구경할 수 있다.

제2경 회룡산과 장군상은 鵬魚尾付이라고도 하고 큰동네; 큰몰(행정구역이름. 가거도1구)라고도 하는 동네의 북서풍을 막아주는 암벽산을 회룡산(282m)이라 한다. 이 회룡산 해안에 녹섬이 우뚝 솟아 있다. 이 녹섬을 맞바라보고 있는 큰동네 섬이라 한다. 녹섬에 빨처럼 솟아오른 바위가 이窟

島의 구멍을 맞바라보고 있어 음양의 풍수를 느끼게 한다. 이 회룡산 정상을 선녀봉이라 하고 회룡산은 바다의 용왕이 천상에 내려와 이곳 승경을 즐기는 선녀에 반해 용궁의 왕자용이 선녀봉에 오르다가 바위가 되고 말았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다. 굴섬(1,280평)을 장군섬이라 하는 것은 왕자를 호위해 용왕이 파견했으나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해 벌을 받아 섬이 된 바위라는 전설이 있기 때문이다. 회룡산은 큰동네에서 바라볼 때 한 폭의 동양화처럼 아름답다

제3경 돛바위와 기둥바위는 회룡산 북쪽 자락에 마치 범선의 돛처럼 판자꼴 바위 판석 두개가 떠 있다. 하나는 높이 20m, 너비 10m가량이고 하나는 높이 15m, 너비 6m가량이다. 백미터쯤 북쪽 해안을 더 가면 집기둥처럼 생긴 바위와 신여라 부르는 바위가 물위를 떠 있다. 절경이라 할 것까지는 없지만 재미난 얘기로 꾸며져 있어서 미소를 머금을 만 하다. 옛날 이곳에 여신이 살고 있었는데 이곳을 지나던 배가 바람을 피해 정박했다. 여신은 이 배에 타고 있던 청년에 반해 사랑을 고백했으나 이를 거절하고 청년의 배가 떠나려하자 풍랑을 일으켜 배는 전복되고 돛2개는 바위가 되었다는 것이다. 여신도 하늘의 노여움을 사서 물 속의 여가 되고 여신의 집은 허물어져 기둥만 남았다는 내용이다. 이 돛바위와 독실산 정상사이에 샷갯제가 있고 이곳에 상당이 있다. 이 상당은 이 섬에 들어와 죽은 스님의 넋을 위로하는 신당이다.

제4경 섬등 병풍바위와 망부석은 가거도는 유인등대가 있는 곳이 정북쪽이고 큰 동네(대리)동쪽 용머리가 정남이다. 회룡산 녹섬에서 향리(2구)섬등반도에 이르는 서쪽 해안을 '발면' 이라고 하고 반대로 대리(큰동네=1구)에서 대풍리(3구)에 이르는 동쪽해변을 '안면' 이라 한다. 녹섬에서 섬등반도에 이르는 반면, 중간목 '하늘개치' 까지 공동어업 제1255호로 면허된 큰동네 어업권지역이다. 섬등반도는 북쪽 목을 지키고 있는 향리(목리)에서 서쪽으로 뻗은 반도로 향리에서 보면 병풍처럼 절벽을 이뤄 아름답다. 이곳동북쪽에는 족보에 新嶼浦라고 표기한 지명도 있는데 이 절벽 중간에 아이를 등에 업은 여인같이 생긴 높이 20m가량의 바위가 물위를 떠 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애뜻한 얘기가 있기 마련인데, 이 바위는 고기잡이 나간 남편을 바닷가에 서서 기다리던 여인이 남편이 죽고 돌아오지 않아 바위가 되었다는 어촌의 상징적인 슬픈바위이다.

제5경 구절골짜락 살구꽃은 목개 향리에서 등대밑 등대 선창까지를 閻山錦이라 하고 검은 자갈밭이라 해서 가무짜지라고도 한다. 지명을 한자로 쓰고 그 풀이를 용왕과 천상선녀가 춤추며 논 곳이라는 얘기를 곁들이고 가거도 제일의 명당지라 장택고씨들이 선산을 쓰고 이곳 별장을 났다는 말이 전해온다. 등대짜지에서 소혹산도 등대에 이르는 산등성이가 가거도리 산4번지로 이곳에서 서울대 답사팀이 68년 신석기 때 조개무지와 그릇파편, 돌도끼들을 발견해 90년 2월 전라남도는 지방기념

으며 재앙을 없애고 소원이 성취되며 행운을 얻게 되고 또한 고기배가 이 석문을 지나가면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전설이 있다. 그래서 이 남문을 행운의 문 또는 만복을 내리는 해탈의 문이라고도 한다.

제3경 屏風 바위는 홍도 33비경 중 하나로 병풍을 약간 기대어 놓은 모양과 같아 병풍바위라 부르며 기암괴석이 이뤄놓은 그 멋진 절경뿐 아니라 바위틈에 뻗뻗하게 자라는 나무들 또한 마치 정성스럽게 분재를 해 놓은 양 신비스러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또한 병풍바위는 양상봉 산신령이 동남풍을 막기 위해 쳐 놓은 병풍이란 전설과 남해 용왕이 풍류를 즐기기 위해 이곳에 12폭의 거대한 병풍을 쳐놓았다는 옛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제4경 宕巾 바위는 홍도 33비경 중 하나로 먼 옛날 이곳에 귀양온 선비가 홍도의 경관에 넋을 잃고 있다가 때마침 불어온 비바람 때문에 갓과 탕건이 오래도록 물위에 떠있었다. 세월이 흘러 물위에 떠 있던 갓과 탕건이 굳어져 지금의 바위가 되었다고 해서 탕건바위라 한다.

제5경 실금리굴은 紅島十景중 제2경으로 옛날 유배 온 선비가 속세를 떠나 아름다운 선경을 찾던 중 망망대해가 바라보이고 주변에는 기화요초가 만발하여 풍우를 피할 수 있는 넓은 굴을 찾아냈는데 그는 여기서 일생동안 가야금을 타고 여생을 즐겼다하여 이를 가야금 굴이라고도 하며, 이 석굴에는 200여명이 들어가 쉴 수 있는 곳이 있으며 가야금을 타면 굴속이 아름다운 소리로 울려 퍼지는 신비한 석굴로 지금도 석굴에 들어가 눈을 감고 묵상하노라면 가야금의 아름다운 선율이 들리는 듯하다.

제6경 흔들바위는 홍도 33비경 중 하나로 바람이 불면 흔들흔들하며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나가도 흔들흔들한다고 한다. 바위 위에 위태롭게 앉아 있는 네모난 바위는 바람이 불면 약간씩 흔들거리는데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위태로움을 준다. 이 바위를 두고 홍도 사람들은 권선징악을 노래하였다. 아주 못된 사람이 지나가면 흔들바위가 떨어진다고 하여 이 밑을 지나가는 배들이 항상 긴장을 하며 다니고 있는데 이 바위는 아주 옛날 힘센 도사가 속세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올려놓았다고 한다.

제7경 칼(상투)바위는 홍도 33비경 중 하나로 바위의 모양이 마치 칼같이 생겨 칼바위라 불리고 있으며 모든 재앙과 악귀로부터 홍도를 보호하기 위해 홍도를 지키는 신이 이 바위를 세웠다고 한다. 또 이 바위는 다른 쪽에서 보면 옛날 할아버지께서 들고 다니시던 상투모양처럼 닮았다하여 상투바위라고도 하는데 홍도 사람들은 칼바위라 부르길 좋아한다.

제8경 무지개바위는 홍도 33비경 중 하나로 서해의 낙조는 홍도의 절경인데 수평선에 붉은 노을

이 물들 때 오색 영롱한 빛이 가끔 이 바위에 내리면 무지개를 타고 선녀가 내려온 것 같다하여 무지개바위라 한다. 특히 비가 내린 다음 날은 더욱 아름답다. 오색은 신혼여행을 무사하게 해주며 악귀를 퇴치하는 힘이 있어 무지개 바위에 치성을 드리면 행운을 받게 된다는 전설이 있다. 그래서 무지개 바위는 신혼여행 온 신혼 부부나 열애 중인 선남선녀들에게 인기다. 해가 질 때쯤이면 이 바위는 온통 오색 빛으로 물드는데 그때 신혼 여행객이 치성을 드리면 백년해로를 함은 물론 아들을 얻는다는 속설이 있다. 유람선 선장은 이곳을 지날 때면 신혼 여행객이나 연인들을 위하여 치성 드릴 시간을 주는 배려를 잊지 않는다.

제9경 제비바위는 홍도 33비경 중 하나로 봄이 되면 제비들이 제일 먼저 이 바위로 모여들기 때문에 제비바위라고 하며 재미있게도 바위의 모습도 제비를 많이 닮았다. 이 바위는 출어를 나간 어부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어선들의 표지판이 되기도 한다. 등대가 없던 시절, 홍도 어부들은 이 바위를 보고 뱃길을 잡았다고 할 만큼 특징 있는 바위다.

제10경 돛바위는 홍도 33비경 중 하나로 이 돛 바위 부근은 서해의 고기떼들이 모여드는 낚시터로 유명한 곳이다. 옛날 노인이 낚시를 하다가 깜박 잠이 들었는데 그때 마침 커다란 돛 한 마리가 낚시 바늘을 물었다. 깜짝 놀란 노인은 낚시대를 있는 힘을 다해 위로 당겼는데 너무나 세게 당긴 나머지 고기가 바위에 박혀 버렸다고 한다. 수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고기가 바위에 그대로 새겨져 있어 돛 바위라 불린다. 돛바위는 모양만 돛같이 생긴 것 뿐만아니라 실제 돛 등의 고기가 많이 잡히기도 한다. 홍도를 찾는 바다 낚시꾼들은 이곳에서 낚시 줄을 던지고 나면 육지에 나가 할 말이 많아진다. 그만큼 대어가 낚이고 풍광이 뛰어난 곳이다.

제11경 기둥바위는 홍도 33비경 중 하나로 고대 신전을 받치는 튼튼한 기둥처럼 네모져 늘씬하게 하늘을 향하여 뻗어있다. 이 바위가 홍도 전체를 받치고 있고, 이 바위의 힘으로 홍도를 물위에 지탱하고 있으며 이 기둥이 무너지면 큰 변이 난다고 이곳 주민들은 믿고 있다. 깎아 놓은 듯 웅장하고 네모 난 10여m의 기둥바위 사이사이 동굴에는 이 섬의 엽(큰뱀)이 살고 있어 함부로 들어 갈 수 없다고 한다.

제12경 E.T바위과 제13경 시루떡 바위, 제14경 주전자 바위, 주전자 바위와 시루떡 바위는 홍도 33비경 중 하나로 시루떡 바위는 시루떡을 덮어놓은 것 같다고 하여 시루떡 바위라 하며, 그 옆 주전자 모양의 바위를 주전자 바위라 한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용왕이 사해의 충신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주었다. 용왕이 신하들을 위해 산해진미를 준비하였는데 그 당시 썼던 술 주전자와 시루떡이 굳어 주전자 바위와 시루떡 바위가 되었다고 한다. 이 전설은 용왕의 실체를

믿고 의지하던 뱃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리고 시루떡바위와 주전자바위가 적당한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어 이 전설은 더욱 설득력을 지닌다.

제15경 원숭이 바위는 홍도 33비경 중 하나로 원숭이가 서있는 것 같은 모습이라 하여 원숭이 바위라 한다. 용왕의 잔치에 참석했던 원숭이가 홍도의 아름다운 경치에 취해 넋을 잃고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러나 훗날 고향이 그리워져 해변가에 나와 먼 남쪽 고향을 생각하면서 돌로 굳어져 오늘날에도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한다.

제16경 龍沼 바위는 홍도 33비경 중의 하나로 용이 되려다 죄를 지어 용이 못되고 천년을 기다렸다가 이무기의 허물을 벗고 하늘로 승천하는 순간 임신한 여인이 바다에 나와 해초를 뜯다 용을 보고 고향을 지르자 용이 승천하지 못하고 피를 토하고 분통하여 절벽에 자기 몸의 형태를 남기고 다시 용소로 들어갔다는 전설이 있다. 옛날에는 이 섬에 까마귀가 많이 서식하였던 곳인데 용이 피를 토한 뒤로는 까마귀가 한 마리도 날아오지 않는다고 한다.

제17경 大門 바위는 홍도 33비경 중의 하나로 옛날 중국 청나라와 교역을 할 때 풍랑을 만나면 이곳에 배들이 대피를 하였는데 이상스럽게도 이 대문바위 안으로 들어만 오면 거짓말처럼 바람이 잠잠해져 다음 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믿거나 말거나 식의 전설이지만 폭풍우를 피하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임에는 틀림없다.

제18경 좌불상, 제19경 거북바위는 홍도 10경 중 제9경으로 거북이 바다에서 육지로 기어올라가는 형상을 하고 있는데 매년 정월 초사흘 날 당제를 지낼 때 이 거북바위가 용신을 맞이한다 하여 홍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지금도 당제를 지낼 때 짚 허수아비로 용왕의 모습을 만들어 새로운 복을 가져오도록 바다 위에 띄워 수궁으로 보내고 있다. 이 거북은 용신을 맞이하고 액귀를 쫓고 섬사람의 생사화복을 관장하며 풍어와 안전항해를 보살피 주는 거북선이다. 또한 옛날 청나라 해적의 약탈이 심할 때는, 그들의 배가 올 때 언제나 풍랑을 일으켜 홍도섬을 지켰다는 전설이 있다. 지금도 거북이는 홍도를 수호하는 신으로 주민들의 추앙을 받고 있다.

제20경 자연 석탑 바위, 제21경 부부탑은 홍도 10경 중 제7경으로 아주 옛날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꿈에 백발노인(신령)이 나타나 “목욕재개하고 이 탑에 축원하면 아들을 얻으리라”고 현몽 하였기에 그대로 했더니 아들을 얻게 되었다. 그 후부터 아이 없는 부녀자들이 이 탑에서 소원성취를 축원하였으며 이 바위는 이 지역에서 힘이 가장 세며 부부금실을 좋게 하는 영험이 있다하여 부부탑이라 하였고, 남근바위 또는 서방바위로도 불리지고 있다.

제22경 석화동굴은 홍도 10경 중 제3경의 천연동굴로 그 규모가 웅장하고 석양낙조시 동굴 속

풍경은 오색찬란하여 동양최고의 일물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천장에 달려있는 석순이 100년에 1cm가 커가고 있어 그의 나이를 알 수 있는 동굴로 이 굴에 들어가면 옆 동굴로 통할 수 있는 구멍이 있으며 석양에 멀리서 고깃배의 어부가 이 굴을 바라보면 굴속에서 햇살이 반사되어 오색찬란한 꽃이 핀 것처럼 무릉도원의 입구로 착각한다고들 하여 일명 꽃동굴이라고도 한다.

제23경 독립문(獨立門) 바위는 홍도 10경 중 제8경으로 옛날에 중국으로 가는 배들이 드나드는 북문이며 그 모양이 서울에 있는 독립문과 꼭 같아서 3·1만세 이후 독립문으로 부르고 있다. 이곳을 마을에서는 북쪽에 있다해서 북문이라 부르고 구멍바위라고도 한다.

제24경 탑섬은 홍도 10경 중 제4경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탑의 형태로 이루어진 섬으로써 섬의 상단에는 편히 휴식할 수 있는 넓은 평지가 있고 낚시터로도 아주 좋은 곳이며, 사진작가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섬이다. 여기에 와 있으면 외국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하여 외도의 섬이라고도 하며, 어느 작가는 봄에 피는 꽃같이 아름답다하여 영춘화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도 했다.

제25경 대풍금, 제26경 수력말과 중바위는 홍도에서는 밀물과 썰물의 조류가 가장 센 곳으로 써 배들이 이 부근을 향해 할 때는 항상 위험을 느끼며, 종 모양으로 움푹 패인 바윗돌이 물결에 부딪치면 마치 종이 울리는 소리를 내므로 그 소리의 강약에 따라 안전항해를 했다고 한다. 즉 종소리가 크게 나면 물결이 사나움을 직감하고 먼바다의 항해를 중단하였고 종소리가 작을 때에는 좋은 날씨로 항해를 하였다고 한다.(큰바람이 불면 바람보다 먼저 파도가 밀려오기 때문에 물결이 높아 바위에 부딪치는 소리가 크므로 종소리같이 들렸다고 한다.)

제27경 망제, 제28경 벼락바위, 제29경 슬픈여바위는 홍도 10경 중 제6경으로 아주 옛날 마음씨 고운 부부가 일곱 남매를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해 명절을 맞아 재물과 아이들의 새 옷을 사기 위해 물으로 나갔다. 부모님이 돌아오신다는 날을 기다리던 일곱 남매는 산봉우리에 올라가 돛단배가 오기를 기다리며 물으로 가는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던 차 저 멀리 수평선에 부모님이 타고 갔던 배가 오는 것을 보고 즐거워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때마침 돌풍이 심하게 불어 많은 짐을 싣고 오던 돛단배는 큰 파도에 덮쳐 파선되고 말았다. 이를 본 일곱 남매는 부모님을 부르면서 물살이 센 바다로 걸어 들어가 그대로 굳어 바위로 변해버렸으며 지금도 물이 쓰면 크고 작은 일곱 남매의 가련한 넋이 부모님을 부르고 있는 것처럼 보여 슬픈여 또는 일곱 남매 바위라 불리고 있다.

제30경 공작새 바위는 공작새 바위는 홍도 10경 중 제10경으로 세 가지 모양을 나타내고 있

으며 우측에서 보면 모자상 같고 정면에서 보면 공작새 같으며 좌측에서 보면 말이 하늘로 치솟는 형상을 지닌 천마상과 같다. 이 주변 산세의 풍치가 홍도에서는 가장 빼어나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방불케 하는 곳으로 이 바위를 아름다운 공작새에 비유하여 공작새 바위라 불려지고 있다

제31경 洪魚屈은 홍도 33비경 중 하나로 5톤급 소형선박 10여 척이 들어갈 수 있는 동굴로서 북서풍이 불면 훌륭한 대피소가 되는 동굴이다. 홍어잡이 어선들이 강한 북서풍을 만나면 이 동굴에 들어와 대피하였다 하여 홍어굴이라 부르고 있다

제32경 萬物相 바위는 홍도 10경 제5경으로 보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만가지 형상이 새겨져 있는 서해 최고의 자연예술 조각공원으로 아침 낮 저녁 각기 다른 색 또는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 이 바위는 아주 멋진 해적들이 있어 어느 도사가 이들에게 아름다운 마음을 넣어주기 위해 만가지 물형을 만들었으며 이를 보고 해적들은 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며 만물상을 보면 모든 악이 착한 마음으로 변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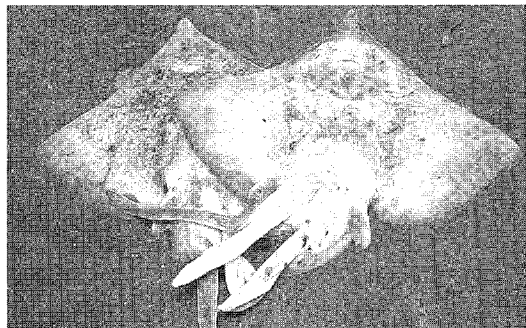
끝으로 가마니를 쌓아 놓은 것 같은 제33경 노적상이 있다.

21) 흑산홍어

▶ 거시기가 들인 고기

홍어는 가오리와 비슷하게 생긴 것으로 몸이 마름모꼴로 폭이 넓으며 머리는 작고 주둥이는 돌출되어 있다. 꼬리의 등쪽 중앙부분에는 수컷의 경우 1줄, 암컷은 3중의 날카로운 가시가 줄지어 있다. 수컷은 배지느러미 뒤쪽에 2개의 생식기가 있어 한번에 두 마리의 암컷과 교미할 수 있다. 운 좋은 낚시꾼은 한 마리를 낚으면 두 마리를 덤으로 잡기도 한다.

흑산 홍어는 화끈하고 찰기 진 감칠맛이 다른 지역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특히 군산이나 인천근해에서 잡는 것 보다 착 달라붙는 찰진기가 뛰어나다. 홍어를 즐겨 먹는 사람들은 생것을 두엄더미에 파묻어 잘 삭히면 나오는 약간 상한 맛인 오감을 관통하는 특 쏘는 맛(역설적인 향수)을 갖는 살과 오돌오돌 씹히는



홍어

뼈와 함께 즐긴다. 이런 짜릿한 미각에 자극되어 많은 사람들이 흥어를 찾게 된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막걸리 안주로 먹는 흥탁, 삶은 돼지고기를 얇게 썰어 배추김치와 함께 먹는 삼합, 회를 만들어 먹는 흥어회, 내장을 국으로 끓인 흥어애국 등의 형태로 곧잘 먹는데 그 맛은 말로써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다.

흑산도 흥어가 유명해진 것은 오래 전이다. 선조들이 흑산도에서 고기를 잡아 육지에 팔러 나갈 때 달포가 걸려 물에 도착하면 대부분의 고기가 상해 먹지 못하였으나 유독 흥어만이 먹어도 탈이 나지 않아 그 때부터 며칠씩 보관하였다가 먹는 전통이 내려왔다 한다. 《본초강목》에는 邵陽魚라 하고, 모양이 연잎을 닮았다 하여 荷魚라고도 하였으며, 생식이 께이하다 하여(두 개의 생식기를 지님) 海淫魚라고도 하였다. 《자산어보》에는 분어라 하였고 속명을 洪魚라 하였다.

흥어는 바닷물의 온도에 따라 움직이고 빨과 자갈이 섞인 사질층에서 서식하는데 미끼 없이 주낙으로 잡아 올린다. 매년 추위가 몰아치는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성어기이나, 이 때 해양환경 악화로 위험이 뒤따르고 게다가 연간 100톤의 적은 양밖에 잡히지 않아 품귀현상에 값이 비싸 구하기가 힘들 정도다. 산지에서 8kg짜리 흥어 한 마리 값이 50만~60만원이나 대도시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22) 예리항 경관

▶ 조기파시가 열렸던 곳

흑산도는 두개의 풍경을 가지고 있는데 어업전진기지인 예리항의 풍경이 유흥업소와 숙박시설로 흥청대는 분위기라면 면소재지인 진리는 학교와 아름다운 교회와 성당이 있어 차분하고 정적인 분위기여서 커다란 대조를 이룬다. 예리항에는 유람선이 있어 흑산도의 절경을 구경할 수 있는데 이 배는 수시로 출항한다.

과거에는 조기파시의 최대 어시장을 형성했던 곳으로 유명하며, 현재도 밤늦도록 불야성을 이루는 흥청대는 환락을 형성하고 있다.

23) 한국의 알카트라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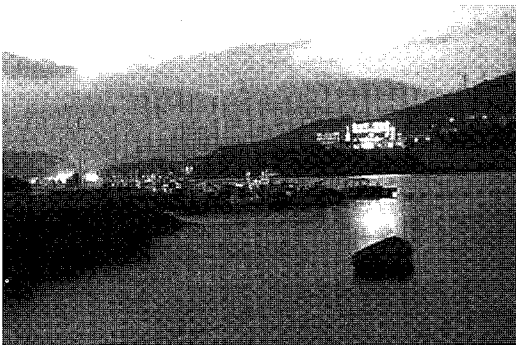
▶ 물아래 다리가 나타난 감옥섬

흑산도 진리2구 앞에는 獄島이란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다. 면적 0.02km², 해안선길이 1.26km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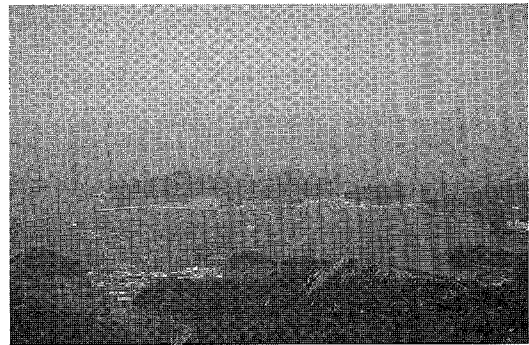
도 되는 섬인데, 그 크기나 역사적 의미에 있어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알카트라즈섬(Alcatraz Island)과 매우 유사한 면이 있어서 흥미롭다.

옥섬은 울창한 해송과 동백나무로 뒤덮여 있어 경관이 매우 아름다우며, 해안에 단애가 형성되어 있고, 마을 앞 바닷가로부터 대략 150m 정도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심 또한 3~5m에 이르고 있어 요새와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실제로 이 섬은 조선시대 수군진이 진리마을에 설치되어 있을 때 죄수들의 감옥으로 쓰였던 섬이다. 바로 한국의 알카트라즈인 것이다. 오늘날까지 獄島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흑산도에는 흑산현과 일종의 수군진인 흑산진¹⁾이 설치되어 있었다. 현재 섬에는 죄수에게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움집으로 사용되었던 동굴(약 2m길이), 마당처럼 생긴 취사바위, 죄수가 식량을 얻기 위해 낚시를 했던 거북머리바위 등이 남아서 죄수들의 애환을 전해주고 있다.

이 섬은 또한 모세의 기적과 괴이한 풍수지리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이 곳은 물이 들 때는 두 개의 섬으로 되지만, 빠질 때는 하나의 섬으로 되어 걸어다닐 수 있다. 물아래 다리(모세의 기적)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물이 빠질 때 보면 마치 거북이 형국을 지니고 있다. 마을 쪽의 자갈들은 거북의 배설물, 큰 산등성이는 거북의 등, 그리고 앞의 작은 섬은 꼭 거북머리처럼 보이는 것이 누가 봐도 예사롭지 않다. 이곳 마을 사람들 역시 옛날부터 이를 풍수적으로 해석해왔다. 거북이가 똥을 싸고 바다로 나가는 형국을 보이고 있어서(들어오는 형국이어야 하는데) 마을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해 오고 있다(실제로 인근의 별 볼일 없던 예리나 읍동, 진리1구 등의 마을은 훨씬 선진화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다).



흑산항



흑산항의 옥섬

1) 조선 초기에는 별장(부관 종5품) 1명, 군관 2명, 이(吏) 1명, 지인(知印) 2명이 있었으며, 우수영에서 관장하였고(여지도서, 나주목 진보), 후에 수군만호가 설치되기도 하였다(대동지지, 나주목 진보).

또한, 인근에는 배낭기미해수욕장이 있다. 깨끗한 모래와 바닷물로 경사가 완만한 천연해수욕장으로 길이는 600m 폭은 80m에 이르며, 주변에 흑산도 아름다움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학바위, 칠성동굴, 도승바위, 촛대바위, 어머니바위, 물개바위, 쌍용바위, 홍어동굴 등 흑산도의 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지리적인 곳에 위치해 있다.

현재, 섬의 산 정상에는 1970년대 초(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세워진 정자(우산각)가 있어, 이곳에서 내려다보면 흑산항이 한 눈에 들어오며 만 안에 즐지어 설치되어 있는 양식장 모습이 그림같이 보인다. 전망대로서의 관광적 가치가 큰 곳이다. 현재 선착장 끝에서 30m 정도만이 육지와 미연결되어 있다. 이 구간을 아름다운 무지개구름다리 형식으로 연결시키고, 산책로를 조성한다면 또 다른 관광명소가 될 것이 분명하다(알카트라섬 참조)

알카트라즈 섬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피셔먼스워프(Fisherman's Wharf)에서 3km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섬이 있는데, 이곳이 '알카트라즈(Alcatraz) 섬'이다. 알카트라즈는 스페인말로 '벨리컨'이라는 뜻인데 1775년 스페인 탐험가가 붙인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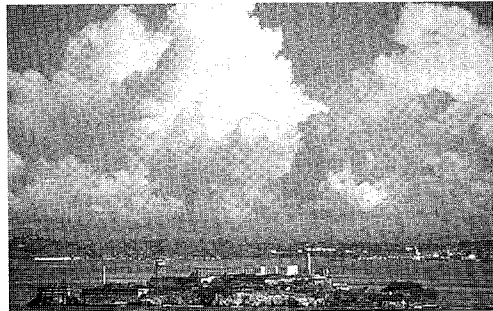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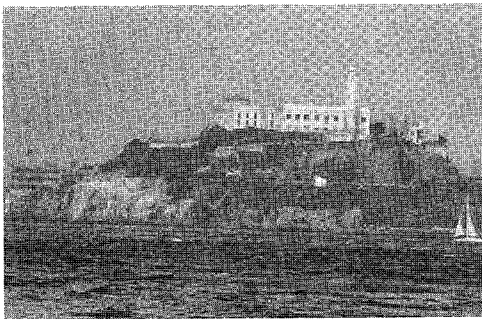
섬에 처음으로 요새가 세워진 것은 1853년 미국 육군에 의해서였고, 1856년에 군 형무소가, 1933년에는 연방 형무소로 지정되었다. 그 후 30년 동안 섬은 미국에서 가장 질 나쁜 범죄자를 수감한 곳으로 악명을 떨쳤다.

연방 형무소였을 당시 투옥된 2백 여명의 죄수는 주로 은행 강도, 연쇄 살인범 등으로 다른 감옥에서 도저히 교정할 수 없는 범죄자가 대부분이었다. 유명한 인물로는 마피아의 제왕인 '알 카포네' 유괴범으로 악명 높았던 '머신건 케리' 등이 이곳에서 옥살이를 했다.

바위투성이의 가파른 요새처럼 세워진 감옥, 빠른 조류와 낮은 수온 때문에 살아서는 결코 탈옥할 수 없는 '악마의 섬'으로 불렸다. 기록상으로 모두 14회에 걸쳐 36명의 죄수가 탈출을 기도했지만, 대부분 1시간 이내에 잡히거나 바다에 빠져 죽었다. 그러나 단 한번, 1962년 6월 11일 프랭크 모리스(Frank Morris)를 비롯한 세 명의 죄수가 통풍구를 통해 탈옥에 성공하여 사라진 후 지금까지 아무도 이들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이 후 감옥은 폐쇄되고 한 때 인디언들이 소유권을 주장한 일도 있었다.

현재는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영화 '더 록(The Rock)'으로 더욱 유명해져 관광지로 활성화되어 있다.

피셔먼스워프에서 약 15분 후에 섬 선착장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섬에 대한 설명과 지도가 있는 자료를 구한 후 약 1시간이면 모두 돌아볼 수 있다.



24) 구굴도 해조류 서식지

가거도의 무인도인 구굴도에는 우리나라 조류계에 알려지지 않은 희귀조류들이 서식 또는 번식하고 있다. 구굴도는 동경 125° 07', 북위 34° 03'에 위치하여 기후적으로는 온대북부에 속함. 빨쇠오리, 바다제비, 습새등 철새들의 이동경로상 기착지가 되고 철새들의 번식지로서 수려한 산세와 독특한 해안경관 및 희귀한 생태계 보존 이지역은 1년내내 기온이 온화하다. 때문에 해조류번식이 적합해 빨쇠오리, 바다제비, 습새등 희귀한 많은 바다철새들이 번식하고 있다. 특히 바다제비는 섬의 정상을 제외한 대부분을 뒤덮고 있는 밀사초 군락지역에서 약 10만 쌍 이상이 해마다 찾아와 집단번식하고 있다. 울창한 천연림속에서 수십종의 산새들이 우는 소리는 자연 오케스트라를 이루고 있다. 현재 천연기념물 제215호로 지정되어 있다.

25) 홍도 천연자원 보호구역

▶ 섬 자체가 하나의 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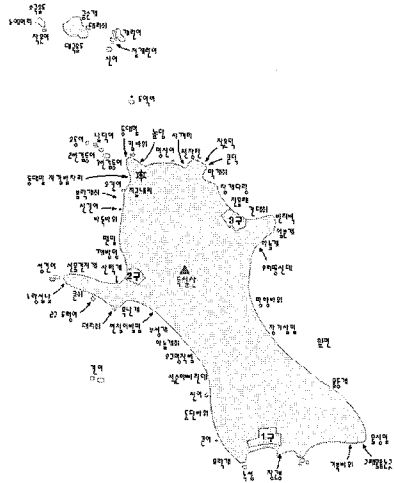
홍도 천연 보호구역(천연기념물 170호, 1965년)으로 지정되어 있는 동시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건교부고시 제478호, 1981) 중 흑산·홍도지구에 속해있어 육지뿐만 아니라 해상(257.38km²)까지도 청정해역으로 보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해상 및 해저관광과 무공해 해산물이 풍부하며, 약 600만m²의 넓은 면적에 기암괴석, 특이식생 등이 잘 보호·관리되고 있어 천혜의 자연자원 관광이 가능하다.

또한 육지(목포)로부터 72마일(115km), 면소재지인 흑산도에서 14마일(22km) 떨어진 서안에 위치해 있으나 천혜의 관광지여서 해상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접근성이 좋다. 선박운항(쾌속선)이 성수기 10회/일, 비수기 2회/일 정도가 운행되고 있다. 섬 내에서의 교통편은 홍도해상을 관광하는 유람선이 성수기에는 수시로 운행하고 있으며, 홍도1리와 2리의 왕래(30분 소요)는 육지와 연결되는 배 도착시간에 맞추어 부정기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유람선의 경우 대부분 100톤 내외의 200여명 내외를 탑승시킬 수 있는 것들이며, 최근에는 반잠수정이 투입되어 홍도 바닷속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팔고 있다.

26) 홍도 뉴시터

▶ 연중 낚시가 가능한 곳

홍도는 낚시터로도 유명하다. 6~8월은 돌돔, 농어가 피크. 9~11월은 열기, 우럭, 11~2월은 감성돔, 낚시 어종에 따라 미끼도 다르게 사용해야 한다. 우럭, 놀래미는 오징어, 고등어, 멸치를 좋아하고, 농어는 산 새우, 감성돔은 전복, 줄돔은 보라성게를 미끼로 사용하면 잘 낚아진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홍도는 거의 전역이 낚시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7) 가거도 낚시터

홍도 낚시터

▶ 수심이 다소 얇고 조류의 소통이 원활

가거도는 우리나라 갯바위 5대 지역의 하나이다. 서해 최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주변 해역이 수심이 깊고, 해저가 대부분 암초로 이루어져 있어 어종이 다양하다. 3개의 부락으로 이루어진 가거도의 각 포인트간은 배편을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진입할 수 있는 곳이 많으며, 특히 2구 부락에는 낚시인을 위한 전문 숙박 시설과 낚시 전문 안내선이 준비되어 있다. 연중 낚시가 가능하지만 육지로 부터의 거리가 멀고 파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 배의 결항이 심한 지역이다. 이 곳 낚시터의 주된 어종은 돌돔, 참돔, 감성돔, 농어, 방어, 우럭 등이다.

감성돔 포인트로는 1구권에서는 오구멍작별, 2구권에서는 산탁개, 성건여 등지와 구굴도 주변, 3구권에서는 사가미, 명신여 등이다. 이곳은 모두 수심이 다소 얇고 조류의 소통이 원활한 곳이다.

28) 태도 낚시터

▶ 10여개의 무인도가 포인트

태도는 상태도, 중태도, 하태도의 3개 유인도를 비롯하여 10여 개의 무인도로 구성되어 있는 돌김의 산지이다. 겨울이면 섬 전체의 갯바위가 돌감우로 뒤덮이므로 감성돔의 월동처로 적절하며, 겨울 감성돔 낚시의 포인트가 된다. 대상 어종은 감성돔, 돌돔, 농어, 참돔, 방어, 우럭 등이다.

29) 영산도 낚시터

영산도에서는 우럭, 참돔, 감성돔, 농어, 방어, 장어 등이 잡힌다. 낚시 방법은 갯바위낚시이다. 영산도는 흑산 본도와 가까이 있어 교통이 편리한 곳이다. 조류가 약간 비껴 나가는 갯바위 안쪽의 얇은 흙통지역이 주포인트로 하루 중 썰물과 밀물이 바뀌기 전 1~2 시간이 적당한 물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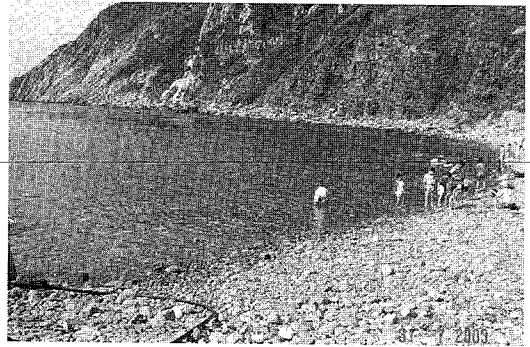
30) 흑산도 해수욕장

진리해수욕장은 1~2미터의 얇은 수심과 극히 완만한 경사로 누구나 맘놓고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진리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기암괴석을 비롯해서 하얀 모래가 일품이다.

예리해수욕장은 깨끗한 모래와 자갈, 맑은 바닷물을 자랑하는 이곳은 천연 해수욕장으로 많은 피서객들이 몰려온다.

31) 홍도 해수욕장

홍도에는 특이하게 모래가 아닌 빠들해수욕장이 있다. 길이 약 600m, 폭 70m, 1일 수용 가능량 3,000여명이며, 선착장 및 취락지구와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해수욕과 더불어 스킨스쿠버, 낚초, 선박유람, 낚시 등을 함께 즐기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해수욕장의 빠들은 신생대 제4기 海成에서 퇴적되어 굳어진 암석이 침식되어 해변에 쌓인 것으로 原磨度와 球度가 비교적 양호한 왕자갈과 잔자갈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숲이 조성된 배후지가 없고, 陸域이 협소한 입지조건으로 많은 인파가 좁은 공간에서 해수욕 활동을 하기 때문에 환경오염과 경관훼손이 심한 것이 흠이다.

32) 홍도 난전시설

▶ 6종 5백여 종의 홍도 자생란을 전시

관리사무소 옆 약 15평 면적에 난전시설을 설치하여 대엽 풍란, 석곡, 새우난, 맥문동 등 홍도 자

생란(6종 5백여 종)을 전시하고 있다. 홍도는 희귀한 난초과의 다년생 관상식물인 풍란 자생지로도 이름이 높다. 여러 줄기의 뿌리가 깊은 바위틈이나 오래된 나무에 얽혀 붙어서 자라는 풍란, 꽃의 향기가 아주 멀리까지 풍겨진다고 해서 애호가들이 탐을 내는 난이다. 쉽게 풍난을 볼 수 없는 관광객들을 위해 홍도 관리사무소 옆에 15평 규모의 난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다. 대엽 풍란, 석곡, 새우난, 맥문동 등 6종 5백여 종의 홍도 자생란을 전시하고 있으며, 배양란 판매를 하고 있어 구입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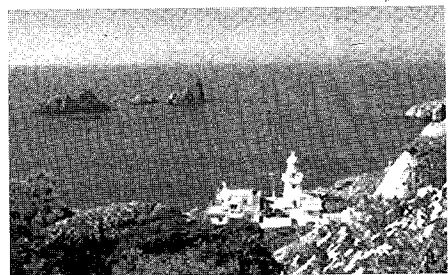
33) 조망점

▶ 홍도 송신소 언덕의 일출일몰경관

전화국 송신소가 있는 언덕 위에서 보는 일출이 가장 아름답다. 일몰은 빠들해수욕장. 2구의 등대 언덕이 포인트. 태양이 바다로 떨어지면서 섬 전체가 붉게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만큼 홍도의 일몰은 놓칠 수 없는 장관. 특히 5~8월은 서해 낙조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시기이다.

▶ 산책길이 있는 조망대

홍도에는 1931년 개동된 경관이 매우 아름다운 등대관광지가 있고 선착장에서 등대까지의 산길은 산책코스로 개발되어 있다. 마치 이란 사원의 지붕처럼 둥형의 하얗고 예쁘게 조경도 잘 되어 있다. 등대 관람은 사전 승인과 직원 입회 하에 가능하다. 선착장에서 등대까지의 산길은 산책 코스로 그만이다. 보급선 선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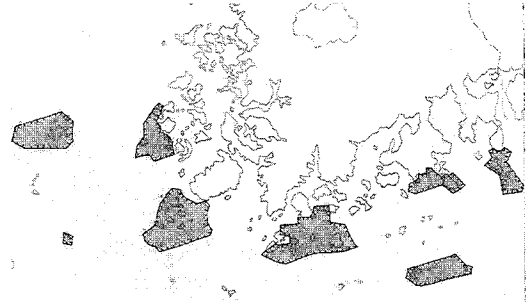


부터는 포장된 길이 지그재그로 나 있어 그 조형미에 웃음을 머금게 되며, 등대 아래쪽에 있는 전망 좋은 언덕의 벤치에서 바라보는 바다 경치는 일품이다. 등대와 가는 길의 산책코스는 TV 및 영화 촬영장소로 홍보, 등대공원, 일몰 조망지점, 등대지기 체험, 휴가철 등대숙박제도 확대 도입 등으로 개발이 요구된다.

34) 다도해국립공원

▶ 흑산 · 홍도지구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1981년 12월 23일 우리나라의 1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면적은 2,344km²로, 그 설정범위로 볼 때 한국 최대의 국립공원이다. 1,700여개의 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개의 주요 지역(완도지구, 여천지구, 고흥지구, 진도지구, 신안지구)으로 분리하여 관리되고 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분포현황

홍도는 산화된 붉은 珪岩으로 형성된 데서 얻어진 지명인데, 높은 해식애로 둘러싸였고 풍란 자생지가 있어 홍도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170)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落照 · 탐바위 · 北門(독립문바위) · 南門(구멍바위) · 병풍바위 · 돛바위 · 石花窟 · 갓바위 · 용문바위 · 주전자바위 등의 명물과 명소가 있다. 흑산도에는 유리제조 원료인 규사가 무진장인데다 조기 어로기에 波市가 서서 어업전진기지로 활기를 띠고 있다. 鎭里에는 둥근 자갈이 깔려 있는 해수욕장이 있다. 그 밖에 山城 · 뜯바위 · 피바위 등의 명소가 있고, 북쪽의 多物島에는 돛대바위 · 七星窟 등이 있다.

▶ 만재도지구

진도 남서쪽 약 60km 해상에 있다. 해식애와 병풍바위가 절경을 이루고, 특히 후박나무 자생지이며 해수욕장이 있다. 영역은 만재도와 그외 주변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 남 · 북쪽에 150m~176m정도의 산이 있어 중앙부의 평지에 취락이 형성하고 있다.

3. 자연자원의 활용방향

1) 지표조사의 기본방향과 성과

본 자연자원의 지표조사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기존방식을 떠나 새로운 각도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자원목록화를 새로이 연구했다. 즉, 자원목록을 정보화 · 데이터베이스화 시대에 대비하여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측면에서 새로운 분류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였

고, 동시에 이러한 새로운 분류방식에 의해 조사자료는 물론 기존자료를 재정리해 넘으로써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에 활용도를 높였다.

둘째, 활용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정리하였다. 즉, 자연환경적 특성연구에 인간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요소들을 실제적 활용도면에서 분석 즉, 스트레스나 쾌적도 등을 계산함으로써 인간에 얼마나 적합한 기후환경을 갖고 있는가 등에 관심을 갖고 임했으며, 해류, 조류, 파랑활동 등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바다환경의 새로운 각도에서 분석·연구를 통해, 예를 들면 적조가 발생이 억제된다는 결과를 얻어냈다든가, 빨 고기가 왜 맛있는가, 저층의 풍부한 영양염류 공급을 활발하게 하여 냉수에 적합한 어종의 생태환경을 제공 <먹이요소의 건전한 생태계>를 밝히는 기여가 되도록 하였다.

셋째, 자연자원의 경제성과 관광자원화에 주안점을 두었다. 예를 들면, 초령목의 대만, 일본에서의 활용도나 우리가 배울점, 항칠마무나 후박나무 등 한약재의 생산량과 화폐가치, 습지(혹산도 장도습지, 비금도 용소습지)의 가치인식 부여(자연의 고문서, 자연사의 타임캡슐), 마음과 몸을 치유하는 건강보양에 도입하는 개념에서 바다환경을 재해석(몸과 마음의 치유효과) 등이 그것이다.

넷째, 상품성이 있는 특산물을 찾고자 노력했으며, 활용방안으로 상품화방안을 모색했다. 예를 들면, 낚시터, 해수욕장 등 실제 이용도가 높은 것을 집중적으로 조사·정리했다든가, 관광자원화를 염두에 두어 기존의 관광자원일지라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자원 중심의 목록을 만들도록 했다.

다섯째, 기존의 자연자원을 재해석했다. 외국의 유명관광지 혹은 영상화된 유명이미지와 연계된 의미 부여(한국의 알카트라즈 등)한 경우가 그렇고, 단순한 경관보다는 복합경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연자원을 발굴한 것이 그랬으며, 기존 자원 개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새롭게 인식(예, '모세의 기적' 현상을 '물아래 다리'로 표현함으로써 흥미를 줌)하게 한 것이 그 사례이다.

여섯째, 영상물제작이나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을 염두에 둔 조사·정리였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흥미와 오락성이 가미되도록 했다. 흥어를 '거시기가 돌인 고기'로 부각시킨 것 등이 그 실례이다. 뿐만 아니라 내용구성에 있어서도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주제를 부여하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논리적 줄거리를 갖도록 구성되도록 하였다.

2) 자연자원의 활용방향

본 조사는 흑산도를 대상으로 한 자연자원의 지표조사를 통해서 총 37여개 목록이 얻어졌는데, 이중 활용 가치가 큰 것들을 중심으로 그 구체적인 활용방향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첫째, 흑산도는 우리나라 행정 구역상 최 서남단에 위치에 있어 위치적으로도 관광적 효과가 매우 큰 섬이므로 이를 개념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위치와 형태적으로 볼 때, 흑산도는 영산도 등 여러 섬들이 북서쪽으로 넓은 오지랖으로 겨안고 있는 형국이어서 우리나라 거문도와 함께 천혜의 항만조건을 갖추고 있는 몇 안 되는 섬 중의 하나이며, 1970년 이후 홍도절경, 영산팔경이 널리 알려지면서부터는 홍도관광을 위한 발딛이 섬 역할을 해오다가 최근에는 근해에서 오징어가 많이 잡혀 풍어의 섬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먼바다로 파도작용이 심해 해식애가 발달한 지형에 기인하여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섬 주변의 기암괴석과 갖가지 이야기들이 담긴 동굴들이 널려 있다. 배를 타고 섬 주위를 일주하는 해상 유람은 흑산도 관광의 백미이다. 서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블루토파즈빛 바다와 기암괴석들이 눈을 땔 수 없게 만든다.

둘째, 적조가 없는 청정해역에 맛있는 홍어·낙지 등의 빨에서 자라는 고기가 생산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흑산도 주변 바다 밑에는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비옥한 점토 혹은 사질토와 활발한 조류 활동과 파랑작용 등으로 활발한 수직·수평적 해수순환에 의한 저층의 풍부한 영양염류 공급을 활발하게 하는 해양환경의 영향에 기인한 적조가 없는 청정 해산물 생산과 고기의 맛이 좋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흑산도는 다른 섬에 비해 매우 쾌적한 기후환경을 지니고 있다. 이는 북서풍과 남동풍을 적절히 조절해 낼 수 있는 지형지세, 경·위도의 위치와 외해에 위치, 심해를 배경으로 한 주변 해역 등이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위치적 특성에 기반하여 실제로 인간활동에 영향을 주는 각종 환경 지수를 계산해 봐도 역시 다른 곳과는 차별된다. 불쾌지수가 74 정도에 머물고 있고(85 이상이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체감온도를 보여주는 윈드칠지수(windchill index)가 내륙지역에 비해 10정도 높고, 쾌청지수 역시 6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자연에 의해 받는 스트레스가 아주 낮음을 보여주고 있어 육지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이곳에 오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건강보양의 섬으로 가꾸고 홍보함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해수를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는 해수의 개념으로 새로운 가치인식과 더불어 이들 내용을 다음과 같은 일일 관광스케줄을 담아 자연자원을 마음과 몸의 치유에 도입하는 개념으로 하는 관광전략이 요구된다. 다음과 같은 일상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고 본다.

아 침 : 산채로 아침산책

아침식사 : 신선한 어개류 등을 주로 한 식사

오 전 : 운동 중심의 프로그램(마린스포츠, 낚시, 해수욕)

점 심 : 향토요리 중심의 식사

오 후 : 휴양 중심의 프로그램(산림욕, 자연음, 경관, 일몰 등의 감상)

저녁식사 : 친선교류 회식(지역유래, 재미있는 이야기 등에 관한 주민과 대화)

밤(저녁) : 숙면을 위한 프로그램(별관찰, 파도소리 경청, 신진운동 등)

넷째, 관광상품성과 경제성이 있는 자연자원이 풍부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를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초령목이 대만, 일본에서는 귀신을 불러들이는데 약간씩 사용방법이 다른 점을 착안하여 활용방안을 마련한다든지, 황칠나무나 후박나무 등 한약재의 생산량과 화폐가치, 습지(흑산도 장도습지)의 자연의 고문서 혹은 타임캡슐로의 가치 부여, 향기가 심리에 미치는 흥도풍란이나 분재인 듯한 착각을 갖게 하는 회귀 백동백 등이 그것이다. 특히 흥도에는 회귀식물의 보고라 할 만큼 수 천 종의 다양한 식생이 자라고 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관광상품화 하는 시도가 부족하다. 흥도에는 육상동물로는 복족류(복족류) 4종 · 다족류(다족類) 2종 · 곤충류 155종 · 파충류 4종 · 조류 54조 · 포유류 1종 등이 확인되고 있고, 새는 10목, 19과 55종이며 수목은 구실잣밤나무 등 274종, 초본식물은 양치식물(20종), 피자식물(233종) 등 총 5,445종, 그리고 바다생물은 해조류 24종, 무척추동물류 117종, 어류 233종 등 총374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하나의 예로, 콘텐츠로 제작하여 사이버 공간상에서 세계 여러 나라로 우리 섬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방안 같은 것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장도습지는 아래로부터 갈대와 사초 등이 자라는 '저층습원', 이탄이 소규모 쌓여 있는 중간에는 예자풀이나 진퍼리새 등이 자라고 있는 '중간습원', 그리고 그보다 더 이탄이 두껍게 쌓여 있어 오직 빗물만으로 자랄 수 있는 물이끼류 등이 나타나고 있는 '고층습원' 등이 한 곳에 구분되어 한 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오래 전에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진 토종 식용달팽이도 눈에 띄고 있어 가치가 더욱 커 그야말로 종합적인 자연의 '자연의 고문서' 또는 '타임캡슐' 이어서 생태학습적으로 활용도가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다섯째, 흑산홍어를 이용한 음식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흑산 홍어는 화끈하고 찰기 진 감칠맛이 다른 지역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특히 군산이나 인천근해에서 잡는 것 보다 착 달라붙

는 찰진기가 뛰어나다. 홍어를 즐겨 먹는 사람들은 생것을 두엄더미에 파묻어 잘 삭히면 나오는 약간 상한 맛인 오감을 관통하는 특 쏘는 맛(역설적인 향수)을 갖는 살과 오돌오돌 씹히는 뼈와 함께 즐긴다. 이런 짜릿한 미각에 자극되어 많은 사람들이 홍어를 찾게 된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막걸리 안주로 먹는 홍탁, 삶은 돼지고기를 얇게 썰어 배추김치와 함께 먹는 삼합, 회를 만들어 먹는 홍어 회, 내장을 국으로 끓인 홍어애국 등의 형태로 곧잘 먹는데 그 맛은 말로써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다. 흑산도 홍어가 유명해진 것은 오래 전 이다. 선조들이 흑산도에서 고기를 잡아 육지에 팔러 나갈 때 달포가 걸려 물에 도착하면 대부분의 고기가 상해 먹지 못하였으나 유독 홍어만이 먹어도 탈이 나지 않아 그 때부터 며칠씩 보관하였다가 먹는 전통이 내려왔다 한다. 그러나 홍어 한 마리는 너무 비싸므로 서너 조각씩 소포장 대량화하여 여러 사람이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여섯째, 기존의 자연자원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의미부여와 함께 상품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의미부여에는 외국의 유명관광지 혹은 기본 영상화된 유명이미지와 연계된 시각에서의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흑산도 읍동 앞에 있는 옥섬은 한국의 알카트라즈라 할 수 있어 관광적 의미가 매우 크다. 특히 이섬에는 조류에 의해 이루어지는 속칭 모세의 기적현상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여 관광객에게 흥미를 끌 수 있는 개념들이 많다. 직접 관광 뿐만 아니라 영상물 제작 등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요소라 할 수 있다.

II. 선사유적

1. 선사유적 목록

1) 흑산도 패총과 지석묘

번호	유적명	위치
1	예리패총	흑산면(대흑산도) 예리 죽항 마을
2	진리 지석묘군	흑산면(대흑산도) 진리 102-2

2) 소흑산도 패총

번호	유적명	위치
1	소흑산도 패총	흑산면 소흑산도 대풍리

3) 하태도 패총

번호	유적명	위치
1	하태도 패총	흑산면 하태도리

2. 선사유적 현황

흑산면의 가장 대표적인 섬인 흑산도는新安군 중에서도 육지에서 우리나라 최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목포로부터 107km 떨어져 있다. 흑산도는 소흑산도, 상하태도, 만재도 등을 비롯한 부속도 서로 이루어진 흑산면의 섬 중의 하나이다.

흑산도지역에 대한 조사는 1954년 국립중앙박물관 조사팀이 주축이 된 서해도서조사팀에 의해 대흑산도의 패총, 지석묘 등이 발견되었다(김재원 1957). 1967년에는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에 의해 실시된 남해도서지역 고고학적 조사의 일환으로 흑산도지역의 패총들이 시굴된 바 있다(김원룡·임효재 1968). 1987년 목포대학교 박물관에서 흑산도 조사에서 기존에 알려진 패총과 지석묘를 재확인하였다. 최근 목포대박물관에서 흑산면 소사지구 지방상수도시설 사업지역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가 있었는데 예리 패총의 파괴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었다(목포대박물관.신안군 2003). 이번 조사에서는 새로운 유적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알려진 유적들의 훼손 상태와 보존방향 그리고 유적의 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았다.

1) 흑산도의 선사유적

(1) 예리패총(사진 1~4)

위치 : 전남 신안군 흑산면(대흑산도) 예리 죽황 마을

예리 패총은 흑산도 중심부와 그 동북쪽의 대봉산을 연결하는 접합부분의 북측 경사면에 위치한다. 1954년 국립박물관 고고학 조사반이 서해도서지방의 지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서해의 최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지목하여 처음으로 유적이 조사·보고되었다. 그 이후 1967년 서울대학교 동화문화연구소가 일부 시굴하였고 1987년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에서 재조사하였는데, 패총의 대부분은 거의 훼손되었다고 하며 수습된 유물은 모두 이전 자료의 범주에 든다고 한다. 1987년 조사 당시 이 유적은 이미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고 패총이 있던 소로는 시멘트로 포장되어서 파괴되어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었으나 주변에서 토기편, 토제 어망추, 타제석부 등이 수습되어 보고되었고, 2000년 조사에서도 정확조를 설치하기 위해 파헤쳐진 구덩이 안에서 갈판편 1점이 수습되어 보고되었다.

1954년 조사에 의하면 패총은 굴껍질로 이루어져 있고 15~30cm정도의 두께로 퇴적되어 있었다고 한다. 인공유물로는 2점의 뼈도구와 토기이다. 토기는 남해안 신석기 만기의 접입술토기이나 그 밖에 굵은 심선문, 붉은간토기, 기타 만기 신석기 보다 이른 시기를 나타내는 무늬들이 소량 출토되었다고 한다.

1967년 시굴에서도 신석기 만기의 접입술토기가 대량으로 출토되었다. 유적의 층위는 위로부터 1층(갈색 사질층)-2층(모래섞인 자갈층)-3층(갈색모래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층 아랫부분에 렌즈모양의 조가비층이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신석기시대의 유물은 2·3층에서 출토되고 있다. 토기는 모래질에 뾰족밑을 가진 접입술토기가 주종을 이루며 무늬 역시 접입술토기에 주로 베풀어지는 퇴화된 단사선문, 집선문, 퇴화된 압입문등이 대부분이나 이보다 시기가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압입문 계통의 무늬도 약간씩 출토되고 있다. 활석비점이 들어간 점토질 토기들은 무늬를 찍거나 새긴 것이 아니라 조개껍질이나 기타도구 등으로 두드려서 무늬를 낸 흔적이 나타나 있으며 활석이 많이 들어가 있어 비누표면처럼 매끄럽다고 한다.

석기 가운데 타제의 도끼류가 가장 많고 또는 완전히 마연한 것도 수습되었다. 찌르개, 숫돌, 찌개 그리고 유백색의 흑요석 격지도 있다. 어망추와 원형의 굽개 등도 출토 되었다. 자연 유물로는 대합, 우렁, 고동, 소라, 전복, 바지락 등의 조개류와 물개과의 바다짐승뼈가 나왔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예리패총은 많이 훼손되고 변형되어 있었고, 원래 패총이 있던 장소와 주변 구릉을 조사하였으나 패총의 규모나 형태의 흔적조차 찾지 못하였다. 원래 패총이 있던 자리에는 콘크리트 건물과 민가가 들어서 있었다. 그나마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로 관의 교체를 위한 공사로 파헤쳐진 땅속에서 아주 약간의 패각을 발견하였으나 수습된 유물은 없었다.

예리 패총의 중요성은 최근까지의 남해도서지방 신석기 발굴 및 연구성과에 비추어 보자면 신석기 이른 시기로부터 늦은 시기까지의 전 기간에 걸친 유물들이 출토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웃 소흑산도에서도 용기문토기가 나오고 있어 대흑산도의 경우 역시 신석기 전시기에 걸쳐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보인다. 상당량의 석기들이 나왔으며 남해도서지방에서 최근 자주 보고되는 흑요석편도 출토되었다. 또한 많은 조개류와 바다짐승에 대한 포획도 보여준다.

(2) 진리 지석묘군(사진 5~7)

위치 : 전남 신안군 흑산면(대흑산도) 진리 102-2

이 지석묘군은 1954년 국립박물관과 1965년 서울대학교 동화문화연구소에서 각각 조사되어 보고된 유적이다. 진리 지석묘군은 흑산 초등학교에서 북쪽으로 100m 떨어진 곳으로서, 칠락산 북쪽 줄기의 구릉말단부로 바다와는 300m 떨어진 해군 3026부대 길 건너편에 위치 하고 있다. 1954년 원래 조사시는 지석묘 7기로 보고되었다. 이후 1967년도에 조사될 당시에는 3기라고 기술되고 있다. 1987년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조사에서는 7기(1기는 파괴)확인 되었고 2기는 자리에서 이동된 것으로 보았다. 이번 조사에도 6기가 확인되었다. 지석묘들은 구릉과 반대편인 동-서 방향으로 열을 이루어져 있다.

1954년 조사에 의하면 지석묘군중에서 중앙에 있는 것을 제1호 지석묘라 하고 그 남북편에 각1기 서쪽에 2기 서남쪽으로 1기가 있으며 또한 서남쪽에 상석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 더 있어 총 6~7기의 고인들이 확인되었다.

이들 지석묘는 남방식에 속한다. 그 중에서 제1호 지석묘의 구조를 밝히기 위해 측면을 시굴하였다. 이 지석묘는 형태가 소형에 가깝고, 방향이 남북선에서 동으로 30° 기울어져 있으며 4~5개의 지석이 받치고 있다. 상석 하부를 파보았으나 석실 구조가 없었고 잡석이 놓여있었을 뿐이다. 다만

주변에서 흑갈색 무문토기편 4점과 회갈색토기편 1점이 수습되었다고 한다.

1987년 조사에는 상석의 숫자는 7기(1기는 파괴됨) 같으나 1954년도에 조사될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상석들의 이동이 심하였음을 볼 수 있다. 즉 제1호 지식묘는 방향이 틀려졌고, 제2호와 제3호 지식묘는 이동되었는데 그중 하나인 제1호기의 동쪽으로 이동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변형이 심하였던 것은 바로 옆에 도로가 확장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되나 불과 35년 사이에 이런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볼 때 지식묘의 상석이 원위치에 잘 보존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한 예라 하겠다.

이 유적은 인근에서 조사된 신석기시대 패총과 더불어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거주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이 진리 지식묘군은 규모나 분포 수에서 몇 기 되지 않지만 육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섬 지역이란 점에서 우리나라 지식묘의 이동 경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2) 소흑산도의 선사유적

(1) 소흑산도 패총(사진 8~12)

위치 : 흑산면 소흑산도 대풍리

이 패총은 소흑산도 북단 대풍리 소재 가거도 등대의 서측 경사면에 위치 하며 그 규모는 120m×10m이고 유물 포함층의 깊이는 2m 정도이다. 층위는 표토층, 부식토층, 순패층, 혼패토층, 흑갈색토층, 황토 및 암반 등으로 이루어졌다. 출토 유물은 흑갈색 즐문토기, 명갈색 무문토기, 마제석부, 골침, 골침기 등이 있다. 출토된 토기의 성격으로 보아 신석기시대 말기에 속한다고 보았으나 최근에 용기문, 토기편과, 압입문 토기편의 존재가 확인되어 신석기시대 중기 내지 전기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

3) 하태도의 선사유적

(1) 하태도 패총(사진 13)

위치 : 흑산면 하태도리

하태도는 대흑산도와 소흑산도의 중간에 위치하며 4곳에 패총이 있다. A지구 패총의 층위는 흑색표토층, 제 1패층, 흑산간층, 흑색바닥층 등이며, 유물은 표토층 아래에서 출토되었는데 타제적 지식기 외에는 토기편 뿐이다. B지구 패총은 A패총의 동편에 위치한다. 층위는 표토층, 순패층, 흑

색 바닥층이다. 토기는 빈약한 편인데 구연부에 압점문니 있는 1편이 채집되었고 점토대토기 구연 부편도 수습되었다. C지구 패총은 B패총이 있는 산맥과 동일한 산맥 북동쪽 경사면에 위치한다. 출토된 토기는 사질계 토기이며 무문양이다. D지구 패총은 A패총에서 남쪽으로 50m 떨어진 구릉 정상부에 위치한다. 크기는 50m×5m 정도이고 일부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수습된 유물은 흑갈색 토기편이다.

3. 선사유적 활용방향

흑산도지역은 신안군의 다른 면들 중에서 일찍 패총과 지석묘군이 확인된 곳이다. 하지만 현재 예리 패총은 그 자리에 콘크리트와 민가가 들어서 파괴되어 유적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이 유적이 앞으로 계속 존재하려면 더 이상의 파괴를 막아야 하며 빠른 시일 안에 남아있는 패총 유적에 대한 정밀 발굴을 통해 그 유적의 성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내륙의 관점에서 보면 비교적 큰 섬으로서 가장 먼바다에 위치한 흑산도에 이러한 신석기시대 유적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인류의 이동사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패총은 현재 남아있는 매장문화재 가운데 무엇보다도 먼저 보존해야 할 1순위의 유적이다. 이 유적이 모두 파괴되고 사라진다면 흑산도의 진정한 역사의 한 단면을 잃는 것이다.

현재 진리 지석묘군도 표지판이 만들어져 안내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석묘로 보일 수 있는 초보적인 조성작업과 정확한 유적의 성격을 파악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신석기시대에 이어 완전히 새로운 문화인 청동기시대의 지석묘 사회를 이끌어가던 집단이 이 곳에 연속해서 살았다는 것은 주민의 일정한 해상 루트가 선사시대에 이미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진리 지석묘군 주변의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섬의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선사시대의 유적 이외에도 흑산도가 중요한 것은 상라산성이 있다는 것이며 더 먼 바다로 나가기 전에 머물 수 있는 요충지로서 고려시대에는 매우 중요한 거점지역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곳을 지나다니는 주요 무역선의 정박지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와 관련된 관청시설, 숙박시설 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곳에 자연스럽게 제사유적이 형성되었던 것이며 그 곳이 상라산성 정상부에 위치한 제사유적이다. 상라산성에서는 그러한 증거로서 철마가 발견되었고 역사시대의 오랜 물질자료들이 정상부의 요소요소에 중층으로 겹쳐 확인되고 있다. 상라산성의 정상부에 남아있는 무수히 많은 토기와 자기편 그리고 그 유물들의 배치로 보아 당시 이 지역에 드나들던 사람들의 문화적인 맥락을 파악해 볼 수 있는 높은 연구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 중요

한 제사유적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질학적으로 볼 때 새로운 퇴적층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라봉 정상부의 제사터는 현재와 같이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이곳을 밟고 올라가게 둔다면 아마도 조만 간에 유적의 상당수는 파괴되고 말 것이다. 철마가 발견된 것도 오랫동안 침식되는 과정에서 표면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철마의 발견은 중요한 것이었으나 이 철마가 어떤 맥락에서 출토되었는가 하는 것을 밝혀 내는 것은 철마 자체의 중요성보다 철마와 그와 함께 발견되는 공반유물들을 통해 밝혀 낼 수 있는 무한한 정신세계를 엿볼 수 없었다는 것은 학술적으로 큰 손실이다.

상라산성의 퇴적층은 두텁지 않으며 이 곳이 침식지형이므로 앞으로 이를 보호할 퇴적층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뽀족 뽀족 튀어 나와있는 암반층 사이사이에 놓여진 많은 유물들은 조만 간에 모두 표면에 노출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면을 고려한다면 상라산성에 오르는 관광객들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성 정상부에 오랫동안 남겨진 흑산도를 거쳐간 해상의 영웅들의 상징적인 정신 세계와 그들의 삶을 밝혀 내어야 한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첫째, 현재 있는 대표적인 지점은 폐쇄하고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나무와 철계를 이용하여 상라산성의 주요 지점을 볼 수 있도록 외곽 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돌 틈 사이에 남겨진 퇴적층과 그 사이에 끼워져 있는 각종 유물들을 매우 신중한 정밀발굴을 통해 각 지점별로 목록화 하고 그 유물의 배치와 현상을 통해 당시의 제례풍습과 기원, 관련된 유물의 선택과 활용, 제례 복원 등에 대한 폭넓은 조사와 해석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 발굴은 상라산성 뿐 아니라 예리 패총, 진리 지식묘, 고려중기 이후의 마을을 정밀발굴을 통해 점진적으로 밝혀 내며 해상의 중심지였던 흑산도를 단순히 먼바다에 있는 경치 좋은 섬으로 볼 뿐 아니라 신석기시대 이래로 전 시대에 걸쳐 주민이 살았던 역사성 있는 섬으로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먼 뱃길 탐사, 역사 혹은 무역의 요충지를 찾는 테마 관광객들에게 이 상품을 개발하여 발굴을 자원화하고 흑산도와 흥도를 잇는 관광코스도 개발하여 흑산도까지 온 사람들에게 '다변화되어 있고 통시적 맥락이 있는 문화자원'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흑산도 본 섬 내에서는 '보여주는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이러한 자원을 잘 엮어내면 그것만으로도 일정한 관광객을 늘려 나가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단순한 자연관광자원 뿐 아니라 맥락이 있는 문화자원을 개발한 상품이 있어 여행자들에게 명분과 심리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흑산도 관광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격조 높은 문화관광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며 먼 섬에 와서 추억과 더불어 학습을 통한 삶의 격을 높여주는 자원이 있다는 것이 매력적인

테마로 자리 잡을 것이다.

하지만 지리적 기후적 조건 때문에 흑산도의 관광객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많은 수요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흑산도 내부의 부대시설과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많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건을 극복하는 길은 '주제관광'이 본격화되고 있는 관광 패턴을 인지하여 '고정된 매니아'를 확보하는 것이다. 고정된 매니아가 만들어지는 사회적 심리적 측면의 연구가 앞으로 필요하겠지만 대체로 개인과 집단이 시공간적인 매력을 발견하고 서로 동의하는 과정에서 매니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즉 관광지의 컨셉과 여행자가 서로 시공간적으로 만나 그 문화가 공유될 때 만들어지는 하나의 문화현상이다. 물론 이러한 매니아가 되기에 꼭 필요한 소수의 매력적인 원천자원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매니아가 되는 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다. 예를 들면 외국인들이 김치맛을 알고 한국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것이라든지, 흑산도의 홍어를 어느 바닷가 마을 아주머니 손맛에 길들여져 매년 찾는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단순히 이러한 한가지 내용 때문에 매니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흑산도의 시공간적 문화맥락이 종합적으로 인지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일정한 매니아가 만들어지는 것은 가장 극대화된 광고의 효과를 가져온다. 쉽게 표현하자면 매니아는 '극성'스럽다. 그들은 소리를 내며 행동하며 감각적이다. 그러므로 고정된 매니아를 확보하는 것은 흑산도에 필요할 뿐 아니라 현재 연구되고 있는 모든 섬에 대한 관광자원화 방안에 가장 필요한 개념이다. 추후 본격적으로 각 섬들을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층의 매니아를 확보할 것인가 하는 주제에까지 접근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관광컨셉만 가지고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어려운 것이다. 즉 '놀이 공간'만 가지고는 매니아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급히 들어와 급히 빠져나가는 형태의 관광은 보는 관광일 것이다. 이것은 '다녀 왔다', '보고 왔다'로서 '박리다매'의 관광자원 그리고 한정된 계절적인 관광자원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차별화된 먹거리와 누가 보아도 멋있는 풍경을 빼면 차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이런 관광 패턴으로 매니아를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많은 관광객을 여행자로 만들기 위한 자원과 홍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에서 모두 다룰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 연구로 미룰 수밖에 없지만 흑산도에서 진리 지식묘와 상라산성을 돌아보며 자연과 문화 속에서 쉬는 공간을 만들어 쉬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 또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흑산도의 공간적인 속성을 모두 찾아내어 '쉽의 공간'으로서의 다양한 공간적 배치가 연구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고고학사전』, 학연문화사.
- 김재원 1957, 『한국서해도서』, 국립박물관.
- 김원룡·임효재 1968, 『남해도서고고학』,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 김희태·조웅·김경철 1998, 『문화재학 이론과 실제』, 향지사.
- 목포대박물관·신안군 2003, 『신안군 흑산면 소사지구 지방상수도시설 사업지역 내 문화유적 지표 조사보고』
- 신안군 2000, 『신안군지』.
- 이기길 2000, 「전남지방 구석기시대 유적의 보존과 활용」, 『한국구석기학보』2, 한국구석기학회.
- 이영문 1982, 「신안 압해도의 선사문화」, 『향토문화』7, 향토문화연구원.
- 이영문 1999, 「지석묘의 보존과 활용방안」, 『호남의 문화유산, 그 보존과 활용』, 학연문화사.
- 이영문·강진표·호용수 2003, 『영암의 고인돌』, 목포대학교박물관.
- 이영문·김경철·조근우 1996, 「신안 북룡리출토 석기류」, 『윤용진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 이헌중 1997, 「영산강유역 신발견 구석기유적군」, 『호남고고학보』5집, 호남고고학회.
- 이헌중 2000, 「압해도선사유적의 신발견」, 『도서문화』 제18집, 목포대도서문화연구소.
- 이헌중 2003, 「신안군 신발견 고고유적 분포와 문화적 성격」, 『다도해 사람들-역사와 공간-』, 경인문화사.
- 이헌중·한창균·黃慰文.A.P.Derevianko 2003, 『동북아시아 구석기시대의 자갈돌석기전통에 대한 연구』, 학연문화사.
- 최성락 1987, 「서남해도서지방의 선사문화」, 『도서문화』7, 도서문화연구소.
- 최성락 1987, 「신안군의 선사유적·고분」, 『신안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 최성락 1988, 「흑산도지역의 선사유적」, 『도서문화』6, 도서문화연구소.
- 최성락 1999, 「문화유산의 보존대책과 활용방안」, 『호남의 문화유산, 그 보존과 활용방안』, 학연문화사.
- 최성락 2000, 「전남지방 고대유적의 보존과 활용방안」, 『전남의 고대유적 보존 및 활용방안』, 전라남도.
- 최성락 2003, 「신안지역의 선사문화」, 『다도해 사람들-역사와 공간-』, 경인문화사.
- 최성락·이헌중·강인욱 1998, 「시베리아 천년의 파노라마」, 『한국상고사학보』28, 한국상고사학회



사진 1. 흑산도 예리패총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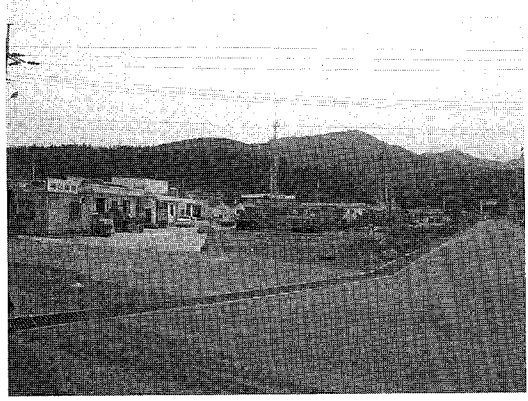


사진 2. 흑산도 예리패총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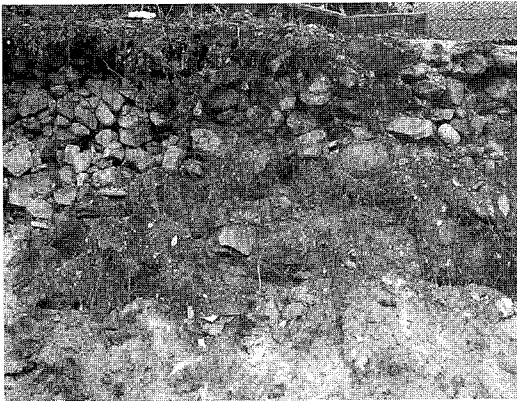


사진 3. 흑산도 예리패총 공사 중 패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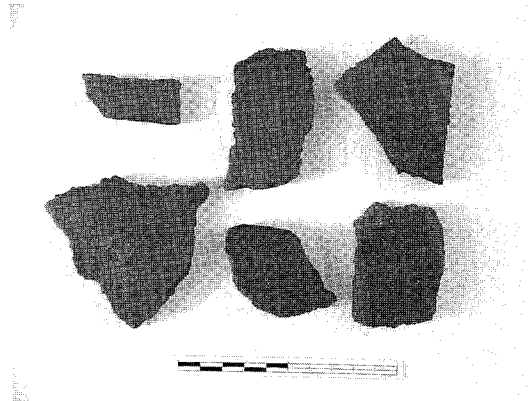


사진 4. 흑산도 예리패총 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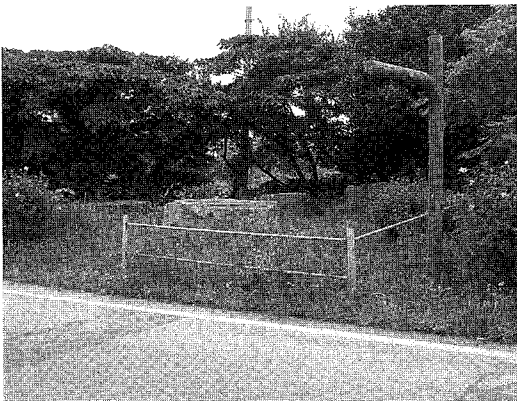


사진 5. 흑산도 진리지석묘 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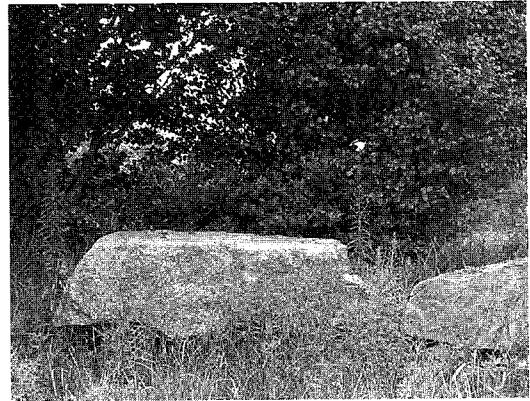


사진 6. 흑산도 진리지석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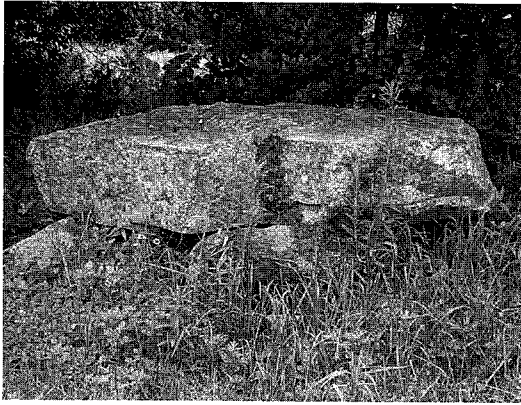


사진 7. 흑산도 진리지석묘 3



사진 8. 소흑산도 패총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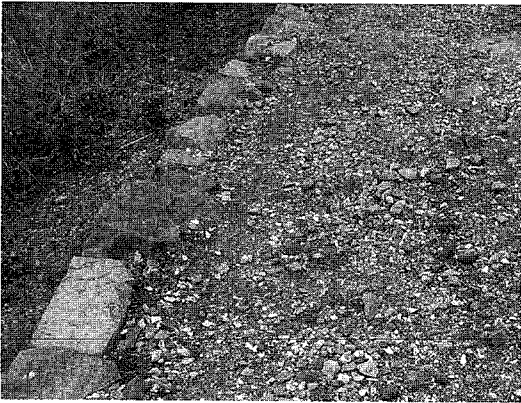


사진 9. 소흑산도 패총 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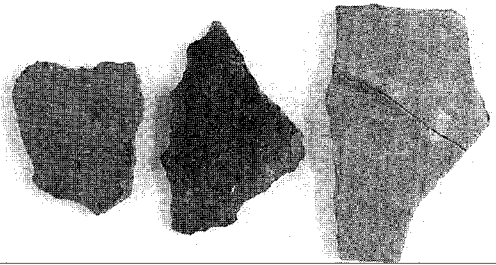


사진 10. 소흑산도 토기 1



사진 11. 소흑산도 토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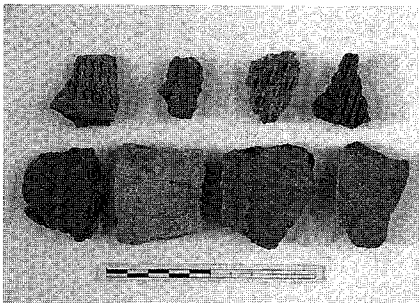


사진 13. 하태도 지표 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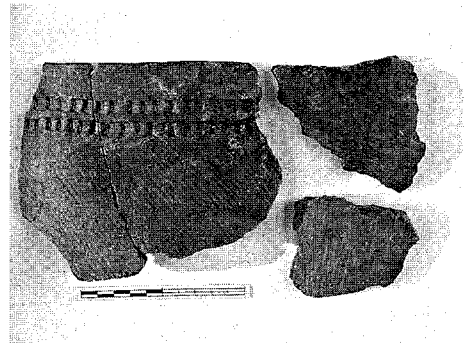


사진 12. 소흑산도 토기 3

Ⅲ. 역사유적

1. 역사유적 목록

1) 고대 · 고려시기의 유적목록

번호	유적명	위치	구분	년대	비고
1	상라산성	진리 읍동 상라산	산성	통일신라~고려	향토자료 12호 (2000.1.31)
2	상라봉 제사지와봉수대	진리 읍동 상라산	봉수대	통일신라~고려	
3	유물산포지	진리 읍동 상라산	산포지	통일신라~고려	
4	추정 館舍址 및 治所	진리 읍동	건물지	통일신라~고려	
5	무심사선원지	진리 읍동	사지	통일신라~고려	
6	기타 - 가막골	진리 읍동	가마(추정)	통일신라~고려	

2) 조선~근현대기의 유적목록

번호	유적명	위치	구분	년대	비고
1	최익현유허비	예리2구 천촌리	유허비	1924년창건 1951년복원	향토자료25호 (2000. 1. 31)
2	지장암	예리2구 천촌리	유배지	19세기	향토자료25호 (2000. 1. 31)
3	李吉斗不忘碑	예리2구 천촌리	불망비	1936년	
4	李敍珍頌德碑	예리2구 천촌리	송덕비	1936년	
5	復性齋	사리 사리마을	채각	19세기건립 20세기복원	
6	朴奉和記念碑	사리 사리마을	기념비	丙子年	
7	慶州李氏孝烈閣	사리 사리마을	효열각	壬午年	
8	慶州崔氏紀績碑	사리 사리마을	기적비	1988년	
9	朴景鎭遺墟碑	사리 사리마을	유허비	1997년	
10	南原方氏懿烈碑	진리 진리마을	의열비	1941년	
11	黑山鎭(址)	진리 진리마을	水軍鎭(址)	18세기	
12	慶州崔氏紀績碑	진리 진리교회 앞	기적비	근대	

2. 역사유적 현황

1) 고대·고려시기의 유적현황

▶ 읍동마을의 유적·유물에 대하여(사진 1~7)

고고학적 조사에 의거할 때, 흑산도에는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흑산도 예리에서 찾아낸 신석기시대의 패총유적과 진리에서 확인된 7기의 지석묘²⁾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그런데 흑산도에서 이후 철기시대의 유물·유적이 현재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청동기시대까지의 추세로 미루어 볼 때, 철기시대 이후에도 흑산도와 남해안지방과의 관계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며, 앞으로 철기시대의 고고학적 유적·유물이 찾아질 것을 기대해 본다.

그런데 흑산도 진리 2구 읍동마을에는 통일신라~고려시대의 유적·유물들이 집중 분포하고 있어, 철기시대 및 삼국시대 유적·유물의 공백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주저된다. 아마도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흑산도의 특성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신석기·청동기시대에는 사람들이 표류 등의 우연적 요인에 따라 흑산도에 흘러 들어와 육지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정착하여 어로 등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나, 철기시대 및 삼국시대에 이르면 흑산도에 살던 사람들이 항해술이 발달하여 서남해지역의 육지나 연안에 가까운 도서지역으로 귀환하여, 흑산도는 거의 무인도화 되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한다. 서남해지역의 육지부와 그에 가까운 도서지역에 삼국시대 유적이 비교적 풍부하게 확인되는 것은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해준다.

그렇다면 통일신라~고려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읍동마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서남해지역에서 황해를 가로질러 중국으로 통하는 황해 횡단항로가 개척되어 활성화되었던 사실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흑산도 읍동마을은 당시 황해 횡단항로를 통해 왕래하던 사신선과 상선 등이 중간에 기착하던 국제 항구도시, 혹은 해양도시가 있었던 곳으로 보아 좋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아래에서는 읍동마을에서 조사한 통일신라~고려시대의 유적·유물을 중심으로 정리하기로 하겠다.³⁾

2) 國立博物館, 1957, 『韓國西海島嶼』, 國立博物館特別調查報告第一冊 : 金元龍·任孝宰, 1968, 『南海島嶼考古學』, 東亞文化研究所.

3)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흑산도 상라산성 연구』, 2000 :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장보고 관련 유적·유물 지표조사 보고서』, 2003, pp.40~55 참조.

(1) 상라산성(사진 8~14)

- 조사 내용

상라산은 해발 226m의 산 정상부로부터 2개의 능선이 뻗어있는데, 한 줄기는 북쪽 바다와 접하여 100m가 넘는 해안 절벽을 이루면서 동쪽으로 길게 뻗어있고, 한 줄기는 정상부에서 남쪽을 향해 뻗어 있다. 읍동마을은 두 산 줄기 사이에 세장하게 형성된 골짜기가 바다와 연결해 있는 곳에 자리잡고 있다.

상라산성은 바다와 접하고 있는 상라산의 북쪽 능선에 위치한다. 상라산의 북쪽 능선은 정상부로부터 4개의 작은 봉우리가 동쪽으로 이어져 있는데, 이 중 세 번째 봉우리와 그 남사면을 이용하여 산성이 축조되었다. 해안에 면한 북쪽 사면은 해안 절벽을 이루고 있어 성을 쌓지 않아도 되는 지형이므로, 성벽의 평면 윤곽은 마치 반월의 형상을 하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이를 흔히 '반월성'이라고 부른다. 산성의 전체 길이가 280m 정도 되는 소형산성으로, 순수 석축부는 220m 정도이다. 성돌은 바위산인 상라산에서 직접 채석하여 사용하였으며, 성내 암반에서 채석한 흔적이 남아 있다.

성벽은 봉우리를 구심점으로 하여 대체로 남사면의 6부 능선에 반원의 형상으로 둘러싸고 있지만, 남서벽 회절부에서 북쪽 해안 절벽과 만나는 봉우리에 이르는 구간은 상당한 경사를 이루면서 축조되어 있어 성곽의 레벨이 일정하지 않다. 즉 북쪽 해안의 절벽과 맞닿는 곳에서 가장 높은 레벨을 보이고, 동문지 부근에서 가장 낮은 레벨을 보인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산 정상을 중심으로 주위를 거의 동일한 레벨로 둘러싸는 전형적인 테뢰식과는 달리 山腹式에 가까운 테뢰식 산성이라 할 수 있다.

성벽은 기저부에만 부분적으로 장대석을 사용하고 있을 뿐 상·하단의 구별 없이 거의 같은 크기의 성돌로 수직으로 쌓아 올렸는데, 다만 성벽 통과선의 경사도에 따라서 쉼기돌로 고정하여 수평을 유지하였다. 성돌은 성벽의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충 다듬은 면을 바깥으로 하여 가로 쌓기와 세로 쌓기로 서로 결구하고 있고, 안쪽에는 잡석으로 뒷채움하였고, 上面은 잡석이나 판석형의 활석재를 깔았다. 안쪽 벽선 쪽에는 지형에 따라 일부 도랑의 흔적이 확인되기도 한다.

동벽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서쪽으로 25m 지점에 동문지가 위치하고 있다. 동문지는 안쪽에 비해 바깥쪽이 레벨이 상대적으로 낮고 가파른 경사지에 위치해 있어서 현재 파괴가 심하다. 따라서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북쪽 해안과 접하고 있는 성 내부 능선의 중간쯤에 건물지가 있다. 건물지 양쪽으로 암벽이 높게

숫아 있어 외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으며, 북쪽 해안에 면해 있기 때문에 해로를 감시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들어서 있다. 건물지의 규모는 동서 10m×남북 17m 정도이고, 방향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정북향이다. 건물지의 남쪽으로 길이 20m, 너비 80cm, 잔존 높이 60~70cm의 석축 담장이 타원형으로 둘러져 있다.

- 조사자 의견

이번 조사에서는 상라산성 내부에 잔디가 자라 있어 유물을 수습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산성의 축조 시기는 전적으로 축성 양식에 따라서 추정할 수밖에 없겠으나, 축성 양식은 확정적인 기준으로 삼기 곤란하다. 다만 읍동마을 일대에서 통일신라~고려시대의 유물들이 다수 수습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대개 그 시기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재 산성은 대체로 잘 남아 있으나, 일부 구간은 붕괴가 진행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정비 및 보존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 내부의 건물지를 중심으로 시굴 혹은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건물지의 실체를 확인하고 유물을 수습하고, 이를 통해 산성의 축조 시기와 성격을 규명하는 심도있는 연구가 서둘러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2) 无心寺禪院址(사진 15~23)

- 조사 내용

무심사선원지는 상라산 북쪽 능선 끝자락, 즉 읍동마을 뒤편 속칭 ‘탑산골’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상라산성 아래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해당한다.

그동안 절의 이름을 알 수 없었으나, 최근의 조사에서 ‘无心寺禪院’이라 새겨진 명문 수키와편을 수습하여 절의 이름이 ‘무심사선원’임을 알게 되었다. 명문은 기와 길이 방향의 반대쪽에 3.5×3.5cm의 방형을 구획하고 우측에는 위로부터 아래로 ‘无心寺’를, 좌측에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禪院’을 새겨 넣었다. 현재 절터에는 삼층석탑과 석등이 남아 있다.

삼층석탑은 현재 높이 1.5m로, 팽나무로 인해 10°정도 기울어져 있으며, 붕괴를 막기 위해 상대갑석 아래 부분을 시멘트로 보강하였다. 주민들에 의하면 지금보다 약간 남쪽에 있었다 하며, 붕괴 위험 때문에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 한다. 팽나무 뿌리 밑등에는 면석형의 석재가 깔려 있어 본래는 2층 기단의 석탑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상대갑석은 2매의 화강암으로 결구되어 있다. 탑신은 옥신과 옥개석이 각각 1매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층에 1단씩의 각형받침이 조출되어 있는 옥신석

의 각 면에는 우주만을 모각하였고, 각 층의 층급받침은 3단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옥개석은 처마가 수평을 이루며 낙수면의 경사는 비교적 급한편이다. 2층 옥신석은 석질이 다르고 안상이 조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본래 석등의 하대석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각 층의 비율이 일정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층수도 현재보다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1942년에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 4층석탑으로 보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본래는 5층석탑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상륜부는 노반만이 남아 있다.

석등은 모든 부재가 팔각형으로 전형적인 양식을 갖추고 있다. 간주석 아래 부분이 시멘트로 보강되어 있고, 간주석 하단에는 연화문이 희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높이 78cm의 간주석 상면에는 팔엽판연화문을 조식한 상대석이 놓여 있다. 현재 화사석은 결실되었으나, 팔각의 화사받침은 남아 있다. 상륜부에는 보주만이 남아 있으나 보주와 간주석은 후에 보강한 것이다. 현재 삼층석탑의 이층 옥신석으로 되어있는 것은 석질이 석등과 같고 안상이 조각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본래는 석등의 하대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15×21×3cm의 瓦搏(기와벽돌)이 다수 수습되었는데, 이는 일종의 '보도블럭'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절 내부 공간을 와전으로 깔았거나, 혹은 와전을 깔았던 건물이나 회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밖에 절터에서 문초석, 암키와 및 수키와편, 토기 및 도자기편 등이 다수 수습되었다.

- 조사자 의견

최근의 조사에서 가장 의미있는 발견은 '无心寺禪院'이라 새겨진 명문 수키와를 찾아냈다는 점이다. 그간 알 수 없었던 절 이름을 되찾았다는 것은 물론, 절의 성격을 추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름으로 보아 이 절은 선종계통의 사찰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선종 승려들의 渡唐 혹은 귀국이 신라 후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普照體澄은 837년 당에서 돌아와 장흥 보림사에서 迦智山門을 일으켰으며, 慧哲은 814년에 당에 건너갔다가 839년 2월에 돌아와 곡성의 태안사에서 桐裏山門을 열었다. 그리고 洪陟은 당에 건너갔다가 826년에 임피를 통해 귀국해 남원의 실상사에서 실상산문을 열었으며, 玄扈은 824년에 당에 건너갔다가 837년 9월에 나주 회진포를 통해 돌아와 창원 봉림사에서 鳳林山門을 열었다. 또한 道윤은 825년에 당에 건너갔다가 847년에 귀국하여 한 때는 화순 쌍봉사에 자리를 잡았다가 후

에 강원도 영월로 옮겨 獅子山門을 열었다.

이들 선종 승려들은 도당 및 귀국 길에 흑산도에 들러 숙박하면서 무심사선원에서 예불을 올리면서 무사 항해를 기원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들 선종 승려들의 활동시기가 장보고의 활동시기와 겹칠 뿐 아니라 그들의 도당 및 귀국이 주로 서남해지역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한 전남 지역에 선종 사찰이 집중적으로 세워지는 것으로 보아, 장보고의 후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聖住山門의 開山祖 無染은 821년에 중국에 건너갔는데, 그의 비 ‘重修無染寺院記’가 장보고의 근거지였던 산동성 문등현 곤륜산 아래에서 발견되어, 장보고의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흑산도 읍동마을 일대에 통일신라~고려시대의 유물들이 다수 수습되는 것으로 보아, 흑산도가 장보고 선단의 주요 중간 기착지로 활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이 절터는 20여년 전에 조계종단에 의해 ‘정방사’란 이름으로 복원이 추진되다 중단되었다 한다. ‘무심사선원’의 국제적 성격과 의미를 염두에 두면서, 이에 대한 발굴 조사와 ‘무심사선원’의 복원을 신중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에 흑산면에서 절터 인근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고증이나 자문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계곡의 물길을 내는 공사를 강행하였는가 하면 당제와 관련된 시설과 담장을 허물기도 하는 등 원형을 크게 훼손하는 우를 범한 바 있다. 이의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는 바이다.

(3) 상라봉 제사지와 봉수대(사진 24~31)

- 조사 내용

해발 226m의 상라산 정상(상라봉)에 위치한다. 상라봉은 능성을 통해 동쪽에 상라산성과 연결되어 있고, 남쪽을 제외한 삼면의 바다가 잘 조망되는 곳에 위치하여, 주변 해로를 감시하고 유사시 육지에 연락을 취하기에 적합하다. 이곳에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제사를 올린 제사유적과 함께 봉수대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이곳에서는 철마 3점을 비롯하여 주름무늬병 및 줄무늬병편, 편병의 구연부편, 그리고 각종 토기와 자기편 등 제사관련 유물이 많이 수습되었다.

기와의 수습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건물지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노천 제사 형태를 띠었을 것으로 보인다.

- 조사자 의견

상라봉에서 수습된 주름무늬병은 완도 청해진유적과 통일신라시대에 中祀를 지냈던 영암 월출산 제사유적 등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 그리고 철마는 제사의 神體로 사용되는데 그간 전남지역에서 발견된 철마는 대개 해안가의 제사터에서 나오고 있다.⁴⁾ 상라봉에서 다량의 산라봉에서도 제기유물과 함께 머리·몸통·다리만을 형식적으로 표현한 길이 10cm 내외의 철마 3편이 수습되었으니, 이는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는 해양신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사는 횡단항로가 활성화된 통일신라시대부터 시작되어, 장보고의 교역활동과 고려시기의 대송 교역활동시기까지 행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상라봉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일부 자기편을 제외하면 격이 낮은 유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제사의 주도세력은 중국을 왕래하는 하급 선원이나 지역 주민들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만약 읍동마을의 '무심사선원'에서 비교적 격이 높은 신분층인 승려나 사신 등이 제를 올렸다고 한다면, 상라봉의 제사유적과 무심사선원지에서 각기 격을 달리하여 해양신앙이 병행되었다고 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상라봉 제사지와 읍동마을 무심사선원을 세트로 한 해양신앙의 복원 방안을 마련하면 어떨까 한다.

또한 상라봉은 봉수대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1123년에 고려에 파견되었던 송의 사신 徐兢이 찬술한 『高麗圖經』에 의하면, [언제나 중국 사신의 배가 이르렀을 때 밤이되면 산마루에서 봉화를 밝히고 여러 산들이 차례로 서로 호응하여 왕성에까지 이르는데, 그 일이 이 산에서 시작된다]고 하였다.⁵⁾ 이는 상라봉의 봉수대에 대한 명백한 근거 자료이다.

오늘날 상라봉은 흑산도 관광의 주요 코스의 하나이다. 상라산 정상부 가까이까지 꾸불꾸불 자동차 포장도로가 나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쉽게 상라봉에 올라 주위의 절경을 관찰하고 있다. 상라봉 유적은 그만큼 훼손에 무방비 상태에 있다. 우선 상라봉 유적지의 보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이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서 유적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4) 지금까지 전남지역에서 확인된 철마 혹은 馬像 유물은 진도 철마산선의 철마, 완도 금일면 유서리의 철마,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화산마을 天祭의 철마, 여수시 남면 횡간리 당제의 土馬, 고흥군 나로도 신금리 당제의 石馬, 나로도 예당마을 당산제의 사기마, 영광군 낙월면 안마도 都祭의 철마,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馬神祭의 철마 등이 있고(표인주, 1996 [말의 상징적인 의미와 모조품 馬類의 신앙적 용도] 『영암 월추란 제사유적』, 목포대학교 박물관), 월출산 천황봉의 제사유적지에서 철마 3점과 토마 11점이 출토되었으며(목포대학교 박물관, 1996 『영암 월출산 제사유적』),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지에서도 토마의 몸체 5점, 머리 1점, 다리 2점이 수습된 바 있다(국립전주박물관, 1994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 강봉룡, 앞의 글, 2000, p.148. 註63) 재인용.

5) 『高麗圖經』 第35卷 黑山條.

서 유적의 보존과 상라봉 관광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4) 추정 館舍址 및 治所(사진 32~39)

- 조사 내용

상라산 전망대에서 동쪽의 읍동마을을 향해 뺀 능선의 끝자락에 동서 장축 30m 정도 되는 평탄 대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에 남향의 건물지 초석이 일부 남아 있다. 이곳에서 주로 기와편과 와전편이 수습되었다. 이 건물지를 縣廳址 혹은 館舍址로 비정하고 싶다.

이 건물지의 서쪽편, 그리고 진리 2구 사무실의 뒤편에 그리 깊지 않은 '해내지골'이라는 골자기가 있다. 이곳은 3~5단 정도의 계단상의 지형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은 밭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토기와 자기편이 다량으로 수습되고 있으나 대부분 경작과정에서 주민들이 파편을 밭둑에 모아 놓은 것들이다.

수습된 유물은 기와 및 와전편, 주름무늬병 및 주름병편, 청자접시편, 토기편 등 다양한 생활상을 보여주는 것들이었다. 이들은 무심사선원지나 제사지에서 수습된 것들과 동시기의 것들이다.

- 조사자 의견

서공의 『고려도경』에 의하면 [옛날 바닷길을 지날 때에 이곳(흑산도)에 머무르곤 하여 관사가 있었는데,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하였고,⁶⁾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흑산도는 수로로 9백리 되는 거리에 있는데 섬의 둘레가 35리이고 옛날 黑山縣이라 칭하며 그 유지가 남아 있다]고 하였다.⁷⁾ 곧 고려 이전에 흑산도를 縣으로 편제하여 그 縣治의 유지가 조선시대까지 남아 있었고, 사신이나 상인들이 머물던 館舍가 고려시대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청지 혹은 관사지나 현 치소로 비정되는 '해내지골' 일대를 정밀 조사하여, 통일신라~고려시대의 국제 해양도시 흑산현의 면모를 확인하는 작업을 실행에 옮길 것을 제안한다.

(5) 유물산포지(사진 40)

- 조사 내용

6) 위와 같음.

7) 『新增東國輿地勝覽』 羅州牧 山川條.

상라산 정상부에서 동으로 뻗은 능선 줄기 끝자락에서 유물산포지를 새로 확인하였다. 이곳은 최상출세 소유의 밭으로서 내영산도와 외영산도가 에워싸고 있는 읍동마을 앞 바다가 훤히 조망되는 구릉성 대지에 자리하고 있어, 바다를 관망하는 기능을 가진 중요한 건물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 주변에서 어골문기와편, 자기편, 경질토기편 등이 다량으로 수습되었다.

- 조사자 의견

읍동마을의 항구를 조망하는 위치에서 선박의 출입을 감시하는 건물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라산성, 제사터, 무심사지, 추정 관사지 등과의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이에 대한 정밀 조사가 요청된다.

(6) 기타 - 가막골(사진 41)

- 조사 내용

현 치소지로 지정되는 '해내지골'을 거슬러 산줄기를 타고 들어서면 '기와굽던 가마'라 부르는 곳에 이른다. 이 부근 골짜기를 '가막골'이라 부르는 연유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중턱쯤에서 가파른 산 경사면이 갑자기 함몰된 듯 움푹 패인 곳이 확인하였으나, 기와를 구운 흔적이거나 와편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 조사자 의견

기와를 구운 가마가 있었다는 마을사람들의 전승을 따른다면 국제 해양도시가 필요로 하는 기와를 이곳에서 자체 제작했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단서를 찾지 못했다.

2) 조선~근현대기의 유적 현황

(1) 최익현유허비(사진 42)

· 소 재 지 : 신안군 흑산면 예리 2구 천촌리(하촌)

· 유적현황 : 예리항에서 일주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향하다 보면 '샘골'을 지나서면 '가다오다 쉬어 가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가는개'라 칭하는 곳에 천촌리가 위치한다. 이 천촌마을을 지나 다시 길을 재촉하면 천촌리 마을에 도착한다. 최익현의 유허비는 천촌리 마을 입구에 위치한다. 비석

의 뒤편에 최익현이 우국충정을 다짐하였다고 전해오는 '지장암'이 있다.

최익현의 號는 免庵이고, 字는 贊謙, 本貫은 慶州이다. 선생은 1833년에 경기도 포천에서 崔 岱의 아들로 태어났다. 최익현 1855년에 文科 丙科로 급제하여 成均館 典籍, 司憲府 持平, 司諫 院 正言, 吏曹佐郎 등을 역임하였다. 1868년에 경복궁 중건과 관련하여 당백전의 발행 등으로 인해 국가 재정이 고갈되자, 흥선대원군의 失政을 상소하였다가, 사간원의 탄핵을 받아 관직을 삭탈당하였다. 그리고 1873년에 최익현은 관직에 재등용되었다. 이 때 최익현은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려 흥선대원군을 퇴출시켰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왕의 親政을 주장하여 군부를 논박했다는 이유로 최익현을 제주도로 圍籬安置되었고, 3년 동안 유배생활을 하였다. 이후 최익현은 왕도정치 명분이 상실된 관직생활을 청산하고 憂國愛民의 위정척사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

그후 최익현은 1875년에 유배에서 풀려났으나, 이듬해인 1876년에 강화수호조약을 반대하는 「吳不可斥和議疏」를 올렸고, 이로 인해 牛耳島(現 대흑산도)에 다시 유배되었다. 그런데 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配本謄本』에 나타난 최익현의 흑산도 유배 여정에 관한 기록이다. 즉 최익현은 1876년 9월에 육로를 따라 무안읍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9월 10일에 무안 다경포진에서 배를 타고 암태도로 향하였고, 암태도에 도착한 일행은 이곳에서 1박을 하였다. 이후의 유배의 여정은 팔금도→기좌도→도초도→비금도 도사암을 거쳐 흑산도에 당도하였다. 흑산도에 도착한 최익현은 진리마을에 서당을 열고 후학을 가르쳤으며, 진리에서 다시 친촌리로 옮겨서 역시 '일심당'이라는 서당을 개설하여 마을사람들에게 한문과 애국애족의 자주정신을 심어주었다. 이후 유배에서 풀려난 최익현은 1895년에 「講討逆復衣制疏」를 올려 항일척사운동에 앞장섰다.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최익현은 의병을 모집하는 활동을 전재하다가 전북 순창에서 체포되었고, 1906년에 일본 대마도로 유배 도중에 사망하였다.

이러한 면암 최익현 선생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1924년 9월에 면암의 문하생이었던 吳駿善·任東善 등이 처음 碑石을 건립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비석은 현전하지 않으며, 현재 유허지에는 1951년에 건립한 비석이 서 있다.

비석의 앞면에 〈免庵崔先生謫慮遺墟碑〉라 새겨져 있고, 뒷면에 26행 40자의 비문이 있는데, 김동수가 撰하고, 황창용이 書하였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30cm, 너비 49cm, 측면 22cm이다. 비석의 형태는 碑身과 碑座를 갖추고 있고, 주변에 울타리가 둘러져 있다.

(2) 지장암(사진 43)

· 소재지 : 신안군 흑산면 예리 2구 천촌리(하촌)

· 유적현황 : 지장암은 천촌리 마을 입구 <免庵崔先生謫廬遺墟碑> 뒤편에 위치한다. 지장암은 외형적인 모습이 손바닥처럼 생겼다하여 '指掌岩'이라 부른다. 한말에 면암 최익현이 흑산면 천촌리에서 유배생활을 할 때 우국충정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암벽에 「奇封江山 洪武日月」이라는 글자를 새겼다고 한다. 즉 우리 나라는 이미 오래 전부터 독립된 대한제국이라는 의미이다. 이 지장암에서 동쪽으로 건너다 보이는 곳 야산자락에 선생이 기거하였던 집터자리라고 전해오고 있으나, 현재 밭으로 개간되어 가옥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3) 李吉斗不忘碑(사진 44)

· 소재지 : 신안군 흑산면 예리2구 천촌리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천촌리 마을 입구에 위치한 <최익현유허비>에서 도로를 따라 소사리 방면으로 향하다보면 길가 언덕에서 있다. 비석 바로 앞에는 작은 오솔길이 열려 있는데, 이 길이 舊道路이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가 신설되면서 비석은 언덕빼기에 올려 놓은 것처럼 약간 경사진 곳에 있다.

이 비석의 주인공은 敎官 李吉斗이다. 비석 앞면에는 <行敎官李吉斗施惠不忘碑>라고 새겨져 있고, 뒷면에 孔夫子 誕降 2487년이라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1936년(병자년)에 건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비석 측면에 “용흥1리 주민일동”이라 써 있는 것으로 보아,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행정 편제가 이루어지기 이전시기 이 일대는 “용흥리”라 칭하였음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비석이 건립된 배경에 대해서는 비석의 앞면에 碑銘과 함께 새겨져 있는 4언절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이 베풀어준 恩德에 보답하기 위해 바위에 글씨를 새겨 놓은다.”라고 써 있다.

불망비의 규모는 높이 159cm, 너비 55cm, 측면 20cm이다. 비석의 뒷면에 별도의 碑文이 없다. 비석의 형태는 螭首와 碑身을 갖추고 있다. 이 비석에서 약 20m 정도 오솔길을 따라 소사리 방면으로 걸어가다보면 <面長李紱珍頌德碑>가 서 있다.

(4) 李紱珍頌德碑(사진 45)

· 소재지 : 신안군 흑산면 예리2구 천촌리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천촌리에서 소사리로 넘어가는 길목 도로변에 위치한다. 천촌리 마을 입

구에 위치한 <최익현유허비>에서 도로를 따라 소사리 방면으로 향하다보면 길가 언덕에 서 있다. 비석 바로 앞에는 작은 숲길이 열려 있는데, 이 길이 舊道路였다고 한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가 신설되기 이전 도로변에 비석이 서 있었고, 비석 아래쪽에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서 비석이 서 있는 부분이 경사지면서 언덕빼기를 형성하였다.

이 비석의 주인공은 면장 이서진이다. 이서진은 면장으로 재직시 연세가 많은 노인의 役을 삭감해 주는 등 善政을 베풀었다. 이에 소사리·청춘리·용흥리 주민 일동이 면장 이서진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1936년에 비석을 건립하였다.

비석의 앞면에는 <行面長李敘珍頌德碑>라 새겨져 있고, 뒷면에 昭和 11년이라 새겨져 있는 것으로 1936년(병자년)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비석 측면에 “소사리·청춘리·용흥리 주민일동”이라 써 있어 3리는 주민들이 비석을 건립하였음이 확인된다. 이 비석이 건립된 배경에 대해서는 비석의 앞면에 4언절구로 새겨져 있고, 별도의 碑文은 없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46cm, 너비 51cm, 측면 19.5cm이다. 이 비석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 <行教官李吉斗施惠不忘碑>가 있다.

(5) 복성재(사진 46)

· 소재지 : 신안군 흑산면 사리마을

· 유적현황 : 예리항에서 일주도로를 따라 청춘리, 천춘리, 소사리 마을을 지나면 문암산 자락에 사리마을이 위치한다. 복성재는 마을의 동남쪽 천주교회 뒷편에 있다. 복성재는 정약전이 흑산도에 유배와서 약 15년 동안 기거하였던 유배지이다.

鄭若銓의 字는 天全, 號는 一星樓·每心齋·巽庵·研經齋, 본관은 羅州이다. 정약전은 1758년에 경기도 광주(현 남양주군 조안면 능내리)에서 鄭載遠의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1789년에 증광문과 丙科로 급제하였고, 1797년 兵曹佐郎에 제수되었다. 이때 왕명으로 『영남인물고』를 편찬하였다. 정약전은 남인계열의 학자로, 서학에 뜻을 두어 천주교에 입교한 후 관직에서 물러나 전도에만 힘썼다. 이후 손암선생은 서학과 사상에 접한 바 있는 이벽·이승훈 등 남인 인사들과 교류하고 특별히 천하게 지냈다. 그러나 순조가 즉위하면서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고, 1801년 신유옥사에 연루되어 동생 정약중은 獄死하고,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되었으며, 정약전은 완도군 신지도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흑산도로 이배되었다.

정약전은 흑산도 사리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복성재를 건립하여 후학을 양성하면서 저술활동을

하였다. 선생은 흑산도에서 약 15년 동안의 유배기간 동안 『자산어보』를 비롯하여 『嶺南人物考』 『東易』 『論語難』 『松政私議』 등을 저술하였으나, 현재 『자산어보』만 현전하고 있다. 이 『자산어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수산학 관련 저서로 서남해안의 바닷고기와 해산물 155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다. 즉 물고기의 이름, 형태, 분포, 실태 등을 기록하였는데, 총 鱗類 73종, 無鱗類 43종, 雜蟲 4종, 해금 5종, 해수 1종, 해조 35종에 관한 내용이다. 이 『자산어보』는 우리 나라 해산 물과 어류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이 외에도 우이도 사람 문순득이 체험한 표류사실을 토대로 하여 작성한 『표해록』이 있다. 손암선생은 흑산도 유배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1816년에 이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복성재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1칸이다.

(6) 朴奉和記念碑(사진 47)

· 소재지 : 신안군 흑산면 사리 사리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사리마을에 위치한 흑산초등학교 서분교 우측 담장 옆에 서 있다. 이 비석의 주인공은 박봉화이다. 비석 앞면에 〈行都事朴奉和施惠記念碑〉라 새겨져 있고, 그 여백에 공의 행적을 4언 절구가 기록되어 있다. 즉 4언절구를 그대로 옮겨보면, “公性懿善 洪恩厚德 濟弱扶傾 人人被恩 憐窮血貧 家家蒙恩 樹之一石 載頌恩德”이라 기술되어 있다. 이렇듯 공은 德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약한 자를 구제하고, 기운 것을 바로 세웠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었다. 이러한 공의 은덕을 기리기 위해 丙子年에 기념비를 건립하였다.

(7) 慶州李氏孝烈閣(사진 48)

· 소재지 : 신안군 흑산면 사리 사리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예리항에서 일주도로를 타고, 청춘리, 천춘리, 소사리 마을을 지나 가다 보면 문암산 자락에 자리잡고 있는 사리마을이 보인다. 사리마을에서 심리마을로 넘어가는 도로에서 좌측으로 30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李氏의 본관은 경주이고, 20세에 남편을 잃고, 腹中에 아이와 나이 드신 시아버님을 모시고 살았다. 시아버님을 모심에 공경함으로 봉양하였고, 祭를 지낼때도 정성을 다하여 모셨다. 李氏의 효열을 행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하였다. 이에 이씨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壬午年에 건립하였다.

비석 앞면에 〈慶州李氏孝烈紀行碑〉라 새겨져 있고, 비석 앞면에 4언절구로 새겨져 있고, 별도의 비문은 없다. 碑의 규모는 높이 128cm, 너비 46cm, 측면 17cm이고, 撰, 書者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비석의 형태는 이수, 碑身으로 이루어졌다. 碑閣은 정면 1칸, 측면 1칸, 우진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변에는 높은 콘크리트 돌담으로 이루어져 있다.

(8) 慶州崔氏紀績碑(사진 49)

· 소재지 : 신안군 흑산면 사리 사리마을

· 유적현황 : 이 碑石은 예리항에서 일주도로를 타고, 청촌리, 천촌리, 소사리 마을을 지나 가다 보면 문암산 자락에 자리잡고 있는 사리 마을이 보인다. 도로를 따라 심리 방면으로 향하다 보면 좌측 도로변에서 약 15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崔氏의 본관은 경주이고, 炳太의 장녀로 태어나, 丁瑛局와 결혼하였다. 총명하고, 품성이 온화 정숙하고, 孝友하다. 홀로된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여 봉양하니 사람들이 우러러보았다. 나이 30에 남편이 병에 걸려 약을 백방으로 찾아다녔으나 구하지 못하자 시어머니가 상심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애통해 하였다. 이에 시어머니를 봉양함에 더욱 극진히 하였다. 每 기일에 성심으로 祭를 지내고, 죽은 사람을 산 사람처럼 섬겼다. 이에 崔氏의 德을 칭송하기 위해 조카들이 1988년에 건립하였다.

비석의 앞면에 <烈婦慶州崔氏紀績碑>라 새겨져 있고, 뒷면에 10행 40자의 비문이 있는데 金淳祥이 書하였다. 碑의 규모는 높이 120cm, 너비 43cm, 측면 18cm이다. 비석의 형태는 이수, 碑身, 碑座로 이루어졌다. 주변에는 높은 벽돌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다.

(9) 朴景鎮遺墟碑(사진 50)

· 소재지 : 신안군 흑산면 사리 사리마을

· 유적현황 : 이 碑石은 예리항에서 일주도로를 타고, 청촌리, 천촌리, 소사리 마을을 지나 가다 보면 문암산 자락에 자리잡고 있는 사리 마을이 보인다. 도로를 따라 심리 방면으로 향하다 보면 우측도로변 길가에 위치하고 있다.

朴公의 본관은 밀양으로 諱는 景鎮이고, 字는 文吉이며, 號는 誠齋이다. 密城大君의 35대손이며, 中祖 鉉의 20대손이고, 派祖 忠元의 10대손이다. 아버지는 基希이시고, 1795년에 태어났다. 妃는 경주이씨이다.

朴公은 준수한 품성과 영특한 재질로 賢師의 門에서 경전과 性理書를 通習하시니 극진한 孝友行蹟을 쌓았고, 해박한 역사지식은 향리의 표본이 되었다. 충의와 誠動으로 선조의 빛나는 勳業을 받들었고, 무과에 장원하여 통정대부중추부동지사를 받으시고 1873년에 돌아가셨다. 이에 후손들이

문중의 뜻을 모아 이 碑를 1997년에 세웠다.

비석의 앞면에는 <密陽朴公景鎮遺墟碑>라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38행 57자의 비문이 있는데 朴程淳이 撰, 徐相殷이 書하였다. 碑石의 규모는 높이 183cm, 너비 60cm, 측면 30cm이다. 비석의 형태는 이수, 碑身, 무궁화 무늬가 새겨진 碑座로 이루어졌다. 주변에는 낮은 돌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다.

(10) 南原方氏懿烈碑(사진 51)

· 소재지 : 신안군 흑산면 진리 진리마을

· 유적현황 : 예리항에서 일주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향하다 보면 진리마을에 도착한다. 이 碑石은 읍동마을 방면으로 향하다 보면 좌측도로변에서 50m쯤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方氏의 본관은 南原이고 李鍾局의 妻이다. 비문내용을 살펴보면 무릇 사람의 뛰어난 행적을 칭찬함에 유림의 중론에 의한다. 本院(京城大成學院)에 이미 완문 成帖이 있으나 비석에 다 새기지는 못한다 하였다. 이 비석은 소화 16년(1941년)에 院長 李明翊, 都有司 李範敏, 總裁 金成圭에 의해 건립되었다.

비석 앞면에는 <故士人李鍾局妻南原方氏懿烈碑>라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7행 14자의 비문이 있는데 撰·書者는 비문상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碑의 규모는 높이 150cm, 너비 54.5cm, 측면 21cm이다. 비석의 형태는 이수, 碑身, 碑座로 이루어졌다. 주변에는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11) 黑山鎮(址)(사진 52)

· 소재지 : 신안군 흑산면 진리 진리마을

· 유적현황 : 예리항에서 일주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향하다 보면 진리마을에 도착한다. 마을 진입로에서 직진하면 면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다. 진터는 후대의 지리지와 구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現 흑산면사무소 뒷편 마을회관터로 추정된다.

흑산진은 흑산면 진리와 가거도, 그리고 도초면 우이도 진리에 설치된 수군 別將鎮이다. 흑산진의 창설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 1665년(현종 6)에 설진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지만 실제 창설되지 않았다. 그런데 『여지도서』(1759년)에 흑산진이 등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665년~1759년 어느 시기에 設鎮된 것으로 추정된다.

흑산진과 관련하여 흑산도는 어떤 섬이었을까? 조선시대 관찬사료를 통해 살펴보자. 1444년(세종 26)에 전라감사에게 教諭한 내용이다.

일찍이 들으니 제주도 근처에 백도(백도)·흑도와 백산도(백산도)·흑산도 등 의 섬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섬이 제주도 근처에 몇 개나 있는가, 만약에 있다면公私의 선척이 여러 섬에 모두 다 내왕할 수 있는가. 또 바람과 물이 험악해서 내용이 불편한 곳이 몇 곳이나 되며, 바람과 물이 험악하지 않고 내왕하기에 편리한 곳은 몇 곳인지. (중략) 제주에서 여러 섬 사이의 거리와 여러 섬 사이의 멀고 가까운 것, 섬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을 아울러 조사하여 보고하라⁸⁾

15세기에 흑산도는 바닷길이 험악하여 왕래가 불편한 섬 정도로 파악되었지만 이런 흑산도에 왜구들이 출입하자, 1445년(세종 27) 전라감사는

“흑산도에 선재목이 많아 왜인들이 왕래하면서 造船한다”⁹⁾

라고 보고하고 있다. 즉 흑산도는 외딴 섬으로, 왜구들이 목재를 채취하기 위해 출몰하였던 곳이었다.

흑산도에 수군을 배치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17세기 중엽이다. 1665년(현종 6) 병조좌랑 민시중이

(전략) 각 鎭 근처에 사복시와 충훈부의 둔전 및各司 노비와 吏屬을 진지의 아래에서 거주하도록 하여 둔전을 개간하여 하고, 일이 없을 때는 기예를 익히고 무기를 연마하도록 하십시오. 비상시 신호에 따라 배에 오르게 한다면 해안 방위에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중략) 흑산도는 나주에서 9백여리 떨어진 바깥 바다에 있고, 임치·자은·비금 등 세섬은 모두 水營과 흑산도 사이에 있습니다. 만약 4곳에 鎭을 설치하고 장수를 배치시키면 적들이 어찌 감히 鎭堡 사이로 돌입할 수 있겠습니까?¹⁰⁾

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정부는 비변사와 전라감사와 수사로 하여금 흑산도에 관해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 후 수군진이 흑산도에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설진 당시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여지도서』(1759)에

8) 『세종실록』권101, 세종 26년 4월 7일 병술.

9) 『세종실록』권109, 세종 27년 7월 26일 무술.

10) 『현종개수실록』권 12, 현종 6년, 1월 28일 을묘.

흑산진은 나주의 남쪽바다에 위치한다. 別將(무관 종5품) 1명, 군관 2명, 吏 1명, 知印 2명이 있으며, 우수영에서 관장한다.¹¹⁾

라고 기록되어 있어 1759년 흑산진은 이미 설치된 상태이며, 우수영 통제하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흑산진 설치논의가 이루어진 1665년(현종 6)부터 1759년(영조 35) 이전 어느 시기에 설치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1864년 『대동지지』에 흑산진의 위치가 다르게 묘사되어 있어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대동지지』의 기록을 그대로 옮겨 보면,

“흑산진은 우이도에 있다. 설진 초기에는 別將을 두었다. 수군만호 1명이 있다.”¹²⁾

고 하여 19세기 중엽의 흑산진은 우이도(도초면 진리)에 설치되었다는 것이다. 또 흑산진은 別將 鎭에서 만호진으로 승격되어 있다.

그런데 『증보문헌비고』에

흑산도는 일명 우이도이다. 水路 300여리, 둘레 30리, 별장진이 있다. (중략) 대흑산도는 옛 黑山 縣이다. 둘레 90리, 흑산도 서쪽 800여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토지가 심히 비옥하다.¹³⁾

라고 하여 흑산도는 현 도초면 우이도를 지칭하고 있고, 대흑산도는 흑산현이 있던 흑산도 체도를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흑산도와 우이도 모두 별장진이 설치되었다는 결론인 셈이다.

신안군에 설치된 대부분의 수군진은 鎭城에 대한 축성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흑산진의 경우도 성을 축조하였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우이도의 '성재' 불리는 곳에 석축의 흔적이 보고된 바 있으나 성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 문헌자료에 불과하지만, 『호남진지』 「흑산진 사례성책」에

(흑산진에서) 서울에 상납할 皮牟 80석은 親軍營에 운납하고, 保錢과 船稅는 나주에 운납한다. 墩臺

11) 『여지도서』나주목 鎭堡

12) 『대동지지』나주목 鎭堡

13) 『증보문헌비고』전라도 나주목

와 瞭望臺에서 근무상황은 매월 우수영에 보고한다. 정배된 죄인을 압송하는 금부도사나 영읍교졸들에게 간혹 음식을 대접한다.¹⁴⁾

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볼 때, 흑산진은 上納·보전·선세·守直·유배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12) 慶州崔氏紀績碑(사진 53)

· 소재지 : 신안군 흑산면 진리 진리교회 앞

· 유적현황 : 예리항에서 일주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향하다 보면 진리마을에 도착한다. 마을 입로에 진리교회가 있는데, 교회공터 앞 밭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이 비석은 新碑를 세우면서 현재의 위치로 이전되었다.

崔氏의 본관은 경주이고, 경주인 益齊先生 諱 齊賢의 孫 李時贊의 妻이다. 성품은 온화하였다. 어느 날 남편이 고깃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하자 최씨가 망연자실하여 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어린 자식이 홀로 버려질까 두려워 죽지 못하고 3년을 눈물로 지새웠다. 집안이 기울자 이웃집에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절구질 품팔이로 어려운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면서도 선조를 극진히 모시니 집안이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 이를 가리키기 위해 鄉人들이 의논하여 비석을 건립하였다.

비석의 앞면에는 <烈婦慶州崔氏紀績碑>라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20행 34자의 비문이 있는데, 舊碑는 閔丙漢이 撰하였고, 李肯馥이 書하였다. 新碑는 金洗洙가 書하였다. 碑의 규모는 높이 119cm, 너비 43cm, 측면 18cm이다. 비석의 형태는 이수, 碑身, 碑座로 이루어졌다.

3. 역사유적 활용방향

▶ 흑산도 읍동마을의 해양사적 의의

흑산도에서 통일신라~고려시대의 역사문화적 흔적이 집중적으로 확인된 것은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에서 1999년부터 1년 동안 흑산도 진리 읍동마을에 있는 상라산성을 조사하면서부터였다. 당시 조사의 초점은 상라산성에 맞추어져 있었지만, 산성 아래의 읍동마을로 조사를 확대하면

14) 『호남진지』「흑산진사배성책」

서 이곳에서 통일신라~고려시대의 역사문화적 흔적이 다량 확인되었던 것이다.

당시 읍동마을에서 상라산성 이외에 상라봉의 제사터, 상라산성 아래 기슭의 절터, 그리고 관사터를 위시로 한 여러 기의 건물지 등을 확인하였고, 지표면에 드러나 있는 청자편, 와편, 와전편 등의 수많은 유물들을 수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절터에서 [无心寺禪院]이라 새겨진 명문 수키와를 수습함으로써 이제까지 알려져 있지 않던 절 이름을 찾아낸 것은 가장 의미있는 성과였다.¹⁵⁾

읍동마을의 지표조사에서 얻은 이러한 성과물들은, 읍동마을이 통일신라~고려시대에 번영을 누리던 국제 해양도시였음을 반영한다. 제사터와 절터는 당시 항해 중이던 사신선 및 상선의 탑승자들이 들러 안전 항해를 기원하던 해양신앙의 처소였을 것이고, 관사터 등의 건물지들은 이들을 위한 숙소 및 편의시설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또한 읍동마을의 지표면에서 다량 수습된 유물들은 당시 국제 해양거점 흑산도의 번영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물증이다. 그렇다면 상라산성은 이렇듯 중요한 읍동마을의 해양거점을 지키기 위한 海防의 군사시설로 봄직하다. 이번 조사에서도 읍동마을의 이러한 위상은 다시 확인되었고, 더욱 보강되었다.

그런데 읍동마을에서 수습된 유물들은 완도 청해진 유적지에서 수습된 것들과 상통하는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청해진과의 관련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장보고가 흑산도를 완도와 더불어 중요한 해양거점으로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더욱이 흑산도 읍동마을과 완도 죽청리 일대에서 공통적으로 고려시대의 유물들도 다량 수습되고 있어, 고려시대까지도 두 지역이 국제 해상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을 함축한다. 이 점에서 흑산도 읍동마을은 완도 죽청리 등지와 더불어 통일신라~고려시대 동아시아 해양사와 해양문화의 네트워크를 구명할 수 있는 양대 유적지라 할 수 있다.

1) 고대·고려시기 유적의 활용방향

(1) 읍동마을의 사적지 지정 및 기획 발굴 조사

흑산도 읍동마을 일대에는 통일신라~고려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비교적 풍부하게 널려 있다. 이번 조사에서 흑산도가 통일신라~고려시대에 동아시아 해상교류에서 중요한 거점의 역할을 담당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곧 흑산도가 완도와 더불어 9세기 장보고 해양활동의 중심 거점이었고, 그러한 해양사적 위상을 고려시대까지 유지해 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보고의 해양

15)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0 『흑산도 상라산성 연구』.

활동은 물론 고려시대 서남해지방의 해양사적 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완도와 더불어 흑산도에 대한 정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가장 시급한 것은 읍동마을에 대한 보존의 문제이다. 최근 들어 조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읍동마을에서 도로공사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건물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어, 전체가 유적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읍동마을 일대가 빠른 속도로 훼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조언을 받지 않고 행정 당국에서 절터나 제사터 등을 ‘보기 좋게’ 정비함으로써, 의도와는 달리 유적지의 원형을 더욱 심각하게 파괴하는 경우도 목격되었다. 따라서 함부로 읍동마을의 지형지물에 손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다. 이를 위해서 읍동마을 일대를 우선 사적지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둘째, 읍동마을에 대한 체계적인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일단 중요 지점을 몇 군데 선정하여 시굴 조사를 하고, 여기에서 의미있는 유구가 걸리면 장기간의 발굴조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읍동마을 전지역에 대한 대규모 전면 발굴을 시도해야 한다. 이 경우 상라산성, 상라봉 제사지, 무심사선원지, 추정 치소 및 관사지 등을 해양도시의 구성요소라는 일관성을 견지해야 한다.

(2) 국내 해양 네트워크의 확인과 활용

▶ 도서지역 산성 네트워크

서남해지방 도서지역에 분포한 고대 산성들의 네트워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조사된 것만 해도 압해도의 송공산성, 고이도의 왕산성, 장산도의 장산토성지와 대성산성, 임자도의 대성산성, 그리고 비금도의 산성산성과 성치산성 등을 들 수 있으며, 앞으로 보다 정밀한 조사를 하게 되면 더 많은 고대 산성들이 찾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흑산도의 상라산성은 이들 도서지역의 산성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산성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이를 복원하게 되면 서남해지방의 훌륭한 고대 항로유적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흑산도 읍동마을과 완도 죽청리 일대와의 네트워크

다음에 흑산도 읍동마을에 대한 조사는 청해진이 설치된 완도 죽청리 일대의 조사와 병행되어야 한다. 두 지역은 지표면의 유물 구성상에서 공통점이 많아 통일신라~고려시대의 동시기에 해상활동의 양대 거점일 가능성이 크다. 두 지역의 발굴조사를 통해서 이 점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장보고 이후 한국 해양활동사에서 알려지지 않은 주요 맥락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3) 국제 해양 네트워크의 확인과 활용

▶ '엔닌의 길' 과 흑산도

일본 천대종 계통의 고승인 엔닌은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 12년간의 당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847년에 귀국하는 도중에 흑산도를 지나쳐 고이도에 이르러 흑산도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견문을 『입당구법순례행기』에 전하였다.

고이도의 서북쪽으로 백 리 남짓한 곳에 흑산도가 있는데 섬의 모습은 동서로 다소 길다. 듣자니 이곳은 백제의 제3 왕자가 도망하여 피난한 곳이라 한다. 오늘날에는 삼사백 가구가 산속에서 살고 있다.]¹⁶⁾

▶ '서공의 길' 과 흑산도

1134년에 송나라 사신 서공이 고려를 방문하고 돌아가서 『고려도경』에 흑산도에 대한 견문을 기록하였다.

[흑산은 ... 처음 바라보면 극히 높고 험준하고, 바짝 다가가면 산세가 중복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 앞의 한 작은 봉우리는 가운데가 굴같이 비어 있고 양쪽 사이가 만입했는데, 배를 감출 만하다. 옛날에는 바닷길을 지날 때 이곳에다 선박을 머물게 하였다. 館舍가 아직 남아 있다. 그런데 이번 길에는 여기에 정박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주민의 부락이 있다. 나라 안의 대죄인으로 죽으을 면한 자들이 흔히 이곳으로 유배되어 온다. 언제나 중국 사신의 배가 이르렀을 때 밤이 되면 산마루에서 봉화불을 밝히고 여러 산들이 차례로 서로 호응하여 왕성에까지 이르는데, 그 일이 이 산에서 시작된다.]¹⁷⁾

▶ '최치원의 길' 과 흑산도

조선후기 이증환은 『택리지』에서 신라 말 최치원 등의 도당 유학시에 취향한 항로를 [영암 구림촌-흑산도-홍의도(홍도)-가가도(가거도)-영파]로 정리한 바 있다. 최치원과 관련된 설화가 화원반도, 비금도, 우이도 등지에 전해오는 것은¹⁸⁾ 이러한 항로와 일치되는 바가 있어 흥미롭다. 『택리지』의 관련 기사는 다음과 같다.

[나주의 서남쪽이 영암군이고 월출산 밑에 위치하였다. 월출산은 한껏 깨끗하고 수려하여 火星이

16) 『入唐求法巡禮行記』 卷4 會昌 7年 9月 4日條.

17) 『高麗圖經』 第35卷 黑山條.

18) 비금도 지표조사 보고서 참조.

하늘에 오르는 산세이다. 산 남쪽은 월남촌이고 서쪽은 구림촌이다. 아울러 신라 때 이름난 마을로서 지역이 서해와 남해가 맞닿는 곳에 위치하였다. 신라에서 당나라로 조공갈 때 모두 이 고을 바닷가에서 배로 떠났다. 바닷길을 하루 가면 흑산도에 이르고, 흑산도에서 또 하루 가면 紅衣島에 이른다. 다시 하루를 가면 可佳島에 이르며, 良方 바람을 만나면 3일이면 台州 寧波府 定海縣에 도착하게 되는데, 실제로 순풍을 만나기만 하면 하루만에 도착할 수도 있다. 남송이 고려와 통행할 때 정해현 바닷가에서 배를 출발시켜 7일만에 고려 경계에 이르고 물에 올랐다는 것이 바로 이 지역이다. 당나라 때 신라 사람이 바다를 건너서 당나라에 들어간 것이 지금 通津 건널목에 배가 잇닿아 있는 것 같았다. 그 당시에 최치원, 김가기, 최승우는 장삿배를 편승하고 당나라에 들어가 과거에 합격하였다.¹⁹⁾

(4) 해양관광과 해양축제에 활용

▶ 흑산도 '빛과 물의 축제'

상라산성과 읍동마을 일대의 유적들에 내포된 해양적 의미를 흑산도의 '빛과 물의 축제'와 관련시켜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1999년 말~2000년 초에 거행된 제1회 흑산도 빛과 바다의 축제는 신해양시대에 어울리는 시기적절한 행사였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축제는 그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 및 맥락, 더 나아가 미래의 비전과 일치하게 될 때,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상라산성과 읍동마을의 유적에 얽힌 역사와 민속 자료는 해양거점으로 변영했던 과거 흑산도의 역사문화적 맥락을 반영하는 것이며, 앞으로 신해양시대를 개척하는 제2의 번영기를 준비하는데 상징적 비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를 충분히 살려 축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축제와 관련된 몇 가지 방안을 예시해 보기로 하자. 먼저 마을 주민들이 해오던 탑제(塔祭)를 활성화시키고 상라산성을 복원하여 성 밟기 행사를 한다. 우리 민속에서 성 밟기는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는데, 더욱이 상라산성에서 바라본 바다의 전경은 매우 아름답고 인상적이며, 상라산성의 성밟기 행사는 참가자들에게 더욱 특이한 경험을 선사하리라 본다. 즉 개인적으로 무병장수를 기원함과 함께 해양으로 뺏어나가는 서남해지방의 진취적 기상을 확인하고 염원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19) 『擇里志』 八道總論 全羅道篇.

▶ 해양관광의 메카

흑산도를 국제 해양관광의 메카로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는, 옛 국제 해양도시의 면모를 보여주는 읍동마을의 유적·유물들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유적을 적정한 선에서 보존 혹은 복원하고 출토유물들을 전시할 수 있는 상설 전시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전시장에는 흑산도에서 출토된 유물 뿐만 아니라 서남해 도서지방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민속자료, 그리고 흑산도와 관련이 깊은 중국 연안지방 및 일본 큐우슈우 지방의 해양관련 유물 및 민속자료를 같이 전시하여 국제적 해양박물관의 면모를 갖추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이다. 이러한 해양박물관은 흑산도의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데도 일조할 것이다.

2000년에 인천항에서 흑산도를 경유하여 제주도로 취항하는 관광 카페리 운항이 계획된 바 있다. 이를 위해 흑산도에 접안시설 확충 공사가 계획되기도 하였다. 앞으로 동북아 물동량이 급증하리라 예상되는 가운데 서남해지방이 동북아 물류기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서남부의 다도해와 우이도-흑산도-홍도-가거도로 이어지는 섬들은 그 빼어난 자연경관과 국제 해상교역의 중심 거점항으로서의 역사적 명성, 그리고 현재의 민속문화가 결합되어 환상적인 국제 해상 관광코스로서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상라산성은 국제 해상무역 및 해상관광의 상징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활용방안을 실천에 옮기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할 전제가 있다. 그것은 읍동마을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흑산도의 유적지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연구를 통해서 보존과 복원 방안이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그나마 남아있는 소중한 문화유적들이 훼손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2) 조선~근현대기의 역사유적 활용방향

(1) 지표조사의 기본 방향과 성과

조선시대의 흑산도는 絶島였지만, 널리 알려졌던 섬이다. 15세기 세종은 점차 늘어나는 도서 이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일례로 1444년(세종 26)에 세종은 제주도 근해와 羅州群島에 대한 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때 세종은 전라도 관찰사 李孟珍에게 “제주도 근해의 백도·흑도·백산도·흑산도 등의 섬이 있다는데, 이러한 섬이 제주도 근처에 몇 개나 있는지, 또 선박이 이들 섬을 왕래할 수 있는지, 바람과 물이 험악해서 내왕이 불편

한 섬은 몇 개나 있는지, 연해변에 살면서 물에 익숙한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명하였다. 이렇듯 조선전기의 흑산도는 중앙정부에서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이나 각종 『지리지』에서 쉽게 확인된다.

한편 조선후기의 흑산도는 유배지로 많이 이용되었다. 조선시대의 섬 가운데 유배지로 가장 많이 이용되었던 곳은 제주도·거제도·흑산도·진도·남해 순이었다. 이 가운데 흑산도는 다른 섬에 비해 규모가 적은 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배지로 이용되었다. 그 이유는 흑산도가 규모면에서 볼 때 큰 섬은 아니었지만, 제주도만큼이나 絶島라는 입지적 조건 때문이었다.

이처럼 흑산도는 조선시대의 관찬기록에서 쉽게 확인되었다. 이에 조사팀은 조선~근현대기 흑산도 관련 문헌자료와 기존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기초자료를 검토하였다. 먼저 조선정부의 관찬사료인 『조선왕조실록』 『지리지』 『비변사등록』 등을 토대로 역사적 배경과 인물, 관련 유적 등을 검토하였다. 그 다음에 신안군과 신안문화원, 그리고 대학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조사대상을 검출하였다.²⁰⁾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참고가 되었던 자료는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에서 실시한 학술조사보고서인 『도서문화』(제6집, 1988년)였다. 이에 따르면, 흑산도의 역사문화적 배경을 고문헌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또 섬주민들의 생활문화는 현지조사를 통해 자세히 기술되어 있었다. 또 하나의 자료는 목포대 박물관에서 실시한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였다. 2003년 신안군 흑산면 소사지구 지방상수도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시한 지표조사에서 흑산도 주민들의 생활문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유형·무형의 역사유적이 총 정리되어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인된 조선~근·현대기 흑산도의 역사유적은 총 12건이었다. 다음 <표 1>은 흑산도 관련 역사유적을 유형별 분류한 것이다.

<표 1> 조선~근·현대기 흑산도 역사유적의 유형별 분류

유형	記念物	孝烈閣	水軍鎮	齋閣	碑石						합계
					遺墟碑	不忘碑	頌德碑	紀念碑	紀績碑	懿烈碑	
유적수	1	1	1	1	2	1	1	1	2	1	12

20)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도서문화』6집, 1988.

목포대 박물관, 『신안군의 문화유적』, 목포대 박물관 학술총서 제9책, 1987.

신안군, 『신안군지』, 2000.

목포대 박물관, 『신안군 흑산면 소사지구 지방상수도시설 사업지역내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 2003.

위의 <표 1>에 나타나 있듯이, 흑산도에서 확인된 역사유적의 종류는 다양하지 않다. 또 현전하는 자료의 수도 많지 않다. 그러나 흑산도의 역사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어 흥미롭다. 특히 2가지 측면에서 주목되는데, 하나는 관방시설인 흑산도진의 역사이고, 다른 하나는 흑산도가 절도 정배지로 활용된 점이다. 먼저 수군진의 경우, 조선정부의 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의 표현이었다. 즉 수군진의 설치는 외세침입에 대한 정부의 군사적 대응이었기 때문이다. 서남해 도서지역에 수군진이 설치된 것은 조선전기이다. 서남해 도서가 왜구출몰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海防으로서의 군사적 기능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흑산도에 수군진이 설치된 것은 1759년에 別將이 파견된 것으로 추정된다. 바로 조선후기에 설치된 흑산도진은 소실되어 현전하지 않지만, 흑산도 진리마을 가옥들의 담장에서 그 흔적이 발견된다. 다음으로 섬이 유배지로 활용되면서 유배인들의 유배생활의 한 단면을 엿 볼 수 있는 유배문화자원이다. 이에 해당하는 유적은 19세기초에 흑산도 사리마을로 유배된 손암 정약전의 유배지인 복성재와 19세기말에 흑산도 천촌리에서 유배생활을 했던 면암 최익현의 유배유적인 지장암과 유허비가 그것이다. 손암과 면암은 유배지 흑산도에서 제자를 양성하는 서당을 운영하였고, 섬주민들의 제보를 토대로 다양한 저술활동을 하였다.

이와 같이 흑산도에 현전하는 조선~근현대기의 유적은 儒學을 숭상했던 시대적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문화자원이었다.

(2) 활용방향

① 흑산도진과 옥섬을 활용한 關防施設 관련 전시기획

흑산진은 흑산도 진리, 가거도, 그리고 도초면 우이도 진리에 설치되었던 水軍 別將鎭이다. 흑산진의 창설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 1665년(현종 6)에 설진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지만, 이 때 창설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여지도서』(1759년)에 흑산진이 등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665년~1759년 어느 시기에 設鎭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수군진의 기능은 海防을 최우선으로 강조하였지만, 실제 섬주민들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능을 겸하고 있었다. 오늘날 군청이나 면사무소가 담당하였던 기능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즉 섬주민들의 인구조사와 세금, 각종 민사소송과 형사사건까지 관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흑산진터는 역대 지리지와 구전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現 흑산면사무소 뒷편 마을회관터로 추정된다. 그리고 부대시설의 흔적들이 진리마을 가옥에서 발견되고 있다. 또 수군진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진리마을 앞 바닷가에 위치한 옥섬에 관한 구전자료이다. 옥섬은 읍동 앞 바다에

떠 있는 작은 섬이다. 현재 방파제가 설치되어 있어 섬 속의 섬이 되어 버렸다. 구전에 의하면, 흑산진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감옥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즉 죄인을 형벌로 다스리기에 앞서 이 옥섬으로 추방시켜 일정기간동안 마을주민들로부터 격리시키는 형벌이었다고 한다. 물론 죄인에게는 식량과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격리되어 있는 동안 죄인은 스스로 먹거리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실제 주민들은 옥섬이 읍동에서 바라보면 아주 작은 섬에 불과하지만, 실제 섬으로 들어가보면 옥섬 주변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수도 있고, 각종 해산물이 풍부하여 죄인들이 충분히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한다. 다만 죄를 지은 사람을 본섬에서 추방하여 격리시키는 자체가 형벌인 셈이다.

이렇듯 서남해 도서지역은 우리나라 내륙을 방비하는 관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 방어시설을 살펴보면, 내륙 깊숙한 곳에 主鎭이 있고, 그 외곽 연해지역에 巨鎭이 있으며, 그 바깥에 諸鎭이 있었다. 대체로 섬은 내륙을 보호하는 諸鎭에 해당되었다. 이러한 수군진에는 종 5품의 武官 1명이 파견되고, 그 아래에 軍官 2명, 吏 1명, 知印 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관할 수군진은 해남에 설치되어 있었던 右水營이었다. 흑산진에서는 매년 皮牟 80석을 親軍營에 운납하고, 행정관할지인 나주목에는 船稅를 납부하였다. 또 흑산진에 소속된 수군은 매일 墩臺에 올라가 해안을 경비하고 그 결과를 매월 우수영에 보고하였다.

이러한 흑산도진과 관련된 제반 시설이나 구전자료를 진리마을이나 읍동마을에 공간을 마련하여 전시하거나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② 유배 관련 문화체험 및 자료관 운영

섬은 육지와 단절된 고립된 공간이다. 섬주민들은 육지에서 일어나는 일에 쉽게 동참할 수 없었고, 소식을 전해 듣는 것도 늘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섬으로 유배를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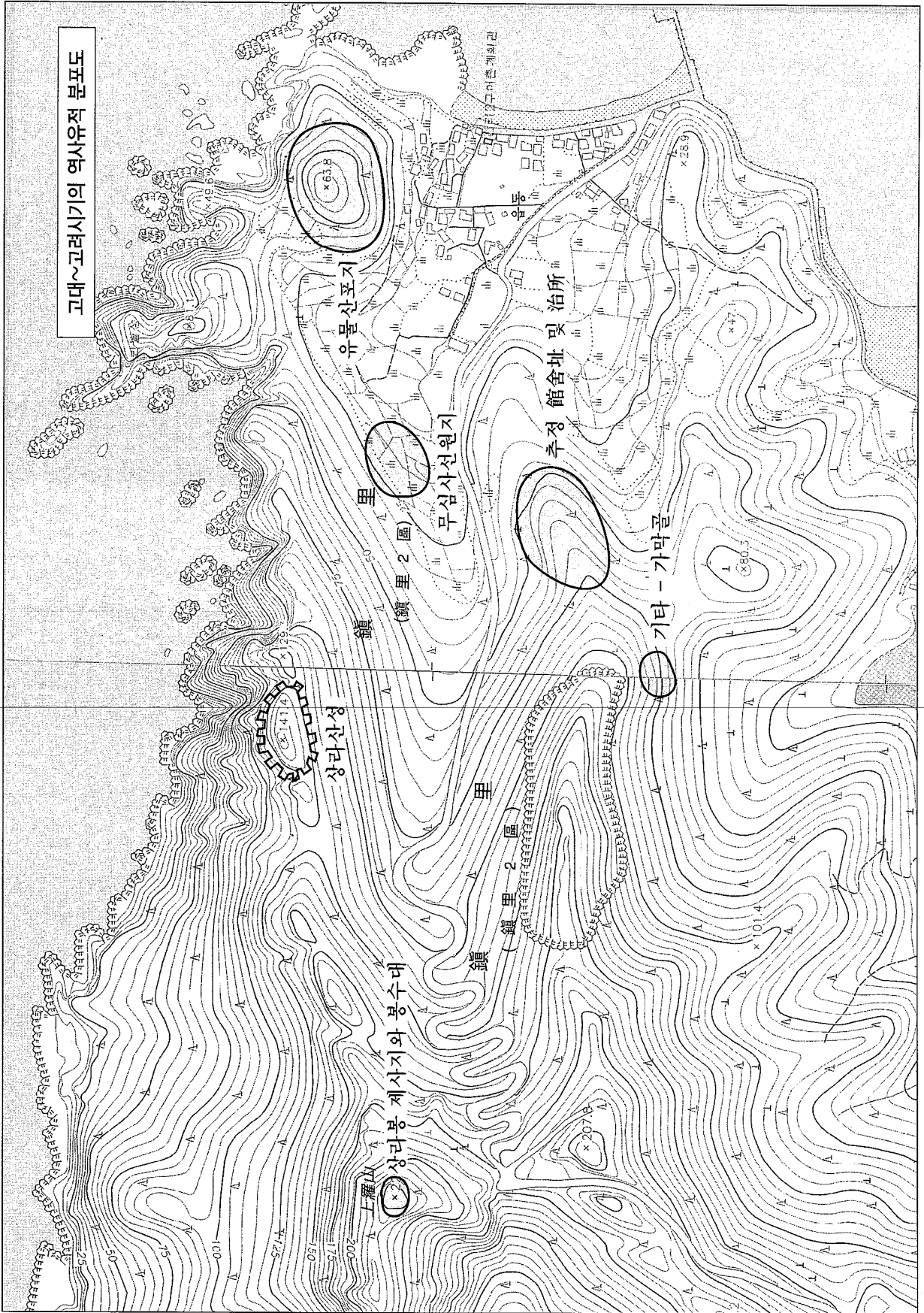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조선시대의 유배지는 대략 400여 곳으로 확인된다. 이 가운데 약 30여 곳이 섬이다. 또 섬으로 보내지는 유배인의 수는 내륙의 유배지에 비해 훨씬 많았다. 섬 가운데 유배지로 가장 많이 이용되었던 곳은 제주도·거제도·흑산도·진도·남해 등이었다. 제주도 이외에 유배지로 주목되는 섬은 흑산도이다. 앞서 거론되었던 제주도·거제도·진도·남해 등은 일찍이 섬을 단위로 하여 郡을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섬이었다. 반면에 흑산도는 이들 섬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작은 섬이었지만, 제주도와 거제도 다음으로 가장 많이 유배지로 이용되었던

곳이다. 이러한 흑산도가 유배지로 이용되었던 시기는 고려 인종 때로 확인된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르면, 15세기에는 확인되지 않으며, 17세기 이후에 유배지로 다시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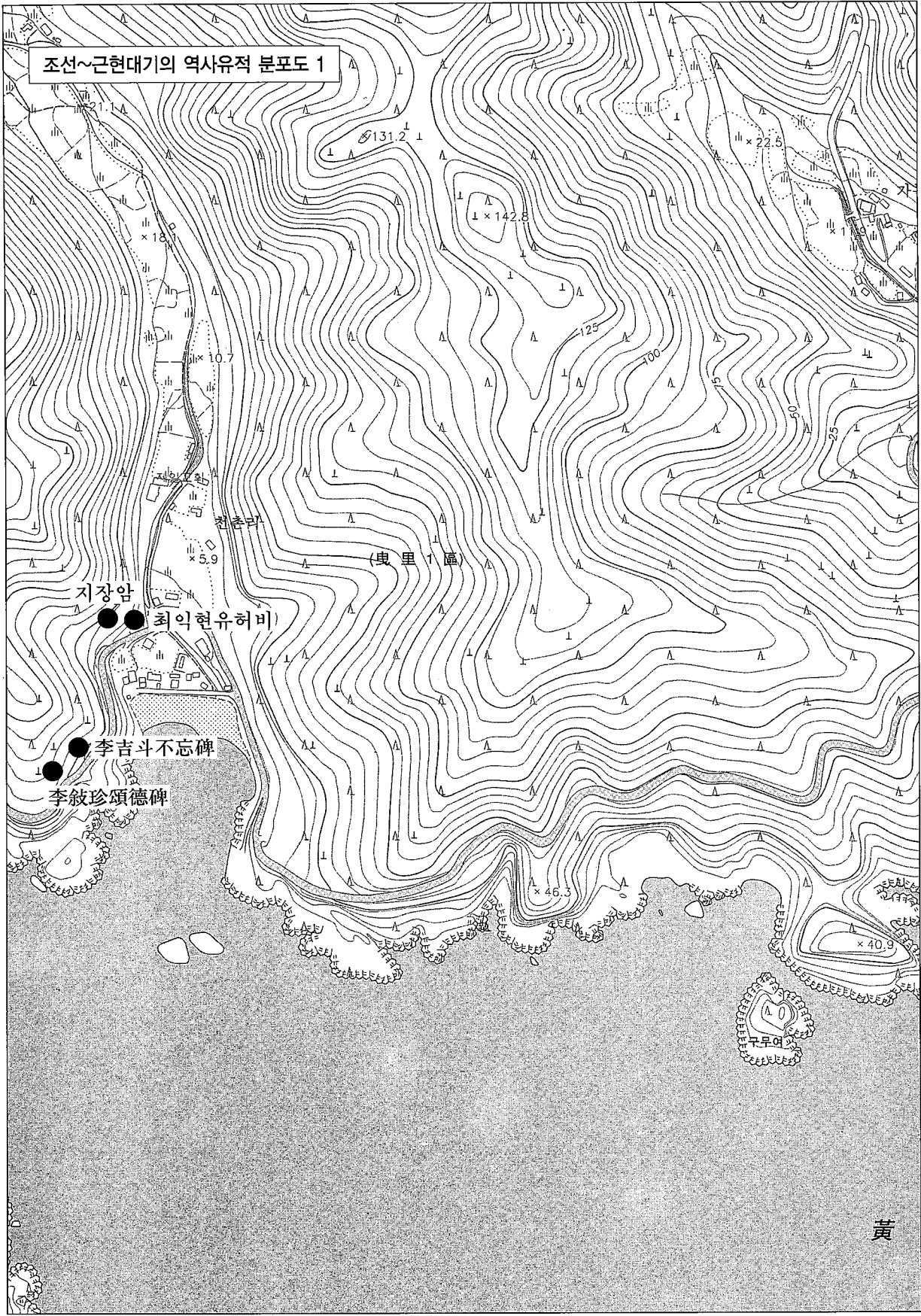
흑산도로 유배된 사람 가운데 유배생활의 단면을 엿 볼 수 있는 사례는 丁若銓(1758~1816)과 崔益鉉(1833~1906)의 유배로 인해 더욱 주목된 것으로 보인다. 정약전은 다산 정약용의 형으로, 1801년(순조 1) 신유옥사 때 흑산도로 귀양가서 그 곳에서 생을 마친 인물이다. 그는 흑산도에 머무는 동안 文淳得이라는 우이도 사람의 표해 사실을 정리한 『漂海錄』과 魚類 및 해산물, 섬의 풍속 등을 정리한 『玆山魚譜』를 편찬하였다. 또 면암 최익현은 1876년 강화도조약이 체결되자 이에 반대하는 '五不可斥和議'라는 상소를 올렸다가, 흑산도로 유배되었다. 흑산도로 유배명령은 받은 면암 최익현은 1876년 9월 무안읍에 도착하고, 9월 10일에 다경포진을 출발하여, 압태도·팔금도·기좌도·도초도·비금도를 경유하여 9월 16일에 우이도에 도착하였다. 우이도에 도착한 면암은 文寅周의 집에 위리안치되었다. 그 후 정확한 연대는 확인되지 않지만, 면암은 우이도에서 흑산도로 이배되었다. 흑산도에 도착한 면암은 흑산도 鎭里에서 日新堂이라는 서당에 머물면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 후 면암은 흑산도 진리에서 천촌리로 옮겨 指掌岩에서 후진 양성에 전념하였다. 현재 遺墟地에 "箕封江山 洪武日月"이라는 그의 친필이 새겨져 있고, 그 앞에 1924년 9월 면암의 문하생들이 스승을 추모하면서 건립한 [勉庵崔先生謫廬遺墟碑]가 있다.

유배의 역사 및 문화를 활용하여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배문화의 독특한 경험을 신안군의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연장시킴으로써 흑산권 관광활성화와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유배문화 자원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은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겠다. 첫째, 유배제도의 이해이다. 즉 유배의 개념과 종류, 집행절차와 유배여정 등을 활용하여 유배제도 및 유배생활 등을 사실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는 유배 교육의 장을 만들 수 있다. 둘째, 유배인의 생활문화이다. 유배들의 유배생활, 유배문학, 유배일기, 유배인과 차문화 등을 활용하여 유배인의 생활문화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셋째, 유배인물 탐구이다. 정약전과 최익현의 유배생활을 소재로 한다면, 박물학자 정약전의 생활을 『자산어보』의 제작과정과 문순득의 『표해록』 기술과정 등을 소재로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방안이다. 또 진리와 천촌리의 최익현 관련 유적지를 복원하고 최익현의 인물 탐구가 이루어지도록 구성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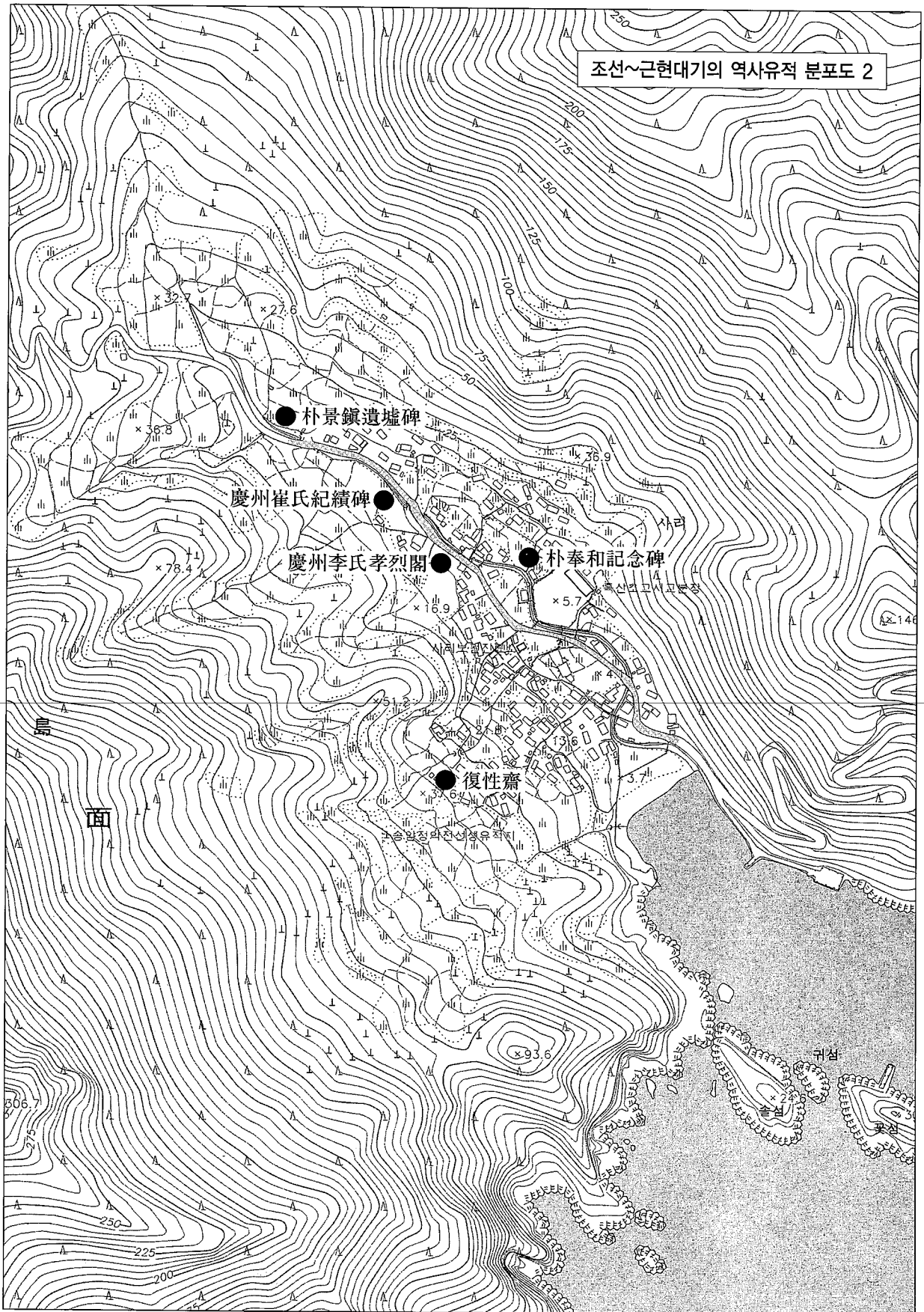
고대~고려시기의 역사유적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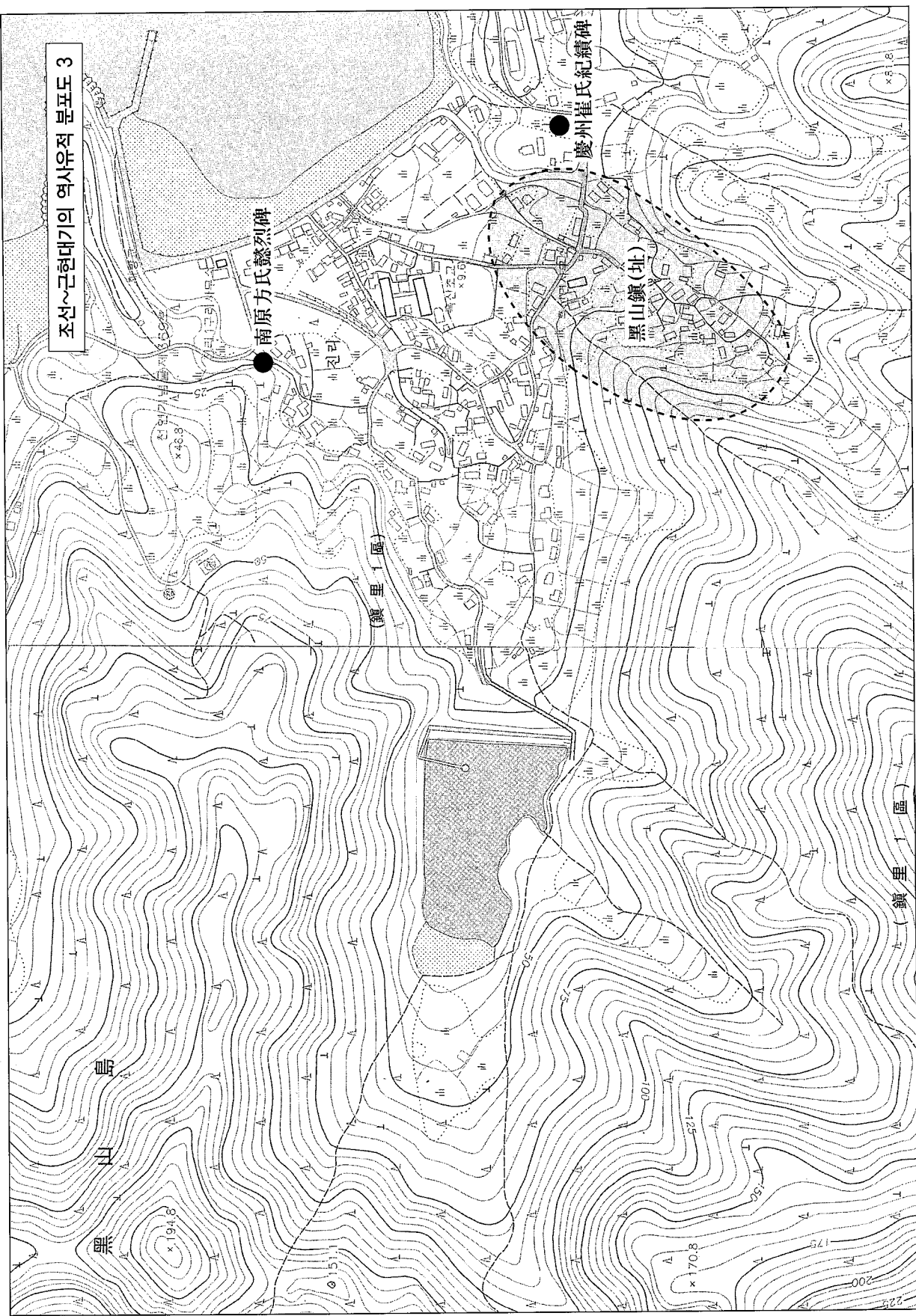
조선~근현대기의 역사유적 분포도 1



조선~근현대기의 역사유적 분포도 2



조선~근현대기의 역사유적 분포도 3



南原方懿烈碑

慶州崔氏紀績碑

黑山(址)

鎮里(區)

鎮里(區)

黑山

島

194.8

170.8

125

100

75

50

225

200



사진 1. 읍동마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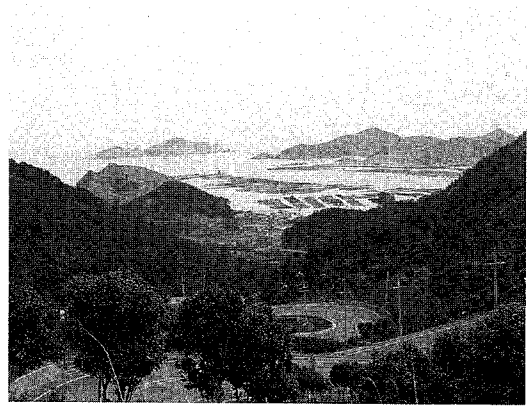


사진 2. 상라봉에서 바라본 읍동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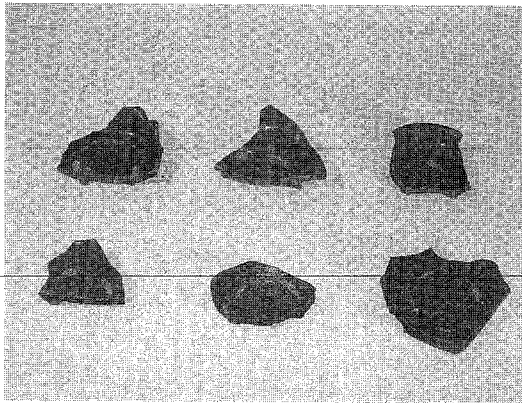


사진 3. 읍동마을 수습 초기청자편(윗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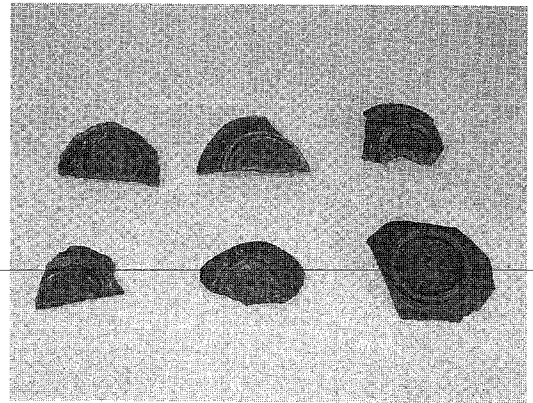


사진 4. 읍동마을 수습 초기청자편(밑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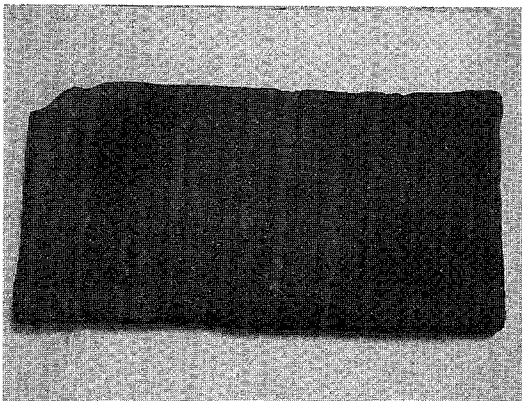


사진 5. 읍동마을 수습 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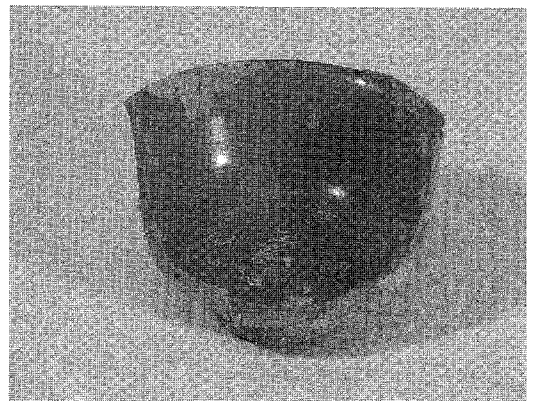


사진 6. 읍동마을 앞바다에서 건져올린 백자편



사진 7. 읍동마을 주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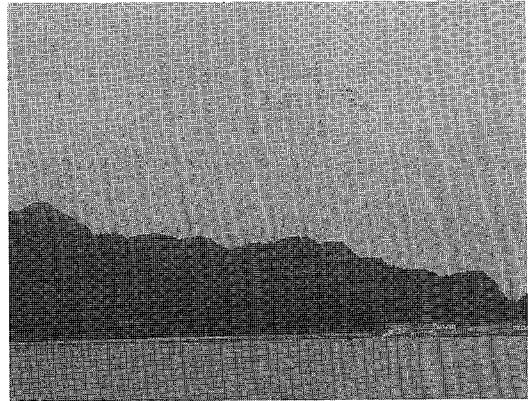


사진 8. 상라산성 원경(예리항에서)



사진 9. 상라산성 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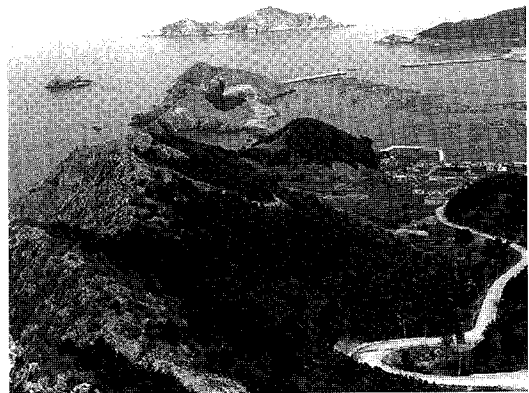


사진 10. 상라산성과 읍동마을(상라봉에서)



사진 11. 상라산성 건물지 전경(서)



사진 12. 상라산성 건물지 남쪽담장



사진 13. 상라산성 외벽



사진 14. 상라산성 성벽 상면



사진 15. 무심사선원지 전경



사진 16. 무심사선원지 수습 문초석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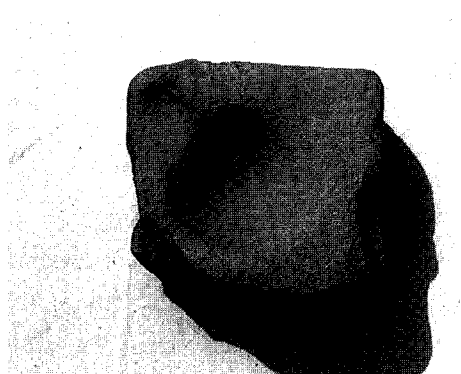


사진 17. 무심사선원지 수습 문초석2



사진 18. 무심사선원지 수습 명문 수키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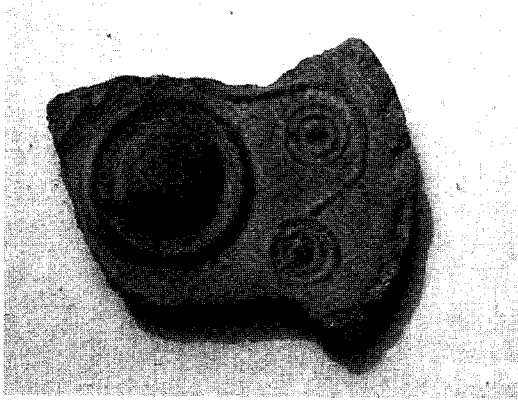


사진 19. 무심사선원지 수습 수막새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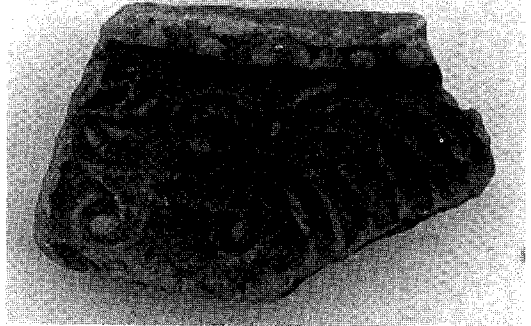


사진 20. 무심사선원지 수습 암막새편



사진 21. 무심사선원지 석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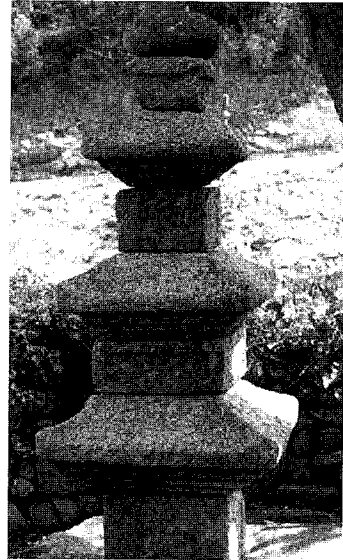


사진 22. 무심사선원지 석탑



사진 23. 추정선원사지 지표면의 주초석



사진 24. 상라봉 제사유적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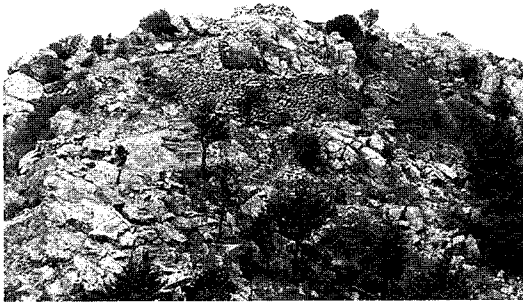


사진 25. 상라봉 제사유적 근경



사진 26. 상라봉 봉수대 건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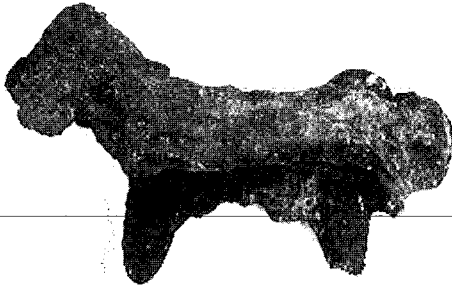


사진 27. 상라봉 제사유적 수습 철제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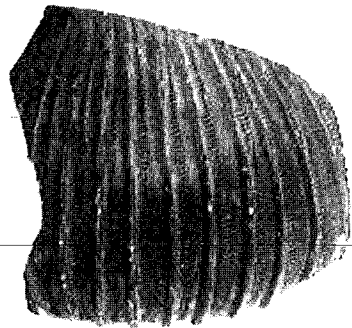


사진 28. 상라산 제사유적 수습 주름무늬병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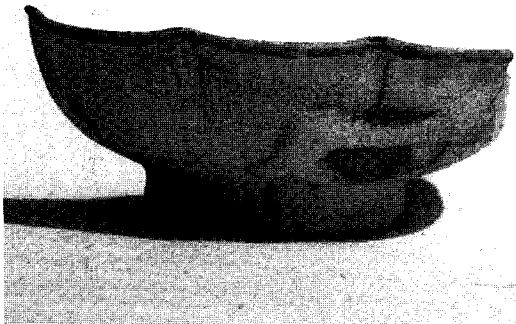


사진 29. 상라봉 제사유적 수습 청자완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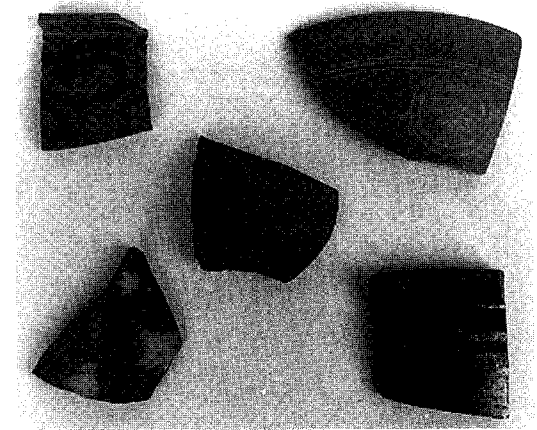


사진 30. 상라봉 제사유적 수습 청자구연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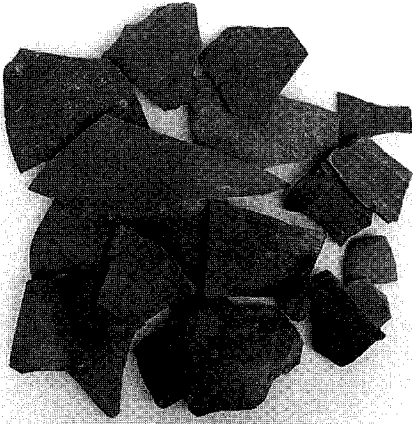


사진 31. 상라봉 제사유적 수습 흑갈유동체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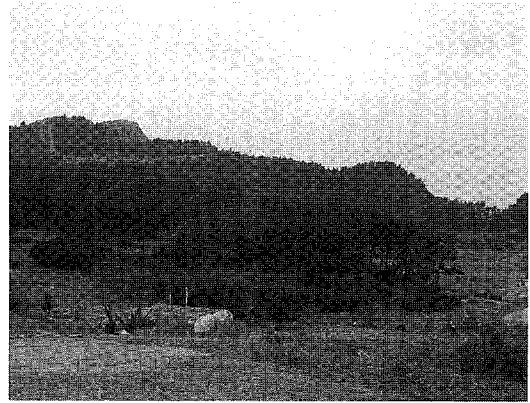


사진 32. 추정 관사 혹은 현청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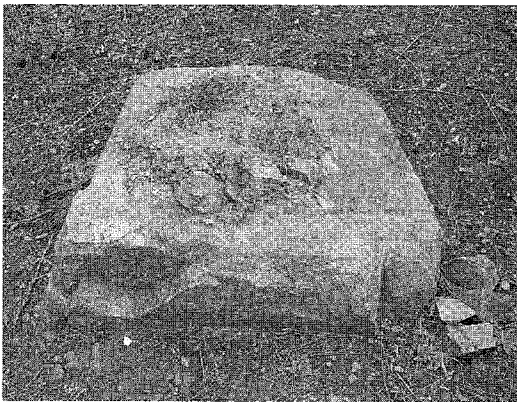


사진 33. 추정 관사 혹은 현청지 주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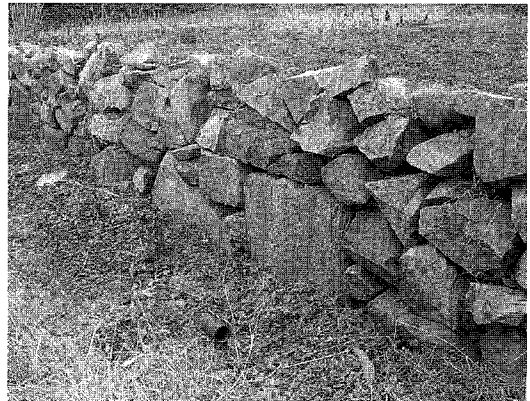


사진 34. 추정 관사 혹은 현청지 석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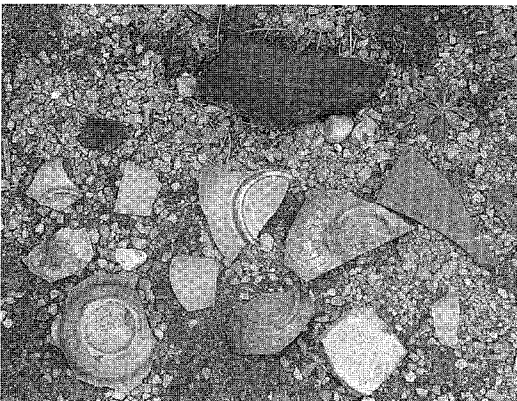


사진 35. 추정 치소 지표면의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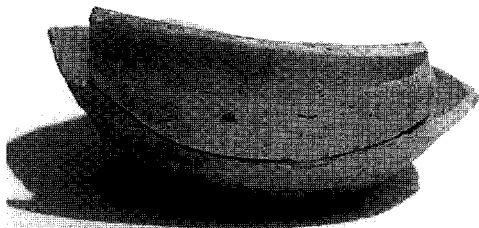


사진 36. 추정 치소 수습 완형토기편



사진 37. 추정 치소 수습 청자완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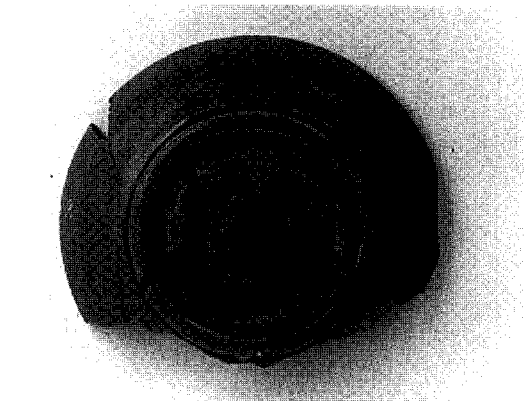


사진 38. 추정 치소 수습 청자접시편



사진 39. 추정 치소 수습 해무리굽청자편



사진 40. 읍동마을 유물산포지



사진 41. 가막골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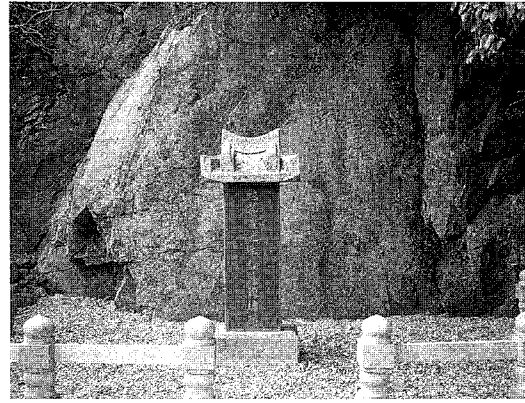


사진 42. 최익현유허비



사진 43. 지장암



사진 44. 李吉斗不忘碑



사진 45. 李敍珍頌德碑



사진 46. 복성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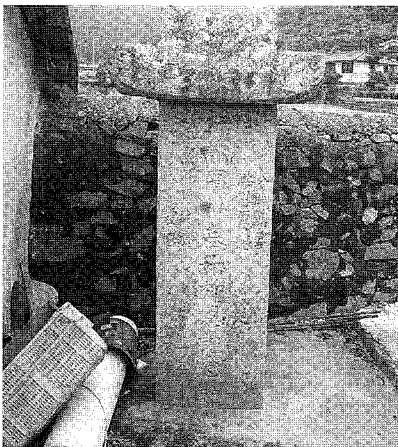


사진 47. 朴奉和記念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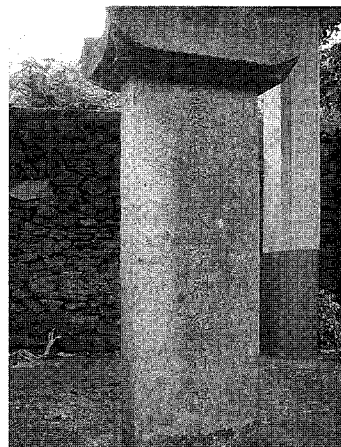


사진 48. 慶州李氏孝烈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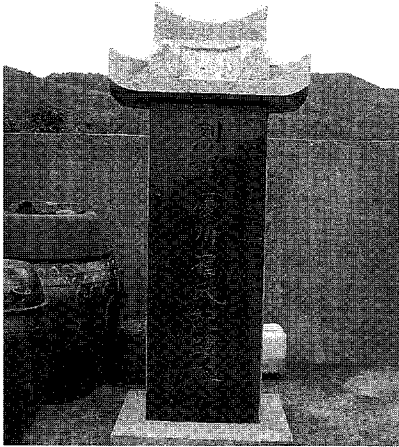


사진 49. 慶州崔氏紀績碑



사진 50. 朴景鎮遺墟碑



사진 51. 南原方氏懿烈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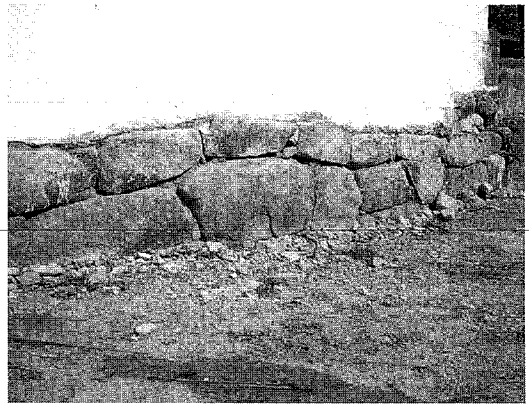


사진 52. 黑山鎮(址)



사진 53. 慶州崔氏紀績碑

Ⅳ. 민속문화자원

1. 민속문화자원 목록

〈표 1〉 당제 목록

번호	마을	이름	신격(제당)	제일	제보자, 참고문헌	현황
1	홍도 석촌	①당제 ②독제 ③산신제	①총각신(당집) ②(엄바위) ③(선창)	1/1~1/3	『다도해의 당제』	87년 중단
2	홍동 죽항리	당제	산신, 당 할머니, 할아버지, 잡신, 용신, 堂木	1/3	『다도해의 당제』	중단
3	비리 비리	당제	당영감, 당할머니 (당집)	1/3	『신안군지』 『신안군의 문화유적』	현행
4	비리 마리	①당제 ②독제 (용왕제)	①마을수호신(당집), ②용왕님(선착장)	①1/3 ②7·8월 날받이	『신안군지』 『신안군의 문화유적』 『도서문화』 6집	당제(2000중단) 독제(2001년 중단)
5	사리 사리	산신제	산신, 성조신, 당산할아버지, 당산할머니, 저애기씨님, 총각, 미륵장군, 강남대별상(당집)	1월 날받이	『다도해의 당제』 『신안군의 문화유적』	1990년 즈음 중단
6	진리 진리	당제, 용왕제	①당각시, 도련님(당집) ②용왕(용신당)	1/3	『다도해의 당제』 『신안군의 문화유적』 현지조사	4~5년 전 중단
7	다물도 다촌	당산제	당산할아버지, 할머니, 소저애기 씨, 별방 도련님(마을뒷산 당산)	날받이	『신안군의 문화유적』	87년 중단
8	수리	①상당제 ②하당제 ③독제	①당할아버지(마을뒤 당집) ②당할머니(마을뒤 당집) ③용왕신	1/14~15	『다도해의 당제』 『신안군의 문화유적』	87년 중단
9	오리	당제	당영감	1/3	『신안군의 문화유적』	87년 중단
10	진리 읍동	①탑제 ②용왕제 (갯제)	①산신할아버지, 할머니(암탑, 솟탑) ②용신(바닷가)	1/1	『다도해의 당제』 『도서문화』 6집	87년 중단
11	천촌리	①상당제 ②장승제	①당할아버지, 당할머니(당집) ②영감장승, 각시장승	1/1	『다도해의 당제』	20여년전 중단
12	소사리	당제	당할아버지, 할머니 (당집)	1/1	『다도해의 당제』	20여년전 중단
13	심리	①당제 ②독제	①당할아버지, 당할머니 (당신목과 석단) ②용왕	①1/3 ②6월 날받이	『다도해의 당제』	중단

번호	마을	이름	신격(제당)	제일	제보자, 참고문헌	현황
14	영산도	당제	당할아버지, 당할머니, 별방들런님, 소저아기씨님, 산신님, 김침지영감	1/1	『다도해의 당제』	중단
15	태도 상태도	①당제 ②용왕제 ③거릿제	①당영감(당집) ②사해용왕, 세존용왕(마을 앞 바닷가) ③사대천왕(마을 앞 바닷가)	12/30~ 1/2	『다도해의 당제』 『도서문화』 6집	8년전 발전소 생긴후 중단
16	태도 하태도	당제	산당할아버지, 할머니, 딸(당집)	1/1~ 1/3	『다도해의 당제』	87년 중단
17	가거도 항리	당산제	당할머니(마을 중앙 樹林)	1/1	『신안군의 문화유적』	87년 중단
18	가거도 대리	당제	상당 : 당할아버지, 3동자, 산신 하당 : 명씨할멈, 산신, 용신, 잡신등 12신	12/30~ 1/1	『다도해의 당제』	현행
19	가거도 대풍리	당제	당할아버지, 명씨할멈, 자물쇠(석축단, 당집)	1/2	『다도해의 당제』	중단

〈표 2〉 갯제 목록

번호	마을	이름	신격(제당)	제일	제보자, 참고문헌	현황
1	진리	용왕제	용왕(바닷가)	1/3	『다도해의 당제』 『신안군지』	4~5년 전 중단
2	진리 읍동	용왕제 (갯제)	용신(바닷가)	1/1	『다도해의 당제』 『도서문화』 6집	87년 중단
3	수리	갯제	용왕(바닷가)	1/4	『다도해의 당제』	87년 중단
4	천촌리	독제	용왕(바닷가)	7~8월중 날받이	『다도해의 당제』	20여년전 중단
5	소사리	독제	용왕(바닷가)	7~8월중 날받이	『다도해의 당제』	20여년전 중단
6	심리	독제	유황님(바닷가)	7월 날받이	『다도해의 당제』	중단
7	영산도	독제		1/2	『다도해의 당제』	중단
8	홍도 석촌	독제	할아버지, 할머니, 총각(당집)	1/1~3	『다도해의 당제』	87년 중단
9	홍도 죽항리	독제		1/3	『다도해의 당제』	20여년전 중단
10	마리	독제	유왕신(유왕당-바닷가)	7~8월 날받이	『신안군의 문화유적』	2001년 중단
11	비리	독제	허수아비(바닷가)	날받이	『도서문화』 6집	중단
12	태도	독제	용왕(바닷가)	1/4	『다도해의 당제』	중단
13	가거도 대리	독제	용왕(바닷가)	1/1	『다도해의 당제』	87년 중단
14	가거도대풍리	독제	서낭영감(바닷가)	1/1	『다도해의 당제』	중단

〈표 3〉 장승 목록

번호	마을	이름	기수	관련제외	제보자, 참고문헌	사진	비고
1	천촌리	영감장승, 각시장승	1	장승제(1/1)	『다도해의 당제』		비현존

〈표 4〉 어로문화자원 목록

번호	제 목	제보자	제보지역	제보일자	비고
1	기후예지	이수철(남,68) 이선희(남,73)	심리	2003. 7. 22	현지조사
2	홍어잡이	김은현(남, 59)외	심리	2003. 7. 22	현지조사
3	멸치잡이	박동남(남,78)외	예리	2003. 12. 30	현지조사
4	조기잡이그물어업	채길상(남,82)외	수리	2003. 7. 21	현지조사
5	조기잡이연승어업	김은현(남,59)외	심리	2003. 7. 22	현지조사
6	상어잡이	이수철(남,68)외	심리	2003. 7. 22	현지조사
7	등태잡이	박동남(남,78)외	예리	2003. 12. 30	현지조사
8	고등어잡이	윤강산(남,77)외	진리	2003. 7. 21	현지조사
9	장어잡이	박동남(남,78)외	심리	2003. 12. 30	현지조사
10	간재미잡이	김은현(남,59)외	예리	2003. 7. 22	현지조사
11	고래잡이	박동남(남,77)외	심리	2003. 12. 30	현지조사
12	산쟁이잡이	윤강산(남,77)외	예리	2003. 7. 21~23	현지조사
13	빨과고기(홍어맛)	윤강산(남,77)외	심리	2003. 7. 21~23	현지조사
14	무래질과 채취어업	박광례(여,80) 최순남(여,56)외	심리	2003. 7. 22	현지조사
15	파시	박동남(남,78)	예리	2003.12. 30	현지조사
16	자산어보와 어류				자산어보
17	어장분포와 품	문경섭(남,56)외	심리	2003. 7. 22	현지조사
18	흑산도의 배	조일옥(남,63) 이수갑(남,87)	목포시 심리	2003. 7. 22	현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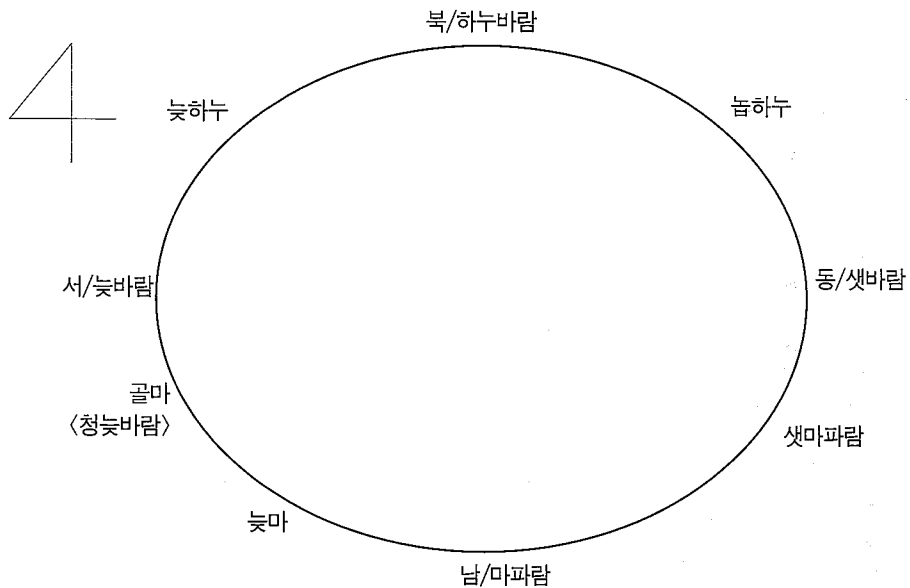
〈표 5〉 민요자원 목록

번호	제 목	제보자	제보지역	제보일자	비고
1	진리 뱃노래1	장춘자(여, 51)	진리	1987. 7. 16	도서문화6집
2	가거도 멸치잡이소리		가거도		신안군지
3	가거도 강강술래		가거도		신안군지
4	둘깨꼭지1	박방배(여, 1921)		1989. 9. 6	민요대전 전남편
5	둘깨꼭지2	문곤지(여, 67)	가거도 대리	1989. 9. 7	민요대전 전남편
6	동당애타령	이맹심(여, 68)	예리	1987. 7. 14	도서문화6집
7	가거도 산다이2	정이득(여, 48)	가거도 대리	1989. 9. 7	민요대전 전남편
8	심리 해녀눓소리	김춘단(여, 68) 박일단(여)외	흑산 심리	2003. 7. 22	현지조사
9	상여소리	윤강산(남, 77) 외	흑산 심리	2003. 7. 22	현지조사

〈표 6〉 심리의 물때표와 어로활동 목록

음력일자	10/25	11/26	12/27	13/28	14/29
조수이름	한물	두물	세물	네물	다섯물
어로잡업	어장을 중심으로 주낙 등 낚시어업, 고기 활동 왕성, 남성 중심 어로활동 기간				
조차/조류속도	물발 약함		물이 살기 시작	물이 살기 시작	물이 살아남
음력일자	15/30	16/1	17/2	18/3	19/4
조수이름	여섯물	일곱물	여덟물	아홉물	열물
어로잡업	조간대어업(갯바위 해조류 채취 및 나잠어로, 고기 활동 약함) 여성 중심 어로활동 기간				
조차/조류속도	물이 점차 세짐	물발 셀 때	물발 셈	물발 셈	
음력일자	20/5	21/6	22/7	23/8	24/9
조수이름	첫객기(열한물)	마지막객기(열두물)	첫조금	마지막조금	무수
어로잡업	어장을 중심으로 주낙 등 낚시어업, 고기 활동 왕성. 남성 중심 어로활동 기간				
조차/조류속도	물발 없음				

〈표 7〉 심리의 바람에 대한 인지



2. 민속문화자원 현황

1) 당제 · 갯제

(1) 당제

① 진리 당제

ㄱ. 제당 구성 및 성격

흑산도 진리 마을의 당제는 예로부터 성대한 규모로 이름높았으며, 堂은 흑산의 本堂이라고 전해 질만큼 권위를 갖춘 것이었다. 上堂과 龍神堂이 있으며, 이 외에 갯가에서 갯제를 지낼 때 임시로 설치하는 제청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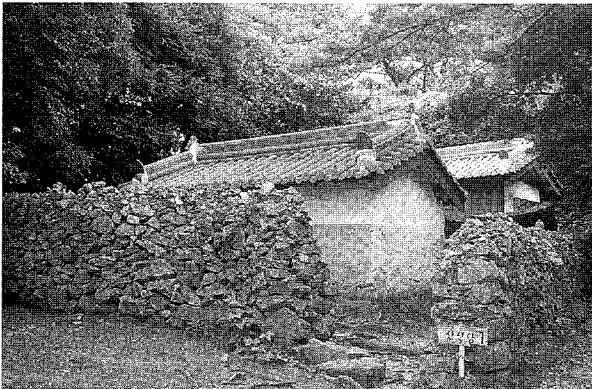
상당의 형성과 관련해서는 '당각시 설화'와 '총각화상 설화' 두 편이 전한다. 이들 설화들은 당각시와 총각화상이 어떻게 해서 堂神으로 좌정하게 되었는가를 전하고 있다. 그 설화의 줄거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당각시 이야기〉

친녀, 총각이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다. 남편이 고기잡으러 갔다가 죽었다. 각시가 목을 매어 죽었다. 주민들이 각시가 죽은 자리에 당을 지어 원혼을 모셨다. 그리고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했다.

〈총각화상 이야기〉

진리에 총각화상이 웅기를 파는 배를 타고 왔다. 총각이 피리를 불면 바다가 잠잠하고 고기가 많이 잡혔다. 웅기 장수 일행이 출발하려고 하자 당각시가 풍랑을 일으켜 못 떠나도록 방해했다. 당각시를 달래기 위해 총각을 섬에 떼어놓고 웅기배가 출항했다. 총각화상이 혼자 남아 피리를 불다가 죽었다. 주민들이 총각을 당각시 옆에 모시고, 용신으로 믿고 기원한다.



흑산도 진리당

이러한 설화가 얹힌 상당은 두 겹의 돌담으로 둘러쳐져 있다. 안쪽 돌담은, 신을 모신 당집과 제기과 취사도구들을 넣어 놓은 문간방들을 잇고 있다. 현 당집은 상당 기둥에 쓰여 있는 건조 연월일로 보아 1938년 7월 1일에 지어진 것이다. 그 전의 집을 헐고 지금의 기와집으로 새로 지었다고 한다. 얼마 전까지는 '소저아기씨(당각시)', '상궁부인', '제석님', '산중처사님', '도령(총각화상)'의 종이 위패가 있었고, '상궁부인'과 '제석님'의 중간에는 위패는 없으나 '당할머니'가 좌정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또 위패의 중간에 '신배[당배]'가 걸려 있었고, 이 당의 또 다른 신체인 성주단지 및 쌀 뒤주, 들돌 등이 놓여져 있었다. 그러나 몇 해 전 화재 이후 이러한 유물들은 자취가 없어지고 다만 한지로 만든 '당배'만 걸려 있다. 상당의 오른쪽 돌담 밖에는 바다의 신인 용왕이 좌정한 용신당이 있으며, 당집 앞으로는 돌담 밖에 넓은 마당이 있고, 당집을 등지고 서서 마당 우측에 총각화상이 떨어져 죽었다는 노송과 그의 무덤이 있다. 마당에서는 4월 초파일 경로잔치를 비롯한 각종 마을잔치와 집회가 열리기도 한다. 그리고 당 아래편 마을 쪽으로 개안이라는 바다 여울과 접해서 당샘이 있다.

본래 진리의 당제는 제의 기간이나 절차로 보아 상당히 성대했다. 그렇지만 지금은 과거에 비해 약화되어 있다. 특히 제의 기간이 음력 정초부터 3일간이었던 것, 제관들이 들돌을 들어 보아 가벼우면 신들이 제물을 잘 흠양했다고 여겼던 의례, 그리고 갯제에서 무당을 불러 용왕굿을 성대하게 진행했던 내용 등은 현재의 당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총각화상의 전설이 깃든 당마당의 무덤

ㄴ. 당제 준비

당제를 지내기 2일 전에 마을 이장이 예리에 가서 쌀과 소지 종이 등의 물품을 구입해 온다. 제물 구입 경비는 마을공동기금에서 충당된다. 신격들이 육류와 어류의 냄새를 싫어하므로 준비되는 제

물은 메와 술, 과일, 식물성 음식물이다. 음력 정월 초하룻날 새벽, 선정된 3명의 제관(1명은 제를 주관하고 2명은 보좌한다)들이 몇 벌의 깨끗한 옷가지와 그 동안 먹을 식량, 제수용 물품 등을 챙겨서 당으로 간다. 우선 상당의 당집과 용신당, 당샘을 청소하고 문간방의 한쪽방에 보관해 놓은 시루, 절구, 그 밖의 제기들을 씻은 후, 제장 주위에 황토를 뿌리고 원새끼로 끈 금줄을 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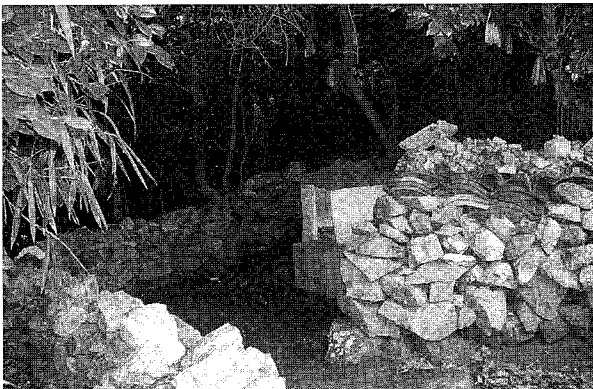
진리당제 제보자

진설할 제물의 준비를 위해 제관들은 쌀에서 겨, 반점이 있는 쌀알들을 하나하나 골라 낸다. 메를 정히 지으려는 의도이며, 제를 지낼 때까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다음 들갓, 더덕, 고사리를 술에 넣고 간을 맞추어 익힌다. 이 나물류는 반드시 주민들로부터 회사받는데, 이는 진리의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마을의 산에서 손수 채취한 것을 제물로 써야 정성이 담긴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㉔. 당제 진행

준비를 마친 제관들은 제물을 진설하고 子時 무렵 재배, 헌작, 구축, 소지 등의 절차에 맞춰 상당제를 거행한다. 구축의 내용은 당제의 일반적인 기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마을의 안녕, 무병, 탈없는 농사와 어업, 객지에 나간 이들의 안녕 등이다. 소지는 제관, 마을 전체, 각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된다.

상당제를 마친 제관들은 龍神堂으로 가서 용신에게 제를 지낸다. 용신에게 드리는 제물은 창호지



진리당 뒤의 산신제단

에 진설되며, 제를 마친 후 제물들을 바로 아래에 있는 바다에 헌식하면서 뱃길의 무사와 풍어를 기원한다. 과거 큰 배들이 많았을 때에는 평상시에도 오랫동안 먼 바다에 나갔던 배들이 들어와 개안에 배를 대고서 절을 하고 구축을 하는 등의 간단한 의례적 행위를 했다고 한다.

ㄷ. 제후 행사 및 전승현황

상당제와 용신에 대한 제가 끝나면 제관은 당마당에 장작불을 피워 주민들에게 알린다. 주민들은 그것을 보고 농악을 앞세워 당에 오른다. 주민들은 평상시에는 접근하지 못했던 당집의 열려진 문으로 당집 내부를 구경하고, 당각시 등의 신격들에 소망을 발원하기도 한다. 제관들은 진설되었던 제물 중 일부씩을 떼어 동서남북 사방에 뿌리는 辭神을 한다. 주변에 떠도는 잡신들도 흠향시키는 것이다. 다음 남은 제물들을 모여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음복을 한다.

과거에는 새벽에 당에서 내려와 바닷가에서 성대한 갯제와 용왕굿을 지냈다. 해변에서의 갯제는 마을 부녀자들이 진행했으며 용왕굿은 선주들이 불러온 무당이 진행했다. 갯제는 당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제의였고, 용왕굿은 원할 때에 무당을 불러다 하는 특별한 의례였다. 갯제를 지낼 때는 짚으로 만든 허수아비를 바다로 띄워 보내며, 칼잡이를 하여 칼날이 바다 쪽으로 꽂혀야만 액을 쫓고 풍어와 안전한 뱃길을 보장받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지금은 이와 같은 용왕굿이 행해지지 않고 갯제도 요식적으로 행해질 뿐이다. 용왕굿의 경우 주관할 무당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옛날처럼 풍요로운 어업이 아니라서 심리적으로도 굿을 벌일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제 후의 절궁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농악대는 마을 이장, 마을 어른, 제관들의 집과 원하는 이들의 집을 돌며 농악을 쳐준다. 그리고 여느 곳의 절궁과 마찬가지로 대문, 우물, 부엌, 대청 등지에 있는 家神들에게 그 집의 명과 복을 빌고, 잡귀, 잡신을 쳐내는 의례 행위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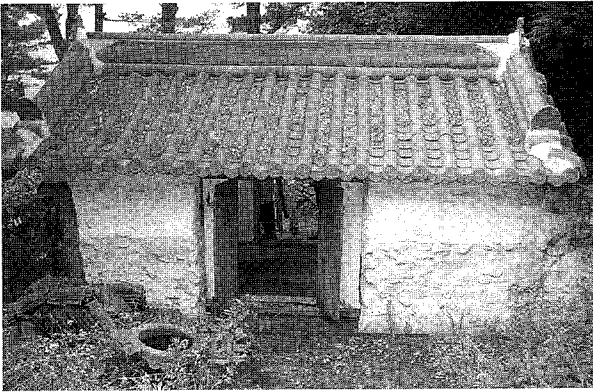


진리당의 성주독, 들독, 면포

□ 참고문헌

〈최덕원, 『다도해의 당제』, 학문사,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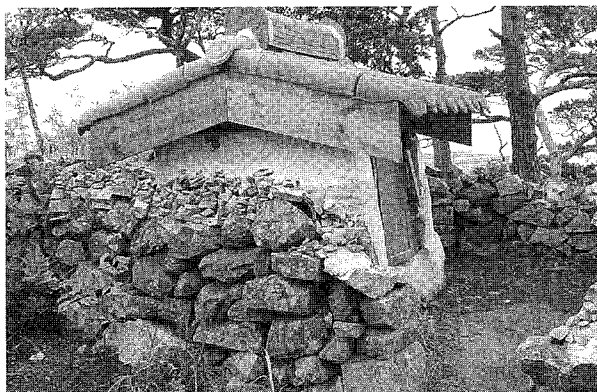
〈조경만, 「흑산 사람들의 삶과 민간신앙」, 『도서문화 6』,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988.〉



당집 앞의 부속건물(이곳에서 제물 장만을 한다)



부속건물 안에 보관된 제기



진리 용신당

② 비리마을 당제

ㄱ. 당 구성 및 신격

비리 마을은 흑산면의 북서쪽에 위치한 배산임해의 마을로 예리항과는 배로 20여분 거리이다. 1998년 현재 36호에 102명(남58, 여44)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김해김씨가 가장 많은 호수를 차지한다. 마을의 주업은 어업으로 우럭, 멸치, 농어가 잡히고 부녀자들이 잠수하여 채취하는 전복, 미역 등의 해산물도 비중 높은 소득원이다.

마을에서는 매년 정월 초하루부터 초사흘까지 3일 간 당산에서 당제를 지낸다. 제장인 당산은 마을 북쪽 산중턱에 있는데, 주민들은 제를 지내는 곳을 상당, 제주가 거주하는 곳을 하당이고 부르고 있다. 상당, 하당 모두 기와의 맞배지붕에 블록으로 벽을 쌓은 단칸집이다. 하당에는 제기실이 있고 그 안에 술, 절구 등이 보관되어 있다. 당샘은 당산에서 약 30m 떨어진 바닷가 해안 근처에 있다. 당샘은 일반 주민에게 제 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워낙 물이 시원하고 맛이 좋아 일부 주민들이 사용하곤 하여 작년에는 샘뎡개를 덮어 함부로 사용치 못하게 하고 있다.

당신은 당영감과 할머니 부부이다. 상당 내에는 당신의 화상이 있고, 한지로 만든 지전이 걸려 있다. '당거리' 라고 불리우는 이 지전은 당신의 신체로 알려져 있다. 주민들은 당을 매우 신성시하여 함부로 접근하지 않으며 특히 마을에 상이나 산고가 있을 때 당집의 문을 열면 벌을 받는다는 속신을 갖고 있다. 또한 이 마을 주민들이 당제 전과 당제가 진행되는 기간을 신성시하는 관념도 여타의 마을보다 훨씬 강하다. 우선 제일 전에 마을에 상이나 출산이 있으면 그 해의 제를 포기한다. 당제를 연기해도 한 겨울에 당샘에 벌레, 뱀 등의 흉물이 나타나는 등 반드시 상서롭지 못한 징조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제를 얼마나 잘 지냈는가의 여부는 쉽게 나타난다. 만약 어딘가 잘못이 있으면, 마을에 쥐가 들끓어 농사를 망치기 때문에 쉽사리 당제에 잘못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ㄴ. 당제 준비

연말 총회 때 마을의 전 주민이 모인 자리에서 2명의 제관이 선출된다. 부정하지 않고 의식의 순서를 아는 사람 1명과 그를 보좌하여 줄 사람 1명이 제관으로 선출된다. 제관에게는 약간의 수고비가 마을 공동기금에서 지급된다. 제일 3일 전에 제관들은 당제에 쓸 화목을 마련하며, 주민들은 당에 올라가 당집과 당샘을 깨끗이 청소하고 금줄을 친 후 내려온다. 그 후 주민들은 일체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않고 제일까지 조용히 지낸다. 나아가 제일에는 당근처에 배도 지나갈 수 없다 한다.

제관들이 하당에 올라 메, 떡, 산채를 준비하되 이때 고기와 술은 절대로 마련하지 않는다고 한다. 제물 마련 등의 비용은 한해 평균 6만여원으로 모두 마을 기금에서 사용한다.

ㄷ. 당제 진행

정월 초하루 자정부터 새벽 3시경까지 제를 지낸다. <설상 - 재배 - 구축 - 소지 - 헌식>의 순서로 제를 지낸다. 소지에서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소지를 올리는데 종이가 올라가는 상태를 보고 그 집 한 해의 운세를 예측한다. 즉 소지가 위로 잘 올라가면 한해의 운세가 좋고 떨어지면 그 반대라는 것이다. 제관은 소지가 제대로 오르지 않은 가정에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알면 낙심하기 때문에 소지 결과를 일체 말하지 않는다. 제를 지낸 다음 제물을 제장 주위 5~6군데에 묻어 헌식한다.

ㄹ. 제후 행사 및 전승 현황

당제를 끝내면 제관은 촛불을 흔들며 마을에 제가 끝났음을 알린다. 이를 본 마을 주민들은 농악대와 함께 굿을 올리며 당에 올랐다가 제관들을 데리고 마을로 내려온다. 이어서 주민들은 마을 회관에서 남은 제물을 먹으면서 굿을 치고 즐긴다. 남은 제물을 제관에게 모두 주는 경우도 있다.

□ 참고문헌

『신안군의 문화유적』, 목포대 박물관 · 신안군, 1987, 223쪽.)

③ 비리 마리마을 산제·당제

ㄱ. 제당 구성 및 신격

마리마을은 흑산면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 북동쪽의 산을 넘으면 진리의 읍동마을이 있고, 남쪽으로 비리마을과 인접한 이 마을은 면소재지인 진리에서 도보로 1시간 10여분, 해로를 통해서도 배로 15분 거리이다. 마을이 바다와 접한 관례로 29호 중 20호가 어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으며, 주요산물로는 미역, 툇, 우럭 등이 있다.

산제·당제의 제장은 마을 남쪽 산 중턱에 있다. 주민들은 이 곳을 '당산'이라 부른다. 그러나 본래의 당은 이 곳이 아니고 마을 북쪽 산에 있는 바위였다. 당이 이 곳으로 옮겨온 내력이 주민들의 제장에 관한 관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전의 당이었던 바위에는 신체인 한지가 걸려 있었다. 어

느 날 태풍이 불어 이 신체(한지)가 날아가 현재의 당자리에 있었던 자팝나무에 걸렸다. 이를 본 주민들은 신이 원해서 이리로 왔으니 이곳이 당이 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는, 자팝나무를 베고 그 자리에 새로 당집을 지었다.

당은 본당과 화당으로 구분된다. 먼저 본당은 신체인 한지가 걸린 곳으로써 상당과 하당이 있다. 그러나 실제 상당과 하당이 따로 지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 같은 당내에 신체인 한지가 3개 걸린 좌측은 상당, 2개 걸린 우측은 하당이라 부를 뿐이다. 상당에서는 하당의 토주가 되는 산신에게 '산제'를, 하당에서는 이보다 격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는 당신에게 제를 지낸다. 본당 좌측 아래에 화당이 있다. 화당은 제기를 보관하고, 제 기간 동안 제주가 거쳐하며 음식을 장만하는 곳이다.

ㄴ. 당제 준비

제를 주관하는 제주는 연말 마을회의에서 결정한다. 마을 성인들 중 생기복덕이 많고 가정과 가족원들도 깨끗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명을 선정한다. 이 2명 모두 '제주'라고 부른다. 이중 1명은 제를 주관하고 다른 1명은 보좌역할을 한다. 일단 제주로 선정되면 제일까지 근신하면서 온갖 정성을 드려야 한다. 육식을 하지 않아야 하고 잡인과의 대화도 금해야 하며, 친척집에서 상이 났어도 출입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정월 초하루가 되면 제주들은 당에 올라 본당과 화당, 그리고 당샘을 청소한 후 금줄을 친다. 또한 당에 오르는 길목에도 금줄을 쳐서 잡인의 근접을 막는다. 일단 당에 오른 제주들은 초사흘까지 근신하며 대소변 후에도 반드시 목욕하는 등 온갖 정성을 기울인다. 음식을 먹으면 대소변을 보아야 하고 그 때마다 찬물로 몸을 씻어야 하기 때문에 3일동안 제주들은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집에 있는 제주의 가족들도 부정한 음식을 가리는 등 일체의 행동을 조심하며 나머지 주민들 역시 큰 소리를 삼가고, 밭에 분뇨 시비를 피하며 밤에는 일찍 자는 등의 정성을 기울인다.

제물은 화당에서 준비한다. 전에는 메, 산채, 떡 모두를 화당에서 마련했으나 근래에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떡만큰은 집에서 만들어 당으로 가져온다. 제물로 육류나 해물을 삼간다. 이때 쓰이는 쌀은 3개월 전에 준비하여 이 사무소에 보관했다가 제주가 선정된 후 그에게 지급된 것이다. 산채는 마을에서 채취한 것만을 사용한다. 제물을 장만할 때 쓰는 비용과 제주 수고비 2만원을 합쳐 평균 5~6만원의 제비가 소요되며 이를 마을 공동자금으로 충당한다.

ㄷ. 당제 진행

초사흘 자정부터 새벽 4~5시 사이에 산제와 당제를 지낸다. 맨 먼저 정화수를 진설하고 다음 <설상 - 구축 - 재배 - 소지 - 사신>의 순으로 제를 지낸다. 소지는 호당 소지로서 전 호주를 호명하면서 올린다. 이때 배를 소유한 선주가 뱃기(기)를 가져오면 그 배의 안전을 위해 한 번 더 소지를 올려준다. 뱃기가 어떤 종교적 의례를 갖는 것을 '당맞이'라 하는데 이 때 뱃기는 배를 대표하는 것이다. 당에 뱃기가 올라오면 소지를 올려주는 것도 '당맞이'의 일종이다. 사신이란 잡신을 먹이는 헌식의 절차로서 제물을 조금씩 떼어 본당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땅을 파고 묻는다.

ㄷ. 제후 행사 및 전승현황

산제와 당제가 끝나면 제주는 불을 피워 주민들에게 종료를 알린다. 피어오른 불을 본 주민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풍장(농악)을 앞세우고 당에 올라 제주들을 데리고 마을로 내려온다. 마을에서 주민들은 남은 제물을 먹으며 풍장을 치고 흥겹게 논다. 풍장은 흥을 돋굴 뿐 아니라 잡귀들을 쫓아내고 제신을 위로하는 기능을 한다.

□ 참고문헌

〈『신안군의 문화유적』, 목포대 박물관 · 신안군, 1987, 225쪽.〉

④ 흑산면 읍동 당제

ㄱ. 제당 구성 및 성격

흑산 진리 면소재지에서 1km 떨어진 곳에 읍동이 있다. 44가구에 19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옛날의 흑산 읍지로 가장 큰 마을이었다 한다. 마을 뒷산에 있는 산정을 향해 반월형으로 쌓아 축성되어



흑산도 읍동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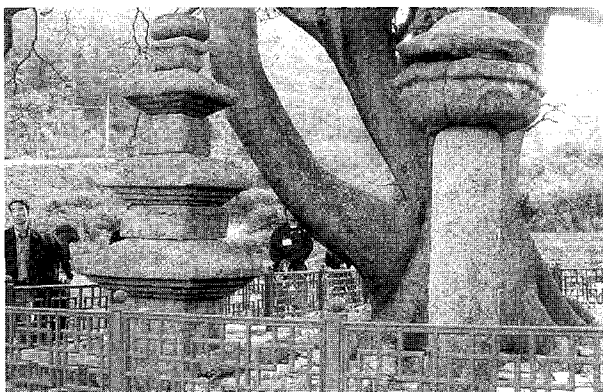
있어 반월성이라 부르고 있다. 성의 길이는 300m 가량이며, 석축의 높이는 2m로 중앙에는 망망대해를 바라볼 수 있는 200평 가량의 광장이 있으며 서북쪽에는 바다에 접한 단애 적벽을 이루고 있다. 석성은 신명의 영험이 있어 출입을 삼가며, 석성의 돌덩이를 임의로 사용하지 못한다.

반월성은 방위성도 아니며 봉화대가 있었던 곳도 아니다. 이 성은 비금도의 성치산성과 장산도의 대성산성, 화의 상태도 서리의 대성산성과 더불어 고대의 산상제성인 천제제단으로 볼 수도 있다.

산성에서 500m 아래 평지에 읍동의 탑당이 있다. 탑당에는 암당과 숫당이 있으며, 그 앞에 당신위를 모신 당집이 있다. 산성과 탑당이 조성된 설화는 다음과 같다.

아주 옛날에 불심이 강하고 의리에 밝은 장사가 살고 있었다. 역사는 늘 선심을 쓰며 주민들을 위해 좋은 일을 도맡아 봉사하는 장사였다. 그런데 이 고장에 해적이 있어 주민을 괴롭히고 지나는 배를 약탈하며, 모진 악행을 하므로 장사는 죽음을 각오하고 해적굴에 들어가 두목을 만나 다른 지역으로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적을 말도록 권하였으나, 듣지 않으므로 내기를 하여 지면 생명을 내놓기로 하였다. 제한된 시간에 인원수가 가장 많은 해적은 산성을 쌓고 장사는 큰 바위를 헐어 3층탑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인원수가 많은 해적이 거의 성을 완성하였을 때 역사는 이미 탑을 쌓아 올렸다. 역사가 이긴 것이다. 언약대로 해적은 산정 해변에서 목을 베었다. 그때의 선혈로 절벽의 암석은 지금도 붉게 물들어 있다. 의리에 강한 장사가 만들었던 암탑과 숫탑 양탑은 영험이 있어 이를 마을수호신으로 모시게 되었다 한다.

마을 뒤편 평지에 위치한 탑당은 반월성 산 밑에 있다. 높이 80cm의 돌담이 4각형으로 축조되어 있다. 그 중앙에 300여년이 된 팽나무의 당목이 있으며, 팽나무 밑 동북방에 암탑과 숫탑이 서 있다.



읍동 탑당

암탑의 높이는 165cm, 솟탑의 높이는 185cm이며 3층탑이다. 각 탑 앞에는 높이 83cm, 폭 87cm의 콘크리트 당집이 있다. 그 속에는 당걸이가 있어 매년 새로운 신베를 걸어 놓는다. 당목 서쪽에 또 하나의 들담이 있고, 그 속에 높이가 83cm, 폭이 87cm인 콘크리트 당집이 있는데 여기에 산신을 모시고 있다.

읍동 마을 박동연(54세)씨가 탑당 안에서 中元 甲辰이라 새겨진 기와장을 본 바 있다고 하나, 그 연대가 B.C 147년이므로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은 유물이 나온 것으로 보아 고사찰이 있었거나 규모가 큰 당집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된다. 탑과 석등의 조성연대는 탑형태와 구조 등으로 보아 통일 신라시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ㄴ. 당제 준비

10월의 마을회의에서 생기를 보고 부정이 없는 2인의 제관이 선정되며, 이들은 2개월 동안 부정 한 곳의 출입을 삼가고 각자의 집에서 3일간 목욕재계한 후 당제를 지내게 된다. 화뿔불을 피우며 탑 양위인 암탑과 솟탑, 산신에게 매 3상과 흰떡, 해물로 장만한 제물을 올린다. 제상에는 육물은 놓지 않는다.

ㄷ. 당제 진행

선달 그믐날 밤에 당에 올라가서 정월 초하루 자시 경에 제사를 지낸다.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구축한 후 각호의 소지를 올리며 농악군이 당에 올라와 당굿을 치면 동네 각호에서도 성주님께 제상을 차린다.

ㄹ. 제후 행사 및 전승현황

당굿을 치고 당샘과 동네 샘에 이르러 샘굿을 한다. 이어 해변에서 용왕제인 갯제를 모실 때 갯굿을 친 다음 각호를 돌아다니면서 마당밧기를 한다. 온 동네는 농악과 춤과 제물로 풍요한 축제를 맞이한다.

□ 참고문헌

〈최덕원, 『다도해의 당제』, 학문사, 1983.〉

⑤ 천촌 당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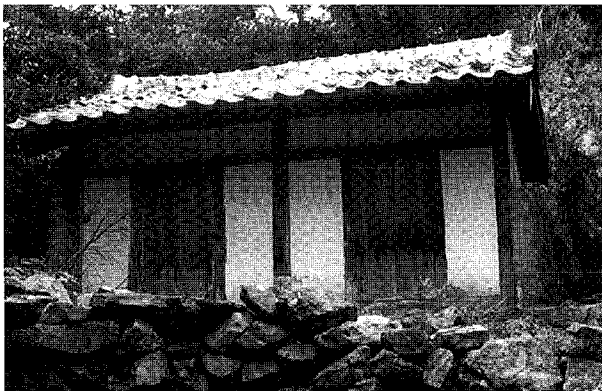
ㄱ. 제당 구성 및 성격

천촌리는 흑산도의 제일 큰 마을인 예리 1구에서 7.2km 떨어진 마을로 선편으로 40~50분 소요되며, 도보로는 60분의 거리에 있다. 당의 조성은 4백년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며, 이웃 마을인 청촌리와 소사리 당들이 이 당에서 분당되었다고 한다.

천촌마을이 굽어 보이는 옆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는 당집은 돌담으로 쌓여 있다. 돌담의 높이는 80cm, 앞담의 길이 8m, 옆담의 길이 5m, 당의 높이는 2m, 앞의 길이 4m, 옆길이 2m이며 와당으로 당향을 하고 있다. 북편간에는 호수대로 보수배와 지전이 걸려 있고 좌측 남방의 간에는 제기가 있으며 신당 밖의 좌측에는 떡판과 절구가 놓여있다. 우측 10m 거리에 큰 바위가 있으며 그 바위 밑에 산신 동굴이 있는데 여기에다 산신에게 바칠 제기를 놓아 둔다.

원래는 이런 와가의 당집이 아니어서 마을 호수대로 띠짚을 가지고 와서 생기 좋은 날에 지붕을 이어 당집을 조성했으나 1919년에 와가 당집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현 당집은 1919년에 신축한 것으로 이 근방 당사 중 그 규모가 훌륭한 기와집 신당이다.

상당에는 당할아버지와 할머니 양위를 모시며 신베를 신위로 모시고 있다. 당집 옆 암굴에서는 산신을 모신다.



흑산도 천촌리 당

ㄴ. 당제 준비

선달에 달이 없으면 선달 그믐에 생기가 맞는 화주가 당에 들어간다. 화주가 당에 들어가게 되면 마을민들의 통행이 금지되고 누구도 집 밖에 나오지 못한다. 제주들이 당샘으로 물을 길으러 갈 때에 흑시 부정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마을에 우환이 있게 되므로 통행을 금한다.

정월 초하루의 자시에 제사를 올리는데 화주가 먼저 올라가 제물을 준비하고 설상하면 무녀가 당에 올라온다. 무녀는 당에 오르기 직전에 당샘에서 목욕재계하고 새 옷을 입은 후에 징과 북을 치며 당굿을 한다.

ㄷ. 당제 진행

축문은 없고 제물은 마른 명태와 찢밥과 나물 등을 차리며 마음 속으로 消災祈福을 축원하고 소지를 올린다. 새벽에 내려와 하당제와 장승제를 올리는데 하당에는 300여년이 넘는 두 그루의 신목인 동백나무가 있다. 이 신목 앞에 매 두 상을 올리고 옆에 있는 영감장승과 각시장승에게 한지를 펴놓고 제물을 바친다.

ㄹ. 제후 행사 및 전승 현황

모든 제가 끝나면 각호에 찢밥과 제물을 돌려 음복하게 한다. 이어 동네회의를 한 다음 조용하게 하루를 보낸다. 장승은 3년마다 만들어 모시는데 목장승의 크기는 영감의 높이가 125cm, 각시는 160cm정도였다. 지금은 이 장승이 없다.

□ 참고문헌

〈최덕원, 『다도해의 당제』, 학문사, 1983.〉

⑥ 흑산면 소사리 당제

ㄱ. 제당 구성 및 신격

소사리는 예리항에서 7.6km에 위치하며 선편으로 50분 가량 소요되는 마을이다. 마을 안 당산에 신당이 있는데 당의 형성과 관련된 구전이 전한다. “옛날에 고승이 당 자리에 불당을 짓고 수도생활을 하고 있었다. 박씨 문중에서 이 자리가 명당임을 알고 절 옆에 묘를 쓴 후 승려가 자취를 감추었다. 그후 폐사터에 당신을 모시게 되었는데, 설풍과 비를 맞게 되어 주민들의 합의로 1966년(丙午年) 정월 14일에 당집을 지었다.” 노인들에 입도조가 당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김해김씨 12대조가 입도조이므로 약 400년 전 당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신은 당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며 당집 위쪽에 산신이 모셔져 있다. 마을 옆산 중턱에 남서로 앉아 있는 당은 고송, 동백, 후박, 재밥나무 등의 숲 속에 자리하고 있다. 당집 주위에는 돌담이

있는데 그 길이는 22.8m, 높이는 65cm이며, 1m 50cm의 안쪽에 당집이 있다. 신당의 높이는 2m, 가로 4.2m, 세로 2.8m의 스테이트 지붕으로 반분된 좌측에 당신의 신위인 보수베와 지전이 모셔져 있고 제상이 놓여있다. 우측에는 술통 술 기름병 절구대 석유 등 물통, 기름통이 들어 있다. 당마당에는 취사장과 돌절구가 있다.

ㄴ. 당제 준비

선달에 우환이나 상고 또는 산고가 없으면 생기에 맞는 2명의 제주가 그믐날 당에 올라 정월 1일 자시에 제를 모신다. 선달에 유고가 있으면 제를 지내지 않는다. 1979년과 1980년에도 마을에 상고가 생겨 당제를 모시지 못했다. 제물은 飯, 白餅, 山菜, 海物 등을 장만한다.

ㄷ. 당제 진행

축문은 없고 구축으로 축원하며 소지를 마을 호수대로 올린다. 하당제는 해변에 있는 바위산에 긴 장대를 걸고 거기에 흰 신종이를 매어 두고 할아버지를 모신다. 그러나 할머니 메와 함께 두 상을 차리며 사방에 헌석한다.

ㄹ. 제후 행사 및 전승현황

하당제가 끝나면 제상의 모든 음식을 각호에 돌려 음복하게 하고 그날 하루를 삼가며 조용하게 지내도록 한다. 다만 마을의회를 열어 한 해의 마을 계획을 세운다.

□ 참고문헌

〈최덕원, 『다도해의 당제』, 학문사, 1983.〉

⑦ 사리 당제

ㄱ. 제당 구성 및 신격

해변 안산 기슭에 있는 당은 선창에서 마을으로 올라오는 길목에 있다. 원래는 초가였으나 1975년에 개축하였다. 당 4방에 높은 돌담을 쌓았고 세로 5.4m, 가로 2.8m, 높이 1.9m의 붉은 와가 당집이다.

오른쪽 간에는 신위를 모셨으며 왼쪽 간에는 제기들이 들어 있다. 당집 뒤편의 가파른 언덕에 말

뚝(신간)을 박고 그 신간에 신베를 걸어 산신을 모시고 있다. 당집 밖의 오른쪽에는 취사용 부엌과 절구가 있다.

사리의 당신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신들이 많다. 당신의 신위는 흰창지에 신명을 써서 벽에 붙여 놓았다. 제일 윗신은 성조신이며 신의 위계순서는 成造位(성조님), 당산할아버지, 당산할머니, 上國婦人(상국마님), 小姐(소저 애기시님), 總角(총각 도련님), 彌勒將軍(미륵장군님), 江南大別象(강남대별상님), 水府(수부)의 순위로 신위를 모시고, 그 밑에 당베(보수베)를 연해 걸어 놓고 입상과 촛대를 놓아 두었다. 수부님을 모시기 때문에 독제인 용왕제는 지내지 않는다.



흑산도 사리당

ㄴ. 당제 준비

주로 정월에 날받이 당제를 지낸다. 마을이 커서 늘 상고가 있으므로 부정이 없는 길일을 택해 생기가 맞고 복덕이 있는 제주 2명을 선출하여 3일간 지성을 드린다. 각 신위 앞에 메와 흰떡 그리고 마른 명태와 나물 등의 음식을 올린다. 당집 위에 있는 산신각 앞에 젓밥을 차린다.

ㄷ. 당제 진행

제주 2명이 3일간의 지성을 드리며 제를 올린다. 제사를 지내며 심축으로 발원을 하고 9매의 소지를 올리며 정결한 제를 올린다.

ㄹ. 제후 행사 및 전승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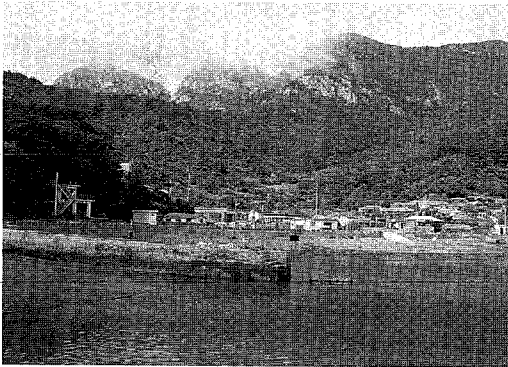
제사를 지낸 음식은 마을 사람들이 음복하는 것으로 당제는 끝난다. 바로 마을회의를 열어 일년의 사업을 논의하고 마당밧기를 하며 마을의 안락을 기원한다.

□ 참고문헌

〈최덕원, 『다도해의 당제』, 학문사, 1983.〉

⑧ 심리 당제

상당은 마을의 가운데 있는 언덕 위에 있으며, 돌담이 쌓여 잡인의 출입을 금하고 있다. 당집은 없으나 당신목과 석단이 있어 당할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하당은 상당 바로 밑에 있으며 당할머니를 모시고 있다. 하당 아래 당샘이 있는데 2명의 제주는 이 당샘에서 목욕재계한 후 정월 초사흘에 당제를 모신다. 당제가 끝난 정초에 박으로 된 활방구와 물방구를 치는 등당기타령과 뽕뚜기 놀이를 하며 온 마을이 즐거운 축제를 벌인다.



흑산도 심리마을 전경



심리마을 당산

□ 참고문헌

〈최덕원, 『다도해의 당제』, 학문사,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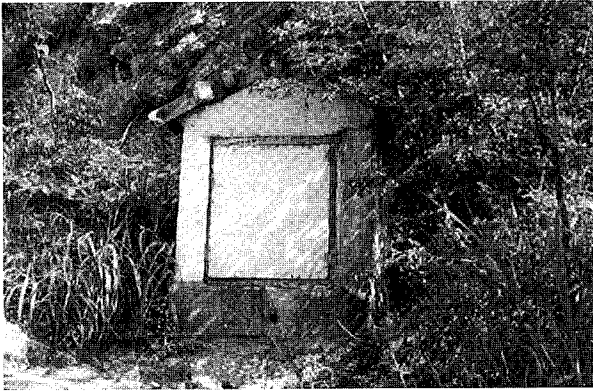
⑨ 영산도 당제

ㄱ. 제당 구성 및 신격

고송이 우거진 당산 중턱의 동쪽에 가로 2.5m, 세로 1.8m, 높이 2m의 기와 당집에 단청을 한 상당이 있으며, 3m 아래 가로 2.5m, 세로 2.2m, 높이 1.9m의 단청된 중당인 제기실이 있다. 하당은 당산 아래 큰 길가에 있으며 신위를 모신 80cm의 정사각형의 콘크리트집이 있다. 상당은 초가로 된 당이었는데 동네회의를 거쳐 길일을 택해 1955년에 현 당을 준공한 것이다. 상당 안에는 제

상과 촛대가 있으며 벽에는 창호지를 걸어 놓고 있다. 중당의 제기실에는 제기와 절구 취사용 뿔나무 등이 있다.

영산 8경의 하나인 고송이 우거진 당산의 중턱에 단청을 한 아름다운 당이 있다. 상당에는 당할아버지, 당할머니, 별방도련님, 소저아기씨님, 산신님을 모시고 하당에는 김첨지 영감을 모시고 있다. 김첨지 영감은 배 어장 해초를 보호 관장하신 신으로 독제의 주신이다. 김첨지 영감의 신체를 허수아비로 만들어 용왕 또는 어장신으로 모신다. 독제는 마을의 부녀자들이 제를 행하는데 제상만을 가지고 나오며, 제물은 모두 생기가 좋은 깨끗한 제상 집에서 만든 것으로 차려 놓는다.



영산도 하당

ㄴ. 당제 준비와 진행

보통 선달 그믐날에 상당에 들어간다. 마을에 다소의 우환이 있더라도 생기복덕이 좋은 두 사람의 제관이 올라가 당제를 지낸다. 정월 초하루 자시에 제를 올리며 이튿날 아침에 하당에 제 지내고 바로 독제를 지낸다.

□ 참고문헌

〈최덕원, 『다도해의 당제』, 학문사, 1983.〉

⑩ 홍도 석촌 당제

ㄱ. 제당 구성 및 신격

석촌마을 산 중턱에 있는 당은 1918년 戊午年에 축조된 당으로 신당과 제실이 있다. 64년 전에는 초가로 된 당실과 석단이 있었으나 마을회의에 의해 와가 당집을 마련하였다. 당은 용왕당 또는

총각당이라 하나 당신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총각을 모셔 놓고 있다. 신당 안에는 긴 신베(보수베, 당베)가 걸려 있으며 쌀이 들어 있는 성조동이를 모시고 있다. 총각당에는 흑산 진리의 본당인 처녀당과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설화가 전승되고 있다.



홍도 석촌당

ㄴ. 당제 준비와 진행

제물은 飯, 白餅, 甘酒, 實果 등이다. 정월 초하룻날부터 초사흘날까지 3일간 두 사람의 제주가 정성껏 제사를 모신다. 초사흘날 독제를 지내면서 용왕신인 총각신을 기쁘게 하며 1년의 해사와 가사를 의탁하며 기원한다.

□참고문헌

〈최덕원, 『다도해의 당제』, 학문사, 1983.〉

⑪ 홍도 죽항리의 당제

ㄱ. 제당 구성 및 신격

마을과 연해 있는 당산에는 3백여년이 된 동백나무와 재밧나무의 숲이 있는데 이 당산 남단의 정상 당목 아래에 와가 당집이 있었으나, 김응숙 제관이 제를 모시고 난 뒤에 우환이 있어 자식들이 죽고 집안이 망한 후 당을 폐하고, 다시 옛날대로 정상의 당자리에서 제사를 모시게 되었다. 와가로 축조된 석단과 돌담만 남아 있는데 가로 6m, 세로 10m로 큰 당집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당신은 산신과 당할머니와 할아버지 잡신 용신을 모시고 있다. 석촌 큰당에서 당신을 받아왔다 한다.

ㄴ. 당제 준비와 진행

제관은 1인이며 수정군 1명이 따른다. 제관은 갯가에 있는 당샘에서 목욕하고 정월 초사흘 자시에 제를 올린다. 위쪽에 있는 동백나무 신목 밑에 산신 메를 올리고 바로 밑에 있는 재밧나무 신목 밑에 당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메를 올린다. 정월 초사흘에 당제를 지내고, 같은 날 독제를 지낸다.

□ 참고문헌

〈최덕원, 『다도해의 당제』, 학문사, 1983.〉

⑫ 태도 당제

ㄱ. 제당의 구성 및 신격

마을 앞 안산에는 누럭나무, 재배나무, 팽나무, 동백나무가 울창하며 그 숲 속에 당집이 있다. 당신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딸을 모시고 있다. 하당(독제)에는 용왕을 모신다. 신위의 신체로 흰옷을 모시고 있다.

ㄴ. 당제 준비와 진행

정월 나흘날 생기가 좋은 2명의 제주가 상당제를 지내고 독제는 각호에서 마련한 제상을 해변에 차리고 부녀자들에 의해 행제된다. 독제 시는 흑산과 장산에서 무인들이 초청되어 큰 굿을 하는데 쌀을 넣은 밥그릇을 보에 싣 후 3m 가량의 대나무 끝에 매달아 바다에 던져 놓으면 바다에서 숨진 사람의 혼이 바다 속을 떠돌아 다니다 그 쌀그릇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 혼을 건져 해변에서 제를 올리고 용왕의 신체인 허수아비를 띄어 보내면서 칼잡이를 하는데 칼날이 바다쪽으로 나아가야 풍어와 뱃길이 무사하며 역신을 쫓는다.

□ 참고문헌

〈최덕원, 『다도해의 당제』, 학문사, 1983.〉

⑬ 가거도 대리 당제

ㄱ. 제당 구성 및 신격

가거도 2구로 넘어가는 길목에 상당이 있는데 속칭 僧堂이라 부른다. 상당신은 할아버지와 세 동

자, 그리고 산신을 모시고 있다. 갯가 앞 산중턱에 있는 하당은 높이 2m, 길이 8m의 돌담이 U자형으로 축조되어 있고, 그 돌담 밖의 위쪽에 석단이 있으며, 동백나무와 진두루나무에 면포와 실지를 걸어 놓았다. 하당의 당신은 멧씨 할멈과 산신·용신이며 그 외에 동자와 잡신 등 모두 12신이 있다.

ㄴ. 당제 준비

제주는 2명이다. 당이 너무 영험하기 때문에 제주되기를 꺼려하므로 제주가 되면 보리 한 가마니 씩을 준다. 제주는 생기에 맞춰 선정되며 목욕재계하며 금기를 수행한다. 제주는 미리 제물을 준비해서 할아버지와 동자의 제단에 올리고 산신의 메는 할아버지 제상 위의 돌담 위에 설상한다. 제물은 메, 떡, 해물, 제주, 나물 등이며, 제사 후에는 종이에 싸서 돌담 밑에 넣어 둔다.

ㄷ. 당제 진행

선달 그믐날에 당에 올라가 당을 청소한 후 정월 초하루 자시에 제를 올린다. 축문은 없고 구축과 소지를 올리며 하당으로 가는 길목에서 사방잡신에게 제물을 던져주는 헌석을 지낸다. 새벽에 제주가 하당에 당도하여 축단에 불을 피우고 석단에 12상을 차린다. 화투불이 오르면 동네 어른들이 입당하여 禮拜한다. 이때에 발원하면 성심을 들어준다 하여 정성을 다한다.

ㄹ. 제후 행사 및 전승 현황

당제 후에 고씨, 최씨, 김씨 등의 씨족제를 올리고 갯가에 내려와 독제를 지낸다. 이때 무당의 서낭굿이 선주의 요청에 의해 행제된다. 각호에서 마련한 제물을 설상하면 농악이 시작되고 발원한 뒤 용왕의 허수아비를 먼 바다에 띄워 보낸다.

□ 참고문헌

〈최덕원, 『다도해의 당제』, 학문사, 1983.〉

(2) 갯제

① 진리 용왕제

당제를 마친 후 새벽에 당에서 내려와 바닷가에서 성대한 갯제와 용왕굿을 지냈다. 해변에서의

갯제는 마을 부녀자들이 진행했으며 용왕굿은 선주들이 불러온 무당이 진행했다. 갯제는 당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제의였고, 용왕굿은 원할 때에 무당을 불러다 하는 특별한 의례였다. 갯제를 지낼 때는 짚으로 만든 허수아비를 바다로 띄워 보내며, 칼잡이를 하여 칼날이 바다 쪽으로 꽂혀야만 액을 쫓고 풍어와 안전한 뱃길을 보장받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지금은 이와 같은 용왕굿이 행해지지 않고 갯제도 요식적으로 행해질 뿐이다. 용왕굿의 경우 주관할 무당을 찾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옛날처럼 풍요로운 어업이 아니어서 심리적으로도 굿을 벌일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용왕굿을 할 때의 현장 모습은 다음과 같다. 굿청에는 미역, 실, 가위와 빨강, 노랑, 진초록의 신베(神布)를 당걸이에 걸어 놓고 제상을 차린다. 용왕굿의 절차는, ①부정굿 ②골매기 청자굿 ③화해굿 ④세존굿 ⑤을상굿 ⑥천왕굿 ⑦심천굿 ⑧놋동이굿 ⑨손님굿 ⑩제면굿 ⑪용왕굿 ⑫거리굿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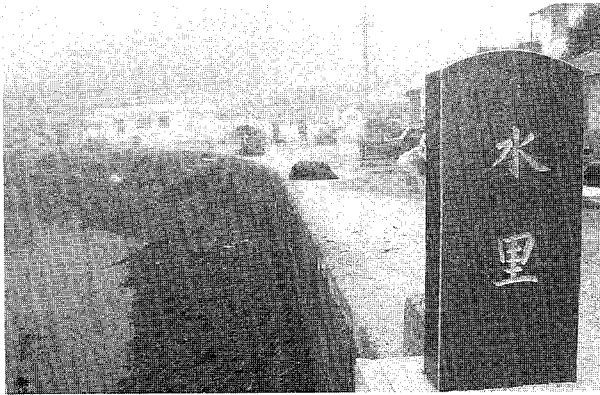
진리당 아래 해변(해변 안쪽에서 용왕굿을 했다)

□ 참고문헌:〈최덕원, 『다도해의 당제』, 학문사, 1983, 87쪽.〉, 〈이경엽, 『신안군지』, 신안군, 2000, 463쪽.〉

② 흑산도 수리 갯제

ㄱ. 제당 구성 및 신격

수리 마을에서는 음력 정월 3일 자시에 상당제(당할머니·당할아버지), 산신제를 지내고 4일날 독제(용왕제)를 지낸다. 상당제와 산신제는 제관들만이 참여하여 엄숙하게 진행하며, 독제는 이와 달리 주민들이 모두 참가하여 지낸다. 4일 아침이 되면 집집마다 부녀자들이 제상을 이고 나와 해



대둔도 수리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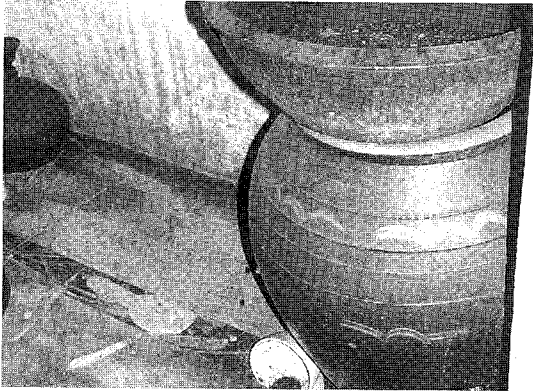
변에 내 놓는다. 제단 앞에는 용왕의 신체에 해당하는 허재비를 모셔 놓는다. 허재비는 짚으로 만들며, 크기는 1m, 가슴둘레는 0.5m 정도이다. 그리고 음식을 담을 수 있도록 입을 만들며 남근이 노출되도록 만든다. 또한 허재비를 먼 바다로 띄워 보낼 수 있는 작은 배를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허재비는 용왕신의 신체를 의미하며, 마을의 모든 액을 가지고 바다 멀리 떠나는 존재이며 더불어 마을 사람들에게 건강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존재로 여겨진다.

ㄴ. 갯제 준비와 진행

갯제를 진행하는 제주는 입담 좋은 사람이 맡는다. 제주는 허재비와 자문 자답하는 형식으로 덕담을 하며 풍어와 복을 비는데, 그 문답의 사설이 익살스럽고 풍자적이어서 놀이판의 흥을 고조시킨다. 제주는 이 날만큼은 용왕님의 위력에 의탁하여 선주나 유지를 마음대로 부리고 골려주며, 용왕 앞에 나와 인사를 하게 하고 노자돈을 내게 한 뒤, 흑산 일대의 도장원이 되게 해달라고 빌어준다. 이처럼 허재비를 상대로 술을 권하고 음식을 주면서 대화를 하는 형식은 일종의 연극이기도 한



수리 당산의 산신제단



수리 당 안의 항아리

데, 그것이 마을 사람들의 기대와 염원을 담아서 이루어지는 만큼 흥겨운 굿놀이로 펼쳐지게 된다.

허재비를 상대로 한 놀이가 끝난 뒤에는 허재비를 배송하기 위해 이동한다. 이때 흥겨운 농악을 울리면서 술배소리를 부른다. 마을 사람들은 이 술배소리를 다 같이 부르면서 흥겹게 춤을 추며 이동한다. 허재비를 메고 동네를 돌다가 바닷가에 도착하면 작은 배를 바다에 띄우고, 허재비를 실는다. 그리고 액을 담아 먼 바다로 나아가도록 방주에다 술과 음식을 채우고 농악을 치며 수살막이 노래를 부른다. 이 때 제주는 “할아버지 이제 떠나셔야 하겠습니까. 모든 부정한 것, 액과 화를 가지고 멀리 가십시오. 그리고 많은 복과 고기떼를 몰고 오십시오”라고 구축을 한다. 그리고 큰 배에 허재비를 실은 작은 배를 매달아 마을 앞 대섬 부근까지 끌고 나가 바다 멀리 띄워 보낸다.



수리마을 제보자

□ 참고문헌

〈최덕원, 『다도해의 당제』, 학문사, 1983, 89쪽.〉

〈2003년 7월 21일 현지조사. 제보자:채길상(남, 82), 황정순(남, 75)〉

③ 흑산도 천촌리 독제

ㄱ. 제당 구성 및 신격

흑산도의 북쪽에 위치한 마을과 서쪽에 위치한 마을에서는 거의 당제를 지낼 때 독제를 올리는데 예리 2구의 여러 마을에서는 날받이를 하여 7, 8월에 상당제와 연관 없이 별제로 지낸다.

ㄴ. 독제 준비와 진행

마을 앞 해변에 나와 제를 올리는데 제주가 큰 솥에 밥을 해 두면 각호에서 장만한 제상을 부녀자들이 들고 나와 갯가에 설상하고 화주에게서 메밥을 받아 상에 올린다. 상차림을 하고 풍어와 해초가 많이 생산되도록 발원한다. 독제의 용왕신체는 허수아비로 음식과 술을 먹이고 발원한다. 발원 후 큰 배에 싣고 바다로 나가 먼 곳으로 보낸다.

□ 참고문헌

〈최덕원, 『다도해의 당제』, 학문사, 1983, 100쪽.〉

④ 소사리 독제

소사리에서는 독제라 하여 날을 받아 온 마을이 제사를 지낸다. 독제는 당제와 별도로 음력 7, 8월에 날받이를 하여 소를 잡고 푸짐하게 제물을 장만한다. 각 집에서 상을 준비해 해변으로 가지고 나와 供饌(공찬)하며 고기와 해초가 잘 되도록 발원한다. 이 때에 허수아비 용왕님에게 농약을 울리고 해변을 돌며 술과 음식을 먹이고 발원한다. 발원 후 배에 싣고 나가서 먼 바다에 띄운다.

□ 참고문헌

〈최덕원, 『다도해의 당제』, 학문사, 1983, 102쪽.〉

⑤ 심리 독제

ㄱ. 제당 구성 및 신격

심리에서는 음력 7월에 독제를 지낸다. 이 시기에 독제를 지내는 것에 대해 제보자는, “그때 왜 했냐 하면, 바다에 생을 의존하기 때문에 뭐 해초라든가 고기류가 전체 여름에 나. 여름에 많이 나 풍성히. 그것을 기원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어장달을 택해서”라고 말한다.

ㄴ. 독제 준비

제관은 깨끗한 사람으로 제주, 집사, 화장 3인을 선정한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도 모두 참여하므로 제관이 주도하는 것은 아니다. 제관 선정시 간혹 정월 당제의 제관과 겹치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에 구애받지 않는다. 제관에게 주어지는 금기는 정월만큼 엄하지 않고 당일날 준비해서 제를 지내도록 한다. 제물 준비에서는 소를 잡아 지내는 제사라는 것이 강조된다. 그만큼 크고 성대하게 치르는 의례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심리 독제를 지내는 바닷가의 하당

ㄷ. 독제 진행

당일 아침이 되면 하당에서 제관들이 '헌석배'라고 부르는 의례용 배에 제물을 넣고 술을 따르며 마을의 안녕과 풍어, 어로 안전을 비는 축원을 한다. 헌석배는 나무판자로 작게 만든 배다. 정교하게 만들지는 않고 바람을 받아 갈 수 있도록 돛과 키를 단다. 배 안에 고기와 밥 등 갖가지 음식을 깨끗한 종이에 싸서 넣고 술도 따르면서 '유황님'에게 풍어와 안녕을 축원한다. 최덕원의 보고에는 허수아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나 현 제보자들은 허수아비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지 않다.

ㄹ. 제후 행사 및 전승현황

바닷가에서의 고사가 끝난 후 큰 배에 헌석배를 싣고 풍장을 울리면서 바다로 나가 헌석배를 띄워 보낸다. 헌석배가 바다 멀리 잘 나가야 복을 받는다고 여긴다. 헌석배에 실은 음식은 유황님에게 드리는 제물이며, 그 제물을 띄워 보내 "물속에 있는 유황님에게 고기를 잘 몰아다가 동네에다 몰아 주십사" 하고 비는 것이라고 한다. 배에서 풍장을 치고 헌석배를 전승하고 마을로 돌아온 후에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논다.

심리마을의 독제는 1970년대 이전에 중단되었다. 그 무렵 정월달의 당제도 중단되었는데, 당시

새마을운동, 교회의 반대, 젊은 사람들의 무관심 등이 있어서 지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 참고문헌

<이경엽, 「서남해 갯제와 용왕신앙」, 『아시아 해양과 해양민속』,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소, 2003>
<최덕원, 『다도해의 당제』, 학문사, 1983, 104쪽.>

⑥ 마리 독제

ㄱ. 제당 구성 및 신격

어업이 주업인 이 마을은 정월의 산제, 당제보다 훨씬 성대한 독제를 지냈다. 독제는 풍어를 비롯하여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로서 제신은 '유왕신' (龍王神)이라 불리우는 바다 용왕이다. 제장은 '유왕당' 이라 하는데 사실상 당집은 없고 마을의 선착장 부근의 노지가 유왕당이다.

ㄴ. 독제 준비

독제는 산제, 당제보다 훨씬 성대하여 제물만 해도 밥, 떡, 나물, 해물, 육류 등이 진설되었다 하며, 특히 소를 한 마리 잡았다 한다. 이렇듯 유왕신에게 바쳤던 제물은 산신, 당신에게 일체의 육류를 안 놓았던 것과 뚜렷이 대조된다.

ㄷ. 독제 진행

독제를 주관하는 사람도 현 마을주민이 아니라 제주도 목포 등지에서 불러온 법사라는 독경쟁이였다. 산제·당제와 달리 독제에서도 모든 주민이 참여했다. 특히 배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도 다소간 김, 툇 등의 양식업을 하기 때문에 독제에는 반드시 참여했다. 제는 법사의 독경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독경이 끝나면 보릿대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옷을 입힌 60~80cm 크기의 허수아비를 작은 목선에 얹혀놓고 이 목선을 바다 한 가운데로 보낸다.

ㄹ. 제후 행사 및 전승현황

허수아비를 태운 목선을 바다에 보내고 주민들은 풍장소리를 내면서 유왕신에게 자기의 소원을 기원하면서 하직 인사를 한다. 제보자는 독제에 약 100만원의 경비가 들었다 하면서 이 지나친 부담 때문에 독제가 중단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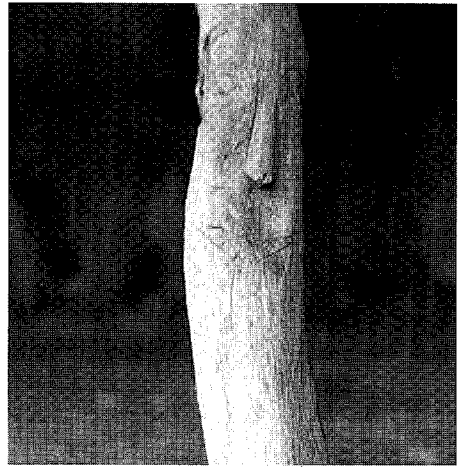
□ 참고문헌

〈이종철·조경만, 『신안군의 문화유적』, 목포대 박물관, 1987〉

2) 장승

(1) 흑산 천촌 장승

조사 당시 목장승의 크기는 영감의 높이가 125cm, 각시는 160cm이다. 마을 제사인 당제를 지내고 난 뒤 장승제를 지냈다. 정월 초하루 자시에 당제를 지내고 새벽에 내려와 하당제와 장승제를 올리는데 하당에는 300여년이 넘는 두 그루의 신목인 동백나무가 있다. 이 신목 앞에 매 두 상을 올리고 옆에 있는 영감장승과 각시장승에게 한지를 펴놓고 제물을 바친다. 모든 제가 끝나면 각호에 찢밥과 제물을 돌려 음복하게 한다. 이어 동네회의를 한 다음 조용하게 하루를 보낸다. 장승은 3년마다 만들어 모셨는데, 지금은 장승이 세워져 있지 않다.



천촌리 하당 장승

□ 참고문헌

〈최덕원, 『다도해의 당제』, 학문사, 1983, 99쪽.〉

3) 어로문화자원

(1) 전통어장과 기후예지

흑산면 심리를 중심으로 보면, 사리와 소사리 등 동쪽에는 안개가 많은 편이다. 이에 반해 심리 등의 서쪽에는 안개가 없는 편이다. 심리 사람들은 흑산면을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인식한다. 진리는 중심이 되는 썸이고 심리는 남서쪽이 되는 썸이다. 겨울에는 사리가 좋고 여름에는 심리가 좋은 곳이라고 한다.

기후예지에 있어, 심리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바람은 청늦바람이다. 서남쪽 중간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하는데, 이 바람이 불면 '밀고 들어온다'고 표현한다. 이 바람은 늦바람보다 더 강한

파도를 동반한다. 옛날에 청늑바람 속에서 조업하다가 배가 전복당하는 사고 있었는데, 해엄 잘치던 한 사람만이 뗏목에다가 줄로 몸을 묶어 살아 온 경우도 있었다. 지금은 청늑바람이나 태풍이 오면 예리항으로 피항하게 된다. 풍선시절에는 피항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심리에서 청늑바람을 무서워하는 반면에 사리사람들은 그다지 위협적인 바람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흑산도 내에서도 바람에 대한 인지태도가 다를 수 있다.

바람에 대한 예지로 들 수 있는 사례중의 하나는 “누구 죽은 치수한다”라는 말이다. 옛날에 풍선 타고 다니다가 바다에서 죽게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날짜에 바람이 불면 그사람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 치수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즉, 물때의 이름과 죽은 사람의 이름을 같이 부르며 무슨 물때와 바람, 그리고 누구 치수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길동이가 죽은 날짜에 셋바람이 불면, “다섯무새날 셋바람에 김길동이 치수다”라고 말한다. 대체로 풍선이 소흑산도 바깥까지 밀려 가면 살아서 돌아온다고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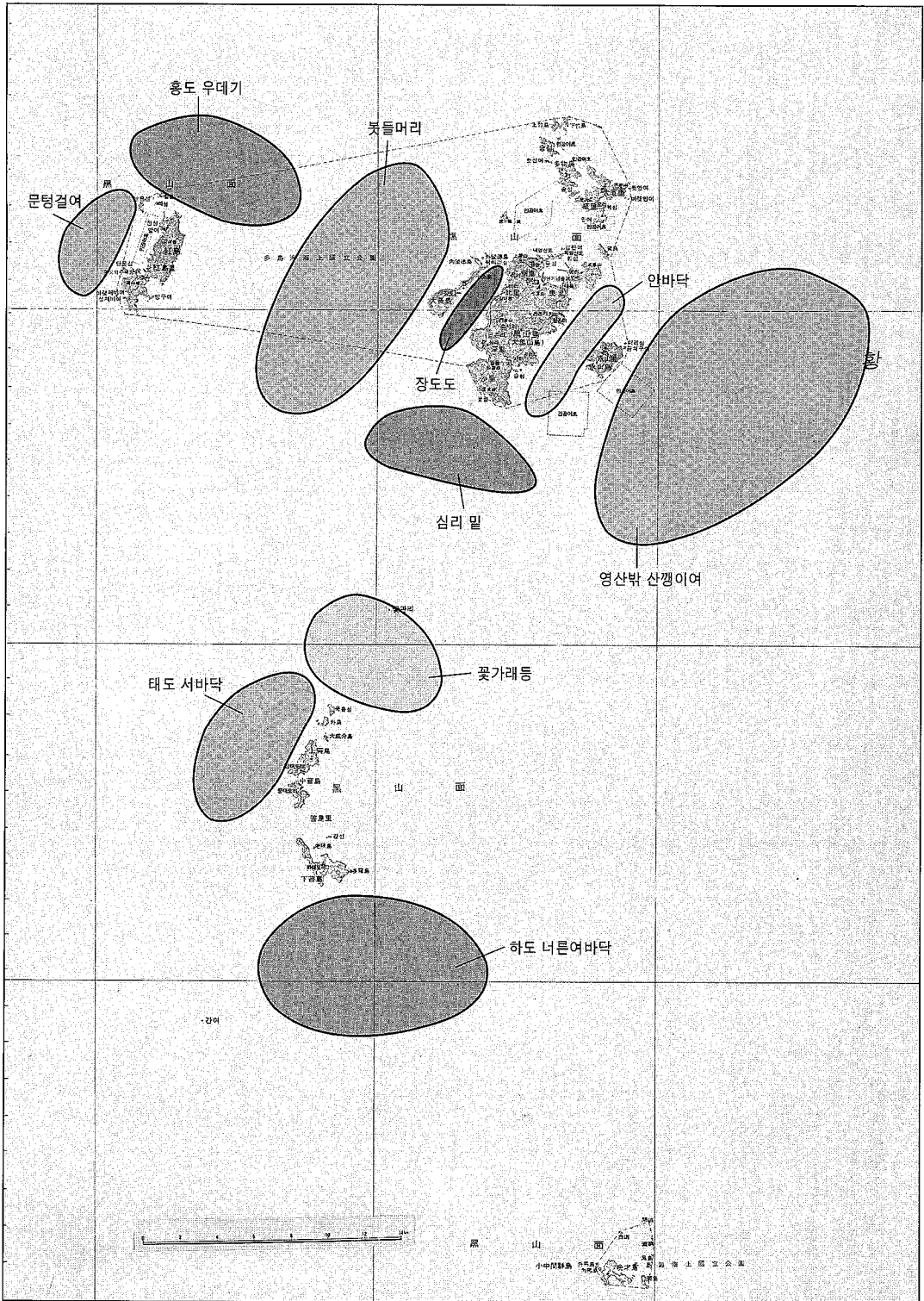
〈표 1〉 흑산면 전통어로권역

번호	전통어로권역이름	위치	지형 및 어장상태	수심인식	주요어로
1	하도 너른여바닥	하태도 남방	걸+빨	50발	홍어주낙 등
2	태도 서바닥	상태도 서방	걸+빨+여	50발	반어, 부서 주낙 등
3	꽃가래등	상태도 북방	걸+빨+여	40발	간재미, 조기주낙 등
4	붓들머리	대장도와 홍도사이	걸+빨+여	50발	맛상어, 홍어주낙 등
5	문텅걸여	홍도 서방	걸+여	50발	그물조기잡이 등
6	홍도우데기	홍도 북방	빨	40발	조기유자망, 고등어건착망등
7	디물도우데기	디물도 북방	빨	35발	홍어 등
8	안바닥	흑산도 동방전역	빨+여+돌(걸)	45발	장어, 부세, 조기등
9	영산밖산갱이여	영산도 동방			간재미주낙 등
10	심리밀	흑산도 남방			간재미주낙 등
11	장도도	장도도 동방			산갱이 등

(2) 홍어잡이

홍어잡이	김은현(남, 59)외	흑산 심리	2003. 7. 22
------	-------------	-------	-------------

홍어는 주로 홍도 밖바다와 비금도 위쪽 근해에서 잡힌다. 홍어는 사시사철 어획할 수 있지만, 주로 봄에는 2, 3월에 많이 잡힌다. 이때의 홍어가 제일 맛있다. 현재 10kg에 낙찰가가 60만원 정도 이므로, 시장에 나가면, 70만원이 넘을 것으로 본다. 지금은 홍어잡이를 글뉘이라는 낚시로 한다.



흑산면 전통어로권역

낚시는 한고리에 100가락 정도를 깔며, 한번 어획에 수백고리씩 깔게 된다.

홍어와 비슷한 고기들로는 등태, 가오리, 간재미 등을 들 수 있다. 등태는 간재미 비슷하다. 가오리도 물가오리, 먹가오리(색깔이 검다)가 있다. 홍어는 한 가지밖에 없고 간재미도 한가지밖에 없다. 홍어는 크기에 따라 새끼홍어, 플래리, 중절이 등의 대, 중, 소로 나뉜다. 플래리는 간재미보다 큰 것을 말한다. 중절이도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는데



흑산면 심리 이장 김은현

큰 것을 중절이라고 하고 작은 것을 플래리라고 한다. 홍어는 '비깨'라는 납작한 '쫄알'을 바다에 가놓으면 그 안에서 새끼가 나온다. 이것은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크기다. 즉, 손바닥 3분의 2 정도로 길이는 10cm, 너비는 5cm정도라고 보면 된다. 산란기가 되면 바다에서 비깨를 항상 볼 수가 있다. 비깨 하나에는 홍어새끼 두 마리씩 들어있다. 비깨는 요리해서 먹지 않고 버린다. 홍어는 교미를 하며 연중 산란한다. 암놈과 수놈 모두 홍어쫄이 2개 달려있지만 구분된다. 간재미나 등태도 마찬가지로 이 종류는 교미중에 밑에 것을 먼저 잡아야 위에 것도 잡는다. 홍어는 나이를 측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크고 적은 중량으로 셈을 한다.

홍어는 때로 다니기 때문에 주낙에 줄지어 걸린다. 한 주낙에서 대여섯마리까지 물고 나오기도 한다. 홍어연승의 미끼는 놀래미를 사용한다. 홍어 배를 갈라보면 놀래미와 새우 등이 나온다.

홍어가 잘 잡히는 곳은 장도와 돛대머리 사이의 바다이다. 옛날에 댕마 시절에는 홍도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다. 돛단배는 태도까지 조업하기도 했다. 주로, 홍어잡이 어장은 태도 하도의 느리느섬, 간여위의 너린여, 태도밖의 '하도밖' 등이다. 풍선시절에는 사시사철 조업하지는 못했다. 주로 11월부터 2월까지 조업을 했다. 지금은 사시사철은 물론이고 어청도까지 나가서 조업을 한다. 소형어선들은 대개 조금물때에 조업을 한다. 물살이 너무 세면 어장에 손실이 생기기 때문이다. 홍어잡이도 철따라 간다. 흑산부근은 음력 11월부터 2월까지, 지금은 설달에 어청도 밖에서 한다.

3월이 되면 개곶홍어라고 해서 맛이 없다. 음력 3, 4월 홍어는 맛이 없을뿐 아니라 살도 얇아지고 건지르며 찐기가 있다. 3, 4월 지나면 연승할 때는 잡지 않았다. 먹지도 않고 알아주지 않으니 잡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음력 11월~2월 사이의 홍어 빼고는 모두 개곶홍어로 간주한다.

개곶홍어는 맛이 없다는 뜻이라고 한다.

홍어연승은 낚시를 바닥에 깎다. 너른여바닥은 50발쯤되는데, 수심이 50~60발되는 이런 곳에서 홍어가 잡힌다. 장도위쪽으로는 35발쯤 되니까 알아서 좋지 않다. 다물도 옷바닥은 흑산도에서는 그냥 '옷바닥'이라 한다. 수심은 약 30발쯤 된다. 장도 옷바닥으로는 물속에 여가 있다. 다물도 우대끼 즉, 옷바닥물속에 여가 있다. 이곳 여이름을 옷여라고 한다. '폴등'은 비금 도초 방향으로 일고바리쪽을 말한다. 폴등은 등이 바닥에서 모래밭인 곳이다. 그래서 사리 때 이곳에 배가 들어가면 그걸로 끝장난다고 말한다. 폴등은 얇기 때문에 고기가 살지 못한다고 한다. 따라서 그물어업을 하지 못한다. 낚시도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폴등에서도 깊은 곳을 찾아 주낙을 놓는다. 이곳에서는 3, 4월에 농어, 간재미, 우럭, 장어 등이 있다. 이런 곳을 '폴등골'이라고 한다.

홍어는 암컷 값이 갑절 이상 비싸다. 살이 부드럽고 살이 배 이상 많기 때문이다. 수컷에는 꼬리가 두개가 달려있어서 구분된다. 암컷에는 꼬리가 없다. 그래서 암컷으로 속이려고 흔히 잘라버리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맨만한 것이 홍어젯이라는 말이 있다. 홍어잡이에서 젯나눔은 선주가 70%, 선원이 30%로 했다.

(3) 멸치잡이

잡이잡이	김동남(남, 78)외	흑산 예리	2003. 12. 30
------	-------------	-------	--------------

흑산도의 멸치는 봄부터 조업을 시작하면 동지 선달까지 잡힌다. 즉 3월부터 12월까지 조업을 하는 셈이다. 종류는 대개 대, 중, 소로 나누고, 크기가 큰 것은 큰멸치, 작은 것은 작은멸치라고 한다. 한편으로는 멸치를 지르멜, 지르가이리, 가이리, 고바, 지리고바, 고주바, 주바, 중바, 오바, 다시오바 등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지르멜은 크기가 아주 작은 멸치를 말하는 것이며, 고주바는 품질이 제일 좋은 멸치를 말한다. 그러나 흑산도에서는 대개 대, 중, 소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개 3, 4월에 잡는 멸치는 굵은멸치이고 여름에 잡는 것은 작은멸치라고 보면 된다. 가을에는 굵은것과 잔 것이 같이 잡힌다. 멸치는 낭장망으로 어획했지만, 옛날 풍선배 시절에는 횡불을 이용해 멸치잡이를 했다. 배는 댓마를 썼고 견져올리는 도구는 쪽발이를 사용했다. 멸치의 품질은 어획하여 뜨거운 물에 데치는 과정에서 결정된다. 즉 건조하는 과정에서, 멸치의 배가 터진 것과 터지지 않은 것으로 구별하고, 멸치 몸통의 색깔을 가지고 구별한다. 물론 크기에 따라 구별하는 것은 기본이다. 색깔로는 노란색이나 검정색을 띠면 가격이 낮고 하얗거나 푸른색을 띠면 가격이 높다.

멸치잡이 그물은 손으로 만들었다. 집집마다 실로 떠서 만들고, 이것을 모아서 한 그물을 만들었다. 그물을 하나 만들려면 칠을 낸다. 멸치잡이 그물은 채그물이다. 고리를 채우고, 잡아 다리면 왔다갔다 하지 않게 하는 채대가 있다. 망대가 있다. 배에 묶는 줄이 있다. 멸치를 만나면 채대를 넣어 그물을 앞친다. 그리고 배를 굴리면서 멸치를 몰아간다. 앞에다는 불을 켜준다. 한쪽에서는 그물을 가라 앉히고 장대 지르고 채대가 들어갔으니까 그물이 가라앉는다. 다음에는 자자자 하면서 멸치를 몬다. 그러면 멸치가 그물안에 들어온다. 그때 채대를 들어올린다. 잡아 다니는 중간 고리가 있다. 첫탕, 재탕, 삼탕까지 하면 한배가 차버린다. 그러면 채대 올리고 돌아온다. 선원들이 잠도 못 자니까 새벽에 들어오면 오후 3~4시 되면 일어나 나와서 모두 그물을 손질한다. 그물 손질은 날마다 한다. 잡은 멸치는 소금에 간해 저장한다. 배에 멸치젓동우를 실을 때는 멸치젓동우를 한층 놓고 그 위에 밭을 덮고 다시 한층 놓고 해서 층층이 쌓아 올린다.

(4-1) 조기잡이 그물어업

조기잡이그물어업	채길상(남, 82)외	흑산 수리	2003. 7. 21
----------	-------------	-------	-------------

흑산도에서 조기잡이를 시작한 것은 오래되지 않는다고 한다. 조기과시가 성했던 지역이긴 하지만, 조기잡이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구술자에 따르면 조기잡이를 시작한 것이 1960년대라고 한다.

이때부터 홍도 위로 연평도까지 다녔고 주로 흑산 근해에서 조기잡이를 했다. 연승처럼 낚마를 사용하지는 못하고 발동선 등의 기계배를 사용했다. 조기는 흑산도 밖으로 해서 서해를 따라 북상한다. 흑산도에서 조기어장은 2월 그믐에서 3월말까지 한달정도 조업한다. 조기가 동지나에서 북상하여 홍도, 가거도를 거쳐 위도쪽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흑산도는 수심이 깊어 유자망을 주로 사용한다. 조기잡이 해역은 대개 수심이 45~50m선이다. 유자망을 가라앉힐 때는 물대로 넣는다. 흑산도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조기의 회유도 이 물길을 따른다. 따라서 그물을 칠 때도 물이 가는대로 물 따라 치는 것이다. 그물 양쪽 끝은 큰 돌을 채워서 흘러 내리고 그물 한쪽 끝은 배가 잡고 가는 형식이다. 즉 배가 끌고가는 쪽은 작게, 물속으로 들어가는 쪽은 큰 돌을 달게된다. 배는 물의 흐름보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끝부분에 돌을 채우면 그물을 고정시킬 부위가 떠있는 셈이 된다. 그물밑에 매다는 돌을 빠찌라고 한다. 대개 그물 한 폭에 돌이 8개 들어간다. 두세발에 한개씩 돌을 매다는 셈이다. 어획시간이 되면 배에서 끌어당긴다. 조기잡이는 조금

때와, 서물부터 다섯물이 좋다. 물살이 너무 세지면 조기잡이에 좋지 않기 때문이다. 명섬 밖에서 투망 조업할 때는 영산도, 대둔도, 대둔도밖의 간여, 아래신여, 윗신여 등지에서 대둔여 끝하고 맞춰서 투망을 하게 된다.

투망배로 잡은 조기는 운반선이 육지에서 와서 중매인을 통해 입찰해서 팔았다. 조기파시가 번성했던 시기에는 음력 2월부터 3월말까지 파시가 컸다.

(4-2) 조기잡이 연승어업

조기잡이연승어업	김은현(남, 59)외	흑산 심리	2003. 7. 22
----------	-------------	-------	-------------

주로 부세잡이에 연승을 사용한다. 5월부터 8월까지가 적기이며 9월까지 작업할 수 있다. 주낙 미끼는 멸치를 사용한다. 밑물에는 낚시를 올려놓았다가 썰물에는 물에 넣게된다. 연승낚시를 내릴 때는 물대를 사용한다. 대개 조기연승의 수심은 55m~65m정도라고 이해하고 있다. 옛날에는 발수로 수심을 표현했는데, 발수로는 약 45발에서 50발 가량이다. 흑산도에서 남쪽으로는 45발정도, 북쪽으로 올라갈 수록 50발정도다. 9월쯤 되면 흑산 근해에 서는 태도까지 올라가면서 연승어업을 한다. 꼬까리섬 주변은 9월경에 하는데, 약 오십발 정도의 수심이다. 흑산도와 태도 서쪽에서는 반어연승도 같이 한다. 부세나 조기연승은 주로 회유해 내려오는 어군을 대상으로 한다. 조기가 활동하는 수심은 40발에서 45발 정도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조기하고 같이 회유하는 고기로는, 장대, 서대, 박대 등의 고기가 있다. 따라서 조기연승이나 그물에 이 같은 고기들이 같이 잡히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 반어 등의 잡동사니 고기들이 걸리기도 한다. 반어는 조기와 비슷해서 육지에서는 조기라고 속여 팔기도 한다.

(5) 상어잡이

상어잡이	김수철(남, 68)외	흑산 심리	2003. 7. 22
------	-------------	-------	-------------

상어잡이는 오뉴월에 많이 한다. 맛상어는 8, 9월에 어획한 상어를 말하고, 9, 10월에 어획한 상어는 가을상어라고 한다. 동일한 상어이지만, 절기에 따라 이름을 다르게 부른다. 맛상어는 크기가 작고, 가을상어는 크다. 맛상어가 커서 가을 상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가을상어는 보통

1m 60cm 즉, 사람의 키와 비슷하다. 이에 반해 맛상어는 80~90cm정도다. 맛상어는 대개 흑산 주변을 회유해 가버리지만, 가을상어는 산란하는 부류도 있고, 회유해 지나가는 부류도 있다. 산란하는 부류는 11, 12월까지도 흑산 근해에 머문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한다. 맛상어는 대개 흑산도의 서바다, 장도 뒤쪽에서 많이 잡히고, 또 장도하고 홍도 사이에서도 많이 잡힌다. 상어연승의 경우를 보면, 두발에 낚시 하나를 매단다.



흑산면 심리 이수철

상어연승도 낚시를 바닥에 간다. 맛상어하고 가을상어는 바닥이 돌과 빨이 있는 곳이 좋다. 즉 순빨만 있는 지역과 돌과 빨이 섞인 곳을 눈으로 가늠했다가 낚시를 놓게된다. 상어미끼는 고등어, 낙지, 문어를 주로 사용한다. 고등어 반쪽이면 큰 것은 20조각 정도 미끼를 만들 수 있다. 상어는 때 지어서 다니기 때문에 주낙을 놓으면 낚시마다 상어가 문다. 주낙을 20~30고리씩 달아서 상어가 다 잡히면 작은배로 조업하기가 힘들다. 상어는 대개 40~50발 수심이 되는 곳에서 유명한다. 따라서 낚시도 바닥에 깔아야 한다. 한식 지나고 상어잡이를 시작한다. 즉, 곡우살 지나면 상어잡이가 본격화된다. 가을상어잡이는 사리때가 좋지만 맛상어잡이는 조금때가 좋다. 저녁 무렵에 낚시를 낚다가 아침에 거두기도 한다.

상어잡이 투망을 할 때의 바닥은 주로 장도 뒤쪽인데, 이 바다를 뱃들머리라고 한다. 장도의 산과 흑산도의 상매봉을 연결해서 그금여하고 가남을 맞춰 놓는다. 이곳은 홍도우대끼라한다. 홍도우대끼에는 간암이 없어 그물 투망하기가 좋다. 물속에 장애물이 없다는 뜻이다. 홍도 서쪽으로는 문텅 썰이라는 여가 있다. 날이 청명하면 이곳에서 흑산도하고 눈가늠을 할 수 있다. 태도 옆바다에서는 가늠을 상, 중, 하로 한다. 상도, 만재도, 태도를 가늠의 척도로 삼는 셈이다. 이곳을 태도 서바다이라고 한다. 가거도 북쪽 바다는 '가거도' 라고만 부른다. 상어가 주로 많이 나는 곳은 장도밖과 홍도안의 걸에서 많이 난다. 걸은 굵은 돌맹이가 깔려있다. 고기들이 놀기 좋아하는 곳이다. 우럭, 볼락, 장어 등도 이곳을 좋아한다.

(6) 등태잡이

등태잡이	박동남(남, 78)외	흑산 예리	2003. 12. 30
------	-------------	-------	--------------

등태는 홍어 종류이나 간재미보다 약간 큰 고기를 말한다. 흑산도 심리쪽에서 많이 조업하던 어종 중의 하나이다. 홍어와 구분할 수 있는 유형적인 것은 홍어보다 동그랗게 생겼다는 점, 홍어보다 더 검은색이 많다는 점, 홍어보다 살이 더 찢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가격차이도 많이 난다.

등태잡이는 주낙으로 한다. 미끼로는 놀래미나 장어를 사용한다. 등태주낙배는 한 배에 6~7명정도가 탄다. 옛날에는 가거도까지 노를 젓거나 풍선으로 등태잡이를 다녔다고 한다. 등태어장은 심리 앞바다가 좋았다. 심리 앞바다에 모인 등태잡이 배만 해도 근 100여척을 넘겼다. 등태잡이를 그렇다고 마을마다 다 하는 것은 아니다. 사리, 건촌, 비리, 마리 장도 정도의 마을에서 등태잡이를 했다. 등태를 잡으면서 홍어를 잡는 경우도 있었다.

등태잡이는 물때로 보면, 사리때 하지 않고 조금때 한다. 대개 열두물에서 다섯물까지 한다. 물이 어둡거나 물살이 세면 조업하기가 곤란하다. 계절로 보면 봄부터 가을까지 조업을 하므로 양력 4월부터 11월까지 하는 셈이다. 여름 태풍 때만 쉰다. 도지터진다고 하는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쳐서 선원들이 죽기도 하는데, 선주가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도지터지는 것은 9~10월에 터지는 것으로 계절이 바뀌면서 같이 바뀌는 바람을 말한다. 그래서 9~10월 도지라는 말이 생겼다. 돌풍이어서 예측을 할 수 없으므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등태는 햇볕에 말려서 건조시킨다. 지붕에도 말리고 마당에서도 말리고 대나무 발대에서 말리기도 한다. 건조가 되면 10마리씩 묶어서 보관하거나 상고배에게 판매하는데, 10마리를 한 묶이라고 한다. 심리에서는 주로 영산포로 드나드는 상고배가 3척 있었다. 때로는 목포로 판매하기도 했다.

등태배나 상어배는 보통 사공과 앞술잡이, 화장 등 6명으로 구성된다. 앞술잡이는 주낙 잡는 사람을 말한다. 앞술잡이는 주낙을 당기고 놓는 일을 하므로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짓가람에서도 더 받게 된다.

주낙배의 조업과 주낙 놓는 기술이 있다. 특히 썰물에서 밀물로 넘어가는 시간이 한시간인데 이것을 물돌이라고 하고, 이 물돌일 때 주낙을 놓아야 한다. 한 시간도 못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놓아야 한다. 담갔다가 건져올리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물의 상태나 기 후상태를 봐서 결정한다. 주낙 한 바퀴에는 낚시가 50~60개의 낚시가 달려있다. 옛날에는 홍어나 상어잡이 주낙으로 등태도 잡았다.

(7) 고등어잡이

고등어잡이	윤강산(남, 77)외	흑산 심리	2003. 7. 22
-------	-------------	-------	-------------

고등어 어장은 흥도 우대끼, 가물도 우대끼다. 고등어는 6, 7월에 많이 잡는다. 8월까지 조업하기도 한다. 옛날엔 고등어를 낚시로 잡았다. 낚시가 열개 낚짓 달린 줄을 바닥에 닿게 한다. 줄을 감아올리는 것은 '자세' 라고 한다. 낚시에는 미끼로 '아지' 를 끼운다. 아지 한 마리 잡아서 벗기면 두개씩 나오는데 그것을 하나씩 낚시에 끼운다. 즉 한 마리 잡으면 미끼가 두 개 나오는 셈이다. '술자세' 는 한사람이 하나씩 가지고 한다. '애리' 는 낚시줄을 말한다.



흑산면 심리 윤강산

낚시뽕들은 납으로 만든 것도 쓰고 쇠로 만든 것도 사용했다. 흑산도에서 하루 세 사람이 낚시질을 하면 천마리정도 낚을 수 있다.

지금은 고기떼를 보고 잡는다. 불배가 불을 켜놓고 그 밑으로 쌓이는 고기를 보고 그물을 친다. 지금은 불배만 해도 3~4척이 된다. 건착망같은 경우는 선단으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이 많이 들어서 주로 경상도 어부들이 조업해간다고 한다. 고등어는 뺨에서 많이 난다. 돌 있는 해역에도 있지만 그물작업을 하지 못하고 낚시로 한다.

(8) 장어잡이

장어잡이	박동남(남, 78)외	흑산 예리	2003. 12. 30
------	-------------	-------	--------------

장어는 3~4월에서 7~10월까지 잡는다. 장어가 잘 잡히는 어장은 흑산부근이다. 또 인근의 태도, 매물도 등지다. 연승하는 구역을 찾는 것은 물때를 보고 경험으로 인지한다. 장어는 돌하고 뺨이 있는 곳에서 잘 잡힌다. 장어는 수심이 50m~60m정도에서 잘 잡힌다. 흑산도에서 장어는 대개 봉장어로 불린다. 어획 후의 처리는 여러 가지다. 상인들한테 팔기도 하고 자가소비하기도 한다. 소금을 살짝 쳐서 말리기도 한다. 즉, 물에 소금을 타서 고기를 담궜다가 씻어서 '발대' 라는 판에 말린다. '발대' 는 대발인데, 주로 시누대로 만들었다. 이 '발대' 에는 돌미역 등 채취한 어초

류도 말린다.

흑산도 봉장어는 주로 예리에서 멍섬 밖으로 나가서 어획을 한다. 흑산도에서 흥도 전체가 봉장어 어획구역이라고 보면 된다. 주낙으로 작업할 경우에는, 물이 덜 센 조금에 한다. 풍선을 타거나 댓마를 사용하기 때문에 원양어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흑산도에서는 10물부터 4물까지를 조금이라고 한다. 같은 연승이라고 하더라도 어장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특히 봉장어낚시는 바닥에 깔아야 한다. 두발에 하나정도다. 봉장어와 상어낚시가 비슷한데 상어는 낚시가 크고 봉장어는 낚시가 작다. 봉장어미끼는 고등어와 아지(정갱이)를 주로 쓴다. 포를 떠서 낚시에 끼워 사용한다. 장어낚시를 놓는 곳은 바닥이 굽은 돌이나 개펄이 있는 곳이어야 좋다.

(9) 간재미잡이

간재미잡이	김은현(남, 59)의	흑산 심리	2003. 7. 22
-------	-------------	-------	-------------

간재미는 옛날에는 영산도에서 많이 잡혔다. 소형선박들이 주로 연승조업을 많이 한다. 특히 꼬까리 북쪽 근해에서 조업했다. 즉, 영산도 근해와 꼬까리 섬주변이다. 꼬까리는 심리, 사리, 영산도, 심리아래, 꼬까리뚝, 꼬까리 부근을 다 아울러서 부른다고 보면 된다. 꼬까리둥은 수심이 안쪽은 약 40발정도 되고 서쪽은 50발이며 서쪽으로 갈수록 깊어진다. 간재미는 주로 3, 4월에 잡는 것이 좋다. 간재미 또한 시기에 따라 이동한다. 아랫바다쪽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 고래잡이

고래잡이	박동남(남, 77)의	흑산 예리	2003. 12. 30
------	-------------	-------	--------------

흑산도에서 잡혔던 고래는 나가스, 밍크 돌고래 등이다. 나가스는 일본말이다. 이빨이 없고 수염이 있는 것이 나가스다. 옛날에 흑산도에 잡힌 고래는 거의 나가스였다. 어장은 흥도 밖 서쪽으로 40~50마일 해역이다. 흑산도에서는 약 30마일쯤으로 보인다. 고래잡이는 3, 4월이 성수기다. 고래는 떼지어 다니는데 흑산도 근해에서 만나기는 힘들다. 어찌다가 흑산도 근해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대개 10여마리가 떼지어 다녔다. 고래는 세하(작은 새우)를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세하떼가 있으면 고래가 있다고 보면 된다. 고래는 수심 40발쯤에 유명한다. 고래는 흑산도에서는 대개 음력3, 4월에 난다. 밤에는 잘 안보이기 때문에 낮에 총으로 잡아야 한다. 망통 위로 올라가서

망을 보고 잡는다. 눈좋은 사람은 멀리 볼 수 있으며, 고래가 물을 뿜어대면 그것을 보고 고래인줄을 안다. 고래고기는 모두 포경회사를 통해 일본으로 수출했다. 고래잡이에 동원된 어부들이나 포경회사인부들이 먹을 수 있는 정도였다.

(11) 산괭이잡이

산괭이잡이	윤강산(남, 77)의	흑산 심리	2003. 7. 21~23
-------	-------------	-------	----------------

산괭이는 옛날에는 흑산도와 장도 사이의 '장도도'에서 많이 났다. 식용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농사짓는데 머루약으로 산괭이 기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잡았다. 산괭이는 창으로 찢어서 잡는다. 고래창과 동일하다. 5, 6m정도의 창인데 이것이 산괭이 속으로 들어가면 끝에 달려있는 줄을 회수해서 산괭이를 끌어 올린다. 대개 산괭이의 크기는 150cm정도로 사람 키에 미치지 못한다. 산괭이는 떼지어 다닌다. 물위로 수십마리가 나왔다 들어갔다 한다 산괭이는 송어, 멸치 등의 여러 가지 물고기들을 잡아먹고 산다. 잡식성이어서 그런지 이빨이 강하다. 산괭이는 포위해서 먹이를 사냥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산괭이가 나타나면 고기들이 떠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 흑산도의 산괭이는 3, 4월경의 봄에 제일 많다. '장도도'는 수심이 10m남짓밖에 되지 않는다. 말수로 하면 7, 8말정도다. 이곳에서 산괭이가 물속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한다. 영산도 뒤쪽에 산괭이여가 있다. 영산도와 흑산도 사이가 그곳인데, 이곳에 산괭이가 많이 있다. 또 명섬 부근에도 산괭이가 많다.

(12) 흑산도의 빨과 홍어맛

빨과 고기	윤강산(남, 77)의	흑산 심리	2003. 7. 21~23
-------	-------------	-------	----------------

흑산도 홍어가 맛있는 이유는 바다빨이 좋고 물이 좋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홍어어장은 모두 빨바닥이라고 할 수 있다. 명섬 근해를 안바닥이라한다. 안바닥은 자갈하고 빨하고 섞여있는 곳이다. 빨도 있고 여도 있고 돌도 있다. 안바닥이 다물도 우대기도 빨이다. 여기서 옷바닥은 전부 빨이라고 보면 된다. 홍도 우대기도 빨이다. '홍도밖에'는 돌도 있고 여도 있고 빨도 있다. 보뜰머리도 빨도 있고 여도 있다. 꼬까래등은 걸도 있고 빨이 있다. 꼬까래 가깝게는 걸이고 밖으로 떨어지면 빨인 셈이다. 꼬까래 밖으로는 여가 없다. 태도 서바닥은 걸과 여 그리고 빨이 있다. 하도 너른여부

근은 걸이고 밖으로 나가면 빨이다. 가거도 우대끼는 빨이다. 가거도 가깝게는 돌이 있다. 이렇게 빨이 있는 데서는 홍어잡이를 한다. 걸이나 여에서는 장어, 우럭, 상어도 잡는다. 즉, 홍어 외에도 간재미, 등태 모두 마찬가지로 빨에서 살기 때문에 빨지역에서 조업을 한다.

특히 홍도와 태도 부근의 빨 밑바닥이 황토밭이어서 여기서 잡히는 홍어가 맛이 뛰어나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낚시에 걸려 올라오는 토질을 보아 알 수 있다. 낚시를 깔아보면 낚시에 빨이 묻어 나오는데, 그것이 황토다. 그래서 그곳에서 난 홍어는 맛이 달고 크다.

(13) 흑산도 무례질과 채취어업

무례질과 채취어업	박광래(여, 80) 최순님(여, 56 최순님의 며느리) 외	흑산 심리	2003. 7. 22
-----------	--	-------	-------------

해삼은 5~6월에 잡는다. 양력 5~6월경에 산란을 하기 때문에 이 무렵에 많이 잡힌다. 산란하기 위해서는 바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전복은 사시사철 계속 나온다. 수온이 차거나 너무 더워지면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한 여름인 7~8월과 12월 이후에는 작업을 하지 못한다. 즉, 4~6월과 9~11월에 가장 많이 잡힌다고 보면 된다. 성게는 4~5월과 10~12월까지 난다. 성게와 해삼과 전복은 거의 동일한 장소에 있다. 성게는 전복집에서 많이 살기 때문에 해녀들이 손을 찢리기도 한다.



해녀 2대 박광래, 최순님

전복과 성게는 바위틈에 주로 나고, 해삼은 모래와 빨이 있는 곳에서 난다. 전복의 암놈 수놈을 구별하는 방법으로는 노란색깔을 더 띤 것이 수놈이라고 보면 된다. 자연산과 양식의 구별은 게웃이라는 내장이 단단한 것이 자연산에 속한다. 물론 씹히는 맛도 다르고 향도 다르다. 무례질의 짓나 늙은 선주가 40%, 무례꾼이 60%였다.

(14) 흑산도 파시

흑산도 파시는 3회로 나누어진다. 제1기는 1월에서 4월에 걸친 中船파시와 2월에서 5월에 이르는 捕鯨파시로, 중선파시는 조기파시, 포경파시는 고래파시라고도 한다. 제2기는 6월부터 10월까지 지속되는 巾着파시로 주 어종은 가라지, 고등어로 고등어파시라고도 한다. 제3기는 10월부터 12월로 중선파시이다. 제1기 60여 척, 제2기 100여 척, 제3기 50여 척이 흑산도를 근거로 어로작업을 한다. 선주와 선원들이 예리 해안에 떨어뜨리는 금액은 제1기 약 7~8십 만환, 제2기 7~8백 만환, 제3기 3~4십 만환 등이지만 선주, 어부, 외래상인들이 주연을 담당하기 때문에 원주민의 경제와는 무관하다. 이들은 여기가 끝나면 다른 어장으로 이동한다.

양력 4월과 8월에 흑산도에서는 고등어와 정갱이가 많이 잡혔다. 이 시기 직전에 조기어장이 형성되었지만 일본인들이 조기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고등어와 정갱이를 많이 잡았다. 이때 흑산도에 파시가 형성되었다. 당시 고래잡이를 하는 70~80톤이 되는 배들이 50여 척씩 드나들었다. 일반 고기잡는 배는 70~80톤 정도이고 100톤 짜리 운반선이 여러 척 따라왔다. 고기잡이 배 한 척에 4, 5척의 운반선이 따라 다녔다. 운반선에는 얼음 창고가 있어서 고기를 잡으면 바로 얼음에 저장했다. 일본의 대구리 배도 있었다. 대구리 배는 민어를 포함하여 온갖 고기를 다 잡았는데 이 배가 들어오면 또 흑산도에 파시가 형성이 되었다. 대구리는 여름과 겨울에 주로 이루어졌는데, 결국 파시는 일년 사시사철 섰다고 할 수 있다.

흑산도 사람들은 파시가 서면 '파수가 들었다'고 했다. 파수가 들었다는 말은 장사꾼들이 들어왔다는 말이라고 한다. 파수는 거의 일본 배들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한번에 50여 척이 들어오는데 흑산도에 살던 일본인들에게 이 때가 호기였다. 요리 집이 5, 6개가 있었는데 한 집에 접대부 아가씨를 3, 4명씩 데리고 있었다. 아가씨들은 모두 일본인들이었고 배도 일본 배만 왔으며 중국 배나 한국 배는 없었다. 당시에 한국 배는 고작해야 풍선 정도였기 때문에 그들의 파시 대열에 끼지 수가 없었다.

(15) 자산어보와 흑산도의 어류들

① 송어

『자산어보』에는 치어라 기재하고, 송어의 형태, 생태, 어획, 이명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몸은 둥글고 검으며 눈이 작고 노란빛을 띤다. 성질이 의심이 많아 화를 피할 때 민첩하다. 작은 것을 속칭 登其里라 하고 어린 것을 毛峙라고 한다. 맛이 좋아 물고기 중에서 제일이다”라고 하였다. 일본명은 Bora이다. 머리는 다소 납작하지만 몸 뒤쪽으로 가면 측편(compressed: 어류의 체형 가운데

좌·우로 납작한 형)이다. 등지느러미는 2개로 분리되어 있다. 눈은 크며 잘 발달된 기름눈까풀로 덮여 있다. 눈 앞에는 2쌍의 비공(nostril: 콧구멍)이 있다. 입은 비스듬히 경사져 있고 위턱의 뒤끝은 눈의 앞가장자리에 닿는다. 새개골의 뒷가장자리는 부드럽다. 가슴지느러미는 비교적 작고, 몸의 중앙에 위치한다. 몸은 비교적 큰 둥근비늘로 덮여 있으며 머리는 주둥이 끝에만 비늘이 없다. 아가미는 상엽과 하엽의 경계가 마치 활처럼 휘어져 있으며 짧고 가느다란 새파를 가진다. 양턱에는 용모치(ciliform teeth: 가느다란 솜털 모양의 이빨)가 1줄로 나 있다. 몸의 등쪽은 암청색을 띠며 배쪽으로 밝아져 은백색을 띤다. 지느러미는 연한 갈색을 띠며 배지느러미만 투명하다.

② 조기

속칭 조기라고 함은 참조기를 말한다. 『자산어보』에 추수어라 하였고, 『오주연문』에 石首魚라 하였다. 일본명은 Kiguchi이다. 후두부에 골질돌기가 없다. 뒷지느러미는 기저(base: 기관 또는 부속기관과 몸통과 연결되는 부위)의 길이가 짧고, 2극 9연조(soft ray: 마디가 있고 끝이 갈라져 있는 지느러미 줄기)이다. 아래턱에는 어떠한 수염도 없다. 아래턱의 배쪽 앞 부분에는 6개의 감각공(sensory pore: 측선의 유공과 같이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구멍)이 있다. 아래턱의 내열치가 외열치보다 크다. 등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 연조부의 기저에서 3분의 2 지점까지 비늘이 덮고 있다. 몸 등쪽은 암회색을 띠지만 배쪽은 회거나 황금색에 가깝다.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는 연한 황색 혹은 갈색을 띠지만, 가슴지느러미, 배지느러미, 뒷지느러미는 선명한 황색을 띤다.

민어와는 가슴지느러미의 색깔(민어는 검다)에서 잘 구별되며, 동일 속의 부세와는 뒷지느러미 연조수(부세는 주로 8개)로 식별할 수 있다. 조기는 농어목 대구과에 속하는 물고기의 총칭이다. 참조기, 부세, 보구치 등이 이에 속한다. 참조기는 몸이 길고 빛깔이 회색을 띤 황금색이며, 입이 홍색을 띠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겨울에 따뜻한 바다에서 월동한 뒤 북상하면서 산란을 하게 되는데, 주요 조기 어장터는 산란터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²¹⁾ 회유할 때는 소리를 내면서 튀어 오르는 습성이 있다. 조기에 관한 기록은 실록류에서부터 현대의 기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중 조선 세종 14년(1432)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의 토산부에 어류 34종의 이름과 함께 石首魚가 등장

21) 권삼문, 2001, 『동해안 어촌의 민속학적 이해』, 민속원, 135쪽. 권삼문은 인용문을 통하여, 조기가 겨울에 월동한 뒤 북상하여, 6월 하순에 발해만에서 산란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데, 이것을 최초의 기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조기를 원료로 하는 鹽乾 가공품인 영광굴비가 고려 때부터 유래했다는 일설이 있어²²⁾ 조기어업은 훨씬 더 이전부터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기에 관한 상세 기록은 단연 『자산어보』를 꼽을 수 있다.

큰놈은 한 자 남짓 된다. 모양은 민어를 닮았고 몸은 작으며, 맛 또한 민어를 닮아 아주 담담하다. 쓰임새도 민어와 같아 알은 것을 담는 데 좋다. 조금 큰놈(속칭 보구치)은 몸이 크나 머리가 짧고 작으며 굽어 있다. 그러므로 후두부가 높다. 비린내가 나서 포를 만드는 데 쓸 수 있을 뿐이다. 칠산바다에서 나는 보구치(흰조기)는 그 맛이 조금 나으나 그것 역시 좋지 않다. 조금 작은 놈(속칭 鱧厓라고도 한다)은 머리가 약간 날카롭고 엷은 흰빛이다. 가장 작은 놈(속칭 黃石魚라고도 한다)은 길이가 4~5치 정도로 꼬리가 매우 날카롭고, 맛이 좋으며 가끔 어망 속에 들어오기도 한다. 살피건대 『臨海異物志』²⁴⁾

에서는 석수어의 작은 놈을 추수라고 부르고 그 다음 것을 춘래라 불렀다. 어류학사전에서 조기는 수조기[꽃조기, 조구, 대황어, 대선], 황조기[참조기, 노랑조기, 기름조기, 황조구, 소황어, 소선, 화어], 보굴치[보줄치, 보구치, 흰조기, 백석수어]로 분류하기도 한다.²⁵⁾ 주로 조기는 참조기를 말하는 것으로 황금조기라고도 부른다.²⁶⁾

부세는 길이가 길고 고기 자체가 단단하다. 비늘 끝에 검은 띠가 있고, 색깔도 황금빛이 아닌데다가 등도 검기 때문에 황금조기보다 오히려 야물어 보인다. 꼬리가 가늘면서 쪽 빨았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부세가 오히려 더 멋있다. 눈도 동그랗고 예뻐뻐더러 맛도 좋다.²⁷⁾

보구치는 백조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색깔 자체가 하얗고 몸과 머리가 모두 옆으로 약간 납작하고 몸의 길이가 길지 않아 체형이 긴 타원형이다. 등쪽은 황갈색이고, 아래쪽은 은백색이며, 아가미 뚜껑에는 검은 점이 있다. 모든 지느러미는 흰색으로 거의 투명하며 반문은 없다. 수심 40~100m의 바닥이 모래와 펄인 곳에서 살며, 우리나라 서해에서 산란하는데 남해와 동해 남부, 일본에서 인도, 태평양에 이르기까지 널리 분포한다.²⁸⁾

22) 원종오, 1997, 「법성포의 영광굴비에 관한 연구」, 교원대 지리교육과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쪽.

23) 당나라 단공로(段公路)가 편찬한 책으로 책 자체는 전해지지 않음.

24) 주강현, 1998, 『조기에 관한 명상』, 한겨레신문사, 51~52쪽.

25) 최여구, 1964, 『조선의 어류』, 과학원출판사(평양), 207쪽.

26) 국립수산진흥원 수산공학과 홈페이지 : 참조기, 부세, 보구치 등에 대해 사진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27) 주강현, 1998, 『조기에 관한 명상』, 한겨레신문사, 52쪽.

부세는 칠팔도와 우이도 사이에서 망종 무렵에 한 달여 동안 잡는다.

28) 주강현, 1998, 앞의 책, 53쪽.

③ 멸치

『우해어보』에서는 멸아, 『자산어보』에서는 멸어라 하였고 한자어로 추어라 하였다. 『재물보』와 『전어지』에서는 멧이라 하였다. 일본명은 Katakuchii-washi이다. 몸의 횡단면은 타원형에 가까운 측편(compressed; 어류의 체형 가운데 좌·우로 납작한 형)형으로, 입은 크며 비스듬히 경사진다. 위턱이 머리의 앞쪽으로 돌출하며, 양턱에는 미세한 이빨이 있다.

배쪽 정중선을 따라 모비늘(scute: 날카로운 능선을 형성하고 있는 비늘로서 전갱이의 옆줄 뒷부분과 전어나 준치의 복중선 위에 나타남)이 없다. 등지느러미는 1개로 몸의 중앙에 위치하며, 가슴지느러미는 배쪽에 치우쳐 있다. 몸 등쪽은 짙은 청색을 띠며, 중앙과 배쪽은 은백색을 띤다.

중국, 일본, 한국 등의 연근해에 분포하며, 드물게 필리핀에서도 어획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주로 대륙붕의 0~10m 정도의 해역에서 생활한다. 산란기는 봄, 가을 2차례에 걸쳐 일어나며, 수심 20~30m층에서 밤중에 산란한다. 최대 몸길이 15cm까지 성장하며, 수명은 1년 반 정도이다. 먹이는 동물성 플랑크톤을 주로 먹는다. 전세계적으로 멸치속 어류에는 8종이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의 종들은 연안에 서식한다. 페루 앞바다에서 최대 어획량을 기록한 멸치류는 *Engraulis ringens*로서, 엘니뇨의 영향으로 어획량이 감소되기도 하였다. 멸치는 호주산 멸치, *E. australis* 및 유럽산 멸치, *E. encrasicolus*와 매우 유사하여, 식별이 곤란하지만,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별종으로 처리하고 있다

멸치는 서남해에서는 낭장망 그물로 주로 잡는다. 낭장망은 긴 자루 그물의 날개와 자루 끝을 닮 등으로 고정시키고 조류에 의하여 들어간 고기를 잡는 定置性 어구이다. 자루 속에는 유도망이 있어 한 번 들어간 고기는 되돌아 나오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조류의 방향이 바뀌면 그에 따라 그물이 뺀 방향이 바뀐다.

④ 낙지

한자어로는 石距라고 하며, 章魚·絡蹄라고도 쓴다. 『茲山魚譜』에 보면, 맛이 달콤하고 회, 국, 포를 만들기 좋다고 하였으며, 『東醫寶鑑』에 性이 平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고 하였다. 몸길이는 약 70cm에 이르며 특히 팔이 길다. 몸은 몸통, 머리, 팔로 되어 있고 머리와 같이 생긴 둥근 몸통에 심장, 간, 위, 장, 아가미, 생식기가 들어 있다. 몸통과 팔 사이에 있는 머리에 뇌가 있으며 좌우 한 쌍의 눈이 붙어 있다.

머리에 붙어 있는 입처럼 보이는 갈때기로 물을 빨아들이면서 호흡을 한다. 8개의 팔은 머리에

붙어 있고 흡판이 있어 바위에 붙거나 갑각류나 조개를 잡아먹을 때 쓴다. 입은 팔 가운데 붙어 있는데, 날카로운 턱판이 있으며 그 속에 치설이 있다.

연안의 조간대에서 심해까지 분포하지만 얕은 바다의 돌틈이나 진흙 속에도 산다. 간의 뒤쪽에는 먹물주머니가 있어 쫓기거나 위급할 때 먹물을 내어 주위의 물을 물들임으로써 자신을 적으로부터 보호한다. 식용이지만 延繩漁業의 미끼로 많이 쓴다. 한국에서는 전남·북 해안에서 많이 잡힌다.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⑤ 고막

고막, 고막조개, 안다미조개라고도 한다. 한자어로는 감, 伏老, 魁蛤 등으로 불린다. 껍데기의 길이 약 5cm, 높이 약 4cm, 나비 약 3.5cm이다. 모양이 방형에 가까우며 겉면에 17~18줄의 굵은放射肋이 있다. 방사륜 위에 결절이 있다. 韌帶는 흑색으로 稜形이며 나비가 넓기 때문에 꼭대기가 약 5mm정도 떨어져 있다. 조가비의 안쪽은 흰색이고 살은 붉은 편이다. 산란기는 지방에 따라 다르나 8~10월이다.

조간대에서 수심 10m까지의 진흙질 바닥에 산다. 예로부터 식품으로 많이 이용되어 왔으며, 살짝 익혀서 초고추장과 함께 먹는 전라도 지방의 향토음식이다. 『자산어보』에 살이 노랗고 맛이 달다고 하였고, 『동국여지승람』에 전라도의 토산물로 기록되어 있다. 남부지방에서는 양식을 하고 있으며 건제품은 수출하고 있다. 한국, 일본에 분포한다

새꼬막은 꼬마피안다미조개라고도 한다. 수심이 약 10m까지의 다소 담수의 영향이 있는 모래나 흙 속에 산다. 껍데기의 길이 약 7.5cm, 높이 약 5.5cm, 나비 약 5cm이다. 껍데기는 백색으로 길쭉하고 도톰한 직사각형이다. 표면에 30~34개의 좁고 몽긋한放射肋이 있으며, 흑갈색의 벨벳 모양의 큐티클로 싸여 있다. 껍데기 꼭지의 늑 위에 顆粒이 있다. 껍데기 꼭지 사이에 마름모꼴의 넓적한 부분이 있으며 두 껍데기의 맞물림은 곧고 많은 이빨이 나열되어 있다.

産卵期는 7~10월이고, 1회 산란수는 250~300만 개이다. 부화한 새끼조개는 산란 후 2주일이면 0.28mm정도가 된다. 어린 조개는 60일이면 약 4mm, 1년이면 2~3cm, 2년 후에는 4~6cm가 된다. 주산지에서는 양식을 하며, 가을의 종묘(씨조개)는 껍데기 길이 2.2~2.4cm, 봄의 종묘는 0.6~1.1cm의 것을 수심 7m까지의 바다 밑바닥에 뿌린다. 살은 붉으며 회치거나 조려서 먹으며, 통조림용으로 가공하기도 한다. 한국(남해, 서해), 일본, 중국(북부) 등지에 분포한다.

(16) 어장분포와 심리의 뜬

심리에서는 1종 어업구역을 안뜬, 간뜬, 밤물뜬 등으로 주비를 나누고 있다. 주로 미역채취를 하기 위한 뜬구분이다. 안뜬은 안뜬이라고 하고, 중리뜬은 간뜬이라고 한다.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마을을 말한다.

뜬 운영에는 규칙이 있다. 한집에 두사람씩 노동동원이 되면 그렇게 따라야 하고, 한 사람씩 동원이 되면 그렇게 따라야 한다. 배있는 사람은 뱃선가라로 해서 배의 연료비 등을 추가로 배정받는다. 예를 들어 20석을 놓으면 두 갈채를 떼어서 배의 숫자대로 나누게 된다.

주로 미역만을 뜬을 구분하고, 툫, 다시마, 세모, 가사리 등은 공동채취를 한다.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한다는 뜻이다. 툫이나 다시마 등은 공동으로 채취하고 공동으로 판매하여 마을의 공동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미역은 주로 음력 6~7월에 채취한다. 툫도 미역과 같은 시기에 채취한다. 가사리는 5~6월에 채취하고, 세모는 미역채취할 시기에 같이 한다. 깊은 곳에 있는 해초류는 해녀가 담질을 해서 채취한다. 이런 경우에는 해녀들에게 별도로 배당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썸지라고 한다.



흑산면 심리 마을 앞바다

(17) 흑산도의 배

흑산도의 배	조일욱(남, 63) 이수갑(남, 87)	목포시/ 흑산 심리	2003. 7. 22
--------	--------------------------	------------	-------------

가거도배를 예로 들면, 비우배 형식으로 한국 전통어선의 전형성을 지닌 배다. 또 어로작업과 함

계 구조를 변경하여 외지와 통행할 수 있는 화물선의 역할도 하는 겸용선으로 쓰여졌는데, 이러한 현상은 조도 닻배에서도 드러나시피 외부와 통행하는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서남해 도서지역 배의 일반적 현상이었다. 가거도배는 1950년대 후반 이후 소멸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흑산면 심리 배목수 이수갑

일본식 짬판배는 고기를 잡더라도 파도가 치면 배앞으로 올라오니까 배앞에서 일을 할 수 없어서 뒤에서 일한다. 배 앞에 유선형인 비우배는 파도가 옆으로 갈라지지 배 위로 넘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이 앞에서 일한다. 짬판배는 바람은 잘 타지만 파도에는 약하다. 비우배는 바람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짬판배처럼 기동력이 빠르지 않다. 그러나 파도에 강하다. 노를 저을 때도 짬판은 바람이나 물의 저항이 적어서 잘 나간다. 그러나 비우배는 바람과 물의 저항이 많아 노를 저어도 짬판처럼 기동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가거도 비우배는 파도가 있을 때 돛을 달고 잘 나간다. 그런데 노를 저어 갈 때는 저항이 많다. 단거리는 노젓고, 장거리는 돛을 이용한다.

또 가거도에서 목선 재료인 수기나무가 없어진 자연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가거도에는 원래 배를 짓는데 가장 좋다고 알려진 수기나무가 많았다. 그 나무로 문도 짜고 배도 지었다. 그런데 후박나무를 키우려고 거의 베어버렸다. 지금도 독실산에 수기나무가 있는데 가거도 사람 임수근 씨의 소유다. 지금은 거기만 수기나무가 있다. 대풍리에도 온 동네에서 수기나무를 길렀는데, 다 베어내고 후박나무 심어버렸다. 1970~80년대 당시에는 후박나무 껍질이 약재로 팔려서 금값이었는데 중국산이 수입되는 6년 전부터 달라져서 지금은 kg당 삼천원밖에 안하게 되었다. 지금은 돈벌이도 안 된다. 이제 후박나무도 껍질벗기기 때문에 거의 없어진 실정이고 수기나무도 없어진 실정이다.

4) 설화

1-1-1. 흑산유래 이야기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1-1-1	허경희	박동언(남, 59)	흑산도	『신안지역의 설화와 민요』	지명 설화

□ 개요

흑산은 처음에 월산섬이라 했는데, 지나가던 스님이 월산군은 공섬이 된다고 해 달월을 검을 흑으로 바꾸어 흑산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1-1-2. 흑산유래 이야기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1-1-2	허경희	황용길(남, 74)	흑산도	『신안지역의 설화와 민요』	지명 설화

□ 개요

흑산이 본래는 달월자를 써서 월산이라 했으나 월산이란 지명은 큰 사람이 난다하여 일본 사람들이 흑산으로 고쳤다 한다. 흑산은 조그만한 섬도 명지라, 王爲之地라 그 옆에 못을 파면 왕정이 된다는 지명 유래가 있다.

1-1-3. 읍동마을 피바위 이야기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1-1-3	허경희	박동언(남, 59)	읍동마을	『신안지역의 설화와 민요』	지명 설화

□ 개요

도둑무리는 성을 쌓고 탑 영감을 탑을 깎아 세우는 내기를 했는데 탑 영감이 이겼다. 도둑들이 탑 영감을 죽여 절벽에다 버렸다. 그 바위가 마치 피를 흘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피바위이다.

4-3-1. 심리마을 도깨비 이야기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4-3-1	허경희	윤강산(남, 61)	심리마을	『신안지역의 설화와 민요』	도깨비 설화

□ 개요

홍어를 잡아 제숙을 하기 위해 등에 메고 오는데 도깨비가 잡아당겼다고 한다. 집에 와서 보니 고기가 오간 데 없어 날이 밝아 가보니 고기를 나무 꼬챙이에 걸어놓았다고 한다.

5) 민요문화자원

(1) 흑산도의 민요

흑산도는 내륙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섬 중의 하나이다. 이런 지리적 조건은 흑산민요의 생성과 전승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하다. 신안군의 다른 섬들이 대개 농업과 어업을 병행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가거도를 포함한 흑산도는 섬지역 특유의 어업이 발달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다시 어업민요의 생성과 전승으로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흑산도의 민요는 어업민요가 주축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채록된 흑산민요 중에서 어업과 관련된 민요는 아래에 제시한 001번부터 029번까지 들 수 있다. 주로 멸치잡는 소리를 중심으로 조사되었으며, 배를 움직이는 데 사용된 민요가 채록, 채보된 바 있다. 057번과 058번은 해녀눓소리로 제주도의 눓소리와 거의 유사한 눓소리임을 알 수 있다. 대신에 상여소리는 내륙의 상여소리를 닮아있다. 흑산도가 지니고 있는 유동적 특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030번부터 056번까지는 노동과 관련된 노래도 있지만, 대개 유희민요로 나눌 수 있는 민요들이다. 일하면서도 불렀지만, 놀면서도 부르는 노래라는 뜻인데, 노랫말에는 물론 섬 특유의 환경이 드러난다. 이 중 돌깨꼭지라는 민요는 흑산도에서만 채록된 민요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가거도에서는 이 돌깨꼭지라는 민요를 보리수나무 열매를 따면서 불렀다고 한다. 따라서 대개의 흑산도민요가 어업요임에 비해 이 민요는 산에서 일하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산다이 놀이와 노래를 예로 들면, 산다이는 두 가지의 의미로 이해된다. 하나는 명절이나 여가 때 부녀자들 또는 놀이패 남녀들이 놀이방이나 집의 마당, 또는 산에서 신명나게 노래부르고 춤추며 즐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파시 때 어부들이 술집 여자들을 끼고 복장구

장단에 맞춰 춤추고 노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풍습이 도서 해안지역에는 일반화되어 있다. 가거도와 같은 곳에서는 전자의 산다이가, 위도나 흑산도와 같이 파시가 이루어지는 어항에서는 후자의 산다이가 벌어진다. 어느 것이든 남녀가 모여 술 마시고 노래부르고 춤추며 논다는 점에서는 일치된다.

산다이 중에서 주민들의 집단적 신명을 담아내는 것은 명절 산다이라고 할 수 있다. 서남해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정월과 초파일, 추석에 또래들끼리 무리를 지어 노래판을 벌이는 명절 산다이를 했다. 명절에 벌어지는 산다이는 매우 조직화되어 있으며, 마을 안에서 몇 개의 산다이판이 또래별로 벌어질 정도로 크게 이루어졌다.

가거도 사람들은 명절이나 초상났을 때, 또 산에서 나무를 채취하거나 밭일 할 때 노래판을 벌이고 놀며 남자와 여자가 한 자리에 모여 노래 부르고 노는 산다이가 일상화되어 있다. 가거도의 경우 벌목하는 과정에서 산다이를 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성인 여성들이 약재로 후박나무를 벌목하거나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 일하면서 노래판을 벌인다. 가령 한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 후박나무의 가지를 치면서 산아지타령과 청춘가 가락에 맞춰 “무안군 흑산면 너도면이 아니냐 / 아깝다 가거도라 툇떨어졌네라”라고 소리하면 저쪽에서 일하던 아낙이 “잠을 자도 가거도 불을 꺼도 가거도요 / 여고는 가거도 살 수가 없네요”라고 노래로 받는다. 그러면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노래판을 벌인다.

산다이는 가거도 사람들의 정체성을 입증하는 한 문화양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가거도에서는 산다이라는 용어가 노래판을 지칭하는 동시에 노래의 이름으로도 사용된다. 이때 말하는 산다이는 위에서 부른 산아지타령이다. 이 산다이에서는 산아지타령 외에도 돌깨꼭지와 청춘가 등을 부른다. 노래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흥이 나면 나무에서 내려와 모여 노래를 부르며 춤판을 벌인다. 가거도 사람이려면 산다이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살이를 하고 있는 가거도 사람들이 모이는 향우회에서도 반드시 산다이판을 벌인다. 이런 점에서 산다이는 서남해 주민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담고 있는 놀이 양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채록된 흑산민요의 제목을 보면 아래와 같다.

001 흑산면 진리 뱃노래 1 / 002 흑산면 진리 뱃노래 2 / 003 흑산면 예리 뱃노래 1 / 004 가거도 멀치잡는 소리 - 긴뱃소리 / 005 가거도 멀치잡는 소리 - 잣은 뱃소리(잣은 곳거리 장단)/006 가거도 배내릴 때 소리 / 007 노젓는 소리/008 멀치잡이 소리 - 뭇소리 1 / 009 멀치잡이 소리 - 뭇소리 2 /

010 가거도 멸치잡는 소리 - 낚소리 3 / 011 멸치잡이 소리 - 긴 낚소리 1 / 012 멸치잡이 소리 - 긴 낚소리 2 / 013 가거도 멸치잡는 소리 - 잦은 낚소리 1 / 014 멸치잡이 소리 - 잦은 낚소리 2 / 015 멸치잡이 소리 - 잦은 낚소리 3 / 016 멸치잡이 소리 - 역수타는 소리 1 / 017 가거도 멸치잡는 소리 - 역수타는 소리 2 / 018 멸치잡이 소리 - 멸 모는 소리 1 / 019 가거도 멸치잡는 소리 - 멸물소리 2 / 020 멸치잡이 소리 - 그물 지르는 소리 1 / 021 가거도 멸치잡는 소리 - 그물지른소리 2 / 022 멸치잡이 소리 - 술배소리 1 (임의로 제목 붙임) / 023 멸치잡이 소리 - 술배소리 2 / 024 가거도 멸치잡는 소리 - 술배소리 3 / 025 가거도 멸치잡는 소리 - 긴소리 / 026 가거도 멸치잡는 소리 - 풍장소리 / 027 가거도 대리 배올리는 소리 1 / 028 가거도 향리 배올리는 소리 2 / 029 배 올리는 소리 3 / 030 가거도 산다이 노래판에서 부르는 노래 1 / 031 가거도 산다이 2 / 032 가거도 강강술래 - 비여리여리 / 033 가거도 강강술래 - 도롱도롱 도롱태 / 034 청춘가 1 / 035 청춘가 2 / 036 청춘가 3 / 037 청춘가 4 / 038 한탄가 1 / 039 한탄가 2 / 040 한탄가 3 / 041 한탄가 4 / 042 신세타령 - 흥글소리 / 043 등당애타령 1 / 044 등당애타령 2 / 045 등당애타령 3 / 046 등당애타령 4 / 047 등당애타령 5 / 048 등당애타령 6 / 049 흑산도 심리 등당기 타령 7 / 050 창부타령

051 캐지나칭칭 / 052 비자나무노래 / 053 장장 짚세기 / 054 보리타작 노래 / 055 돌깨꼭지 1 / 056 돌깨꼭지 2 / 057 상여가 / 058 심리 해녀 낚소리 / 059 심리 해녀 낚소리 / 060 낚소리 / 061 상여소리

(2) 흑산도민요 주요내용

흑산면 진리벵노래1

히읏사라 하하 히읏사라 / 우리배는 소나무로 짓은배라 하

소리술도 잘도간다 / 히읏사라 하하 히읏사라 하

히읏사라 하 / 어서가자 하하 / 배빼가자 하

눈도코도 없는 / 이성가야 하하 / 배빼가지 하

히읏사라 하 히읏사라 하 / 세월아 하하

봄철아 하 / 오고나 가지를 말어라 하

아까운 내청춘 / 다 늙어지는구나

히읏사라 하하 히읏사라 하 / 히읏사라 하하 히읏사라 하

앞을찾아 하하 / 잘도간다 하

히읏사라 하 / 어덜가야 하하

잘 벌을거나 / 저제를 가야 하하

잘 벌은다 / 히읏사라 히읏사라

가거도 멸치잡는소리-긴벧소리

(말) 넘어간다 긴벧소리 내라 / 애야디야 / 애야디어라

애야디어라 / 일곱 멍에 채받쳤네 / 애야디어라

이도 멸치 잡았으니 / 애야디어라

늙은부모 봉양하세 / 애야디어라

정든님을 남줄망정 / 애야디어라

이 기쁨을 남줄손가 / 애야디어라

오늘 저녁 여기서 놀면/애야디어라

내일 저녁 어데놀까 / 애야디어라

듣기는 좋다 / 애야디어라

가거도 강강술래 - 비여리여리

가거도 주민들의 강강술래는 매우 개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부르는 강강술래에 비해 덕석물기와 문열기가 없고 대신에 '비여리여리', '도롱도롱 도롱태' 등의 노래를 불렀다. '비여리여리'는 잦은 강강술래와 같이 뛰면서 부른다. 가사는 다음과 같다.

물팍 밑에다 골매 잃고서 / 골매 찾기가 난감하도다

비여리여리 비여리여리 / 비자나무야 비자나무야

비자 나무에 연이 걸려 갔네 / 머리 꼬지에 바늘 잃고서

바늘 찾기가 난감하도다 / 비여리여리 비여리여리

비자나무야 비자나무야 / 비자 나무에 연이 걸려 갔네

가거도 강강술래 - 도롱도롱 도롱태

'도롱도롱 도롱태'도 '비여리여리'와 같이 뛰면서 부른 노래다. 가사는 다음과 같다.

돌아간다 도롱태 나무접시가 도롱태 / 도롱도롱 도롱태

나무접시가 도롱태 / 돌아간다 도롱태

나무접시가 도롱태 / 돌아간다 도롱태

나무접시가 도롱태 / 도롱도롱 도롱태

나무접시가 도롱태 / 돌아간다 도롱태
나무접시가 도롱태 / 도롱도롱 도롱태
나무접시가 도롱태 / 돌아간다 도롱태
나무접시가 도롱태

돌깨꼭지1

노야 노야 진성노야 / 강지난 땅에 후후혹지 진성노야
장기 통통 뒤지 마라 / 꽃과나 가 후후혹지 너의 기집
실려간다 실려간다 / 미구나 배에 후후혹지 실려간다
돌깨 돌깨 예야 진돌깨는 / 밥 잘해 무 후후혹지 일 잘한다
봄이 왔네 예야 봄이 왔네 / 삼천리 강 후후혹지 봄이 왔네
다 따내게 예야 다 따내게 / 이나나 볼깨 후후혹지 다 따내게
못 따졌네야 못 따졌네 / 솜씨가 설어 후후혹지 못따졌네
후른 것은 잎파귀요 / 붉은난 것은 후후혹지 가실이라

돌깨꼭지2

넘어간다 넘어간다 / 돌깨나 꼭 후혹지 넘어간다
돌아간다 돌아간다 / 어더낭 밑에 후혹지 돌아간다
불어왔네 불어왔네 / 옥천아 앵도 후혹지 불어왔네
푸른 것은 잎사귀고 / 붉은난 것은 후혹지 볼깨로다
왼손에다 웅덩 끼고 / 오리난 손에 후혹지 따다 담저
어린 애기 우는 데는 / 젓꼬낙지가 후혹지 약이로다
실근 애기 우는 것은 / 밥이나 수제 후혹지 약이로다
돌깨꼭지 빙난데는 / 닥내나끼가 후혹지 약이로다
물레자새 빙닌 데는 / 배깨나죽이 후혹지 약이로다

등당애타령2

등당애다 등당애다 / 당기등당애 등당애다
파야파야 북씨파야 / 배차짐차 양임파야
양임재에 담어놓고 / 서당성부 기다리니

기다리는 서당성부 / 오늘일은 무엇인가
 더덕이라 짝이나고 / 강안도라 복송꽃은
 봉기봉기 피어난다 / 당기 등당애 등당애 다
 새야새야 파랑새야 /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 창포장사 올고간다
 등당기당 등당기당 / 당기 등당애 등당애 다
 등데산 짚은골에 / 그 도령은 무엇인가
 사람이라 인간이세 / 인간이라 차별할세
 인생이라 한다결랑 / 인생이라 무엇이나
 인생이라 발가지는 / 대호장차가 저이되고
 판은판은 양지판은 / 양짐재에 담어노른
 오는손님 취소하리 / 당기등당애 등당기다
 어매어매 나를두고 어딜가서 / 밤에 동동 울 어머니
 나를 금지 모르신가 / 얼큰지는 안 담아논
 기가 맥히 못왔드라 / 등당기당 등당기당
 당기 등당이 등당이다

가거도 산다이 2

우리가 여기를 왔다 기양 갈 수 있냐 / 노래나 한 재리 불고나 가자
 고요한 저 달이 이내 창에 비쳐놓고 / 연연한 내 마음이 반섬만 된다
 산 너메 고갯길도 십리길이 못 되데 / 나를 두고 가는 님은 한 걸임도 십리
 가갯섬 무너져 평지나 되라 / 강물이나 몰라져서 육로나 되라
 사랑을 맺었다가 또 한번 변하도 / 높으나 절벽 가 내가 떨어져 죽자
 푸리난 저 물이 술이라고 하든 / 오는 친구 가는 친구를 다 사과보졌네
 물레야 자새야 어서 뱅뱅 돌아라 / 지석안에 썼는 남자 밤이슬 맞인더
 굴섬 녹섬 썰어 덮은 악마같은 파도는 / 자라는 어리에들 낙심만 된다
 노랑저구리 섯호에 떨어진 내 눈물 / 너 닳이냐 내 닳이냐 중신에비 닳이다
 산이나 높아야 골도나 깊제 / 지식없는 여자 속이 얼마나 깊을리
 허루통 가늘고 동자집이 큰애기 / 뒷동산 좁은 길로 나만 졸졸 따라라
 백년을 살자고 기약한 그 사람 / 금년도 못 살고 이별이 들었네

목포라 목여중 내 부사져라 / 친구가고 나 못간데 부신 소용이나
 정든 님 상발을 어드득 잡고 / 꺾여라 살려라 너 처분 아니나
 가거도라 앞 강에 일중선이 뜨고 / 정든 님 술잔에 잔 버끔 떴네
 오는 새 가난 새 들판 속에서 놀고 / 입재없는 이내 몸은 어데로 갈지 모린다
 세월은 흘러흘러 몇천년을 또 흘러 / 입도나 변하야 세월 따라서 히런더

심리 해녀의 낚소리1

심리 해녀낚소리	김춘단(여, 68) 박일단(여,) 외	흑산 심리	2003. 7. 22
----------	--------------------------	-------	-------------

저라 저라 하하 노를 저어라 / 이여차 / 남경창
 파 끝없어도
 제주사람 소리여. 나는. 제주해녀들하고 소리..
 제주년아 노젓어라 하하 / 애기배서 히이히이
 (어째 웃음이 나와서 그래요?)

『노를 젓잖아요 지금』

이기여라 허응 어기여라 하 / 우리청춘 우은
 젓는놈에 허은 / 천리라도 어 하 / 가련마는 하
 백발노인 인 / 젓는놈에 허은 / 삼십리도 온 / 못간구나 하
 어기여허 으 / 어기여라 하 / 잘도간다 으샤 으샤
 『그것 벨라고 그것 저어라 그 소리 하란게 예미
 로초에…………』
 그 사람들 노리사 안좋데요. / 앞산은 은 / 가
 까지고 호
 뒷산은 은 / 멀어진다 하 / 이여차
 녹반들에 해 / 떨어지른 혼 / 남쪽유림 허이 / 아
 르고 호
 노꼬잡이 이 / 부러지른 이여차나 / 각시 나무가
 알아준다 이여차나



심리 해녀 노질과 낚소리를 부르는 김춘단, 박일단

이여차 / 이렇게 둘이 저어요. 이쪽에 젓고, 요쪽에 젓고.

심리해녀 낚소리2

돈 많고 / 였싸라 / 잘난자야 / 이였싸라
날 다려 / 이였싸나 / 가거라 / 이였싸나
이여도사나 / 이였싸나 / 이여도사나 / 이여사나
이여도사나 / 힘내댄가 / 히계가네
이여도사나 / 이였싸나 / 이여도사나 / 이였싸라
이였싸나 / 잘도가네 / 이였싸라
이여도사나 / 저라저라 / 이여도사나 / 절 저라
이여도사나 / 이여사나 / 이여도사나 / 어린자식
이여도사나 / 젓을주라 / 젓을주라 / 엄마를
엄마를 / 기다린께 / 기다린께 / 어서가자
어서가서 / 이였싸라 / 어허 어린아기 / 이였싸나
젓을주고 / 이였싸라 / 이여도사나 / 이였싸나
고픈베에 / 이였싸나 / 밥을묵고 / 이였싸나
어서가세 / 이였싸나 / 저라저라 / 이였싸나
노를저라 / 이였싸라 / 이여도사나 / 이였사나
이여도사나 / 이였싸라 / 이여도사나 / 이였싸라
날 다려 허 / 이였싸라 / 가그라 / 이였싸라
산오슬 / 이였싸나 / 가그라 / 이였싸나
돈많고 / 이였싸라 / 잘난자야 / 이여도사나
날만테리고가오 이였싸라 / 노를저라 / 이였싸나
이녀종사 / 이였싸라 / 아니하고 / 이였싸라
참된세상 / 이였싸라 / 살아나보세 / 이였싸라
이여도사나 / 우리어매 / 이여도사나 / 뿔하라고
어 허 / 나를나요 / 어 허 / 이내골에
어 허 / 치마잡고 / 이내
이여도사나 / 지겠는가 / 이여도사나 / 이여사나
이여도사나 / 어서가자 / 어서가자 / 이 섬 가야

이 섬 가는 / 우리아침 / 이어도사나 / 젓을주라
 이어도사나 / 요내나를 / 요내나를 / 기다린다
 이어도사나 / 이여사나 / 이어도사나 / 이였싸나
 이어도사는 / 이여사나 / 작겨신부 우 / 이였싸라
 밖에사는

늦소리

히요싸 / 히요싸 / 히요싸 / 히요싸
 앞산은 / 히요싸 / 가까지고 / 히요싸
 뒷산은 / 히요싸 / 멀어진다 / 히요싸
 헝요싸 / 히요싸 / 만자도야 / 히요싸
 가까진다 / 히요싸 / 우리가 / 히요싸
 돈벌이온다 / 히요싸 / 가지야 / 히요싸
 고등어야 / 히요싸 / 갈마물어~ / 히요싸
 우리배에 / 히요싸 / 올린다 / 히요싸
 히요싸 / 히요싸 / 이돈벌어 / 히요싸
 부모처자 / 히요싸 / 먹여살려 / 히요싸
 히요싸 / 히요싸 / 히요도 싸 / 히요싸
 저라저라 / 저라저라 / 힘들들어 / 히요싸
 어서가자 / 히요싸 / 히요도 싸 / 히요싸
 히요싸 히요싸 / 히요싸

상여소리

상여소리	윤강산(남, 77)외	흑산 심리	2003. 7. 22
------	-------------	-------	-------------

선: 허- 녀 허어허 허어 녀 / 어이가리 녀자 허와녀
 후: 허- 늘 허어허 늘 / 어이가리 녀자 허와늘
 선: 북망산천이 멀다 했더니 / 이 건네 앞산이 북망일세
 후: 허- 늘 허어허 늘 / 어이가리 녀자 허와늘
 선: 인생일장은 춘몽인디 / 아니놀고 무엇헐거나 거드렁거리고 놀다가세

후: 허- 늘 허어허 늘 / 어이가리 넘자 허와늘
 선: 당신과 나와 만날때는 / 백년 언약을 했던만은
 후: 허- 늘 허어허 늘 / 어이가리 넘자 허와늘
 선: 반 80년 못되어서 / 널과 나 이별이세
 후: 허- 늘 허어허 늘 / 어이가리 넘자 허와늘
 선: 이별이야 이별이로구나 / 이별별자 내지말고
 이별글자 내든사람 / 날과 백년 원수로세
 후: 허- 늘 허어허 늘 / 어이가리 넘자 허와늘
 선: 허낭청 넓은 길은 / 내가 다니든 길이로세
 후: 허- 늘 허어허 늘 / 어이가리 넘자 허와늘
 선: 너는 죽어서 꽃이되면 / 나는 죽어 나비되네
 후: 허- 늘 허어허 늘 / 어이가리 넘자 허와늘
 선: 허- 늘 허어허 늘 / 어이가리 넘자 허와늘
 후: 허- 늘 허어허 늘 / 어이가리 넘자 허와늘
 선: 훨훨날아 꽃봉우리에 앉거들랑 / 날인줄만 알려주소
 후: 허- 늘 허어허 늘 / 어이가리 넘자 허와늘
 선: 명사십리 해당화 / 너 꽃진다 서러마소
 후: 허- 늘 허어허 늘 / 어이가리 넘자 허와늘

3. 민속문화자원 활용방향

1) 지표조사의 기본 방향과 성과

(1) 자원화를 염두에 둔 지표조사

이번 지표조사의 기본방향은 문화의 자원화 및 활용을 전제로 한 조사였다는 데 있다. 특히, 지역 축제, 공연화, 문화상품화가 가능한 종목들을 중시했다. 따라서 기존의 자원에 국한하지 않고 신규 자원 발굴에 주목했다는 점이 주요성과라고 하겠다. 이번 조사에서 발굴한 어로문화자원은 지금까지 조사되지 않았던 신규자료들이기 때문에 그 성과는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번 지표조사의 성과라고 한다면, 문화의 자원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사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주민들의 어로생활 경험을 자원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무형의 문화자

원 중에서도 사람들의 생활담, 경험담을 자원화하는 예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 나아가 이러한 부분은 아직까지 타 지역에서는 미개발인 상태로 있기 때문에 신안군이 어로문화의 주도적 입장에 서있을 있다는 판단이 든다. 지리적인 조건과 문화적인 조건을 이처럼 아우른다면, 신안군만의 독창적인 문화자원을 발굴하게 될 수 있고, 이 원형의 자산은 다시 제 2의 가공과정을 거쳐 문화경제산업으로 진흥시키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번에 이루어진 지표조사는 기존의 작업과 큰 차별성이 있다. 기존 작업이 자료를 찾아 조사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것 자체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사업에서는 자원화를 전제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은 토착지식과 민속과학들을 조사함으로써 양질의 문화콘텐츠로서 활용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하였다.

(2) 자원화를 위한 자료 정리·의미 부여

민속문화가 문화자원으로서 큰 가치가 있지만 그 자체가 자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자원화 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분류와 가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쓰임새에 걸맞는 의미 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그점을 특별하게 강조하여 기존 작업까지 망라한 연구를 수행했다.

문화콘텐츠와 DB화를 염두에 두고 항목 설정을 하고 자료를 정리했다. 자료마다 의미 있는 항목들을 마련하여 정리해둠으로써 추후 본격적인 자원화가 진행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화된 항목을 마련하여 당제나 갯제 자료의 정리함으로써 활용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했다.

(3) 새로운 자료의 발굴 및 확대

이번 지표조사를 통해 새로운 자료들을 조사하고 정리했다. 흑산지역에서 특히 부각되는 갯제 자료를 새로이 조사하였다. 수리 갯제와 심리 갯제는 새로운 보완된 자료들이다. 그리고 진리 당제와 같이 흑산을 대표할 만한 신앙 전승을 새로운 각도에서 주목하였다.

2) 활용방향

(1) 민속문화의 관광자원 개발 현황과 문제점

신안군에서는 민속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에 관심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흑산도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그런데 맥락적 활용이 아닌, 소재주의적 시각에 의해 관광자원화되고 있으므로 반성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당장 써 먹을 수 있는 소재로만 접근하게 되면 올바른 방향의 활용이 어렵게 된다. 특색이라는 것도 외지인 또는 관광객들에게 신기한 것 정도로만 제공된다면 지속적인 관광 자원으로 삼을 수 없게 된다. 신안군의 민속문화에서 보이는 특징은 지역적 개성이므로 그 전승적·현장적 맥락에 따라 이해되어야 한다.

흑산도는 천혜의 섬 홍도, 가거도 등을 끼고 있는 서남해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의 하나다. 흑산도에는 자연 관광 및 역사·문화 관광과 관련해 몇 군데의 관광지가 개발돼 있다. 이 중에서 민속문화 자원과 관련된 곳은 흑산도 진리의 '각시당'과 읍동의 '탐당'을 들 수 있다.

① 진리마을 당산

진리당에는 당각시[소저아기씨]와 총각신[도령님], 상궁부인, 제석님, 산중처사, 당할머님 등이 모셔져 있다. 이 중 당각시가 주신에 해당되고 그와 그의 배우자 격인 총각신에 대한 좌정 내력이 구전되고 있다. '당각시신화'는, "고기 잡으러 나간 남편이 죽은 뒤 각시가 자살하게 되고, 그 원혼을 위해 당을 지어 풍어를 기원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총각화장신화'는 "용기배를 타고 온 총각화장의 피리소리에 반한 각시신이 용기배의 출항을 방해했다. 때문에 총각을 몰래 떼어 놓고 출항을 했고, 총각은 당마당의 나무에 올라가 피리를 불다가 죽었다. 주민들이 그의 무덤을 만들어 주고 그의 그림을 당각시 옆에 걸어놓고 제사를 모셨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두 이야기는 모두 결합과 결별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바다가 매개되어 있다. 이러한 설정에는 바다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섬사람들의 환경 조건이 반영되어 있다. 바다 때문에 마을 외부와 고립되



관광자원화된 진리당의 모습
(산책로가 만들어지고 벤치가 놓이고 가로등이 설치되었다.)

는 한편 바다에 의해 외부와 연결된다는 섬 생활의 두 가지 자연환경적 조건이 일종의 복합을 이루어 표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진리당은 관광안내 책자에 '처녀당'으로 소개되어 있고, 당 앞 총각 무덤이 있는 당마당에는 몇 개의 벤치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당에서 바다 쪽으로 길게 돌출된 '당산'을 따라 龍神堂에 이르는 길까지는 산책로가 개발되어 있고, 야간의 산책을 위해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다. 신격의 좌정 내력에서 보듯이 각시신이지만 처녀당으로 명명되어 있고, 당 앞의 널따란 당마당으로부터 용신당까지 산책로로 개발되고, 가로등과 벤치 시설까지 갖춰 놓은 것이 현재의 관광지화된 모습이다.

그런데 각시당과 용신당이 위치한 당산 전체는 본래 신성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곳은 함부로 오르지 않고, 땀감이 귀할 때에도 나뭇가지 하나 가져가지 않았다고 할 만큼 각별하게 여기던 곳이다. 또한 각시당은 보통 때는 개방되지 않고 당제 기간에만 열리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날 당 구경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당마당은 당제 기간에 풍물굿과 함께 놀이가 열리는 축제 마당이고, 4월 초파일 경로잔치를 비롯한 마을의 각종 잔치가 열리는 곳이다. 지금도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당산을 신성시한다. 또한 평소 자물쇠로 잠긴 당집 뒤편에는 오색 천이 걸린 나무숲이 있고 그 아래에 작은 감실 제단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곳은 뱃사람들이나 바닷일을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개인 의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소이다.

이런 진리당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벤치를 놓고 가로등을 설치한 것은 당산이 지닌 신성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돌보지 않은 발상이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당산의 산책로에서 산책하지 않는다. 때문에 지금의 개발은 주민들의 기대나 요구보다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흑산도의 독특한 마을신앙을 '처녀당'이란 선정적인 이름으로 개발하여 외부 관광객들의 주목을 받을지 모르지만, 신성 공간을 산책로로 만들고 휴식 공간화하는 하는 것은 무지의 발상이라고 여겨진다. 이는 민속신앙이 지닌 문화적 의미를 무시하고 주민들의 문화적 전통을 존중하지 않는 개발이다.

② 읍동마을 탐당

읍동의 탐당은 정월 초하루에 지내는 마을 공동제사다. 석탑과 석등이 신체로 모셔지는데, 이 곳을 탐당이라고 한다. 탐당의 조성 내력과 관련된 당신화가 전승되어 오고 있다. "의리 있고 힘센 장사(탐영감)가 살았다. 해적이 주민들을 약탈하고 괴롭히므로 해적과 대결하기로 했다. 해적은 산성

을 쌓고 장사는 탑을 쌓기로 했는데, 장사가 이겨 해적의 목을 베었다. 장사가 만든 암탑과 숫탑은 영험이 있어 마을 수호신으로 모시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해적이 쌓았다는 성이 마을 뒤의 반월성(상라산성)이고 해적을 목베 절벽은 지금도 붉게 물들어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내력을 지닌 탑제에는 호산 사람들의 역사가 반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보다 각별한 의미를 지닌 신앙 전승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 읍동의 탑당은, 신성한 나무인 당목과 석탑·석등(암탑·수탑)이 있고, 탑 앞에 감실 모양의 2개의 제단이 있고 그곳을 돌담이 빙 둘러 쳐진 모습이었다. 또 당목 서쪽에 또 하나의 돌담이 있고 그 안에 산신을 모신 감실이 있었다. 돌담에는 덩쿨나무가 우거져 있어 토속적인 성소로서의 자연스러움과 엄숙함이 배어나오는 곳이었다. 이 곳은 주민들이 마을 공동으로 탑제를 지내고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축원하는 성소이고, 개인적으로 축원하고자 하는 이들은 수시로 공을 드리러 오는 곳이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르게 변해버렸다. 지금의 탑당은 고목과 그 아래의 석탑 1기, 석등 1기가 전부이다. 탑 앞의 감실과 산신 감실은 모두 걷어내버렸고, 돌담 역시 헐려지고 대신 보호 철책이 빙 둘러져 있다. 지금의 상태로 본다면 석탑·석등 2기를 관광 자원으로 개발한 형태이다. 이 곳에 무심사(无心寺)라는 절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 유물은 그 의미에 국한되지 않는다. 주민들에게 이 탑과 석등은 암탑·수탑으로서, 탑제 관련 신앙 유적으로서 가치가 있다. 주민들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대상이자 성소로서의 탑의 존재는,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문화적 전통을 담고 있으므로 각별하다. 관광객들도 예술성이나 문화재적인 가치로 이 탑을 보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기준으로라면 이 탑은 초라하기 그지없기 때문이다.

문화적 맥락을 무시하고 개발한 결과 탑당이 지니고 있는 민속적 의미와 가치가 완전히 거세되어 버렸다.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되어 걷어내버렸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 문화적 맥락으로부터 유리되



돌담이 헐리고 제단이 파괴되어 본래적 모습이 훼손된 읍동 당

면서 본연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신에게 바치는 신베를 걸어놓고, 제물을 차리고 촛불을 밝히던 감실은 단순한 석재로 취급되어 돌더미 속에 처박혀 있다. 현행되고 있는 주민들의 문화적 전통을 무시하고 현장적인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손을 댄 까닭에 탐제의 전승에 위기가 닥쳐 오게 되었다. 엉뚱한 관광지 개발로 주민들의 문화가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돌담이 둘러져 있던 토속적인 민속신앙의 공간 그대로가 문화자원으로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모르고, 무조건 정비하는 것을 농사로 여기는 무지가 빚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민속문화의 맥락적 이해와 활용 방향

진리당이나 읍동당의 경우 개발이 아니라 훼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민속문화는 특히 주민들의 문화 전승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주민들의 역사와 삶 속에서 생성되고 전승되기 때문에 단순히 특이한 구경거리로 소개되는 것은 창조적인 활용이라고 하기 어렵다.

문화관광은 문화의 소비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의 체험과 학습이다. 그러므로 문화 체험을 통한 문화지식의 확충과 삶의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관광 때문에 주민들의 문화적 전통이 위협받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침해받고 소외되는 현상이 생겨서는 안 된다. 관광객이 관광지에서 새로운 문화지식을 얻어오고 삶에 변화를 가져와야 주민들이 엉뚱하게 변화되어서는 곤란하다. 또 문화적 맥락을 무시한 채 이루어지는 개발이나 관 주도의 일방적인 개발 등을 경계해야 한다. 흑산도 진리당과 읍동당처럼 전통적인 삶의 맥락이나 문화적 전통, 고유성과 무관하게 다듬어지는 관광 개발은 문화적 훼손이다. 지금 흑산도 진리나 읍동에 가서 보는 '정비된' 공간은 문화적 전통과 맥락이 거세된, 그래서 체험과 학습이 불가능한 곳이다.

흑산도의 경우, 민속 전승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관 주도의 관광 개발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진리당의 산책로화는 몇 해 전에 전임 면장에 의해 이루어졌고, 읍동 탐제 공간의 정비는 2001년도에 공공근로 사업에 의해 이루어졌다. 서남해의 문화적 전통과 특색을 담고 있는 공간이 훼손된 것은 문화자원의 올바른 활용과 거리가 멀다. 이는 관만이 아니라 대학과 관련 연구기관(자)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행정기관에서는 전통축제 연희행위가 외부 관광객들에 대한 엄청난 흡인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특히 여름 바캉스를 이용해서 남부로 내려오는 관광객들을 붙잡기 위해 외부인들을 배려한 연희활동

에 중요성을 두어서 마을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관심을 기울여 보다 특색적인 축제를 장려한다. 그러나 마을 토착 주민들은 자신들의 전통문화를 과대하게 미화해서 관광객들에게 쇼를 하는 원숭이는 되고 싶지 않으며 자신들끼리만 즐기는 데 만족하면서 외부인 또는 연구자들에게조차 대단히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태도의 강약도 결사체마다 정도의 차이는 존재한다.(류정아, “프랑스 전통축제의 현대화와 관광자원화”, 24쪽.)

위의 인용은 전통 축제의 활용과 문화관광의 수준이 높은 남부 프랑스의 예이므로 참고 사례 정도로 봐야 한다. 여기에는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갈등이 나타나 있다. 행정 관청의 의도와 주민들의 문화적 자존 간의 대립이 보이는데, 여기서 보이는 주민들의 폐쇄적 태도를 문제삼을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자신들이 즐길 수 있는 연회 형태를 전승하고 있다는 점과 그것에 기초해 역동적인 대립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주민들의 대응이 똑같지 않다. 흑산도 읍동 주민들은 적극적인 대응 대신 불만을 표시하는 정도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아직까지 관 주도의 개발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자원 개발이 어떤 방향과 시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자원 개발과 활용론이 지역문화의 현실 문제와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때문에 문화자원의 막연한 이점을 강조하여 문화 상품론을 펴기보다 지역문화의 현실이 문화 산업의 경쟁력을 충족시켜줄 만큼 활력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이 글에서 민속문화의 특성을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문화적 정체성과 주민들의 정체성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곧 민속 전승자의 대응 문제와 연관된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민속문화의 활용은 현장적인 전승 상황 문제와 연결될 때 보다 생산적으로 이뤄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안을 비롯한 서남해의 민속문화는 도서지역다운 특징을 지니고 전승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특징은 소재의 특이함과 당장의 쓰임새 때문에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역사와 삶 속에서 생성되고 전승되어 왔다는 점에서 보다 가치가 있다. 민속문화는 현장과 맥락 속에서 차별적인 특징이 구현되므로, 그 해석과 활용 방향도 마찬가지로 관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더욱이 민속문화는 어느 경우건 전승 담당자를 배제하고서 창조적 활용을 기대하기 힘들다. 관광객을 붙잡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을 구경거리로 삼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민속문화의 전승 맥락이나 전승자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단지 특색 있는 소재로서 관광 상품으로 개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리므로 전승적·현장적 맥락에 따른 해석과 새로운 가치의 창조가 올바른 활용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민속문화자원의 문화상품화

한편 민속문화의 전승이 예전과 달리 약화되어 있으므로 그 문제를 고려한 접근도 이루어져야 한다. 매물된 유물을 발굴하고, 깨진 유물을 보존처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듯이 전승이 어려워진 민속의 경우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는 전승주체인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주의 환기가 강조되어야 한다.

이런 노력과 함께 새로운 관광자원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진리당은 흑산 本堂이라고 지칭될 만큼 권위를 갖고 있던 민속신앙의 중심지이므로 '신들의 동산', '신들의 고향'이라는 테마로 접근할 수도 있다. 또한 당에 모셔졌던 들들은 종교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신체이므로 체험과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다.

또한 문화적 맥락을 최대한 살리는 문화상품 개발도 시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진리당의 들들을 관광상품화 할 수 있다. 들들이 아들을 점지해주고 정력을 증진시켰다는 영험담이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자원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각시와 총각화장의 결연담에 등장하는 피리를 상품화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신화 속에서 피리가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사랑을 전하는 옥피리'를 상품으로 개발하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4) 해양문화 백미로서의 흑산도 어로문화의 활용

흑산도는 남쪽에서 북상하는 난류의 영향을 받는 관계로 매우 다양한 어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겨울에는 우이도와 흑산도 근해에서 한·난류가 접하는 조정수역이 형성되어 어족이 풍부한 어장이 형성된다. 흑산도 근해인 서남 외해권에서는 과거에 홍어, 등태, 가라지, 고등어, 조기, 꽃게, 병어, 민어, 삼치 등이 주 어종이었으나 현재는 고갈되고 첫새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흑산 홍어는 현재도 그 명성이 남아 있으며, 조기잡이 성행으로 한때 이 지역에 국제적인 파시를 형성시키기도 했다. 흑산도 사람들은 20세를 전후해 배를 타기 시작한다. 50년 대에는 뗏목을 타고 근해에서 연승어업을 했다. 연승어업으로는 장어, 상어, 조기, 부서, 반어 같은 어류를 잡았다.

이같은 어로문화는 대개 서남해 도서지역에 산재하고 있다. 그러나 흑산도는 지리적인 장점을 지

니고 있기 때문에 이 장점을 살리는 쪽으로 자원화가 전개되어야 한다. 이 자원화는 단순히 고기잡이 체험을 한다거나 풍광을 관광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어민들의 삶과 그 속에 녹아들어있는 지혜들을 자원화한다는 데 있다. 내륙적인 관점에서 역사자원이 정리되고, 중앙중심적인 관점에서 문화자원이 정리되어 온 저간의 역사를 주목한다면, 지리적으로도 독특한 그래서 해양문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흑산도의 어로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5) 유형적이고 전형적인 먼바다 어로문화의 활용

흑산도 어로문화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먼바다 어업, 혹은 수심이 깊은 지역에서의 어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지 주민들의 표현대로라면 대개 50발 수심을 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반적인 갯벌어업이나 소규모 어업보다는 어장어업이나 낚시어업이 발달해 있는 지역이다.

이같은 어로환경은 흑산도 사람들에게 바다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래서 바다의 해저 지형과 물때와 바람을 인식하는 인지체계가 발달해 있고, 서식하는 어패류, 포획방법에 대한 인지체계가 아주 풍성할 정도로 많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먼바다 어업에 종사한 관계로 날씨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인지하고 있었다. 청룻바람에 대한 심리사람들과 사리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도 중요한 현상 중의 하나이다. 그만큼 지역적이고 토착적인 환경지식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어류에 대한 풍부한 지식은 자산어보만큼이나 다양하다. 자산어보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환경요인이 구축되어있었다는 생각도 든다. 해녀들의 무질(물질)활용이 풍부한 것도 흑산도 어로문화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전통시대에는 제주도에 견줄 만큼 왕성하게 활동한 바가 있다. 물론 제주 해녀들의 진출이 활발하기도 했다.

(6) 어로문화의 보고적인 가치 진흥

따라서 흑산도는 어로문화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어로문화의 연구지로서 최적지임을 강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바꾸어 말하면 연구지로서의 최적지라는 것은 활용지로서도 최적지라는 말이 된다. 다시 말하면 어로문화의 전시장 구축이 가능하다. 어민들의 생애사, 어류, 어로지식, 항해지식, 어로도구, 어장환경 등을 구현한다면 흑산도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는 종합어로전시장이 될 수 있다. 또 가거도 멸치잡이노래와 해녀 낚소리등 유형적인 민요들을 음반화한다면, 단순히 음악을 정리한다는 차원 이상의 시너지효과들을 거둘 수 있다.

(7) 큰바다 어로민요로서의 해양민요 활용

흑산도의 민요는 해양민요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리적인 요인만으로도 이는 충분히 증명된다. 해양민요는 바다, 섬, 연안에서 바다 작업을 하거나 놀 때 해양민들이 부른 민요다. 그 대표적인 노래가 뱃노래다. 눈을 더 넓혀 보면 미역 따면서 부른 노래도 있고, 후리그물 당기면서 부른 노래도 있다. 바다와 섬, 연안 등 해양생활권에서 해양생활의 속성이 담기며, 해양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뱃노래나 어로민요보다는 좀더 넓은 범주로 여겨진다. 고기잡이 할 때 부르는 뱃노래와 같은 것은 오직 해양에서만 들을 수 있고, 바다, 섬, 연안에서 놀 때 부른 강강술래나 등덩이타령은 내륙까지 전파되어 이제는 널리 부르는 민요가 되었지만 그 중심은 해양민요권에 속한다. 그래서 해양민요의 범주를 해양노동민요, 해양문화권에서 기원한 민요, 해양소재민요로 정한다. 해양노동민요에는 뱃노래, 해초채취노래, 마장박기노래 등이 있고 해양문화권 기원 민요는 강강술래와 등덩이타령이 대표적이다. 해양소재민요는 어류나 배, 해초, 갯벌 등 해양의 정체성을 지닌 소재를 민요화한 것들이다. 예를 들면 게타령, 오징어타령 등이 이에 속한다.

(8) 서남해 민요의 기본인 “등당기 타령”의 활용

등당기타령은 서남해 도서해안지역에 널리 분포된 부녀자들의 타령으로 등당에타령 또는 등덩이타령이라고도 부른다. 이 노래는 부녀자들이 집단으로 모여 일하거나 산다이를 할 때 부른다. 가창 방법은 제창, 선후창 또는 선후교환창이다. 가사를 모두 아는 경우에는 모인 사람들이 함께 부르고, 소리를 잘 하는 설소리꾼이 있는 경우에는 설소리꾼이 메기는 소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받는 소리를 하는 선후창 형식으로 한다. 그리고 몇 명의 설소리꾼이 있는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부르는 선후교환창으로 부른다.

등당기타령은 물방구 활방구 박바가지를 가지고 장단을 치면서 부르는데, 가장 중심되는 도구는 바가지이다. 물방구는 물을 담은 웅박지에 낫쇠 그릇을 놓고 그 위에 바가지를 얹어 손가락으로 장단을 친다. 활방구는 웅박지의 바가지 위에 면화에서 실을 뽑을 때 쓰는 활을 얹혀 놓고 그 줄을 잡아 튕긴다. 박바가지는 앉아서 가락과 흥을 돋구는 물방구 활방구와는 달리 춤을 추면서 장단을 친다. 방구나 박바가지가 없는 사람은 손뼉으로 장단을 맞추면서 노래를 한다. 활방구와 물방구는 고대 청동기 이전의 악기로 손쉽게 만들 수 있으며 음양의 압 슛소리를 얻을 수 있는 타악기라 할 수 있다. 그 가락은 늦은 4/4박의 굿거리 장단이고 비애조로써 고달픈 인생의 삶을 담고 있다.

“등당기다 등당기다 당기 등당기 등당기다”의 뒷소리는 박바가지에서 나는 “등당”의 의성어로 소

박하고 친근감이 드는 첩어 후렴이다. 가사는 4·4조(3·4조)로 물에 명절장을 보러간 서방님이 심한 풍랑으로 돌아오지 않아 명절날을 따로 잡아 놓고 큰 곱배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부녀자들의 간절한 기원의 정서가 서려 있는가 하면 시집살이, 임과의 사랑, 이별, 한 등을 읊은 서정적인 정회를 술회하고 있다.

신안지역의 어느 섬에서나 흔히 들을 수 있는 노래인데, 특히 흑산도 심리 마을의 부녀자들이 즐겨 부르고 있어 이를 정리하여 1976년도 남도문화제에 출연 수상한 바 있다. 심리는 흑산 면소재지인 대리의 뒷골에 위치한 오지 해변마을로 예리에서 뱃길로 60여분 도보로 2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마을이다. 깊숙이 들어와 있으므로 지푸미 또는 심촌이라 하였다. 해산물이 풍부하여 미역 소라 전복을 따는 해녀들의 물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전복 양식과 발농사 그리고 방목한 가축 등이 이 마을의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다.

(9) “가거도 멸치잡이 소리”의 해양민요사적 활용

가거도 멸치잡는 소리는 전라남도 뱃노래의 전형성을 지니고 있다. 우선 작업의 기능에 따라 각기 고유한 노래들이 전승되고 있고, 또 그 음악성이 뛰어나다. 낚소리의 경우는 시나위의 음악적 모태로 인식할 수 있는 음악적 특성이 담겨 있고 중국 뱃노래의 영향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안군민들의 문화수용과 재창조 능력을 보여주는 문화적 자랑거리이다.

(10) 민중의식 대변자로서의 민요와 관광상품화

민요자료는 지역의 민중의식을 대변할 수 있으므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문화론적 지역활성화의 기제로 삼을 수 있고, 또 시민사회에 대해서는 문화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된다. 예를 들어서 서남해 지역에 광범위하게 전승하고 있는 민요는 지역축제의 주요한 레퍼터리가 될 수 있으며 각 지역의 문화회관에서 그 지역에 전승되어오는 민요의 오디오 비디오 영상자료를 비치하여 관광상품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학교의 교육자료로서도 유용하다. 또한 작품으로의 재생산을 통해 공연자료가 되므로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더욱 의미 있는 볼거리가 될 것이다.

V. 주거문화자원

1. 주거문화자원 목록

전통민가는 오랜 세월동안 우리 선조들이 우리의 삶에 맞게 여러 검증을 통해 완성해 놓은 정주 공간이다. 따라서 그 안에는 우리민족의 동질성이 있고 유·무형의 다양한 전통문화요소가 깃들어 있다.

이제 완형의 전통민가는 특별한 보존계획 하에 있는 특정가옥, 예를 들어 문화재로 지정된 가옥 등을 제외하고는 농어촌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들다. 과거의 주문화가 현대 주문화의 편리성에 밀려 더 이상 그 존재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없어지기 시작한 시기는 대체로 1970년대 부터가 아닌가 한다.

본 조사는 전통민가를 단순히 옛 가옥, 또는 감정가치로서의 인식에 머물지 않고 이를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즉 의미 있는 과거의 주문화 특성을 찾아내서 이를 자원화 하는 것이다. 근대화 과정에서 채택된 농어촌 주택들은 대부분 지역의 전통 주문화가 철저히 배제된 채 서구적 개념의 도시형으로 되어 있다.

향후 지역의 사회구조와 정서에 맞는 주거 개발이 필요하다. 이때 의미 있는 전통주거의 개념과 설계 요소들이 거기에 도입된다면 한국주거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측면에서 본 과제가 추구하는 최종 조사목표는 다음과 같다.

- ① 도서민의 주거역사·문화 환경 정체성 확립
- ② 전통 주거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주거역사 이론 정립 및 자료화
- ③ 지속 가능한 건축 공간, 형태, 건축 공동체 등을 찾아낸다.
- ④ 도서민의 정주환경을 역학적으로 조사하여 그들의 새로운 주의식 문화를 정립, 새로운 주거 유형을 제시한다. 이는 바로 문화자원화 개념과 연결된다.

다음 <표 1>은 흑산도 전통주거의 건립사례 현황이다. 조사 민가의 건립년대는 주로 19세기이며 20세기 초반에 건립된 가옥도 2채가 있다. 이 가옥들은 필자가 1988년에 1차 조사, 2003년에 재

조사 및 추가조사로 이루어진 가옥들이다. 1차 조사이후 현재까지 남아있는 가옥도 있으나 일부 가옥은 헐리고 같은 자리에 새 건물이 들어선 곳도 있고, 또는 터만 남아있는 곳도 있다.

다음장의 각 가옥해설은 11, 12번 가옥을 제외하고는 전통가옥의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1988년도 현황을 설명하였다.

〈표 1〉 흑산도 전통가옥 목록

순번	가옥명	소재지	건립연대	건물구성	비고
1	김춘만가옥	신안군 흑산면 진리 44	1850년	안채, 행랑채, 측간채	
2	이길순가옥	신안군 흑산면 진리 921	1856년	안채, 행랑채, 측간채	헐림, 신축
3	김정진가옥	신안군 흑산면 진리 850	1885년	안채, 행랑채	헐림, 신축
4	박남술가옥	신안군 흑산면 진리	1800년대 후	안채, 측간채	헐림
5	이귀우가옥	신안군 흑산면 진리 252	1900년대 초	안채	헐림
6	이상지가옥	신안군 흑산면 진리 401	1824년	안채, 행랑채	헐림, 신축
7	이상배가옥	신안군 흑산면 진리 541	1800년대 후	안채, 측간채	헐림, 신축
8	고주석가옥	신안군 흑산면 진리	1800년대 후	안채, 측간채	
9	박반우가옥	신안군 흑산면 진리	1900년대 초	안채, 측간채	헐림
10	조남단가옥	신안군 흑산면 진리 374	1800년대 말	안채, 측간채	
11	김초삼가옥	신안군 흑산면 진리	1920년대	안채	
12	○○○가옥	신안군 흑산면 진리 504	1930년대	안채	
13	윤두석가옥	신안군 흑산면 심리 102	1900년대 초	안채, 측간채	
14	이상현가옥	신안군 흑산면 심리	1800년대 말	안채, 측간채	
15	박철안가옥	신안군 흑산면 사리 113	1800년대 말	안채, 행랑채	안채 헐림
16	박계산가옥	신안군 흑산면 사리 308	1800년대 말	안채, 행랑채	
17	박인판가옥	신안군 흑산면 사리 303	1900년대 초	안채, 행랑채	
18	김춘례가옥	신안군 흑산면 사리 411	1800년대 말	안채, 헛간채	
19	이소순가옥	신안군 흑산면 사리	1800년대 말	안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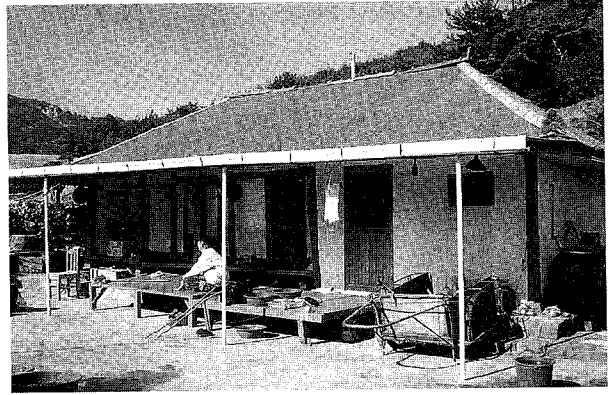
2. 주거문화자원 현황

1) 가옥 건립사례

① 김춘만가옥

• 소재지 : 흑산면 진리 44

본 가옥은 흑산도의 光山金氏 종가택으로 건립년대는 안채에 “道光三十年六月二十七日……”이란 상량문이 있어 철종 원년(1870)임을 알 수 있고 사랑채는 약 100년 전에 지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안채와 사랑채 모두 1978년경에 합석으로 지붕개량만이 있었을 뿐 건축당시의 원 모습을 비교적 잘 갖추고 있는 고가이다.



김춘만가옥 안채

건물의 배치는 평탄한 대지에 동서향으로 안채를 앉히고 그 전면 우측으로는 비스듬히 사랑채를 배치하였다. 가옥 입구의 좌측으로는 죽담 구조의 헛간채를 두고 우측으로는 측간채(변소)를 배치하였다. 측간채 구조는 안측간(女)과 바깥측간(男)으로 분리되어 있고 출입도 안측간은 안채에서 사랑채 뒤편을 통하여 별도로 진입케 하였다.

안채는 전후로 퇴를 둔 3실 형태의 一자형집이다. 간살잡기는 남서쪽으로부터 마래, 안방, 정지 순으로 하고 전퇴 마래와 안방 앞으로는 뒷마루를 설치하였다. 후퇴는 마래쪽만이 사용하지 않고 안방과 정지쪽으로는 실로 넓혀 사용하였다. 구조는 2고주5량으로 방주를 세우고 납도리를 걸었다. 기단은 전면에만 막돌 1벌대 쌓기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토단이며 초석은 막돌초석이다. 벽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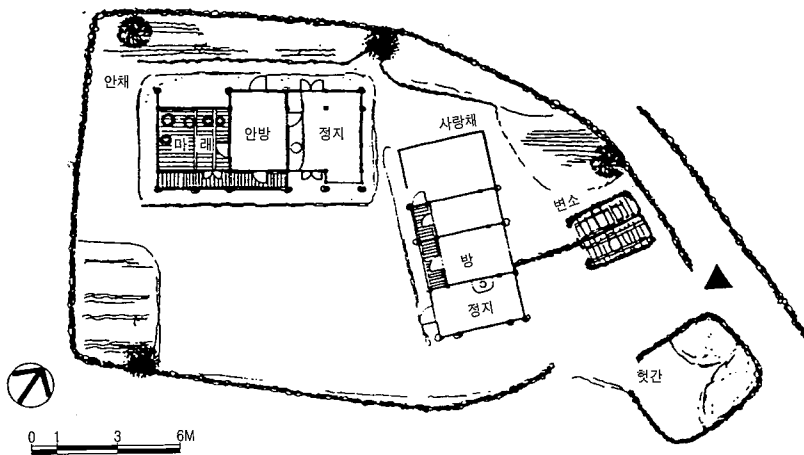


그림 1. 김춘만가옥 배치도

심벽구조의 흙벽이나 전면에만은 현재 회벽으로 마감되어 있다.

사랑채 역시 一자형 전후 퇴집으로 간살잡기는 안채 가까이로부터 옷방, 사랑방, 정지 순으로 배치하였다. 옷방옆으로는 현재 벽돌로 헛간이 증축되어 있다. 구조는 막돌초석위에 방주를 세운 1고주5량가의 납도리집이다.

② 이길순가옥

• 소재지 : 흑산면 진리 921

안채와 사랑채로 구성된 아담한 가옥이다. 건축년대는 안채에 “咸豊六年丙辰七月初.....”이란 상량문이 있어 1856년에, 사랑채는 “咸豊八年....”이란 기록이 있어 안채보다 2년 늦은 1858년에 각각 지어진 집임을 알 수 있다. 안채와 사랑채 모두 1986년에 슬레이트로 지붕개량만이 되었을 뿐 건축당시의 원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건물의 배치는 안채와 사랑채를 입구쪽으로 트이게한 ㄱ자형 모습이다. 안채 뒷편으로는 장독대와 우물이 있고 안마당에는 한쪽에 감나무 한 그루가 있다. 안채의 향은 북향으로 배산을 우선으로 하는 민가배치의 기본을 따랐다.

안채는 전후로 퇴를 둔 一자형집으로 간살잡기는 동쪽으로부터 마래, 안방, 정지, 모방(건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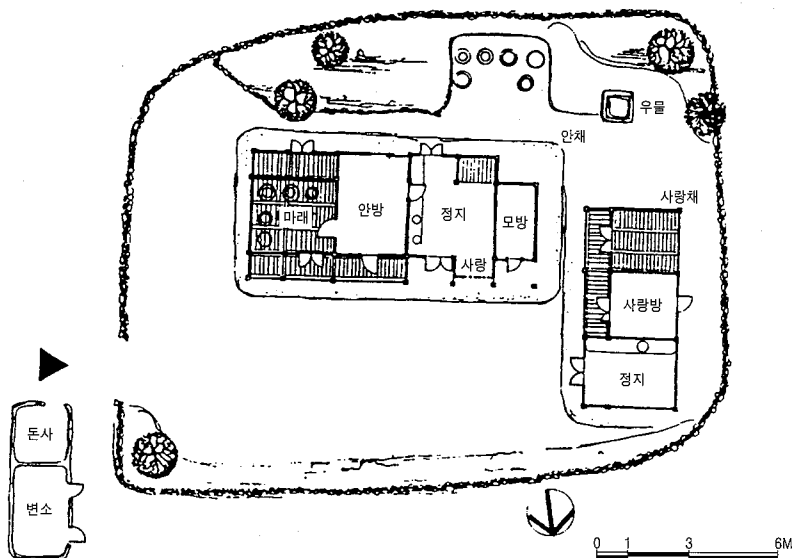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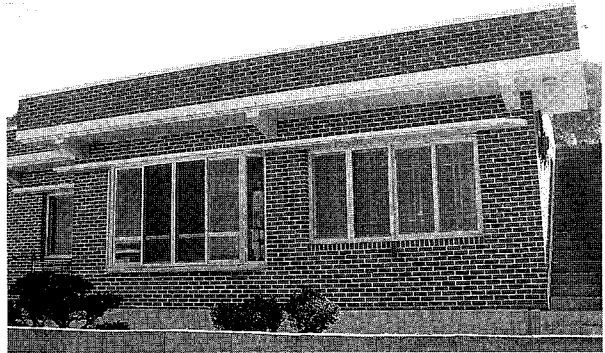


그림 2. 이길순가옥 배치도

순으로 배치하였다. 정지 옆으로 모방을 1칸 드린 것만이 김춘만 가옥과 다르다. 마래와 정지는 비록 폭은 좁으나 각각 2칸씩이며, 전후에는 모방쪽만 토방으로 하고 나머지는 뒷마루설치와 각 실로 넓혀져 있다. 마래쪽 후퇴에는 뒤쪽으로 별도의 판장문을 달은 고방을 꾸몄는데 마래 공간의 부족으로 후에 새로 드린 것으로 여겨진다.



새로지은 이길순가옥 안채

다. 마래 뒤벽 위로는 조상의 신위를 모신 감실장이 설치되어 있어 때로는 이곳이 수장기능 뿐만 아니라 제사공간의 기능까지도 함께 했음을 알 수 있다. 구조는 2고주5량 납도리집으로 방주를 쓰고 막돌초석을 놓았다. 천장은 안방까지 서까래가 그대로 보이는 연등천장이다.

사랑채는 전퇴만을 둔 삼칸집이다. 간살잡기는 북쪽으로부터 마래, 사랑방, 정지 순으로 되어 있고 뒷마루는 마래와 사랑방 쪽에만 설치하였다. 구조는 막돌초석위에 방주를 세운 반5량가이다. 벽체는 흙벽구조이나 전면만은 회로 마감되어 있고 정지 전면은 쌍여닫이 판장문에서 현재 미닫이문과 판벽으로 개조되어 있다.

이 가옥은 1998년에 안채와 사랑채를 모두 헐어내고 안채 자리에 새로 가옥을 신축하였다(그림 24 가옥). 구조는 적벽돌로 치장쌍기한 조적조슬라브 구조이다. 이 신축건물은 주택에서 제일 비중이 큰 거실이 홀형식으로 너무 개방되어 있고 아울러 외부 조망권이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는 등 다소 아쉬움이 있다. 평면은 중앙의 거실을 중심으로 좌·우측으로 방을 드리고 화장실과 창고 등 서비스 공간은 우측 후면에 두었다. 설계는 주인이 직접하고 시공은 흑산도 내 주택건설업자가 했다.

③ 김정진가옥

• 소재지 : 흑산도 진리 850

진리에서 상동이라고 부르는 마을안쪽의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건축년대는 안채가 1885년(“光緒十一年乙酉……”라는 상량문이 있음)이고 사랑채는 1938년이다. 1980년경에 지붕은 모두 슬레이트로 개량되었고 또한 안채의 모방도 당시에 훼손되었다. 건물의 배치는 ㄱ자형으로 안채를

북동향, 사랑채를 남동향으로 앉혔다. 가옥의 출입은 다른 가옥과는 달리 사랑채 1칸을 문칸으로 하여 안마당으로 진입케 하였다. 안채 뒤편에는 우물과 장독대가 위치하고 그 뒤로는 축대를 형성 감나무와 동백나무 등이 있는 후원이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형식은 흑산도 민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이며, 곳에 따라서는 삼밭(텃밭)이 조성되기도 한다.

안채는 전후로 퇴를 둔 一자형집으로 간살잡기는 남동쪽으로부터 정지, 안방, 마래 순으로 꾸민 3실구조로 되어 있다. 본래는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정지옆에 모방이 있었던 4실 형태였다. 안방과 마래의 전퇴에는 툇마루가 놓여져 있고 후퇴는 모두 각 실로 넓혀져 있다. 그러나 마래 쪽만은 반 정도만 퇴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헛간으로 꾸며 좁은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사실에 주목된다. 구조는 막돌초석위에 방주를 세운 2고주5량형식이다. 도리는 납도리이고 대공은 동자주이다.

벽채는 심벽구조의 흙벽이나 전면만은 회로 마감되어있다. 안방에는 정교하게 짜여진 봉창이 설치되어 있고 사랑(찬장)에도 잘 짜여진 살창이 설치되어 있다.

사랑채는 전퇴를 둔 4칸 규모의 일자형집이다. 아래쪽 1칸만 문칸으로하고 나머지는 모두 방으로 꾸며져 있다. 구조는 반5량가의 납도리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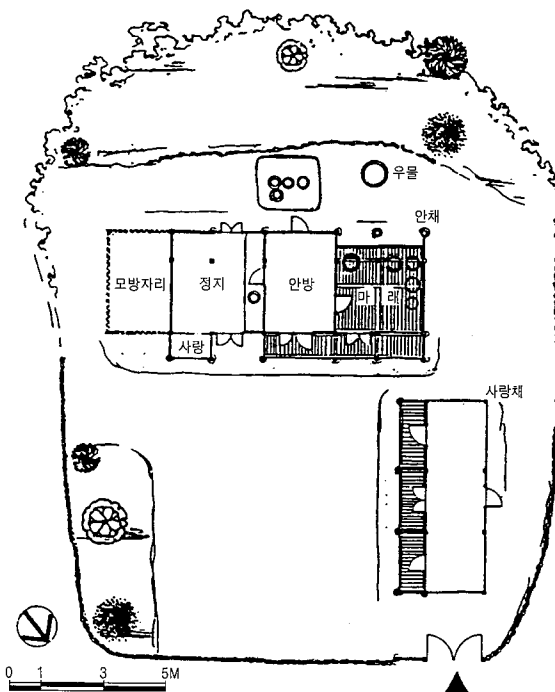


그림 3. 김정진가옥 배치도

④ 박남술가옥

• 소재지 : 흑산면 진리 252

안채만으로 구성된 작은 규모의 가옥이다. 건축년대는 상량문이 없어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건물의 구조나 상태 등으로 보아 약 100년 가까이 된 가옥으로 여겨진다. 현재 부분적으로 증축과 보수의 흔적이 보인다. 배치는 庚坐甲向으로 대지의 중앙에 안채만이 위치하고 있다.

안채는 전퇴만을 둔 一자형 초가집이다. 간살잡기는 왼쪽으로부터 모방, 정지, 안방, 마래, 그리고 헛간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헛간은 재료나 구조 등으로 보아 후에 증축된 것으로 여겨진다. 전퇴에는 안방 앞으로만 툇마루를 설치하고 마래쪽으로는 토방으로 처리하였으며 마래 바닥 역시 흙바닥 구조로 되어 있다. 마래의 흙바닥 구조는 신안군내의 다른 도서에서는 쉽게 볼 수 있으나 흑산도에서는 보기 드문 예이다. 구조는 반5량가로 막돌초석위에 겹질만 벗긴 통나무 기둥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전면 주심도리 역시 거칠게 다듬은 원형도리이다. 벽체는 흙벽이나 마래의 후면과 측면은 죽담구조로 되어 있고 천장은 모두 서까래가 그대로 노출된 연등천장이다. 특히 안방은 바닥에서 종도리까지의 높이가 180cm 정도로 천장고가 매우 낮다. 본 건물의 굴뚝은 굵은 대나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현재 이 가옥은 철거되고 자리는 밭으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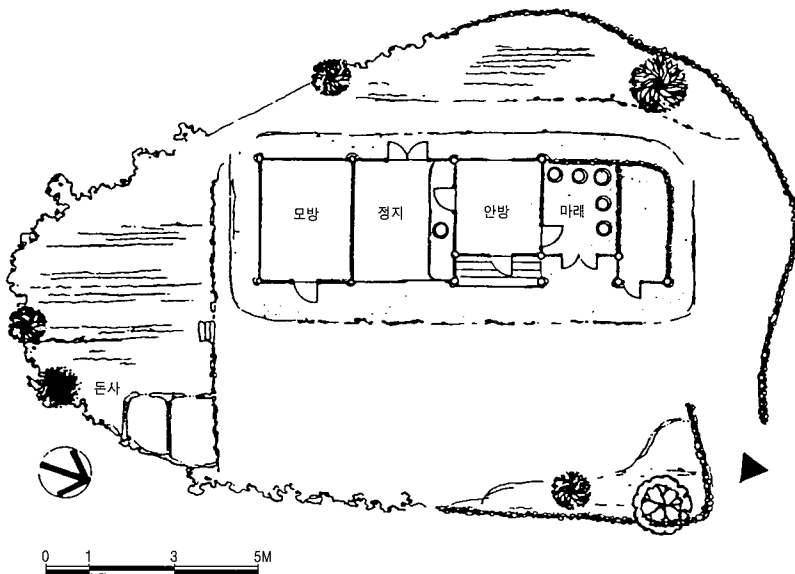


그림 4. 박남술가옥 배치도

⑤ 이귀우가옥

• 소재지 : 흑산면 진리

진리 청동마을 동쪽의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가옥 뒤편으로는 바로 야산을 등지고 있고 앞쪽으로는 조그마한 개울이 흐른다. 현재 사람이 거처하고 있지 않아 훼손된 곳이 많지만 원형은 그대로 남아 있다. 건축 년대는 가옥의 구조나 상태 등으로 보아 20C 초반 정도로 추정된다. 안채 이외의 부속사는 없으며 담장 또한 없다.

안채는 전후로 퇴간을 둔 4칸 규모의 일자형 초가집이다. 간살잡기는 북측으로부터 모방, 정지, 안방, 마래 순으로 꾸민 흑산도의 전형적인 평면형태로 되어 있다. 전퇴에는 정지부분만 제외하고 툇마루를 설치하였으며 후퇴는 각 실로 포함시켰으나 모방쪽만은 그대로 두었다. 기단은 낮게 축조된 막돌기단이며 초석은 막돌초석을 놓았고 기둥은 방주를 사용하였다. 도리는 거칠게 다듬은 방형이나 전면 주심도리만은 대강 다듬은 원형 통나무를 걸었다. 구조는 3고주5량구조이며 벽체는 심벽구조의 흙벽마감이나 전면만은 회로마감시켰다. 천장은 모두 연등천장으로 꾸몄다.

이 가옥은 현재 철거되고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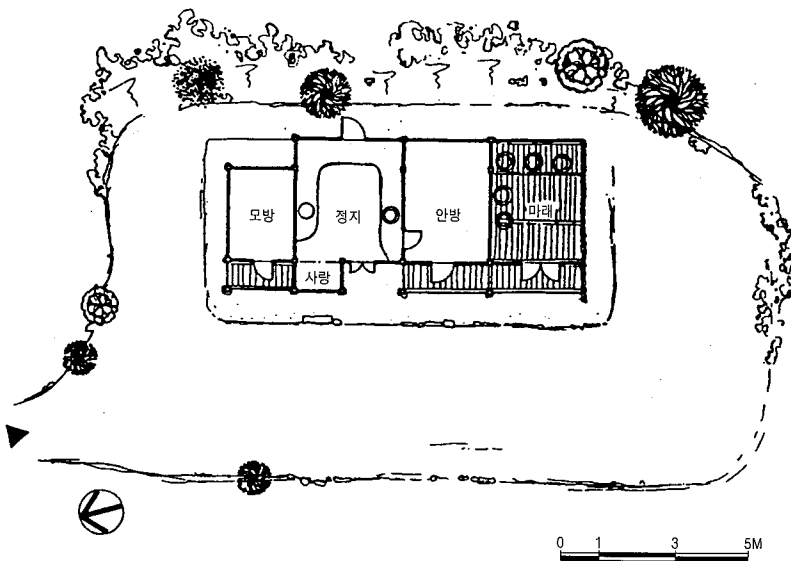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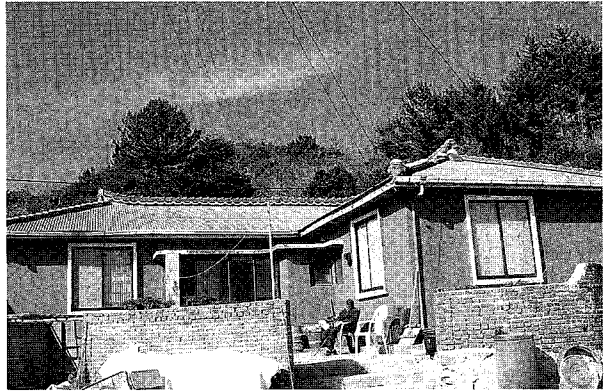


그림 5. 이귀우가옥 배치도

⑥ 이상지가옥

• 소재지 : 흑산면 진리 401

비교적 넓은 대지에 안채와 사랑채를 갖춘 비교적 큰 규모의 가옥이다. 건물의 배치는 대지의 중앙 안쪽에 동향으로 안채를 앉히고 그 전면 좌측으로는 향으로 사랑채를 배치하였다. 건축년대는 안채에 “道光三年甲申六月……”이란 상량문이 있는데 도광삼년(1823년)과 갑신(1824)과는 1년 차이가 있으나 아무튼 그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가옥의 출입은 사랑채 아래쪽 측면쪽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다.



옛 안채를 헐고 ㄱ자형으로 새로 지은 이상지가옥

안채는 전후로 퇴를 둔 일자형 초가집이다. 간살잡기는 남측으로부터 광마래, 안방, 정지 순으로 꾸몄다. 안방과 정지쪽은 후퇴를 포함시켰고 마래와 안방쪽의 전퇴에는 뒷마루를 시설하였다. 본 건물에서는 정지옆으로 모방을 드리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가옥에서는 볼 수 없는 마래옆의 작은 광은 조부대에 증축한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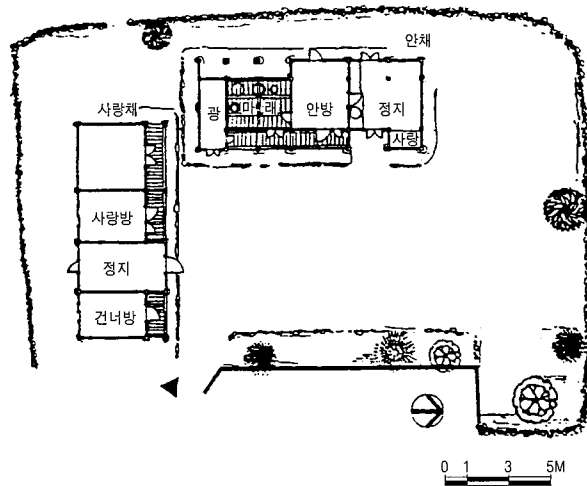


그림 6. 이상지가옥 배치도

구조는 2고주5량가로 아직까지 가구상태가 견고하다. 주초는 막돌초석이며 기둥은 방주이고 도리는 납도리나 장혀는 쓰지 않았다.

사랑채는 동쪽으로부터 모방, 정지, 사랑방, 건너방 순으로 꾸민 4칸 전퇴집이다. 구조는 막돌초석위에 방주를 세운 반5량가의 납도리집 구조로 되어 있다. 현재는 페인트와 슬레이트 지붕 등으로 산뜻하게 보수되어 있어 고색은 없다.

이 가옥은 1990년경에 철거되고 현재는 같은 자리에 ㄱ자형 조적조 주택이 들어서 있다.

⑦ 이상배가옥

• 소재지 : 흑산면 진리 541

안채만이 있는 흑산도의 전형적인 민가이다. 앞마당 전면과 우측으로는 텃밭이 꾸며져 있고 담장은 강담구조로 되어 있다. 건립연대는 19C 후반으로 추정된다.

집의 간살잡기는 북서쪽으로부터 1칸씩 모방, 정지, 안방, 마래 순으로 하였다. 후퇴는 모두 각 실로 이용하였고, 전퇴는 텃마루를 시설하였으나 정지의 앞쪽으로부터 한쪽으로 사랑(찬장)을 드리고 옆으로는 정지의 출입구로 하였다. 이러한 일자형 4실 평면형은 흑산도의 전형적인 평면구조로 이보다 규모가 작은 3실 유형과 함께 흑산도 민가 평면형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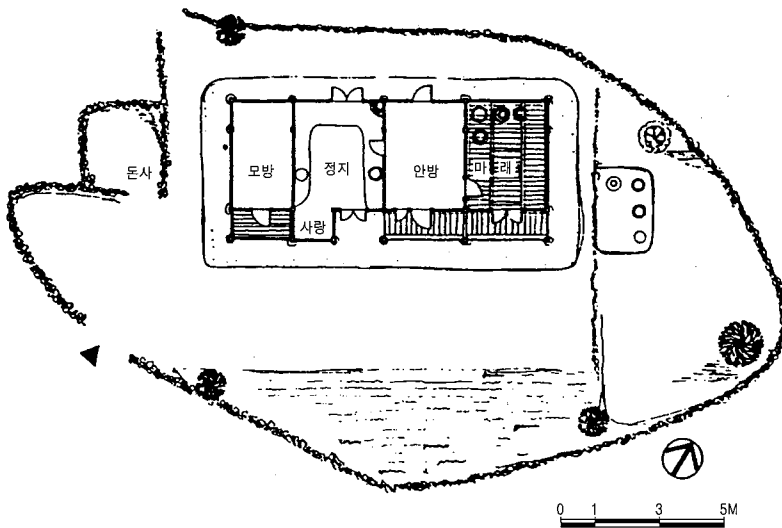


그림 7. 이상배가옥 배치도

구조는 막돌초석위에 방주를 세운 2고주5량가로 납도리를 걸었다. 벽체는 전면만 회로 마감하였고 나머지는 흙벽이며, 지붕은 뉘를 엮어 올린 초가지붕이다. 강한 바람의 탓으로 사방 15Cm정도 간격으로 새끼줄을 걸었으며 아래 끝으로는 길고 굵은 대나무(“지세미대”라고 부름)를 대어 아래쪽을 잡아매었다. 이러한 지붕 구조는 다른 가옥에서도 거의 비슷하다.

이 가옥은 헐리고 없다.

⑧ 고주석가옥

• 소재지 : 흑산면 진리

진리 상동마을의 안쪽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건립년대는 약 100년전쯤으로 추정된다. 건물은 안채만이 비교적 넓은 방형의 대지 중앙에 북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안채는 건평이 16.6평으로 다른 가옥에 비해 비교적 규모가 크다. 본 가옥에서는 높이 1.7m 정도로 잘 축조된 강담(폭은 아래쪽이 80cm, 위쪽 50cm정도)이 인상적이다. 가옥의 뒷면 경사지에는 과실수가 심어져 있고 전면으로는 텃밭이 일구어져 있다.

안채는 전후로 퇴를 두고 동쪽으로부터 모방, 정지, 안방, 마래 순으로 평면을 짠 6칸 규모의 일자형집이다. 정지와 마래만은 각각 2칸씩으로 비교적 넓게 간살잡기를 하였다. 안방과 마래 전면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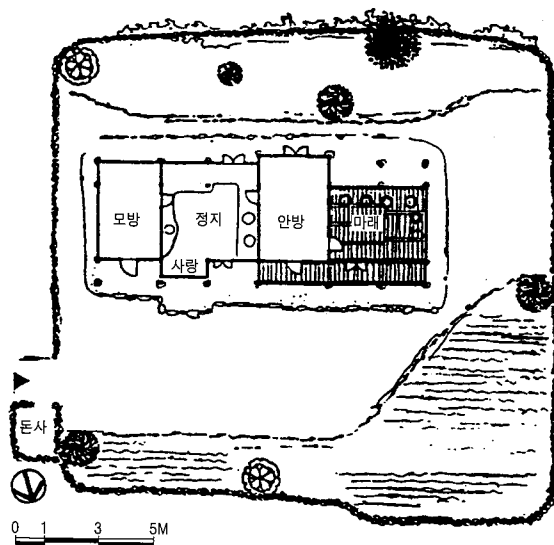


그림 8. 고주석가옥 배치도

만 툇마루를 설치하였고 모방쪽은 토방으로 처리하였다.

구조는 막돌초석위에 방주를 세우고 2고주5량형식으로 결구한 납도리집이다. 지붕은 현재 스텔이트로 개량되어 있고 벽체는 심벽구조의 흙벽마감으로 되어 있다.

⑨ 박반우가옥

- 소재지 : 흑산면 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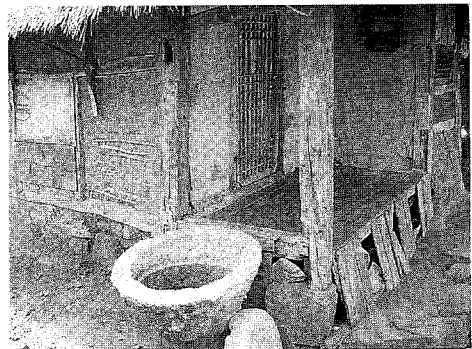
20C 초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규모의 아담한 가옥이다. 부속사는 없고 안채만이 정북향으로 강담으로 둘러진 대지의 중앙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본 가옥은 잘 축조된 강담과 마을 안길에서 바로 출입구를 두지 않고 안쪽으로 일차 진입로를 두어 자연스럽게 진입공간을 처리한 사실이 인상적이다.

안채는 면적이 8평으로 비록 그 규모는 작으나 흑산도 민가의 제요소를 갖추고 있는 일자형 전후퇴집이다. 간살잡기는 동쪽으로부터 1칸씩 모방, 정지, 안방, 마래 순으로 꾸몄다. 뒷퇴는 각 실에 포함시켰고 앞퇴에는 정지쪽만 사랑을 시설하고 방과 마래 앞으로는 툇마루를 놓았다.

기단은 막돌 1벌대쌓기로 되어 있고 초석은 막돌초석을 사용하였다. 기둥과 도리는 방형이며, 가구는 2고주5량가로 꾸몄다. 각 실의 천장은 연등천장이며 벽체는 심벽구조의 흙벽으로 처리하였다. 지붕은 뉘로 엮은 초가지붕이다. 창초는 마래와 정지에만 판장문을 달고 나머지는 띠살문을 달았다. 그중 사랑 전면 벽체에 설치한 띠살 들창은 다른 가옥에서는 보기 드문 창호다. 본 가옥에서도 사리의 박계산 가옥 안채와 같이 정지와 안방사이의 퇴주 상부에서 추녀 밑으로 막음 처리한 구조



옛 박반우가옥 입구 돌담



옛 박반우가옥 모방 앞 툇마루

가 보인다.

이 가옥도 현재 철거되고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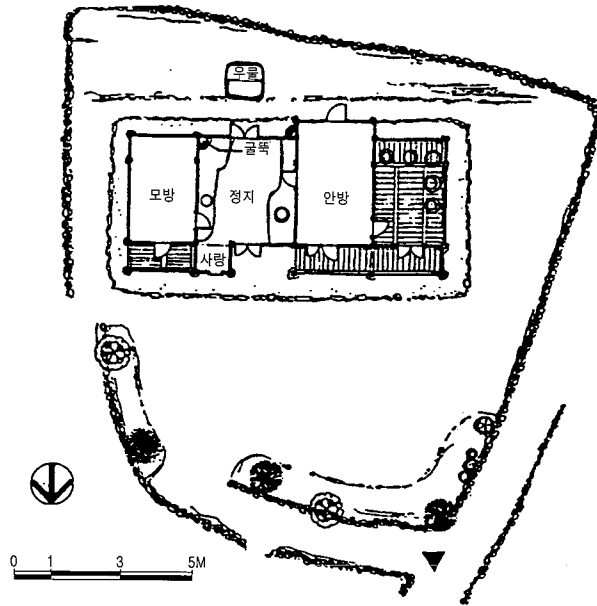


그림 9. 박반우가옥 배치도

⑩ 조남단가옥

• 소재지 : 흑산면 진리 374

안채만으로 구성된 가옥으로 김춘만 가옥 좌측에 위치하고 있다. 건축년대는 세대주가 여러번 바뀌는 관계로 추정이 어려우나 건물의 상태 등으로 보아 19C말쯤에 지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가옥 주위는 부분적으로 강담을 둘러고 입구 좌측으로는 돈사가 있다. 흑산도 민가의 돈사는 대부분이 돌로만 쌓은 맞담구조다.

건물은 전퇴만을 둔 일자형 초가집으로 간살잡기는 좌측으로부터 1칸씩 모방, 정지, 안방, 마래 순으로 배치하였다. 뒷마루는 안방 앞에만 설치하였고 모방과 마래 앞쪽으로는 마루 설치 없이 토방으로 처리하였다.

구조는 막돌초석위에 방주를 세우고 납도리를 결구한 반5량구조이며, 벽체는 심벽구조의 흙벽으로 되어 있다. 천장은 모두 연등천장이며 마래바닥은 우물마루로 처리하였다. 굴뚝은 외부에 두지

않고 정지 한쪽구석에 설치하였다. 굴뚝을 실내인 정지안에 둔 것은 바람을 덜 타기 위해서이다. 연기는 벽체에 구멍을 내어 빠져 나가게 되어 있으나 아무래도 그으름이 많아 정지 상부가 새카맣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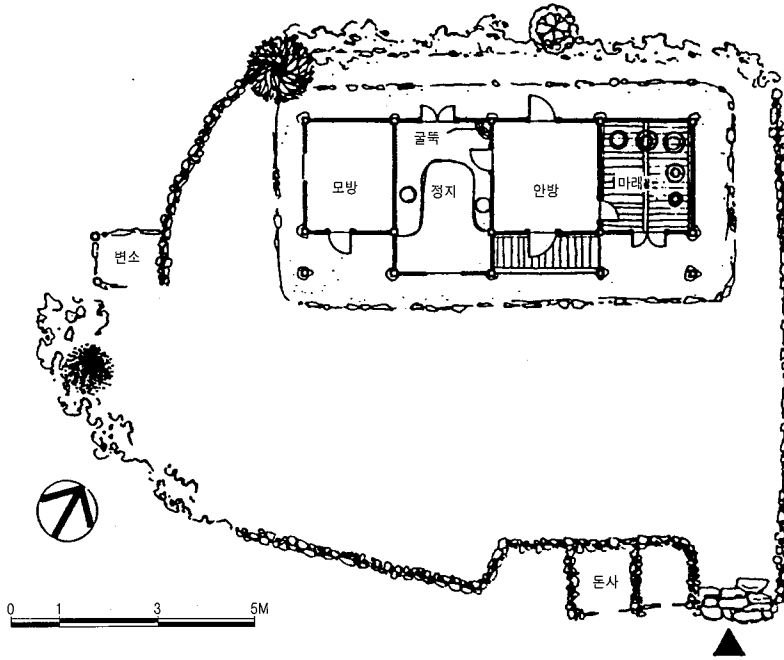


그림 10. 조남단가옥 배치도

⑪ 김초심가옥

• 소재지 : 신안군 흑산면 진리

1920년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옥이다. 현재 우진각형으로 지붕개량(슬레이트)만 되어 있을 뿐 구조나 평면 등 옛 모습을 많이 갖추고 있다.

구조는 전·후로 퇴를 둔 一자형이며, 평면은 좌로부터 모방, 정지, 큰



김초심가옥 안채

방, 마래 순으로 꾸며져 있다. 본 건물에서는 같은 유형의 다른 가옥에서 보이지 않는 '대청'이라고 부르는 공간이 있어 주목된다. 즉 마래 앞으로 뒷마루와 연결시켜 다소 넓은 공간을 두었다. 이곳은 하절기에 가족휴식 및 식사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었던 곳인데 필자가 조사한 19C의 주택에서는 보이지 않던 공간이기에 매우 흥미롭다.

1930년대에 지은 이 가옥 뒷집(504번지)도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유형은 비슷한 시기에 건립된 압해도 대천리의 백씨 가옥에서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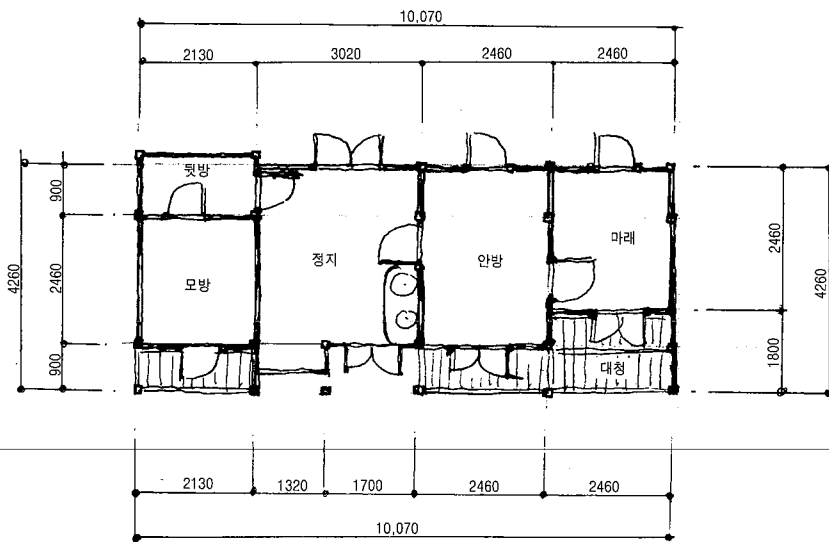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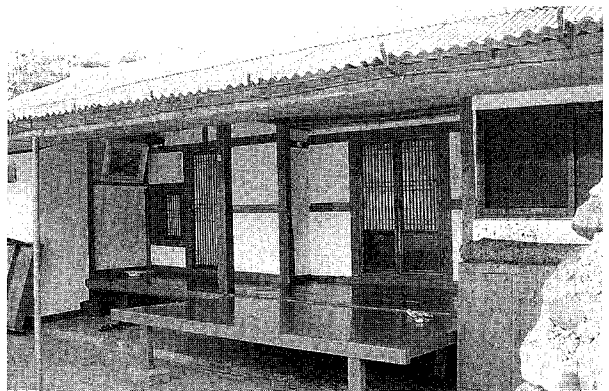
그림 11. 김초심가옥 평면도

⑫ ○○○가옥

• 소재지 : 신안군 흑산면 진리 504

이 가옥은 1930년대에 다른 마을의 고가를 현 위치로 이기한 건물이다.

평면은 一자형 4실 구조로 모방, 정지, 큰방, 마래 순으로 꾸며져 있다. 이 가옥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김초심 가옥과 같이 마래 앞쪽의 작은 대청이 있다.



말끔하게 보수된 ○○○가옥 안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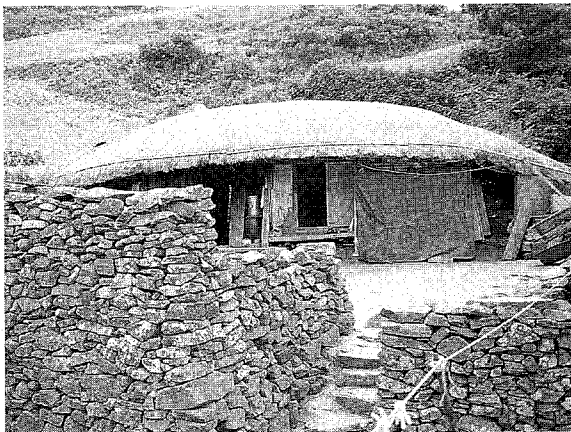
⑬ 윤두석가옥

• 소재지 : 흑산면 심리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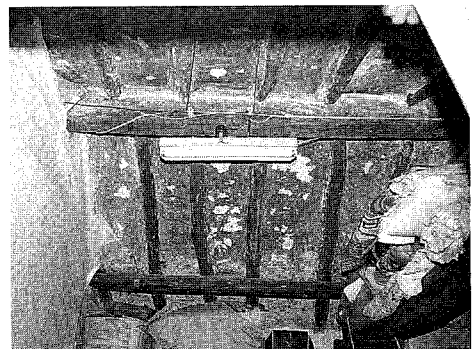
바다와 바로 인접해있는 심리마을의 북동쪽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건립년대는 1900년대 초로 윤두석씨의 조부께서 지은 것이라고 한다. 건물의 배치는 안채를 서향으로 마당의 안쪽에 앉히고 그 전면 우측으로는 지형을 한단 낮게 하고 부속채(해방이후 건립한 슬레이트집, 도면에서 제외)를 건립하였다. 돈사는 전면 담장 밖의 별도의 공간에 두었으며 담장은 가옥의 전면과 좌측으로만 납작한 막돌로 정연하게 쌓았다.

안채는 전후로 퇴를 둔 4칸 규모의 일자형 초가집이다. 전후퇴는 각각 2척반과 2척으로 상당히 좁다. 간살잡기는 북쪽으로부터 뒷퇴를 포함하여 1칸씩 모방, 정지, 안방, 마래 순으로 배치하고 마래 옆으로는 최근에 벽돌 구조의 헛간을 덧붙였다. 전퇴는 안방과 마래 앞으로만 툇마루를 시설하고 모방쪽은 토방으로 꾸몄다. 그리고 정지의 전퇴 한쪽으로는 불박이 시설로 사랑을 설치하여 정지내의 유일한 수납공간으로 만들었다.

구조는 막돌초석위에 거칠게 다듬은 방주를 세운 2고주5랑형식으로 도리와 대들보 등도 형상은 방형이나 몹시 거칠다. 벽체는 심벽구조의 흙벽마감이며, 천장은 안방까지 서까래가 그대로 노출된 연등천장으로 되어있다. 지붕은 벼 과에 속하는 다년초인 뛰로 엮었다. 이 재료는 지붕개량 이전까지 흑산도의 대부분 민가에서 예부터 사용해온 이영 재료다.



지붕개량 이전의 윤두석가옥



윤두석가옥 안방 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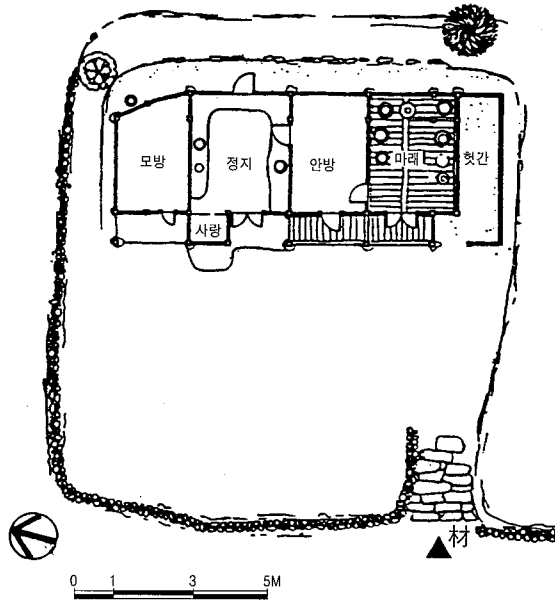


그림 12. 윤두석가옥 배치도

⑭ 이상헌가옥

• 소재지 : 흑산면 심리

심리마을 아래쪽의 평탄진 곳에 남동향으로 위치하고 있는 조그마한 가옥이다. 가옥 뒤편으로는 텃밭이 조성되어 있고 주위는 모두 강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건물은 안채와 최근에 지은 벽돌조 창고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립연대는 약 100년전쯤으로 추정된다.

안채는 전후로 퇴를 둔 4칸 일자형집이다. 마래옆의 반칸 구조는 새로 증축된 부분이다. 간살잡기는 좌측으로부터 모방, 정지, 안방, 마래 순으로 배치하였는데 정지와 안방만 뒷퇴를 포함시켰다. 전퇴에는 텃마루를 시설하였는데 정지 앞쪽으로부터 한쪽에 윤두석 가옥에서와 같이 사랑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흑산도의 대부분 민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형이다.

구조는 막돌초석위에 방주를 세운 2고주5량형식으로 흥예처럼 굽은 퇴보가 인상적이다. 벽체는 심벽구조의 흙벽마감이며, 지붕은 뛰로 엮은 초가지붕이었으나 현재는 비닐천으로 덮여져 있다. 창호는 정지의 판장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띠살문을 달았는데 그중 모방 측면의 위쪽에 설치한 들창은 다른 가옥에서는 보기드문 창호이다. 또한 잘 짜여진 안방의 정자살 봉창(34×45cm)도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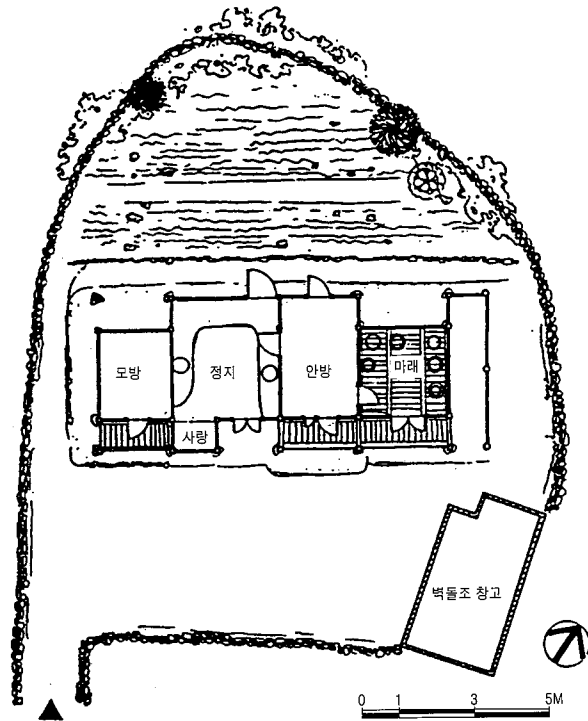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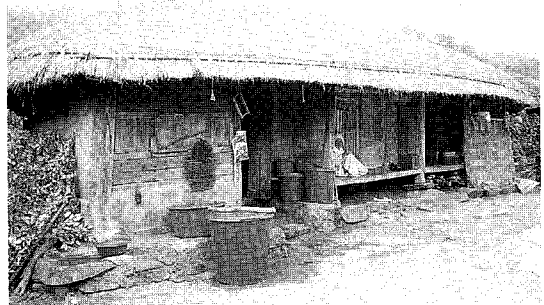
그림 13. 이상헌가옥 배치도

⑮ 박철안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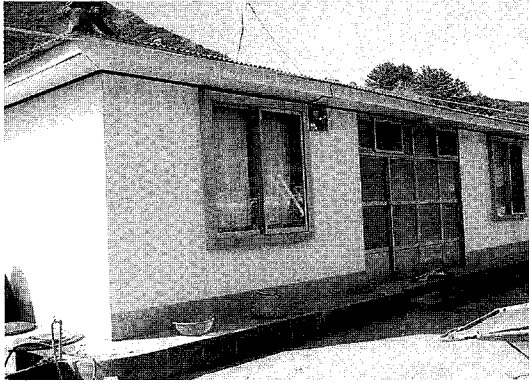
• 소재지 : 흑산도 사리 113

본 가옥이 위치한 사리 마을은 흑산도에서 예리와 진리 다음으로 큰 마을로 V자형 골짜기에 가옥들이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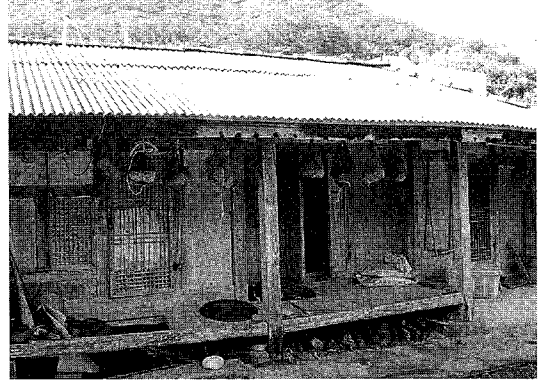
본 가옥은 안채와 사랑채로 구성된 약 100년 정도 된 가옥으로 사리마을에서 꽤 고가로 알려져 있다. 건물의 배치는 대지의 중앙 안쪽에 안채를 배치하고 사랑채는 북서쪽으로 안채와 같은 향으로 앉혔다. 보편적인 'ㄱ'자형에서 벗어난 것은 대지의 조건에 기인된 것으로 여겨진다. 건물의 좌향



옛 박철안가옥 안채



새로지은 박철안가옥 안채



박철안가옥 사랑채

은 곧좌간향으로 북동향 배치이다.

안채는 전후로 퇴를 둔 일자형 초가집이다. 간살잡기는 남동쪽으로부터 정지, 안방, 마래 순으로 배치하고 마래 옆으로는 새로 헛간을 드렸다. 정지와 마래는 2칸으로 비교적 크게 잡았으며 정지옆으로는 모방을 두지 않았다. 본 건물에서는 마래쪽 뒤퇴에도 뒷마루를 설치한 점이 특이하다.

구조는 막들로 낮게 기단을 형성하고 막돌초석위에 방주를 세운 2고주5랑가이며, 지붕은 띠로 엮어 올린 우진각 초가지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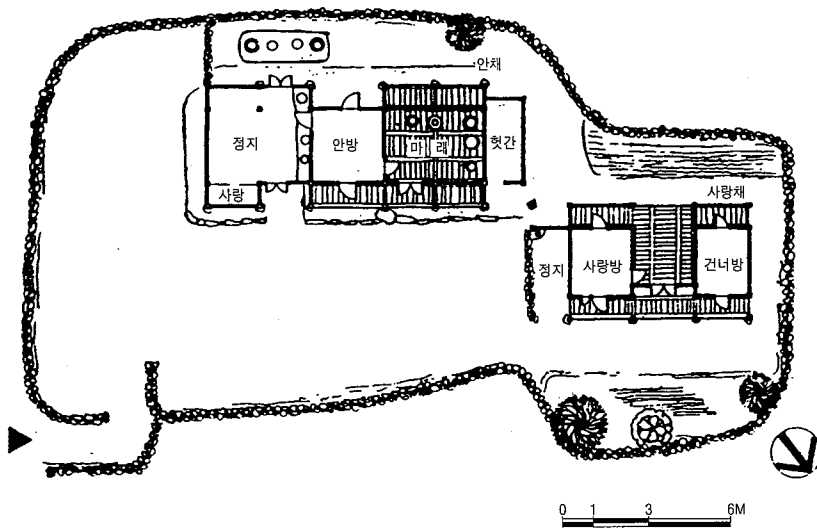


그림 14. 박철안가옥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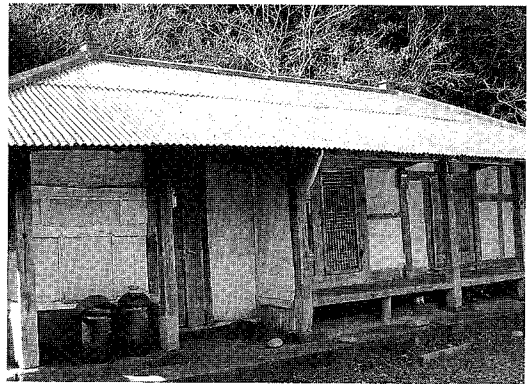
사랑채는 전후로 퇴를 둔 4칸집으로 간살잡기는 안채쪽으로부터 정지, 방, 대청, 광 순으로 꾸몄다. 전퇴에는 툇마루를 설치하고 후퇴에도 방과 광쪽으로는 마루를 설치하였다. 구조는 안채와 같이 막돌 초석위에 방주를 세우고 납도리를 걸은 2고주5량형식이다.

안채는 2003년에 헐리고 같은 자리에 새 건물이 들어섰다. 사랑채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

⑩ 박계산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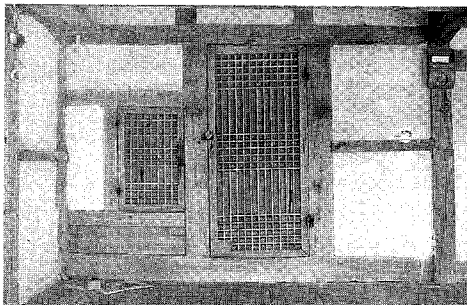
• 소재지 : 흑산면 사리 306

박계산씨의 고조부께서 건축하였다는 약 130년 된 가옥이다. 안채와 사랑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치는 대지의 중앙에 북동향으로 안채를 앞히고 그 전면 우측으로는 비스듬히 사랑채를 배치하였다. 안채와 사랑채는 1973년경에 초가에서 슬레이트로 지붕개량이 된 것이며 담장도 본래는 나뭇가지로 엮은 바자울이었으나 1938년경에 현재의 모습인 강담으로 바꾼 것 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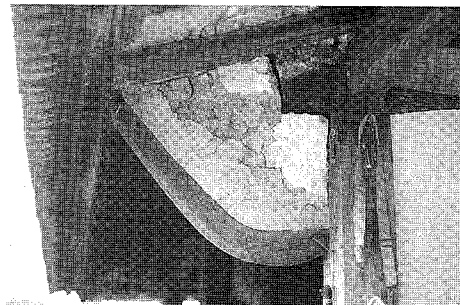


박계산가옥 안채

안채는 전후로 퇴를 둔 一자형 집으로 간살잡기는 남동쪽으로부터 정지, 안방, 마래 순으로 배치한 3실 형태이다. 본래는 정지 옆으로 모방이 1칸 있었으나 약 50년 전에 헐어버렸다고 한다. 박철안 가옥과 같이 정지와 마래는 2칸으로 비교적 넓게 실을 꾸몄으며 안방과 마래 전면으로는 툇마루를 시설하였다. 마래쪽 뒤퇴 한쪽으로는 선반을 드려 수납공간으로 쓰고 그 위쪽 벽면으로는 조상



박계산가옥 안방 창호



박계산가옥 정지와 안방사이 연기막이 장치

의 신위를 모신 감실장을 설치하였다.

구조는 2고주5량구조로 막돌초석위에 방주를 세웠다. 도리는 납도리로 장혀는 쓰지 않았고 마룻대공은 동자주를 사용하였다. 천장은 안방까지 서까래가 그대로 노출된 연등천장이다. 벽체는 흙벽 마감이나 전면만은 회로 마감하였다. 본 건물에서는 정지와 안방사이의 퇴주 상부에 굽은 부재를 추녀 맞까지 대고 그 사이를 흙으로 막은 구조가 특히 주목된다. 이러한 모습은 신안군내의 다른 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흑산도 민가에서 보이는데 그 역할은 정지에서 나오는 연기가 안방쪽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사랑채는 전후로 퇴를 둔 4칸 규모의 일자형집이다. 실의 구성은 뒷퇴를 포함하여 좌측으로부터 건너방, 정지, 사랑방, 마래 순으로 꾸몄고 툇마루는 사랑방과 마래 앞쪽에만 설치하였다. 구조는 안채와 같은 형식의 2고주5량집이다. 현재 본 건물의 우측 끝으로는 담장에 면하여 벽돌구조로 창고를 1칸 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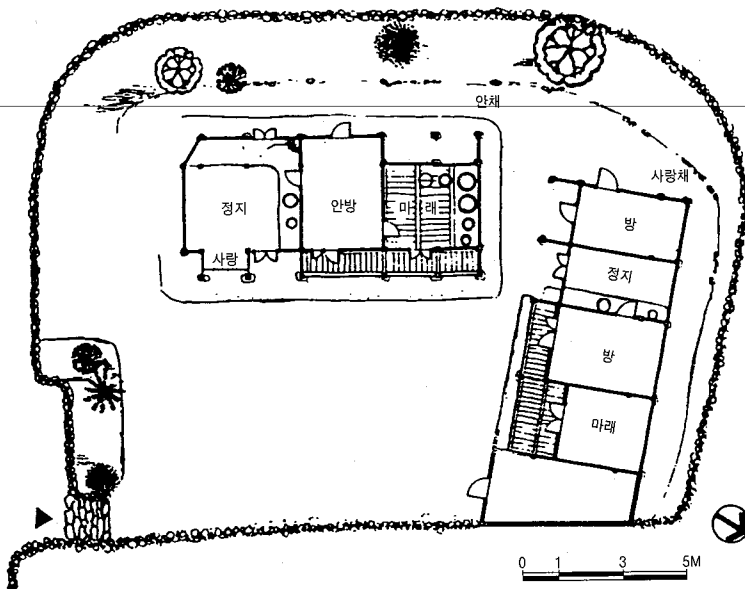


그림 15. 박계산가옥 배치도

⑰ 박인관가옥

• 소재지 : 흑산면 사리 303

본 가옥은 밀양박씨의 중가택으로 건축년대는 안채가 19C중반, 사랑채는 20C초반으로 추정되는 사리마을의 고가이다. 안채 아래의 서까래에는 집지킴을 위한 배 형겼으로 만든 성주가 그대로 매달려 있다. 사랑채는 아직 초가로 남아있으나 안채는 1973년경에 슬레이트로 개량하였다. 건물의 배치는 대지의 중앙에 남서향으로 안채를 앉히고 그 전면 좌측으로 사랑채를 배치하였다.

안채는 6칸규모의 비교적 큰 一자형 전후 퇴집이다. 간살잡기는 북서쪽으로부터 2칸 아래, 다음으로 1칸 안방, 2칸 정지, 1칸 모방 순으로 배치하였다. 안방 위로는 뒷퇴에 뒷방이라는 조그만한 방을 두었다. 아래 뒷퇴 한쪽으로는 선반을 시설하고 감실장을 놓았다.

구조는 막돌초석위에 방주를 세운 2고주5량형식의 납도리집이다. 기단은 현재 시멘트 몰탈로 마감되어 있다. 본 건물에서는 강한 바람의 탓으로 굴뚝을 외부에 설치하지 않고 정지안의 부뚜막 측면에 시설하였다.

사랑채는 전퇴만을 둔 일자형 초가집이다. 간살잡기는 좌측으로부터 사랑, 정지, 방, 마래로 꾸며지며, 구조는 막돌초석위에 방주를 세운 반5량가의 납도리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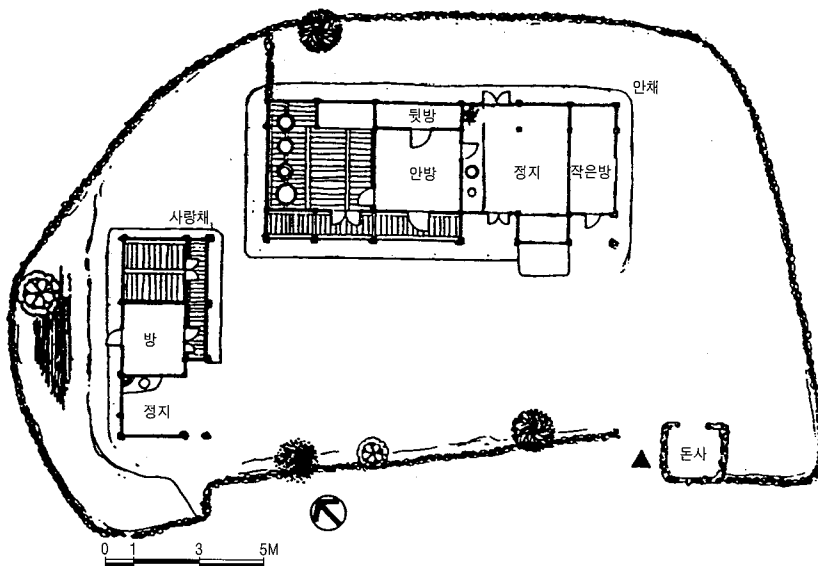


그림 16. 박인관가옥 배치도

⑩ 김춘레가옥

• 소재지 : 흑산면 사리 411

전형적인 초가삼간이다. 박인관씨 가옥 우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년대는 약 100년 전쯤으로 추정된다. 남서향으로 앉힌 본채 이외에 둘러 쌓은 헛간채가 전면 담장 우측에 면하여 자리하고 있다.

본채는 퇴보를 둔 3칸 집으로 중앙에 방을 두고 그 좌우측으로 마래와 정지를 꾸몄다. 방 전면으로는 사랑을 설치하였다.

기단은 토단이나 오랜 세월동안 깎이어 현재는 그 형상이 없고 마당높이와 같이 나타난다. 초석은 막돌초석이며 기둥과 도리는 꺾질만 벗긴 흰 통나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가구는 퇴보를 걸지 않은 반5량가로 그 기법이 매우 단순하다. 정지의 Y자형 대공도 눈에 띈다. 천장은 안방까지 연등 천장이며 벽체는 흙벽마감이다. 지붕은 우진각 초가지붕으로 뚝로 엮어 올렸다. 본 건물은 건평이 6.2평에 불과한 아주 작은 가옥이다.



초가지붕 당시의 김춘레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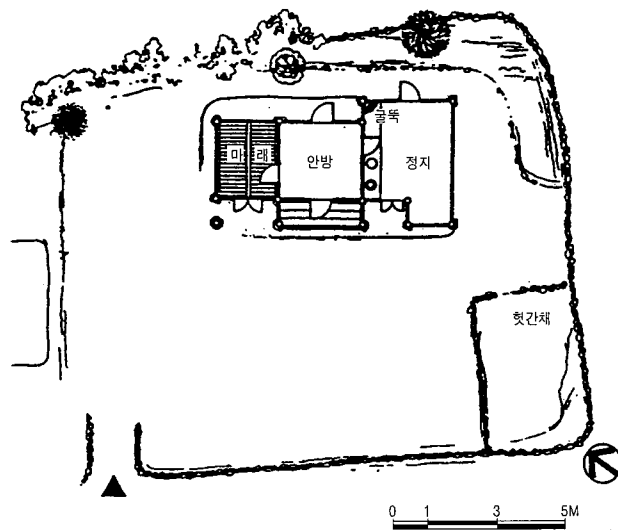


그림 17. 김춘레가옥 배치도

⑩ 이소순가옥

• 소재지 : 흑산면 사리 19

정확한 건축년대는 알 수 없으나 약 100년 가까이 된 가옥으로 여겨진다. 건물은 안채만이 남향으로 대지의 중앙에 위치하고 대지의 뒷면과 서쪽으로는 텃밭을 일구었다. 담장은 강담으로 잘 축조되어 있다.

전후퇴집인 본채의 간살잡기는 서쪽으로부터 마래, 안방, 정지 그리고 모방 순으로 꾸미고 전퇴에는 정지쪽만 제외하고 텃마루를 시설하였다. 마래 바닥은 우물마루로 깔았고 안방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꾸몄다.

구조는 막돌초석위에 방주를 세운 2고주5량가이다. 기단은 막돌로 낮게 형성되어 있다. 지붕은 초가지붕이나 현재는 비닐로 씌워져 있다. 벽체는 흙벽구조이나 전면만은 회로 마감되어 있다.

본 가옥도 역시 굴뚝을 외부에 두지 않고 정지내부 뒤쪽 한구석에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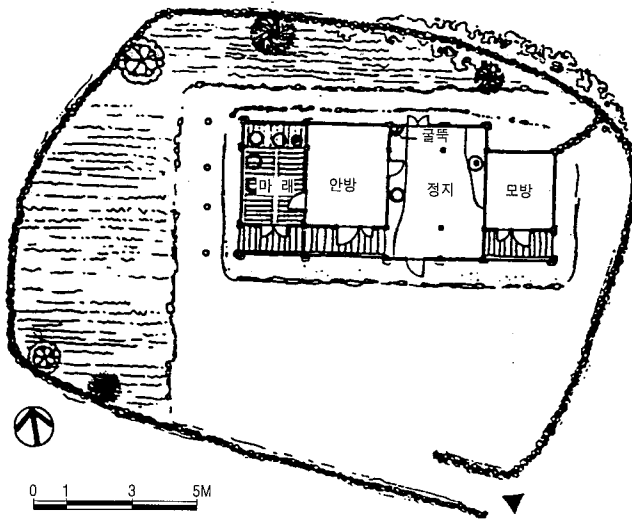


그림18. 이소순가옥 배치도

2) 흑산도 주거문화의 특성

① 건물배치 및 외부공간 구성

각 가옥의 대지내 건물의 배치형식은 일정한 유형으로 단순화 되어있다. 우선 건물구성을 살펴보면 가옥의 기본이 되고 있는 안채가 꼭 있고 이 외에 사랑채(행랑채)가 있다. 사랑채는 모든 가옥에서 건립한 것은 아니고 가족구성과 경제능력에 따라 건립되어 졌는데 조사된 19가옥중 7가옥만이 사랑채를 갖고 있다. 사랑채의 건립 시기는 안채보다 늦게 나타난다. 기타 돈사와 헛간채가 가옥에 따라 건립되기도 한다. 한편 서남해 다른 도서에서 측간, 헛간, 찻간 등의 복합 용도로 꼭 건립되어지는 죽담구조의 측간채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흑산도가 농지가 거의 없는 즉, 주산업이 농업이 아닌데에도 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진리마을의 돌담장과 마을안길

세부적인 배치형태는 마을이나 입지환경에 관계없이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오직 안채만이 대지의 중앙 안쪽에 단독으로 건립된 一자형이며, 다른 하나는 사랑채가 안채 전면의 좌측 내지는 우측에 독립으로 놓여져 안채와 함께 구성된 ㄱ자형이다. 이 두 가지 유형 외에 안채의 전면에 건물이 들어서서 二자형이나 또는 ㄷ자형, ㄹ자형의 건물배치형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는 이 지역 다른 도서 및 전남 내륙지방에서도 거의 같다. 이러한 개방적인 ㄱ자형배치는 가옥이 전체적으로 밝고 또한 안마당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도서지방 전통민가의 외부공간은 다른 지방에서와 같이 민가가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다양성은



'ㄱ자형' 민가배치 사례(좌-안채, 우-행랑채)

찾아볼 수 없고 거의 일정하게 유형화 되어 있다. 또한 대지의 협소성으로 한 흑산도 민가에서는 더욱 그렇다. 3가지로 유형화 시켜 그 성격을 알아보면

첫째, 마을길에서 가옥내부로 들어오는 진입공간을 들 수 있는데 이곳 입구에는 대문이나 그 밖의 어떤 장치물 없이 바로 마을 안길에서 담장사이에 난 약 1.5m의 통로를 통하여 안마당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많은 가옥에서 앞마당이 바로 보이지 않게 입구의 담장을 변화 있게 처리하였다.

둘째로 안마당으로 불리우는 안채 전면의 공간이다. 사랑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면과 한데 어울려 형성된다. 기능은 다른 지방과 같이 다양한 용도로 쓰여지는데 이 지역에서는 주로 빨감저장이나 텃밭, 화단조성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한쪽 모퉁이로는 감나무 등의 과실수가 한 두 그루 심어지기도 한다.

셋째로 안채 후면의 뒤뜰이 있다. 이곳은 비록 넓지는 않으나 정지의 뒷문과 이어져 장독대, 우물 등이 설치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장독대 뒤쪽으로는 지형상 축대를 형성하여 작은 텃밭을 일구었고 또한 담장 가까이로는 감나무 등의 과실수가 심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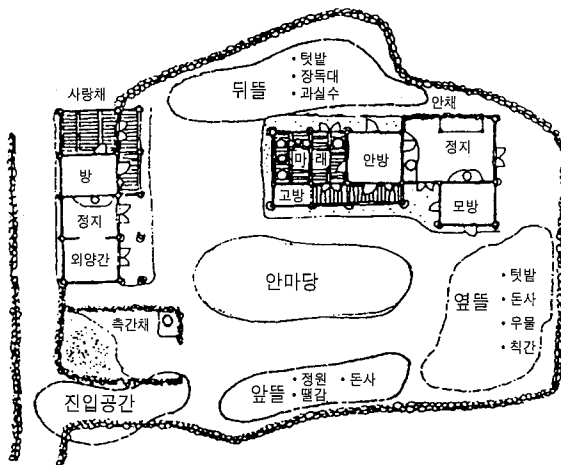


그림 19. 전통민가 배치 및 외부공간구성 사례

② 내부공간 구성

내부공간(안채)은 안방, 정지, 마래, 모방의 4실이 주가 되어 기능적으로 조합, 공간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각실의 규모 및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기능이란 실의 이용실태를 말하

는 것으로 가급적 가옥들이 지어진 19C의 주생활에 맞추어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 안방: 안방은 정지와 마래 사이에 위치한 안채의 주공간이다. 그 규모는 전면이 210cm에서 255cm사이, 측면이 225cm에서 255cm 사이로 평균 정·측면 주간을 240cm으로 하였다. 그리고 많은 가옥에서는 약 75cm 크기의 후퇴까지 안방으로 넓혀져 있어 측면은 전체가 약 300cm으로 나타난다. 방의 면적은 평균 7.1㎡(2.2평)이다.

안방은 다른 지방의 민가에서와 같이 주인부부의 거처, 식사, 가족들의 모임, 그리고 사랑채가 없는 경우에는 손님접객 등의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가옥에서는 정지와 마래쪽으로 샛문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뒷문은 출입구로는 이용하지 않고 주로 채광 및 환기의 기능을 하고 있다. 벽장은 대부분 없으며 아랫목 내지는 윗목에는 2개의 굵은 장대로 시렁을 설치하여 이불, 가재도구 등을 올려놓는다.

㉡ 정지: 안채 내에서 제일 큰 면적(평균9.5㎡, 2, 88평)을 차지하는 곳으로 평균 전면이 300cm, 측면은 후퇴까지 포함하여 315cm 크기로 나타난다. 전면은 대부분 가옥이 2칸으로 되어 있어 장재 사용이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정지의 주 기능은 취사와 난방을 위한 불때기 작업이 이루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실내 작업공간으로도 쓰여진다. 정지내의 시설물로는 부뚜막이외에 사랑(살강)이 대부분 가옥에서 갖추어져 있고 기타 정지광이나 별도의 나뭇간 등은 가옥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찾아볼 수 없다. 정지내의 후면 한 쪽으로는 굴뚝이 설치되어 있어 바람이 많은 도서지방 가옥구조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가옥에서는 벽과 천장이 새까맣게 그을려져 있어 취사와 난방을 전적으로 아궁이를 통한 땀감에 의존했던 옛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더욱이 내부의 굴뚝으로 인해 그 양상이 더욱 심하다.

㉢ 마래: 안방 정도의 크기인 평균 6.7㎡(2.1평)의 면적을 갖고 있는 집안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주요 공간이다. 모방이 없는 가옥에서도 마래 만큼은 가옥의 규모에 관계없이 꼭 갖추어져 있다. 크기는 전면이 평균 255cm, 측면은 270cm으로 규모가 좀 큰 가옥에서는 정지와 같이 전면을 2칸으로 하고 후퇴칸까지 넓혀져 있다.

“마래” 또는 “마리”라고 불리워지는 이 실의 호칭은 “마루”의 이 지역 방언으로 바닥의 구조는 마루널 흙바닥과는 관계없이 이 지방에서는 기능에 의해 마래라고 불리운다. 현재 흑산도의 대부분

가옥에서는 우물마루를 깔았으나 이 지역 다른 도서의 가옥에서는 상당수가 흙바닥으로 되어 있다. 흙바닥으로 된 가옥은 비교적 규모가 작고 열악하다.

이 실의 기능은 내륙지방의 광과 비슷하다. 이곳에는 곡물을 넣은 비교적 큰 항아리가 벽선에 따라 1열로 놓여지고 다시 그 위로 작은 항아리가 얹혀진다. 기타 살림 도구, 자주 쓰이지 않는 부엌기구, 제사용



마래모습 . 뒷벽 중앙에 '감실장'이 있다.

구 등이 보관된다. 이러한 수장의 기능 외에 또한가지 중요한 기능은 조상의 신위를 모신 감실장을 후면 벽 쪽에 설치하여 제사공간으로도 이용한다. 감실장 없이 “독”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무상자로 대신하여 선반에 올려놓는 경우도 있다. 현재는 몇몇 가옥에서만 이러한 시설이 잔존하고 있으나 과거에는 거의 모든 가옥에 감실장이 있었고 제사공간으로 활용하였다고 한다.

㊸ 모방: 평균 5.2㎡(1.6평) 규모의 작은방으로 그 크기는 전면이 135cm에서 210cm사이, 측면이 225cm에서 300cm사이로 가옥의 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개 성장한 자녀, 또는 아들이 결혼한 후에는 아들부부가 거처한다. 정지 내부쪽으로는 문이 없어 출입은 전면으로만 토방내지는 뒷마루에서 하게 되어있다.

현재 부부만이 거처하는 가옥에서는 이곳에 각종 살림도구, 곡물 등을 보관하고 있다.

㊹ 사랑: 정지 출입문 옆의 전퇴부분에 설치한 정지내의 유일한 수납공간(찬장)이다. 면적은 약 1㎡(0.3평) 정도로 흑산도의 대부분 가옥에서 설치되어 있다. 보통 2단 정도로 선반이 드러져 있고 그 위에 그릇 등이 얹혀진다. 서남해 다른 도서에서는 대부분 정지앞으로 모방이 오기 때문에 이 사랑은 뒷문 옆 퇴간에 또는 퇴간이 없을 경우에는 벽선 밖으로 달아내어 설치된다.

㊺ 뒷마루: 대부분 가옥에서 안방과 마래 전면의 퇴간에 마루를 설치한다. 모방이 있는 가옥에서는 그 전면에도 뒷마루를 설치하나 토방으로 꾸민 가옥도 상당수 나타난다. 박철안 가옥에서는 안방과 마래 쪽의 후면 퇴간에도 뒷마루를 설치하여 특히 주목된다.

건축의 기본이 되고 특히 민가에 있어서는 각 지역별 그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는 평면 구성 (안채)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타난다. 유형별 그 특성을 분석해 보면

첫째, 유형①과 같은 一자형 3실 평면이다. 순서는 정지, 안방, 마래순으로 건축사례로 들은 19가옥 중 4채가 여기에 해당한다.(박계산, 김정진 가옥은 본래 정지 옆으로 모방이 있었으나 후에 헐어버린 것임) 이 평면형은 흑산도 민가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패턴이다.

둘째, 유형①의 구조에 정지옆으로 모방이 1칸 더 드러진 4실 평면형이다.(유형②) 이로 인해 정지가 단부가 아닌 중앙에 오게 된다. 이 유형의 특징은 어떠한 경우도 모방이 마래 옆으로 오지 않는다. 즉 마래를 집의 머리(상위개념)로 보아 그 옆으로 어떠한 실도 설치하지 않았다. 19가옥 중 유형①의 가옥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형식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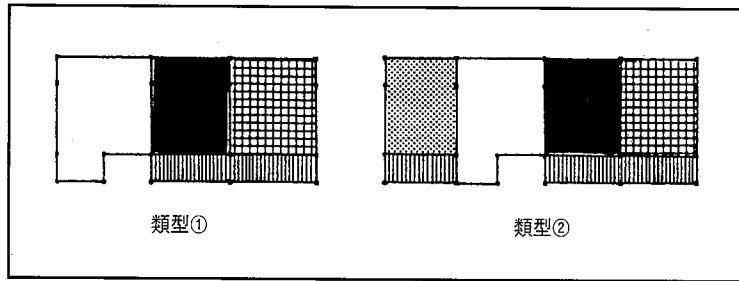


그림 20. 흑산도 전통민가 평면유형

이상의 두가지 2유형이 흑산도 민가의 절대적 평면형으로 나타난다. 기타 사례로 들은 몇몇 가옥에서는 마래 옆으로 헛간 내지는 광이 보이나 이는 몸채 건축후에 새로 증축된 부분들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옥에서는 전후로 퇴를 두어 앞퇴에는 뒷마루를 시설하고(가옥에 따라 부분적으로 토방으로도 처리하였음) 후퇴는 각 실로 넓혀져 있다. 특히 정지의 전퇴 한쪽으로는 모든 가옥에서 사랑을 설치하여 정지내의 유일한 수납공간으로 계획하였다.

흑산도 민가의 평면형은 같은 권역인 하의도, 비금도 등 서남해 다른 도서의 가옥과는 비교적 차이가 나타난다. 즉 흑산도와는 달리 대부분의 가옥에서 모방이 정지 전면에 배치되는 형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갖방과 외양간(헛간) 등이 겹집형식으로 모방과 정지 옆에 드러지는 유형도 있는데 흑산도 민가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차이점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크게는 주산업(흑산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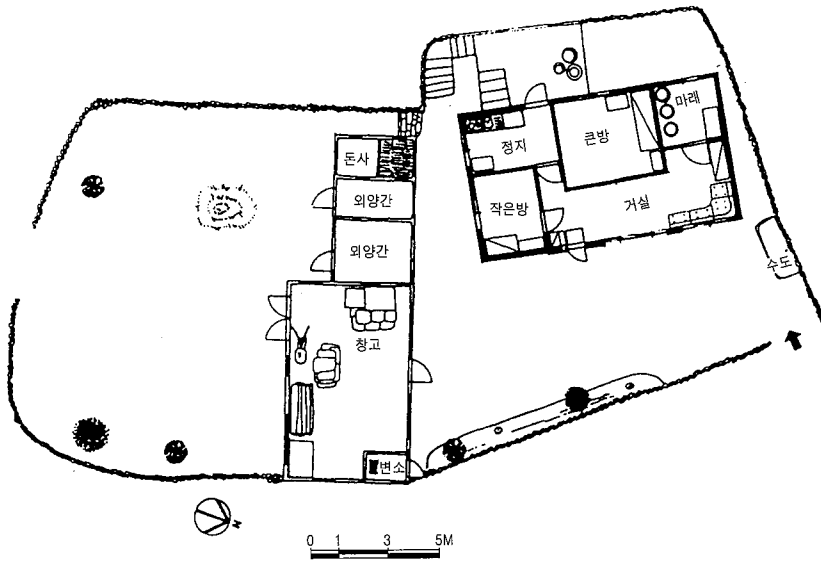


그림 23. 청산도 신축주거(완도군 청산면 당리 602)

1986년에 안채를 헐고 조적조 스라브 구조로 신축했다. 큰방 우측에 마래가 있다. 거실이 현관 겸 홀 형식으로 되어 있다.

공간임을 보여준다.

최근의 신축가옥에서도 “마래”가 보여 주목된다. 청산도와 비금도 등 여러곳에서 보인다. 아직도 곡물을 담아놓는 항아리가 있고 제사도 이곳에서 모신다고 한다. 아무리 현대식 개념의 주거라 해도 전통적 문화요소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말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주 문화의 연속성이 지켜지고 있는 셈이다.

㉠ 마당

민가의 건축적 구성요소는 단순히 안채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물론 안채는 저장과 거주, 그리고 종교적 사고까지 수용하고 있는 제일 비중이 큰 대상이다. 그러나 부속채나 마당 등도 한 가옥의 틀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인자가 아닐 수 없다.

도서지역 민가에서 마당은 내부공간 만큼 중요하다. 가족의 대소 행사장으로, 농수산물의 정리 및 건조, 또는 가족 휴식공간으로서 그 기능은 매우 다양하다. 물론 이러한 기능은 내륙 농촌지역도 마찬가지다. 주민들의 주거환경 의식 조사에서 앞으로의 신축주거에서도 넓은 마당이 있기를 원하고 있다. 어떠한 형태로든 마당은 도서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여겨진다.

㉔ '퇴' 공간

건축에서 퇴간은 몸체 앞 뒤, 또는 좌우에 본래 칸보다 좁게 달린 칸을 말한다. 이 퇴간은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을 매개하는 중간적 성격의 공간으로 반 내부적 이면서도 반 외부적인 성격을 갖는다. 매개공간은 단순히 공간의 이웃함에 따른 시각적 연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위적 측면에서의 뒤엉킴에 의해 유기적인 연계를 이룰 수 있다.

내륙과 마찬가지로 도서민가에서도 이 퇴공간은 마루가 놓여지는 전면의 '뿔마루' 로 크게 조명된다. 앞 뒤, 좌우의 비어진 퇴에는 특히 외부에서 필요한 각종 생활도구가 손쉽게 놓여진다. 가옥에서 여유를 찾아볼 수 있는 퇴공간은 충분히 현대주거에서도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여겨진다.

② 주거모델 개발

본 연구는 앞으로 도서지방에 새로운 살림집을 지을 때 어떤 유형의 집을 짓는 것이 이상적일까에 대한 건축적 답을 얻는 것이다. 그 이상적 집은 바닷가에 위치한 별장 같은 집도 아니고 커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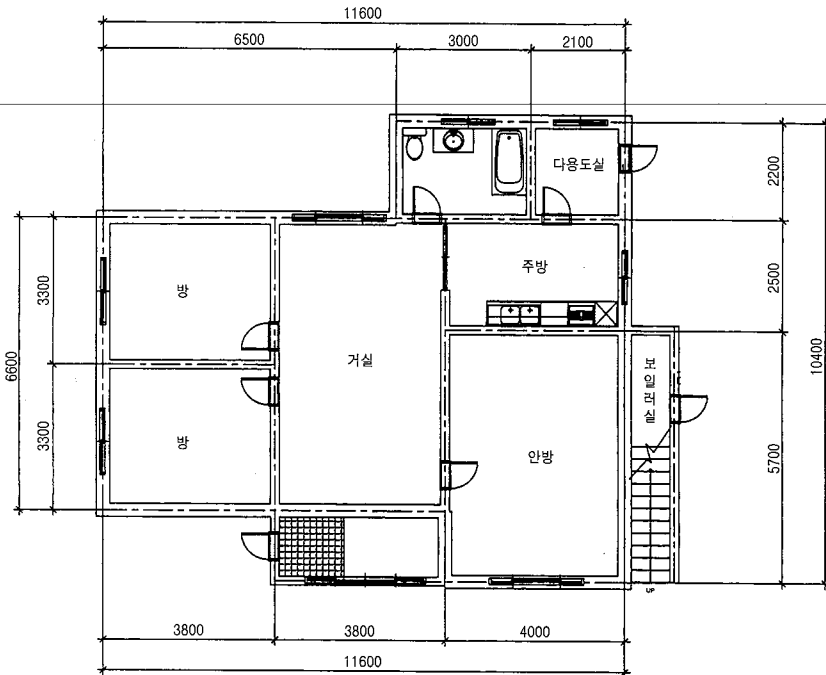


그림 24. 흑산도 진리 신축주거 사례

꿈이 있는 집도 아니다.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주거는 아주 지극히 경제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현재 지어지고 있는 집들 보다 다소 합리적이고 편리한 집이다. 그러한 새로운 집은 첫째 현대적 편리, 둘째 전통성에 그 바탕이 있다.

시대환경은 계속 변한다. 수년전부터 서남해 도서에는 각 도서간 다리가 놓여지고 있다. 이미 비금 - 도초도 간, 안좌 - 팔금도 간 공사가 끝났고 목포 - 압해도 간 등 여러 곳에서 계속 공사가 한창이다. 앞으로 머지않아 모든 주요 도서가 연륙되어 더 이상 도서의 개념에서 벗어날 날도 멀지 않다.

본 연구는 지극히 연구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어찌면 설계상의 내용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설계의 개념 추출은

첫째, 필자가 약 20년 전부터 연구해온 도서지방의 전통민가와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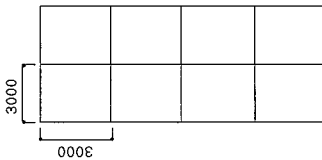
둘째, 최근 2년간 현장답사를 통해 얻은 주거 실태조사와 주민들과의 현장 인터뷰 결과

셋째, 필자의 주택설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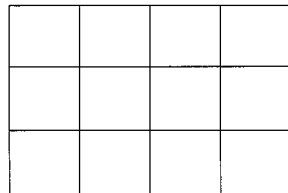
이상의 것들을 종합화하여 설계에 적용하였다.

㉠ 설계개념 item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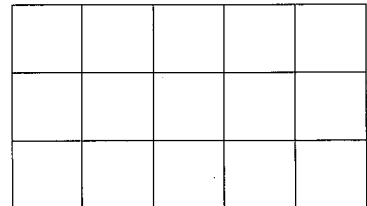
- 건물은 1층을 원칙으로 하고 그 면적은 실험수 30평을 넘지 않도록 한다.
- 본체에 거실, 주방과 식당, 화장실, 다용도실 등을 기본으로 갖추고 침실(방)은 2개 내지는 3개로 한정한다. 작업실과 창고 등은 부속체에 두나 본체만이 건립 될 경우는 본체 내에 그러한 공간을 배려한다. 기타 전통공간인 마래나 툇마루 등은 현대식 구조개념으로 변형한다.
- 다음과 같은 3개의 모듈타입을 설정, 규모를 정하고 그 안에서 각각 3가지 평면 타입을 제시한다. 모듈화의 기본 치수는 3,000×3,000이다.



A타입
(12,000×6,000)



B타입
(12,000×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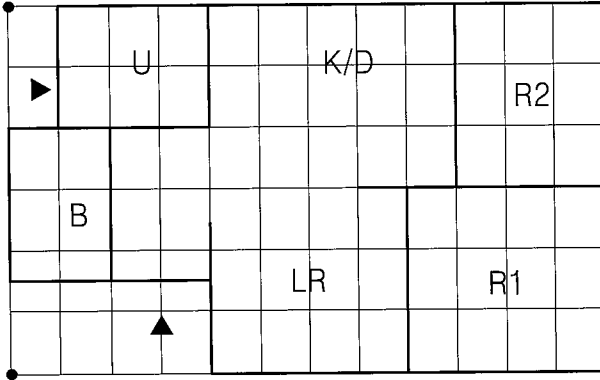


C타입
(15,000×9,000)

㉠ 단위건물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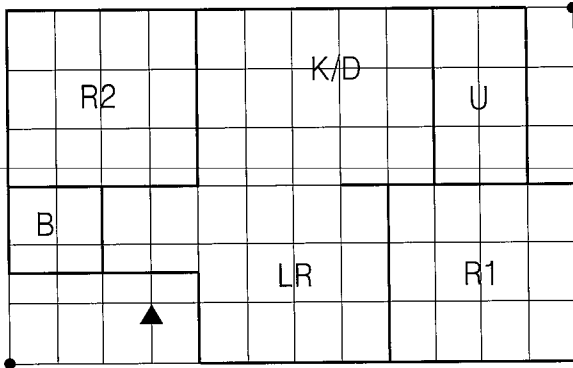
범례		
LR-거실	K/D-주방, 식탁	B-화장실
R1-큰방	R2-작은방	U-다용도실

• A-I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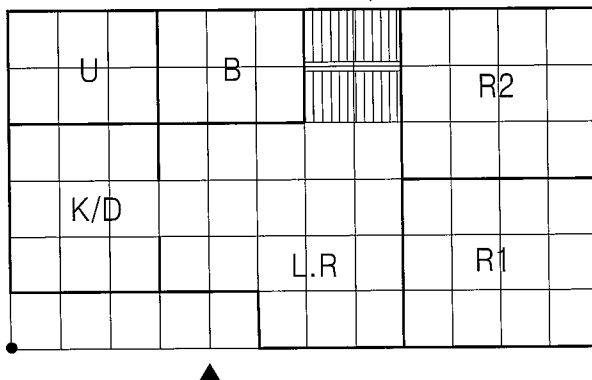
- 코너진입(퇴간)
- 정지형 개념의 R2, 정지 공간으로 사용가능(부부 거처시)
- W, C - 문간에 설치(외부출입가능)
- 식당, 거실 - 일체형(공간 극대화)

• A-II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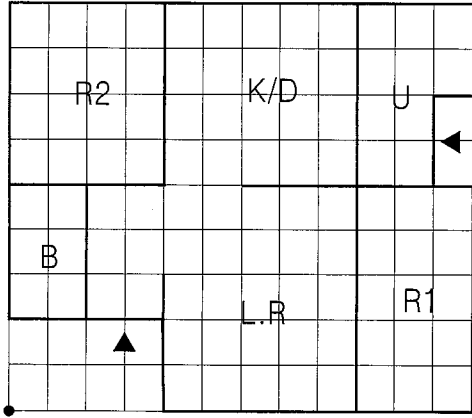
- 코너 진입, 출입구 퇴간
- R1, R2 완전 독립
- W, C - 문간(외부출입가능)
- 식당, 거실 - 일체형(공간 극대화)
- 주방 완전 은폐

• A-III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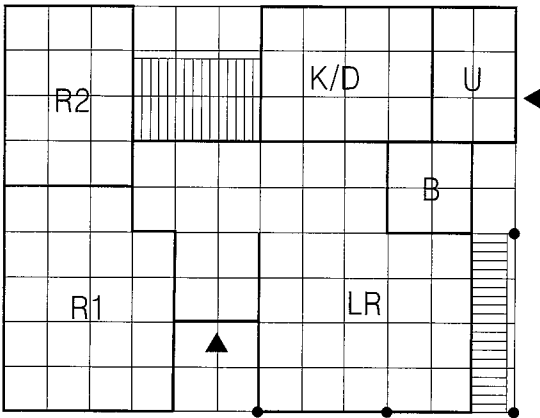
- 전면에 부엌(밝다)
- 넓은 방 들
- 거실과 연계된 대청 설치
- 전면퇴간(현관)

• B-I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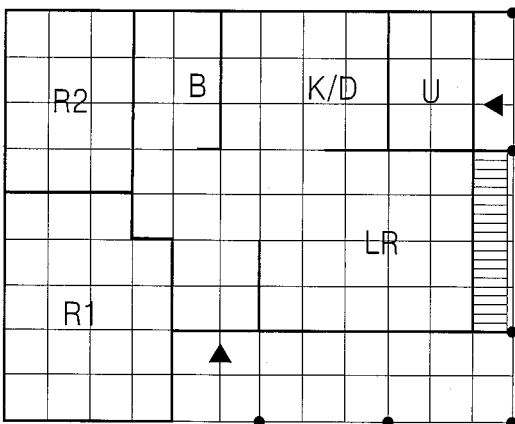
- 코너 출입(넓은 퇴간)
- W, C - 문간쪽으로(외부출입가능)
- 침실 - 완전독립
- 넓은 다용도실
- 넓은 부엌

• B-II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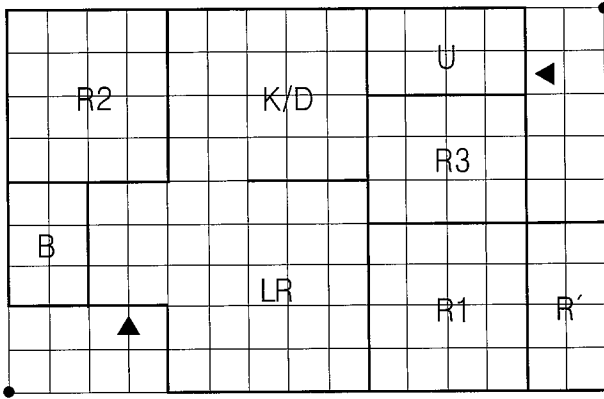
- 후청(마루)이 있어 부엌과 현관이 밝은 집
- 편리하게 마당에서 다용도실과 화장실 연결
- 측면에 퇴간(뒷마루) 설치

• B-III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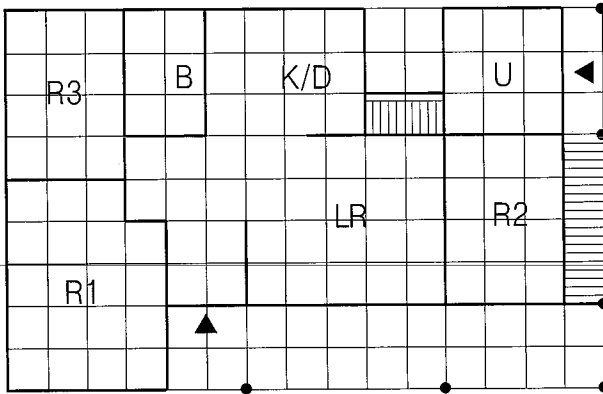
- 전면 넓은 퇴간 설치(평상 또는 의자 휴식, 임시 수장 및 건조 등)
- 외부에서의 다용도실 - 부엌 연결 동선
- 거실 측면 뒷마루

• C-I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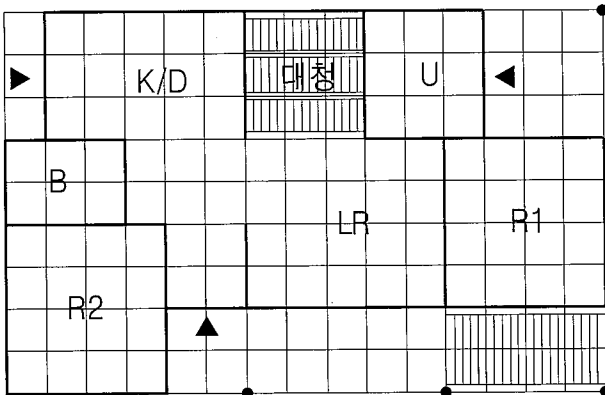
- 코너 진입(전 퇴간)
- 넓은 측면 서비스 공간(퇴간)→다용도실→부엌
- '마래' 개념의 R3
- R1의 가변성 공간 설치(R')

• C-II형



- 넓은 전면 퇴간 설치(휴식 및 임시수장)
- 거실, 다용도실, 부엌이 연결된 편리한 동선
- 밝은 거실과 주방/식당
- 측면 툃마루

• C-III형



- 본채내 작업공간(우측 후면)
- 대청설치-현대식 거실과 연계
- 대청과 고방, 대청과 부엌의 유기성
- 전면 퇴간의 넓은 '토방' 과 '툃마루' 개념 동시 도입
- 화장실 외부출입 가능

(2) 관광자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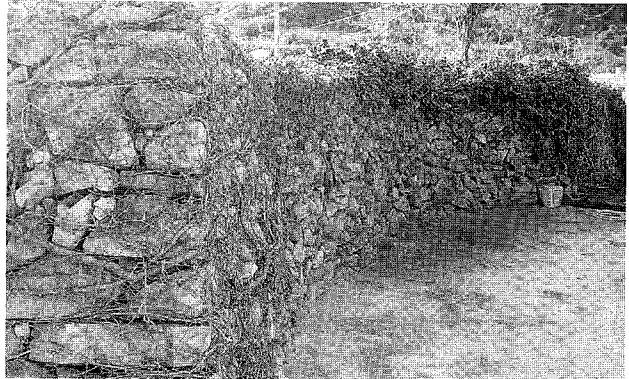
우리 주변에는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많은 문화자원이 있다. 전통건축도 그 중의 하나다. 전통건축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소중한 가치를 부여해 준다.

첫째, 감성가치를 제공 해 준다. 초가삼칸집, 웅장한 궁궐 등 옛 집은 우리에게 옛 생각 등 감성을 유발 시킨다.

둘째, 역사적 가치이다. 건축물은 지어질 당시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사찰건축은 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주택은 인간 삶의 모든 것을 품고 있다. 따라서 전통건축은 형태를 갖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교과서요, 역사현장이다.

셋째, 조형 예술사적 가치가 있다. 건축은 종합예술의 결정체로서 모든 각각의 형태와 요소는 기술적인, 조형적인 측면에서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전통주거는 현대사회에 더 이상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됐다. 그 이유는 기능성과 건축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른바 현대식 주택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주거를 일상의 살림집이 아닌 다른 측면으로 자원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전통계승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민가 돌담장. 성벽같이 높고 견고하다.

① 개별 전통가옥의 보존

현재 각 마을에는 초가집은 아니나 내부구조는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집, 특히 빈집이 많이 있다. 이러한 집을 원형으로 복원하여(마을별 1~2채 정도) 마을의 정체성을 갖게 해 준다. 외지에 사는 도서민이 고향을 찾을 때 텃자리의 의미도 갖게 해 줄 수 있다. 아울러 잠시 찾는 소그룹 외국인에게 임대(숙박업)를 한다.

특히 흑산도는 자연경관이 뛰어나 홍도와 함께 도서관광의 명소로 그 지명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하절기에는 숙박업소가 크게 부족한 편이다. 바다냄새가 물씬나고 깔끔하게 정돈된 전통가옥에서의 하룻밤은 또 다른 도서관광의 낭만이 될 수 있다.

② 집단 전통가옥의 복원

어느 한 마을을 선정, 여러 채의 전통가옥을 민속자료와 함께 복원하여 집단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 이러한 세트는 도서의 전통마을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교육(초, 중, 고 학생의 교육 캠프)과 향수의 장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벤트사업 (영화촬영장, 민속공연 등)의 공간으로도 활용가능 할 것이다.

그 가능성이 있는 곳은 사리나 진리마을을 들 수 있다. 이곳은 아직도 옛 돌담, 공가, 옛 집터 등이 많이 남아 있다.

흑산면 유적 현황

자연자원 목록(■)

번호	자원명	위 치	번호	자원명	위 치
1	초령목	진리 산 77(당산)	15	상라산성 경관	상라산성 가는 길
2	가거도 후박나무	흑산면 가거도	16	구굴도해조류번식지	흑산면 가거도 산2
3	홍도풍란	홍도 일원	17	홍도천연자원보호구역	흑산면 홍도 전역
4	백동백	가거도와 홍도	18	홍도낙시터	흑산면 홍도
5	장도습지	흑산면 장도	19	가거도낙시터	흑산면 가거도
6	독실산	가거도 중앙에 위치	20	태도낙시터	흑산면 태도
7	선유산	사리와 심리 사이	21	영산도낙시터	흑산면 영산도
8	영산팔경	흑산면 영산도	22	흑산해수욕장	흑산도 진리
9	가거도 8경	흑산면 가거도	23	홍도해수욕장	흑산면 홍도
10	홍도 10경	흑산면 홍도	24	홍도 일몰일출	홍도 1리 송신소 언덕
11	홍도 33경	흑산면 홍도	25	홍도등대	홍도 2리 등대
12	흑산홍어	흑산면 홍도	26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면 전역
13	예리항경관	예리항	27	홍도난전시설	홍도 1리
14	한국의 알카트라즈	옥섬			

선사유적 목록(▲)

번호	자원명	위 치	번호	자원명	위 치
1	예리패총	대흑산도 예리 죽항마을	3	소흑산도 패총	소흑산도 대풍리
2	진리 지석군묘	대흑산도 진리 102-2	4	하태도 패총	하태도리

역사유적 목록(●)

번호	자원명	위 치	번호	자원명	위 치
1	최익현 유허비	예리2구 천촌리	10	南原方氏懿烈碑	진리 진리마을
2	지장암	예리2구 천촌리	11	黑山鎭(址)	진리 진리마을
3	李吉斗의 不忘碑	예리2구 천촌리	12	慶州崔氏紀績碑	진리 진리교회 앞
4	李敍珍의 頌德碑	예리2구 천촌리	13	상라산성	진리 읍동 상라산
5	復性齋	사리 사리마을	14	상라봉 제사지와봉수대	진리 읍동 상라산
6	朴奉和記念碑	사리 사리마을	15	유물산포지	진리 읍동 상라산
7	慶州李氏孝烈閣	사리 사리마을	16	추정 관사지 및 치소	진리 읍동
8	慶州崔氏紀績碑	사리 사리마을	17	무심사선원지	진리 읍동
9	朴景鎭遺墟碑	사리 사리마을	18	가막골	진리 읍동

민속문화자원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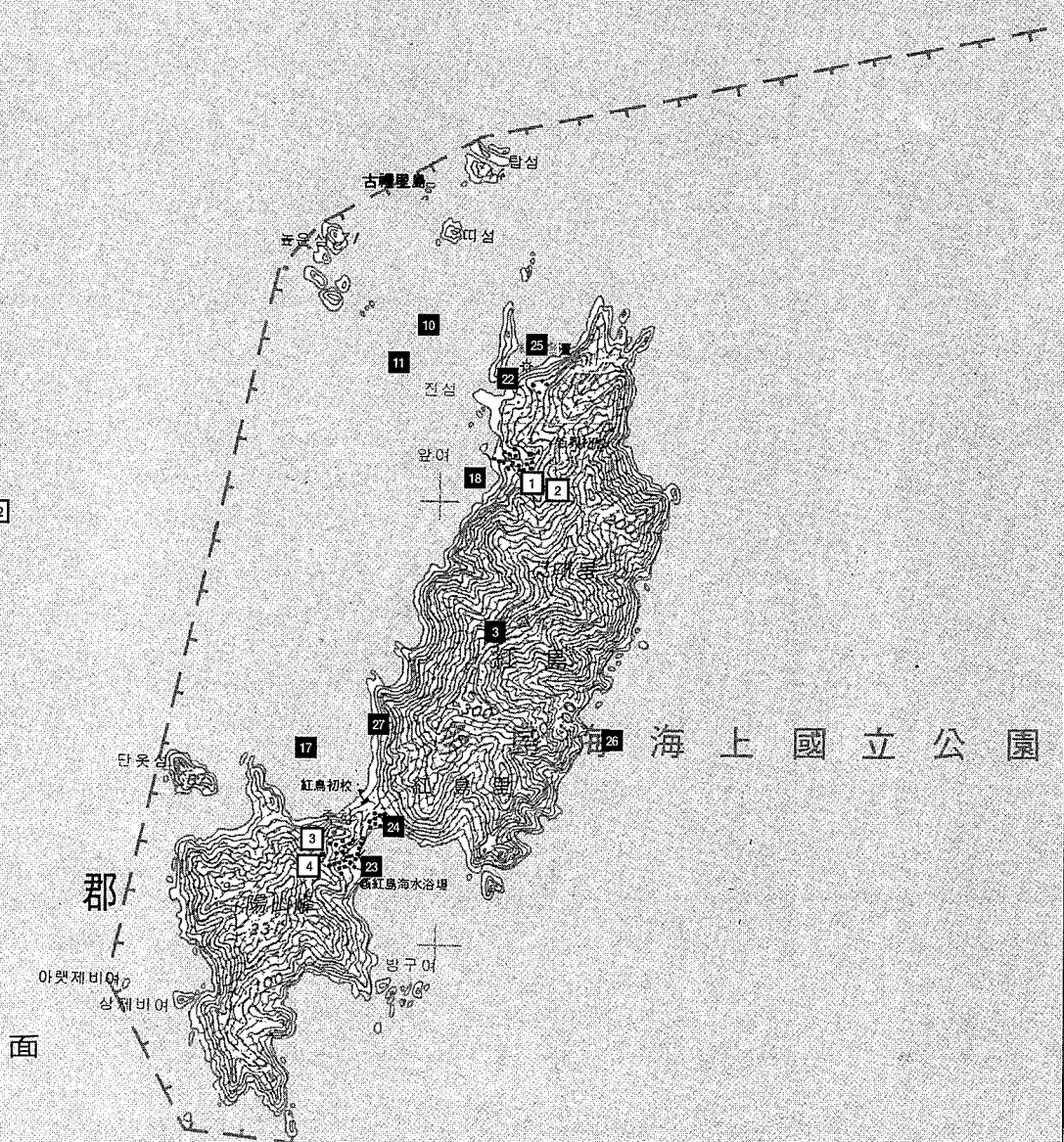
번호	자원명	위 치	번호	자원명	위 치
1	홍도 석촌	당제	20	천촌리	장승
2	홍도 석촌	독제	21	천촌리	독제
3	홍도 죽항리	당제	22	소사리	당제
4	홍도 죽항리	독제	23	소사리	독제
5	다물도 다촌	당산제	24	십리	당제
6	수리	당제	25	십리	독제
7	수리	독제	26	사리	산신제
8	오리	당제	27	영산도	당제
9	진리 읍동	탑제	28	영산도	독제
10	진리 읍동	용왕제(갯제)	29	상태도	당제
11	비리 마리	당제	30	상태도	독제
12	비리 마리	독제(용왕제)	31	하태도	당제
13	예리	등당애타령	32	가거도 대풍리	당제
14	진리	당제	33	가거도 대풍리	독제
15	진리	용왕제	34	가거도 향리	당산제
16	진리	멀치잡는소리·벧노래	35	가거도 대리	당제
17	비리 비리	당제	36	가거도 대리	독제
18	비리 비리	독제	37	가거도 대리	등당애타령
19	천촌리	당제			

주거문화자원 목록(○)

번호	자원명	위 치	번호	자원명	위 치
1	윤두석 가옥	십리 102	11	박남술 가옥	진리
2	이상현 가옥	십리	12	이귀우 가옥	진리 252
3	박철안 가옥	십리 113	13	이상지 가옥	진리 401
4	박계산 가옥	사리 308	14	이상배 가옥	진리 541
5	박인관 가옥	사리 303	15	고주석 가옥	진리
6	김춘례 가옥	사리 411	16	박반우 가옥	진리
7	이소순 가옥	사리	17	조남단 가옥	진리 374
8	김춘만 가옥	진리 44	18	김초심 가옥	진리
9	이길순 가옥	진리 921	19	○○○ 가옥	진리 504
10	김정진 가옥	진리 8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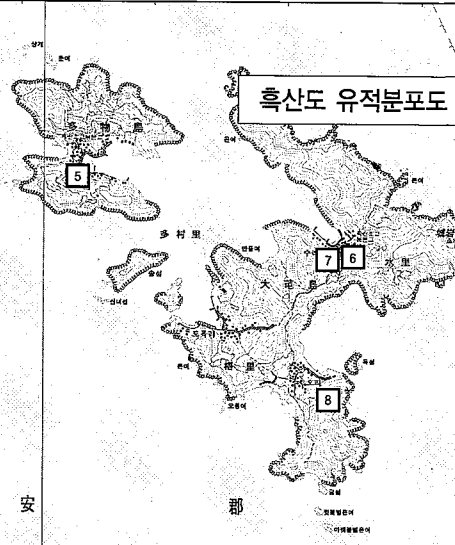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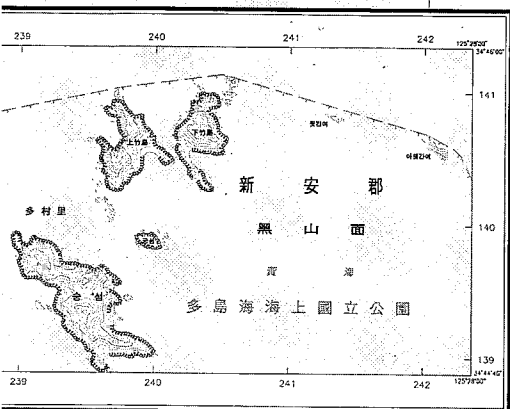
흑산도 유적분포도 1

32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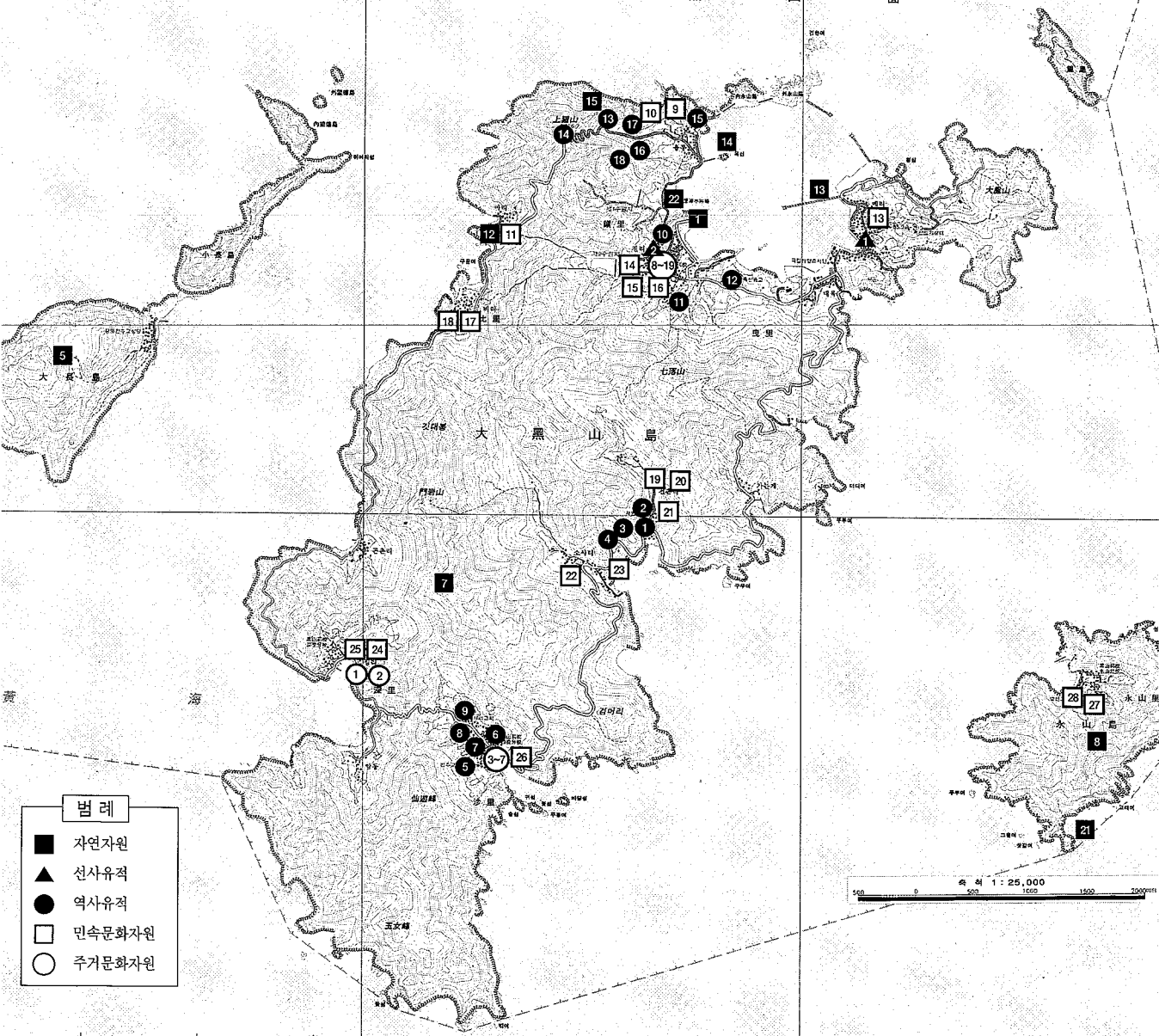
- 자연자원
- ▲ 선사유적
- 역사유적
- 민속문화자원
- 주거문화자원



新安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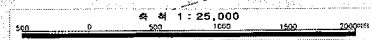
多島海海上國立公園

黑山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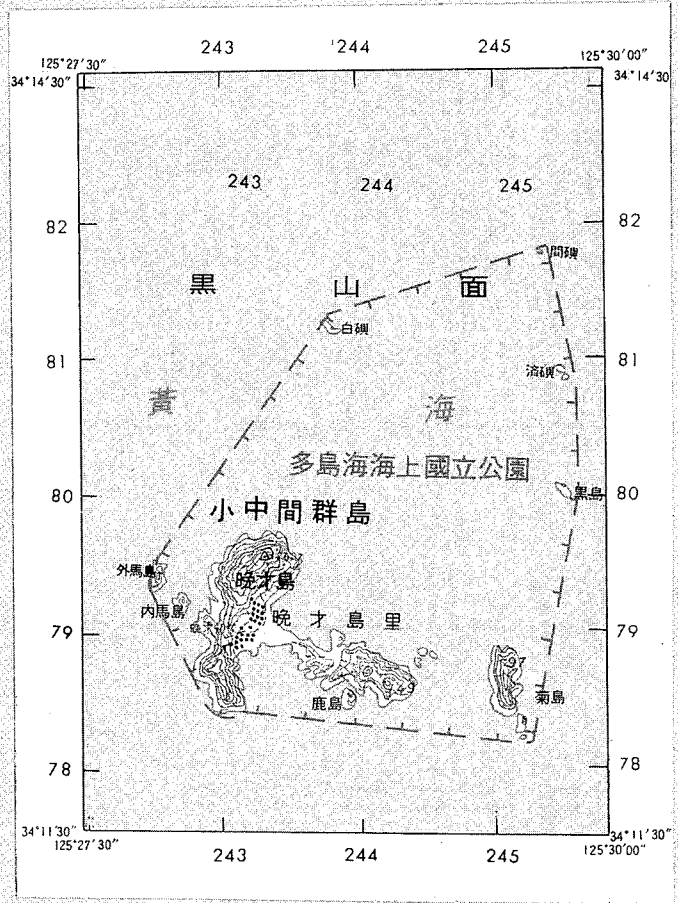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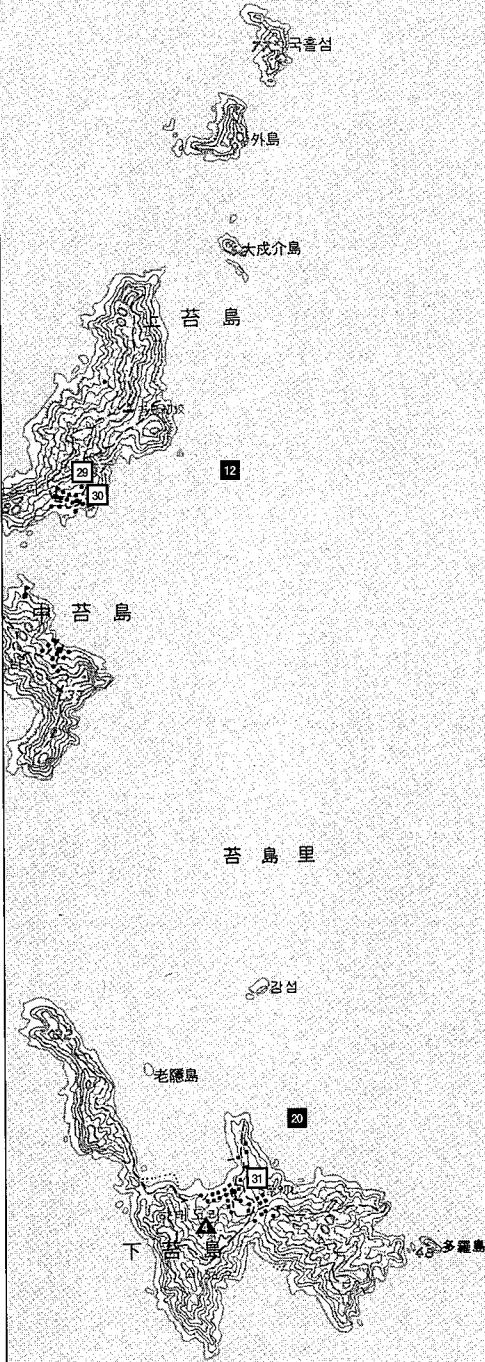
범례

- 자연자원
- ▲ 선사유적
- 역사유적
- 민속문화자원
- 주거문화자원



흑산도 유적분포도 3

新 安 郡



- 범례
- 자연자원
 - ▲ 선사유적
 - 역사유적
 - 민속문화자원
 - 주거문화자원

小局蛇島



新安郡

▽5 두익서



黑山面

19



빈치얏말

黃



橫瀾山

6

小黒山島



9

可居島屋

2

35

36

37

納德嶼

범례

- 자연자원
- ▲ 선사유적
- 역사유적
- 민속문화자원
- 주거문화자원

2부

문화유적 자원화 방안

新安

I. 머리말

(1) 사람은 어떤 이유로 관광여행을 하는가?

○ 사람이 관광여행을 하는 이유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음

- 첫째, 자신의 일상생활권에서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것'을 다른 곳에서 경험하기 위해.
- 둘째, 일상생활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 받고, 재충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
- 셋째, 견문을 넓힘으로써 지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2) 문화유적의 자원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

○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차별화 된 자원화

- 관광객은 자신이 방문한 여행지에서 어떤 특별한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음. 따라서 문화유적의 자원화는 이러한 관광객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추진함.
- 모든 지역의 자연과 문화유적은 나름대로의 차별화 된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문화유적의 자원화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함. 사람들은 차별화 된 특성이 없는 관광지를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특별히 찾지도 않음.
- 신안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도서로만 구성된 자치단체란 지역적 특성을 살려 전통 문화 마을을 조성하여 어촌 체험공간으로 제공함.

○ 감동이나 마음의 위안을 주는 자원화

-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 받기 위해 여행을 하므로 문화유적의 자원화는 여행객에게 마음의 위안을 줄 수 있는 감동적인 시연을 적극 발굴하여 이를 주요 테마로 활용함.
- 여행객이 불편함이 없이 답사여행을 할 수 있도록 유적지 주변환경, 유적지 안내판, 도로표지판 등을 정비함.
- 외지 여행객이 고향에 온 것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환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함.

○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는 자원화

- 역사·문화적으로 의미가 큰 유적, 설화, 민속 등을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원화를 추진함. 고인돌 옆에 움집을 짓고 석기를 제작해볼 수 있는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문화유산의 파괴현장을 잘 보존하여 문화재보호를 위한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함.
-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관광기념품, 우편엽서, 컴퓨터게임, TV 드라마 등을 제작·판매함.

○ 지역주민이 주체가 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자원화

- 지역 문화유산의 자원화는 관광객에게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었는가와 함께 지역주민에게 얼마만한 경제적 이익과 자긍심을 심어주었는가에 따라 그 성공 여부가 평가됨.
- 지역문화의 주체는 지역주민이므로 문화유산의 보존과 정비 및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에 있어서 지역주민이 자긍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함.
- 지역주민들에게 '버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특산물 및 문화유산을 관광기념품으로 적극 개발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수산물 판매 및 민박 등을 활성화시킴.
- 문화유적의 자원화를 통해 문화적 소외지역인 도서지방의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문화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도서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의 터전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음.
-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지역의 자연·문화유산을 관광 매력물로 적극 개발하고, 전통 농·어업에 관광산업을 접목하여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임.

(3) 문화유적의 자원화 여건

○ 불리한 여건

- 신안군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은 국가지정문화재가 송·원대유물매장해역, 홍도천연보호구역, 칠발도해조류번식지, 구굴도해조류번식지 등 총 4건에 불과함.

- 신안군은 한반도의 서남단에 위치한 도서인 관계로 교통이 크게 불편하고, 주요 관광시장(대도시지역)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함. 아직도 신안군 관광의 대부분은 '바람'이 결정함.
- 소규모 도서인 관계로 관광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한 투자비용은 많이 소요되는 반면, 적정 규모의 고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는 어려움. 관광수요가 여름 휴가철에 집중되어 관광사업의 투자효율성이 크게 떨어짐.
- 급속한 인구감소와 노령화, 열악한 지방제정 등으로 문화유적을 보존·관리하고 자원화 하는데 한계가 있음.

○ 유리한 여건

- 육지지역과 전혀 다른 자연·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어 색다른 것들을 경험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음.
 - 아름답고 오염되지 않은 자연, 최고품질의 수산물, 어촌의 색다른 경관과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음.
 - 도서지방은 민속문화의 보고로 다양한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음. 예로서 도서지방에는 수많은 당집과 당숲이 남아있음.
-
- 육지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난대수종(상록활엽수)의 생태경관을 경험할 수 있음.

(4) 문화유적의 보존상황 및 보존방향

○ 도서지방은 문화유적의 파괴현장

- 도서지방의 경우 문화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귀중한 문화재가 무분별하게 파괴되고 있음. 수십 기의 고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수백 기의 고인돌은 제방을 쌓는데 사용되어버림.
- 도서지방은 육지지역에 비해 문화유적의 보존 및 관리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과 비용을 필요로 하나, 그 활용도는 훨씬 떨어짐.
- 도서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인하여 민속문화의 대부분은 조만간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음.

○ 문화유적의 보존방향

- 도서지방의 문화유산은 섬이라는 특수한 자연환경에서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유산의 주변 환경을 함께 보존하는 지혜가 필요함. 예로서 남해 도서지방의 독특한 난대수종으로 이루어진 '당숲'을 잘 보존하는 것은 당산신앙의 전승·보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함.
- 도서지방의 문화유산은 그 보존·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미 상당부분 훼손되어 원상태로의 복원이 어려운 유물이나 훼손될 처지에 놓인 유물은 한 곳에 모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함.
- 문화유적의 훼손된 부분은 최대한 원형대로 복원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함. 문화유적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문화유적을 보전하는 지름길이기도 함.

(5) 무엇을 어떻게 관광기념품으로 개발할 것인가?

○ 고유의 지역성을 갖는 것을 관광기념품으로 개발

- 관광객은 자기가 여행한 관광지를 오래도록 기억하며, 여행지에서의 즐거움을 지속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관광기념품을 구입함. 여행에서 기념품을 구입하는 것은 관광활동의 커다란 한 부분임.
- 따라서 오직 해당 지역에만 존재하는 것을 관광기념품으로 개발하고, 그 기념품은 해당 관광지에서만 판매하여야 함.
- 단지 귀하고 고급스러운 것보다는 역사·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을 선발하여 관광기념품으로 개발함. 전해오는 설화에 등장하는 피리를 관광기념품으로 개발하는 것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음.

○ 상품성 있는 관광기념품의 개발

- 관광기념품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지역적 특성이 분명한 상품, 가볍고 휴대에 편리한 상품, 장기간 보전할 수 있는 상품, 견고하고 실용적인 상품, 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된 상품을 들 수 있음.

- 흑산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흑산홍어'이지만 일반 관광객이 기념품으로 구입해 가기는 쉽지 않음. 흑산 홍어를 소량으로 진공 포장할 경우 관광기념품으로 손색이 없을 것임.
- 문화유산을 관광기념품으로 개발하여 판매할 때는 자세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거기에 담긴 사연과 의미를 관광객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6) 홍보 및 이미지 개발

○ 차별화 된 홍보전략 수립

- 신안군은 지리적 특성상 도서로만 구성된 자치단체이고, 각 도서는 나름대로 차별화 된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여타 지역과는 다른 차별화 된 홍보 및 지역이미지 개발전략을 추진해야 함.
- 섬 지방이란 특성을 살리기 위해 수많은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대규모 관광지의 모습과 고즈넉한 신안군 섬의 해변 휴양지를 상호간에 비교하여 제시하며, "당신은 어디로 휴가를 떠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내용으로 관광홍보를 실시함.
- 관광홍보에 있어서 인터넷 등의 첨단기술을 십분 활용함. 즉, 설화나 문화유적에 깃든 사연을 컴퓨터게임으로 개발하거나 사이버 堂을 짓거나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음.

○ 문화유적 자원화의 모범 사례지역으로 개발

- 신안군을 지역의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훌륭히 활용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지역으로 개발함. 이를 통해 홍보효과와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음.
- 개별 여행객들이 쉽게 유적지를 찾아와 둘러볼 수 있도록 통일된 디자인으로 문화유적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군 홈페이지에 지역의 문화유적에 대해 안내·설명을 해줄 수 있는 안내 도우미의 연락처를 명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임.
- 문화관광 시범마을을 지정하고, 문화유산 해설 도우미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
- 마을의 문화유적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곳에는 정자를 설치하고 정자나무를 심어 이 곳을 '문화의 쉼터'로 개발해 나감.

2. 자원의 특성과 의미

○ 흑산도는 고대 국제해양도시 및 유배지로의 역할을 수행했던 역사의 섬

- 흑산도는 목포항에서 뱃길로 92.7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초고속 쾌속선으로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됨.
- 흑산도의 예리, 진리, 읍등은 만입된 내해에 위치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시대를 달리하며 흑산도의 중심 항구 역할을 수행함. 읍등은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한·중 교역의 중심지, 진리는 조선시대에 진이 설치된 곳, 그리고 예리는 일제시대 이후 어업전지기지로 개발된 곳임.
- 흑산도는 과거 한·중 횡단항로의 중간 기착지로서 도당 유학생, 외교사신, 무역선 등이 반드시 거쳐가는 곳이었으며, 관사터 등 관련 유적이 남아있음.
- 흑산도는 그 옛날 목포에서 배를 타면 보름씩 걸려 도착하던 곳으로 대표적인 유배지였음. 따라서 흑산도에는 유배와 관련한 역사·문화 유산 및 유적이 많이 남아 있음.
- 현재 읍등과 진리 마을은 문화유적의 훼손 정도가 심각하여 빠른 시간 내에 발굴을 실시하고 문화유적의 보존을 위한 조치가 행해져야 할 것임.

○ 홍도는 다도해의 보물섬

- 홍도는 목포항에서 뱃길로 113.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초고속 쾌속선으로 2시간 10분이 소요됨.
- 홍도는 희귀한 동식물의 서식지로 자연의 모습 그대로를 보존하기 위해 1965년에 천연기념물 170호로 지정되었으며, 1981년에는 이 섬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호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음.
- 홍도는 1970년대부터 신이 빛어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기 위해 몰려든 관광객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 해양관광지로 발전하였음.

3. 자원화의 기본방향

○ 흑산도는 다도해 관광의 중간거점으로 개발함

- 흑산도를 진정으로 섬다운 섬, 어촌다운 어촌으로 개발하여 다도해 관광의 거점으로 개발함. 흑산도는 육지로부터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하여 섬의 분위기를 느끼기에 적합하고, 섬의 규모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크며, 빼어난 자연자원과 함께 역사·문화유산이 풍부함.
- 흑산도는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시킬 수 있는 관광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해상관광의 거점기능을 수행토록 함. 이와 관련하여 홍도의 관광편의시설 기능을 점차적으로 흑산도로 옮김.
- 흑산도의 주요 중심지인 예리, 진리, 읍동을 각자 개발시기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차별화시켜 개발함. 이를 위해 진리와 읍동은 진터와 판사터를 복원하고 예리는 어항이 번성하던 시기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위락공간으로 차별화시켜 개발함.

○ 홍도는 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에 맞게 자연환경을 철저히 보호함

- 홍도는 섬 전체가 급한 경사지를 이루고 있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 관광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홍도는 생물자원과 자연경관을 철저히 보존하는데 중점을 둬.
- 현재 홍도에는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불법건축물이 과도하게 들어서 섬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 불법 시설물은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숙박 및 위락시설도 장기적으로 감소시켜나감으로써 환경에 주는 부담을 줄여나감.
- 홍도 자원화의 가장 바람직한 길은 자연환경과 자연경관을 철저히 보존하여 그 자체가 갖고있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것임. 홍도에서의 관광편의시설 기능을 상당부분 흑산도로 이전시켜 업자들은 새로 건설하는 흑산도의 관광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함. 이는 홍도와 흑산도의 관광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천연보호구역 및 국립공원 지정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이기도 함.

4. 홍도 · 흑산도 관광의 현황

- 신안군의 대표적 관광지인 홍도와 흑산도의 관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이 지역 자연 · 문화유산의 자원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함.

1) 여행객의 구성

- 홍도 · 흑산도를 찾는 단체 관광객의 70~80%는 서울 · 경기지역 주민들이며, 이들의 대부분은 40~50대 부부동반 여행객임. 그러나 방학기간에는 자녀를 동반한 가족여행의 비중이 늘어남.
- 노년층의 효도관광은 도서지역 여행에 대한 신체적 부담감 때문에 소수에 그치고 있음.
- 홍도 · 흑산도 여행객의 구성은 개별여행과 단체여행이 각각 50% 정도임.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단체여행객보다는 개별여행객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2) 패키지 여행상품의 내용 및 홍보

- 목포지역 여행사들은 연 2회(봄, 가을) 홍도 · 흑산도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그 내용을 전국의 여행사에 우편으로 발송함. 이전에는 여행사 임직원이 서울과 부산의 여행사를 직접 방문하여 홍보하였음.
- 홍도 · 흑산도 여행은 태풍 등 날씨의 영향을 거의 절대적으로 받기 때문에 예정된 여행일정대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서울에서 출발하는 홍도 · 흑산도 패키지여행상품은 2박 3일이 80%, 1박 2일이 약 20% 정도임.
- 여행 일정은 서울출발(무궁화열차, 07: 05) →목포 도착(12: 20) →홍도로 출발(쾌속선, 13: 20) →홍도(1박) →홍도에서 흑산도로 출발(16: 00) →흑산도(1박) →목포로 출발(11: 00) →목포 도착(13: 00) 후 서울로 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홍도 · 흑산도 패키지여행은 홍도의 유람선관광, 흑산도의 유람선관광 및 일주도로 여행, 해산물(홍어, 활어회 등) 시식 등으로 거의 유사하고, 관광편의시설의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행품질의 차별화가 어려운 형편임. 따라서 덤핑관광이 성행하고 있음.
- 관광객의 대부분은 흑산홍어나 활어회 등 지역 특산물을 맛보는데 관심이 많고, 문화 · 자연유

산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흑산도의 자연·문화유산을 둘러볼 수 있는 겔로퍼택시를 이용한 흑산도 일주도로관광(선택여행으로 관광객이 별도로 비용 부담)에는 대략 20% 정도의 여행객만 참여하고 있음.

3) 패키지 여행상품의 운영실태

- 서울 등 타 지역 여행사로부터 관광객을 넘겨받아 행사를 치르는 목포지역 여행사(랜드사)는 10여 개 정도임. 모집 여행객의 수가 많을 때는 모객을 한 본사의 직원이 여행객을 직접 인솔하나, 대부분의 경우는 서울에서 기차 편으로 여행객을 보내면 목포의 현지 여행사에서 손님을 받아 모든 여행일정을 책임지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홍도·흑산도 관광객을 모객하여 송출하는 여행사는 흥익여행사, 나리투어, 하나관광, 지구투어, 세일여행사 등으로 중소규모의 여행업체가 대부분임. 대규모 여행사의 경우는 국내여행 보다는 해외여행에 치중하고 있어 홍도·흑산도 여행상품에는 관심이 적음.
- 부산·대구(경상도)지역의 경우는 열차 편을 이용한 패키지 여행상품의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버스를 통해 이동하며, 목포지역 여행사와는 관련 없이 (버스기사)가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단체여행의 경우 募客을 한 여행사가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와 목포지역 여행사가 여행객을 넘겨받아 행사를 치르는 경우가 각각 거의 같은 비중을 차지함.
- 서울지역 여행사는 단체관광객으로부터 받은 금액(1인당 22만원 정도) 가운데 열차비용과 수수료(전체 여행경비의 약 10%)를 공제한 금액을 목포지역 여행사(랜드사)로 송금하고, 목포지역 여행사는 이 금액으로 모든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
- 이러한 방식으로 목포지역 여행사가 2박 3일 일정의 홍도·흑산도 패키지여행을 실시할 경우 관광객 1인당 대략 5천 원에서 1만 5천 원 정도의 이윤(평균 1만원 미만)을 남기는 것으로 조사됨.
- 목포지역 랜드사들은 이러한 덤핑관광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관광객 1인당 3만원 정도의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여행경비가 책정되어야 정상적인 홍도·흑산도 패키지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4) 패키지 여행상품 운영의 문제점

- 흥도와 흑산도는 숙박시설의 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내·외국인으로부터 많은 불평을 듣고 있음. 특히 흥도의 경우는 숙박시설의 대부분이 불법 건축물이어서 시설개선에 애로가 많은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
- 여행사들의 패키지 여행상품의 내용이 서로 유사하다보니 여행경비를 낮추는 방향으로 여행사 간 경쟁이 심화되어 결국은 덤핑여행으로 이어져 여행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의 수준을 높이고, 문화유산답사와 생태관광 그리고 다양한 체험관광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여행상품의 내용을 다양화·차별화 시켜야 함.
- 무궁화호 열차 목포 도착시간(12: 20)과 쾌속선 출발시간(13: 20) 사이가 너무 짧아 점심식사를 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광객은 열차 내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있음. 목포여객 터미널 앞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여행객들이 간단히 요기를 할 수 있는 분식이나 김밥을 판매하는 곳이 크게 부족함.
- 흑산도의 경우 관광 성수기에는 대부분의 택시가 수입이 좋은 일주도로 관광에 치중하기 때문에 관광객은 물론 지역 주민도 택시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음.
- 여행사에서 여행상품을 홍보할 때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만한 “특별한 것”이 필요함. 가령 ‘섬마을 동백꽃 기차여행’ 같은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봄철에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리는 대규모 동백나무 군락지의 조성이 필요함.

5. 자원화 계획

1) 핵심복합사업

(1) 고대 국제해상도시 읍동의 재발견

① 자원의 개요 및 가치

○ 읍동마을은 고대 동아시아 횡단항로 상의 국제해양도시

- 상리산성 바로 아래에 위치한 읍동마을은 통일신라에서 고려에 이르는 시기에 동아시아 횡단

항로 상의 중간기착지로서 국제해양도시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곳임.

- 상라봉의 제사터와 무심사선원 절터는 항해자들이 안전 항해를 기원하던 해양신앙의 처소였고, 관사터는 사신이나 상선의 선원들을 위한 숙소 및 편의시설로 활용되었던 곳임.
- 상라산성 아래 기슭에 위치한 무심사선원 터에는 삼층석탑과 석등, 건물지 축대의 일부가 잔존함. 읍동마을에는 관사 터일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기의 건물지(축대의 일부 잔존)와 각종 유물산포지가 존재함.
- 읍동마을에서는 흑산도가 과거 국제 해상무역에서 중요한 거점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입증하는 관련 유물들이 다수 수습되고 있음. 특히 이 곳 유적지에서 수습된 유물은 완도의 청해진 유적지에서 수습된 것과 상통하는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이는 장보고가 흑산도를 완도와 더불어 중요한 해양거점으로 활용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임.

○ 탑당은 불교사찰 터에 들어선 민속신앙의 성소

- 읍동의 탑당은 원래 无心寺라는 절이 있었던 곳으로 지금은 마을과 주민 각자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토속적인 민간신앙의 성소로서의 가치가 큰 곳임.
- 지금의 탑당에는 고목나무(당목) 한 그루, 석탑 1기, 석등 1기가 남아 있으며, 탑 앞의 감실과 산신 감실은 없어졌고, 돌담 역시 헐려지고 대신 보호 철책이 빙 둘러져 있음.
- 당신화의 내용은 의리 있고 힘센 장사인 탑영감이 흑산도 주민들을 약탈하고 괴롭히는 해적들을 물리쳐 흑산도를 구한 영웅적 인물이 되어 후에 탑당의 당신이 되었다는 것임.

○ 상라봉의 봉수대와 제사터 유적은 흑산도가 동아시아 횡단항로의 중간기착지였음을 대변함

- 흑산도 일주도로를 따라 구불구불 이어지는 동백꽃길을 오르면 봉수대가 있는 상라산 정상이 나옴. 상라봉에서는 흑산도는 물론 홍도를 비롯한 다도해의 전경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음.
- 서궁이 쓴 『고려도경』의 기록에 의하면 흑산도는 옛날 사신의 배가 머물던 곳으로 아직도 館舍가 남아 있으며, 중국 사신의 배가 이 곳에 도착하거나 지나갈 때는 언제나 산마루에서 봉화불을 밝혀 王城에 까지 그 사실을 알렸고, 이 섬은 또한 나라 안의 대 죄인으로 죽음을 면한 자들이 유배되어 온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음.
- 상라봉은 선원들이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던 제사터로 해양신앙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

- 이 곳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던 鐵馬, 주름무늬 병, 주름무늬 병편 등 제사관련 유물 다수 수습되었음.

○ 유배지 흑산도 속의 감옥 섬, 옥섬

- 읍동마을 앞의 방파제를 따라가면 과거 흑산진에서 감옥으로 사용하였던 조그만 '옥섬'이 나옴. 비록 소규모의 볼품없는 섬이지만 이 곳은 여행객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매우 가치있는 유적지의 하나임.
- 옥섬은 해송과 동백나무로 뒤덮여 있고, 해안에 斷崖가 형성되어 있으며, 마을 앞 바닷가로부터 대략 150m 정도 떨어져 있음. 이 섬에는 죄수가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동굴(약 2m 깊이)과 죄수가 식량을 얻기 위해 낚시를 했던 거북머리바위 등이 있음.
- 이 옥섬에 죄인을 넣어 놓고 몇 달간이나 식량을 주지도 않아도 물고기를 잡거나 해조류 등을 채취하여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함.
- 옥섬은 물이 들 때는 두 개의 섬으로 되지만, 물이 빠질 때는 하나의 섬으로 되어 걸어다닐 수 있음.
- 옥섬은 그 크기나 역사적 의미에 있어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알카트라즈 섬(Alcatraz Island)과 매우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음.
- 알카트라즈는 1933년 미국 연방 형무소로 지정된 이후 30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질 나쁜 범죄자를 수감한 곳으로 악명을 떨쳤으며, 살아서는 결코 탈옥할 수 없는 '악마의 섬'으로 불렸음.
- 이 곳에서 옥살이를 한 유명한 인물로는 마피아의 제왕이었던 '알 카포네', 유괴범으로 악명 높았던 '머신건 케리' 등을 들 수 있음. 이 섬은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영화 '더 록(The Rock)'으로 더욱 유명해져 관광지로 활성화되었음.

② 주요 사업내용

○ 읍동을 사적지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발굴조사를 통하여 복원함

- 읍동마을은 과거 동아시아 해상교역의 중간 거점으로 그 역사·문화적 의미가 큰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 유적지가 무분별한 도로공사나 건물의 신축 등으로 급속히 파괴되어가고 있음.
- 읍동마을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는 과거 동아시아권 해상교류의 면모를 밝힐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임. 따라서 읍동마을 일원을 사적지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장기적으로는 관사터를 비롯한 관련 시설들을 복원하여 특색 있는 볼거리로 개발함.

- 읍동마을은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발굴작업을 실시하여 국제적인 이목을 집중시키고, 관광객들로 하여금 발굴현장과 복원현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발굴작업 그 자체를 관광상품화 함.
- 읍동의 탐당은 불교와 전통민속신앙이 결합된 매우 흥미로운 곳임. 따라서 현재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 탐당 일원을 원래대로 복원하여 마을 주민에게는 소원을 비는 聖所로 관광객에게는 해양문화의 학습장소로 활용함.

○ 상리봉 봉수 재현

- 과거 중국에서 사신이 올 때 맨 처음 흑산도에서 봉수를 피워 주변 도서에 그 사실을 알렸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지역축제나 국제행사가 있을 때 이를 재현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관광자원화 함.
- 소위 '다도해 섬마을 축제'를 개최할 때 상리봉에서 불을 밝혀 신안군의 여러 도서에 계속적으로 알려 최종적으로 압해도에 도달하게 하는 행사를 마련함.
- 봉수의 방법은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현대의 문명의 이기인 첨단 조명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임.
- 봉수와 관련한 이벤트행사를 통해 신안군의 지명도를 높임과 동시에 도서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도움.

○ 鐵馬를 관광기념품으로 개발함

- 상리봉 제사터에서 발굴된 철마는 흑산도의 관광기념품으로 개발할 가치가 매우 큼. 특히 철마는 여행객(항해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수호신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그 의미를 담아 관광기념품으로 개발함.
- 철마를 목걸이, 귀고리, 열쇠고리, 핸드폰고리, 자동차 악세사리 등으로 제작하여 관광기념품으로 판매함.
- 철마는 선원들이 항해의 안전을 빌기 위해 제사(당제 등)를 할 때 神體로 사용하던 것으로, 흑

산도 상라봉 제사터에서 철마 3점이 수습된 바 있음.

- 철마는 월출산 천황봉 제사터, 영광군 안마도, 완도군 금일도, 진도 철마산성, 고흥군 나로도 등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흑산도에서 출토된 철마는 과거 국제항로의 연구와 관련하여 그 의미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음.
- 상라산 제사터에서 다량의 제기유물과 함께 수습된 철마는 머리, 몸통, 다리만을 형식적으로 표현하였으며, 길이는 10cm 내외임.

○ 한국의 알카트라즈, 옥섬을 흔들다리로 연결

- 옥섬은 읍동마을 선착장에서 방파제가 설치되어 끝에서 30m 정도만 본 섬과 연결되어 있지 않음. 아직 연결되지 않은 이 구간을 흔들다리로 연결시키고, 사람들의 보행이 가능하게 한다면 '감옥 섬'이라는 특별한 주제를 가진 관광명소가 될 것임.
- 옥섬 가까운 곳에 전통감옥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의 감옥 체험 장소로 활용함.
- 진리당의 경우와 같이 인터넷상에 '사이버 옥섬'을 짓고, 옥섬에 가두어야 할 역사적 인물 또는 사회악을 인터넷에서 주기적으로 공모함. 이를 통해 흑산도와 옥섬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음.

○ 水死體를 위한 제단 설치

- 읍동마을 앞의 영산도(내영산도와 외영산도)에는 파도에 떠밀려온 水死體를 함께 묻은 표류자들의 무덤이 있음.
- 옛날 사람들은 이런 수사체를 정성껏 묻어주고 돌보지 않으면 재앙을 맞이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음.
- 따라서 읍동 바로 앞의 영산도에 표류자들을 위한 無名神位와 제단을 설치하고 명복을 비는 공간으로 활용함. 이 곳을 옥섬과 연계하여 볼거리로 제공할 경우 해양문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 흑산도 관광의 묘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함.

(2) '신들의 숲' 조성사업

① 자원의 개요 및 가치

- 진리 당은 해양 민속신앙의 보고

- 진리 당은 흑산도의 本堂으로 민속신앙의 중심지로서의 格을 가진 곳임. 주신은 당각시이고, 上堂 건물은 그 전의 집을 헐고 1938년 기와집으로 새로 지은 것임.
- 진리당에는 얼마 전까지 소저아기씨(당각시), 상궁부인, 제석님, 산중 처사님, 도령(총각화상)의 종이 위패가 있었고, 이 당의 또 다른 神體인 성주단지, 쌀 뒤주, 들들 등이 놓여져 있었음. 그러나 몇 해 전 화재 이후 이러한 유물들은 자취가 없어지고 다만 한지로 만든 '당베' 만 걸려 있음.
- 당집 앞마당에는 총각화상이 떨어져 죽었다는 노송과 그의 무덤이 있고, 당 아래편 마을 쪽에는 지금은 폐쇄된 당샘이 있음. 한편 당집에서 조금 떨어진 바닷가에는 바다의 신인 용왕이 좌정한 용신당이 있음(피리 부는 총각이 죽어서 용신이 되었다고도 함).
- 당집 뒤편에는 오색 천이 걸린 나무숲이 있고, 그 아래에 작은 감실(산신당) 제단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곳은 뱃사람들이나 바닷일을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개인 의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소임.
- 진리당은 TV 드라마 '전설의 고향'의 주무대로 등장하기도 하였음.

○ 진리의 당숲은 민속신앙의 이유에서 인위적으로 조성된 귀중한 문화유산

- 진리당과 용왕당이 위치한 당숲에는 수형이 아름다운 소나무(육송)와 혼을 불러들인다는 초령목이 있음. 이 곳은 당숲으로 신성시되었기 때문에 수목이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었음.
- 바다로 돌출한 당숲의 양쪽에는 진리해수욕장과 수산물 양식장이 위치하고 있어 매우 아름다운 바다(해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으며, 해수욕과 양식장 체험을 하기에 적합한 곳임.
- 당숲을 따라 산책로가 나있으나, 잡목들이 많이 우거져 숲 가꾸기를 해주어주어야 할 시기가 되었음. 따라서 조경 전문가로 하여금 이 곳을 잘 정비하고 가꾸도록 함.
- 천연기념물 제 369호로 지정되었던 초령목(일명 귀신나무)은 고사한 상태이나, 그 주위에 어린 초령목 30여 그루가 자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 나무가 '초령목'이라 불리게 된 연유는 일본 사람들이 신단 앞에 초령목 가지를 늘어 놓고 신령을 불러낸 데서 비롯되었다고 함. 흑산도 주민들 역시 초령목의 가지를 꺾어 불전(재단)에 꽂아 영령을 부르는 데 사용하였음.
- 초령목은 목련과에 속하는 상록활엽수로 학명은 *Michelia compressa* (Maxim)이며, 일본과

대만 등에서 자생함. 이 나무는 봄철에 가지 끝에 흰 꽃이 피며 후에 주머니 형태의 열매를 맺음. 최근에 초령목 군락지가 제주도에서 발견되기도 하였음.

② 주요 사업내용

○ 피리, 들돌, 뒤주 등의 神體를 복원하고 관광기념품으로 개발함

- 마을 사람들의 전언에 의하면 피리를 불다가 소나무에서 떨어져 죽은 총각의 무덤을 후에 파보았더니 총각의 시신은 감쪽같이 없어져 버리고 총각이 불던 '피리' 만 나왔다고 함.
- 설화 속의 총각이 불었던 피리를 '신의 피리' 라는 의미로 '神笛' 이라 이름 붙이고, 이 피리를 불거나 소지하고 있으면 사랑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관광기념품으로 개발함. 신적은 옥이나 대나무 등으로 다양하게 제작하며, 흑산도에서만 판매토록 함.
- 당에 모셔졌던 '들돌' 은 일종의 神體로서 종교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매력을 갖고 있음.
- 따라서 들돌은 원래의 것을 찾아다 놓던지 아니면 유사한 돌을 구하여 신격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원래의 것을 대신토록 함. 원래 이 들돌은 바다에서 쿵쿵 소리를 내는 신비한 돌이 있어 신성한 공간인 堂에 모셔놓은 것으로 특별한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특히 몸이 쇠약한 사람이나 70이 넘은 노인이 이 들돌을 만지면 정력이 좋아져 아들을 낳을 수 있고, 아이(아들)를 낳지 못하는 여성이 이 들돌을 만지고 합궁하면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소문이 전해오고 있음.
- 한편 이 당에는 커다란 '뒤주' 가 놓여져 있었는데, 이 뒤주에는 쌀이 떨어질 날이 없이 항상 넘쳐났다고 함. 이 뒤주는 들돌과 함께 지금은 없어져버렸지만 다시 복원시킬 필요가 있음. 특히 뒤주는 풍요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이 곳에 쌀이나 현금을 넣을 경우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심리적 위안을 삼을 수 있도록 함. 또한 여기에서 모금된 것은 진리 당을 보존·관리하는데 요긴하게 사용함.

○ 진리 당을 사랑의 聖所로 의미부여 함

- 진리당 처럼 하나의 당에 처녀신과 총각신이 함께 공존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신(총각신)의 무덤이 당집 근처에 있는 경우도 거의 없음. 이는 절대자인 신이라 하여도 남녀간의 사랑만큼

- 은 거부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
- 따라서 이 진리당을 연인 또는 부부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사랑의 聖所'로 의미를 부여하고, 이 곳에서 하는 사랑의 맹세는 그 효험이 매우 클 수밖에 없음을 널리 알림.
 - 인터넷에 사이버 진리당을 짓고 이 곳을 젊은이들이 사랑의 메시지(E-mail)을 주고받는 장소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흑산도를 널리 홍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진리당을 찾아오도록 함.
- 진리당숲을 '신들의 숲'으로 의미부여하고 민속신앙의 명소로 자원화 함
- 진리당숲을 '신들의 숲'이라 명명하고 이 곳에서 당신제를 재현함으로써 민속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함.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 마을숲(당숲)

- 마을숲은 마을의 역사, 문화, 신앙 등을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조성되어 보호 또는 유지되어 온 숲을 말함. 따라서 마을숲은 야생의 숲과는 달리 단일 수종으로 구성되거나 單層林인 경우가 많음.
-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이러한 마을숲과 깊은 관계를 맺어왔음. 신라의 국호가 鷄林인 점, 박혁거세의 박(朴)이 한자의 의미로 볼 때 “卜을 치는 木”로 해석되는 점, 정자나무로 흔히 쓰이는 느티나무의 별칭이 '槐木', 즉 귀신나무인 점, 그리고 단군신화에 神檀樹가 등장하고 있는 것들이 그 예임.
- 한편 마을 숲은 야생의 숲이 아니라 인위적인 조림으로 출현한 숲이기 때문에 반드시 후계림이 조성되어야만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존재이므로, 자연상태로 방치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가꾸어나가야 함.
- 당숲은 마을숲의 한 종류로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당집이 세우고 마을의 번영과 除厄, 招福 등을 위하여 洞祭를 행하는 성소임.
- 특히 해안지방의 경우에는 토착신앙적 이유에서 조성된 숲이 대부분인데, 이는 어촌 특유의 마을 문화적 맥락에서 숲이 출현하였기 때문임. 토착신앙적 배경의 마을숲을 지칭하는 일반적 지명들로는 수막살이, 당숲, 당산숲, 城隍林, 神林 등을 들 수 있음.

- 현재의 진리 당숲은 완전 개방된 형태를 하고 있어 신성공간을 출입할 때 행하는 '통과의례' 등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나무울타리를 조성하여 자연스럽게 출입구를 조성하고, 이곳에서 통과의례를 행하도록 하고 주의사항을 숙지시켜 신성공간을 느끼도록 함.
- 흑산도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당신제를 지내지 않는 곳의 당신들을 신들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이 곳 당숲으로 옮겨 함께 모시도록 함.
- 현재 당제를 지내지 않는 곳의 흑산도의 당신들을 원래의 고향, 즉 '신들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이 곳 진리당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함께 모시고 성대한 당제를 지냄.
- 당숲은 문화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생태적으로도 매우 귀중한 자원이므로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가꿈. 초령목을 대규모로 번식시켜 흑산도의 특산물로 개발함.

2) 개별 사업

(1) 흑산도 예리항

① 자원의 개요 및 가치

○ 예리항은 어업전진기지의 옛 영화를 간직한 유흥장소

- 예리항은 한 때 우리 나라에서 규모가 가장 큰 조기파시가 열리던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어업전진기지였음.
- 당시 이 곳은 밤늦도록 불야성을 이루는 환락가를 형성하였고, 비록 그 정도는 덜하지만 상업 및 유흥지역으로서의 성격은 지금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음.
- '흑산도 아가씨' 등 섬을 배경으로 한 가요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자신이 섬 여행을 하고 있다는 색다른 느낌을 강하게 갖도록 함.
- 예리항은 과거 어업전진기지였던 시절의 영화를 뒤로하고 갈수록 빛을 잃어 가는 항구도시의 모습을 하고 있음. 현재는 홍도관광이 활성화되면서 관광지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 탈바꿈하고 있는 과정에 있음.

② 자원화 방안

○ 어업전진기지 및 관광항구로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정비

- 과거 국내 최대의 파시와 어업전진기지로서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과거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보존·정비함.
- 복고풍의 선술집과 여관거리는 그 자체가 예리항의 역사·문화적 유산이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매력적인 관광자원임.
- 예리항에 인접한 동산(체육공원)은 여행객들이 배편을 기다리며 예리항을 조망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며, 이 곳에는 수형이 아름다운 수목도 자라고 있으나 진입로가 정비되지 않아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이 곳에 등대 모양의 개성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주변의 조경에 힘을 기울인다면 새로운 관광명소로 태어날 수 있을 것임.
- 항구 내에서 노젓기대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단합을 꾀하고,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함.

○ 가요공원의 조성

- 예리항은 絶島이라는 지리적 격리성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사람간의 헤어짐과 끝없는 기다림의 추억이 느껴지는 곳임. 특히 예리항은 어업전진기지로 이러한 분위기를 잘 대변하고 있음.
- 사람들은 대중가요의 노랫말에 등장했던 섬 마을의 이미지를 느껴보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으며, 흑산도 상라봉에는 ‘흑산도 아가씨’ 노래비가 세워져 있음.
- 우리 나라에는 현재 가요박물관이 설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흑산도에 섬을 주제로 한 야외 가요박물관(전시관)을 조성하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섬마을 선생님, 흑산도 아가씨, 가슴 아프게 등 도서지방을 배경으로 한 구성진 가요를 주제로 한 노래비와 작곡가 동상 및 유품 등을 전시하는 가요공원을 조성하도록 함.
- 동백꽃과 해당화가 개화하는 시기에 맞춰 관련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섬을 주제로 한 노래사랑대회를 개최하며, 섬을 배경으로 한 노래만을 모아 음반을 제작하여 관광기념품으로 판매함.

(2) ‘엄마야 아가야’ 공원 조성

① 자원의 개요 및 가치

- 어미 소와 아기 소의 기적 같은 상봉장소

- 장도는 흑산도의 북서쪽에 기다랗게 위치한 두개의 섬으로 최근 학술적 가치가 큰 습지가 발견되어 유명해진 곳임. 이 곳은 한 때(1985년) 韓牛 사육의 적지로 선정되어 한우 10두를 입식하는 등 한우를 사육해 왔음.
- 장도의 건너편에 위치한 흑산도 비리마을 주민이 장도섬의 어미 소를 사다가 바다 건너 맞은편 흑산도에서 기르고 있었는데, 어미 소의 울음소리를 듣고 장도의 송아지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바다를 건너 비리마을의 어미 소를 찾아왔다고 함.

② 자원화 방안

○ 기적 같은 한우 가족의 상봉장소에 기념공원을 조성하여 자원화 함

- 흑산도 일주도로를 따라가다 長島가 건너다 보이는 곳(비리)에 어미 소와 아기 소의 동상을 설치하고 가칭 '엄마야 아가야' 공원을 조성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함.
- '엄마야 아가야'란 기념공원 이름은 이곳 흑산도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사건을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임.
- 공원을 건립할 때는 대한민국의 어머니회, 부녀회 등을 대상으로 단돈 1만원씩이라도 모금을 하여 기금을 마련하도록 함. 이 경우 기금모금 과정 자체가 기념공원에 의미를 부여하고 널리 홍보하는 효과를 가져옴.
- 장도습지와 흑산도의 비리마을을 연계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할 경우 흑산도 관광의 내용을 보다 다양화 할 수 있을 것임.

(3) 정약전의 유배지

① 자원의 개요 및 가치

○ 유배지 흑산도의 중심인물, 정약전

- 손암 정약전(1760~1816)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다산 정약용의 형으로 천주교도에 대한 탄압이 있었던 신유사육(1801) 당시 이 곳으로 유배되어 15년간의 유배생활을 하였음.
- 흑산도 사리의 복성재는 정약전이 흑산도에 유배와서 약 15년 동안 기거하였던 유배지임. 선생은 이 곳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자산어보』, 『영남인물고』, 『東易』, 『論語難』, 『松政私議』, 『표해록』 등을 저술하였음.

- 자산어보는 우리 나라 최초의 수산학 관련 저서로 서남해안의 바닷고기와 해산물 155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음. 이는 최근에 TV다큐멘터리로 제작·방영되어 흑산도를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 한편 『표해록』은 우이도 사람 문순득이 홍어장사를 하기 위해 항해하던 도중 표류되어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중국을 떠돌게 된 매우 흥미로운 내용을 정약전이 전해 듣고 대필한 한문 기행록임.

정약전의 『표해록』과 홍어장사 문순득의 표류

- 『표해록』은 우이도에 살던 생선장수 문순득이 표류하여 여러 나라를 떠돌다가 되돌아오게 된 경험담을 당시 유배 중이던 정약전이 듣고 대필한 한문 기행록임.
- 표해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801년 12월 우이도에서 문순득과 그의 작은 아버지 문호겸 그리고 마을 사람인 이백근, 박무청, 이중원, 나뭇꾼 아이, 김옥문 등 6명이 흑산도 남쪽 수백 리에 있는 태사도로 홍어를 사러 갔다가 이듬해 1월18일 돌아오는 길에, 우이도 서남쪽에서 폭풍을 만나 표류하다 2월2일야 유구국(오키나와)의 큰 섬인 양관촌에 닿았음. 10월7일 유구국을 떠나 되돌아오던 중 또다시 서풍을 만나 표류하여 11월1일 여송(필리핀)에 닿아 머무르다가 1803년 3월16일 다른 사람들은 먼저 출발하고, 문순득과 김옥문은 남은 복건인 25명과 같이 광둥, 북경, 의주를 거쳐 서울에 도착하였고, 1805년 1월8일 고향으로 귀가함.
- 이 책에는 중국, 안남, 유구, 여송등의 언어와 풍속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후에 역으로 흑산도에 표류한 외국인에 의해 확인됨.
- 이 책은 한 사람의 경험을 듣고 자기체험처럼 사실화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기록문학적 가치가 크고, 여기에 기록된 112개의 유구어와 여송어는 귀중한 언어학 연구자료로 평가됨.
- 한편 문순득의 후손인 문채옥씨 집에서 그 동안 문헌상으로만 알려져 온 『松政私議』란 정약전의 저서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문순득과 정약전의 친분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

② 자원화 방안

○ 유배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유배와 관련한 흥미로운 내용을 드라마로 제작

- 정약전이 유배생활을 했던 사리의 복성재 일원은 현재 유배문화공원으로 개발될 예정으로 있음.
- 정약전의 저서 자산어보와 관련하여 흑산도 생태관광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함.
- 홍어장사 문순득의 표류와 관련한 내용을 TV드라마로 제작하여 방송할 경우 흑산도의 관광홍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임.
- 문순득의 표류와 관련한 내용을 컴퓨터 게임프로그램으로 개발할 경우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 문순득의 후손으로 하여금 흑산도에서 홍어집을 운영하도록 하고 여기에 홍어잡이 어구, 관련 그림 및 기록 등을 전시하여, 살아있는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

(4) 홍도의 자연친화적 정비

① 자원의 개요 및 가치

○ 홍도는 자손 대대로 물려줄 자연생태계의 보고이자 명승지

- 홍도는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170호, 1965년 지정)이면서 동시 다도해해상국립공원(1981년 지정)으로 지정되어 육지뿐만 아니라 해상까지도 청정지역으로 보존·관리되는 지역임. 홍도는 풍란과 흰동백을 비롯한 545종의 자생식물이 자라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임.
- 홍도는 기암괴석이 빚어내는 환상적인 해안경관으로 인해 1970년대 들어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이들 관광객들을 상대로 숙박, 음식료, 위락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이 늘면서 환경오염과 경관훼손이 심해지고 있음.
- 바위 섬 홍도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반드시 유람선을 이용해야 하는데, 바다에서 홍도를 바라보아야만 해변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임.
- 홍도의 관광편의시설은 거의 대부분이 불법 건축물이고, 관련 법규에 따라 개·보수도 어려운 형편임. 따라서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불만이 관광객들로부터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좁은 공간에 과도한 숙박 및 위락시설이 존재하여 오폐수에 의한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건축경관도 불량주거지역을 연상하기에 충분할 정도임.

② 자원화 방안

○ 천연보호구역의 지정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주변환경을 정비해 나갈

- 홍도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홍도의 동식물들이 귀한 대접을 받게 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홍도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님. 그러나 홍도는 자손 대대로 물려줄 자연생태계의 보고이자 명승지라는 점을 이해하여 보존 중심의 정책을 펼침.
- 장기적인 안목에서 홍도의 숙박 및 위락시설을 흑산도로 점차적으로 옮기고, 홍도는 천연보호구역 지정의 원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사실 홍도의 주요 관광활동은 유람선을 타고 해변경관을 둘러보는 것이 거의 전부이므로 굳이 홍도에서 숙박을 할 이유가 많지 않음.
- 흑산도와 홍도 사이에 쾌속 셔틀쉽(Shuttle Ship)을 운항하여 홍도와 흑산도를 편리하고도 신속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함.
- 홍도의 불법 건축물 문제는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므로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장기적인 정비계획을 세우고 이를 계획대로 추진해나가야 함.

(5) 홍도 1구의 당산림(당숲) 정비

① 자원의 개요 및 가치

○ 홍도1구의 당산림은 생태학적 의미가 큰 문화유산

- 홍도1구 선착장 인근에 존재하는 당산림(당숲)은 원시림에 가까운 자연환경이 보존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구실잣밤나무와 동백나무의 거목과 홍도 풍란 등이 자라고 있음.
- 신안지역은 원래 동백나무, 후박나무, 가시나무 등과 같은 상록활엽수가 자라던 곳이었으나 인간의 간섭으로 상록활엽수 적송(육송) 해송(곰솔)으로 식생의 천이가 발생함.
- 따라서 홍도 1구의 당숲을 이루고 있는 상록활엽수는 원래의 생태계가 민간신앙의 영향으로 그대로 보존된 것이기 때문에 생태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음.
- 이 곳은 여행객들이 배편을 기다리며 아름다운 항구 주변을 조망하고, 휴식을 취하며 홍도의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임.
- 홍도의 풍란은 땅에 뿌리를 박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위틈이나 고목 등걸에 여러 개의 뿌리를 얽혀 붙어 자람. 풍란은 한 때 홍도 섬을 뒤덮을 정도로 많았으며, 섬 전체가 풍란의 향기로 그

특하였다고 함.

② 자원화 방안

○ 당숲의 원형을 보존하고, 당집을 복원함

- 이 당숲에는 육지에서 보기 어려운 난대 수종인 동백나무와 구실잣밤나무 등의 거목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 생태자원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바 숲의 원형이 보존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함.
- 당숲에는 이 곳의 자생 수종이 아닌 인공적으로 접목을 한 수양단풍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어 생태적 및 문화적 조화를 깨트리고 있음. 따라서 당숲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관리해나가도록 함.
- 현재 당집의 집터만 복원되어 있으나 앞으로 당집을 복원하고 주민과 관광객들로 하여금 이 곳에서 이번 향해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토록 함으로써 전통민속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
- 동백나무는 상록수로서 장수할 뿐만 아니라 그 고목은 기형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고 또 그 숲은 온화하고 靜寂인 느낌을 주므로 서남해안지방에서는 오래된 동백 숲에 神堂을 많이 모셨음.

(6) 장도 습지

① 자원의 개요 및 가치

○ 다양한 유형의 습지가 한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연의 고문서'

- 흑산도의 북서쪽 비리마을에서 2km 쯤 떨어진 곳에 2개의 기다란 섬(대장도와 소장도)으로 이루어진 장도가 위치하고 있음. 이 두 섬은 썰물 때는 걸어서 건널 수 있지만 밀물 때는 서로 분리됨.
- 장도의 정상부(해발 100~267m 사이)에 분지 형태를 한 5만여 평의 습지가 존재함. 이 곳에는 약 400여 종의 식물과 30여 종의 나비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음.
- 장도습지는 고층, 중층, 저층의 습원이 한 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다양한 동식물 서식환경을 제공함. 이 습지는 종합적인 '자연의 고문서' 또는 '타임캡슐'로 불릴 만큼 그 자연사적 가치가 큰 곳임.
- 보통 섬은 물이 귀한 곳이지만 이 곳은 예전부터 물이 풍부해(습지에서 정확히 1급 수 물) 고기잡이 어선들이 물을 구하기 위해 모여들던 곳임.
- 이 곳은 지금은 거의 자취를 감춘 토종 식용달팽이가 서식하고 있다고 함.

② 자원화 방안

○ 장도습지를 생태학습의 장소로 개발함

- 장도를 흑산도의 비리마을과 연계하여 새로운 문화유산 및 생태학습 관광루트로 개발함.
- 이 새로운 관광루트는 진리와 읍동마을의 문화유산에 대한 답사와 장도의 특이한 자연자원에 대한 답사를 결합하는 형태이므로 흑산도 관광의 내용을 보다 다양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임.
- 흑산도 해안일주도로를 따라 꺾로퍼택시로 일주관광을 하지 않은 관광객은 비리마을에서 장도까지 연락선으로 왕복함으로써 대체 관광코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

(7) 양식장 체험관광상품 개발

① 자원의 개요 및 가치

○ 수많은 양식장이 있으나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관광지에 위치한 양식장과 다른 지역의 양식장은 그 활용 면에서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흑산도의 양식장은 관광 목적으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흑산도 주민의 대다수는 관광관련 업종과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산업간의 연계관계는 거의 없는 것은 관광의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제한적임을 암시함.
- 흑산도 관광의 경우 꺾로퍼택시를 이용한 일주관광과 유람선을 타는 것 이외에 관광객이 특별히 즐길 거리가 없음.
- 따라서 흑산도는 한번이면 족하지 두 번 찾을 곳은 못된다는 생각을 하게 됨. 이러한 이유로 흑산도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여관보다는 민박을 권하는데 이는 민박집에서 식사를 직접 준비하면서 쾌속선 출항까지의 무료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임.

② 자원화 방안

- 흑산도 상라봉에 오르면 해안을 따라 펼쳐진 양식장 시설이 매력적인 경관으로 펼쳐짐. 대부분의 관광객은 양식장 시설에 호기심을 갖고, 한번쯤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됨.
- 현행법상 관광객의 양식장 방문체험은 노점상과 마찬가지로 불법의 논란이 있기는 하나 양식 어민의 어려운 상황과 도서지역의 관광발전을 위해 이를 양성화 할 필요가 있음.

- 양식장에서의 낚시와 신선한 수산물의 시식은 흑산도 관광의 묘미를 제공할 것임.
-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호간에 협의하여 자신들이 생산한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관광객에게 기념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갖추도록 함.

(8) 흑산 홍어

① 자원의 개요 및 가치

○ 흑산 홍어는 흑산도의 상징

- 흑산 홍어는 흑산도의 상징으로, 진짜 흑산 홍어를 맛보아야 흑산도를 다녀왔다고 말할 수 있음.
- 홍어의 수컷은 2개의 생식기가 있어 한번에 두 마리의 암컷과 교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海淫漁라고도 불림. 따라서 운 좋은 낚시꾼은 수컷 한 마리를 낚으면 암컷 두 마리를 덤으로 잡기도 함.
- 홍어는 씹혀서 먹는 유일한 생선인데, 이는 과거 흑산도에서 육지까지의 거리가 멀어 수송 도중에 자연스럽게 발효된 것을 맛보면서 생긴 흑산도의 음식문화임.
- 흑산 홍어는 등줄기에 검은 점들이 박혀 있고, 지느러미에 가시가 있으며 몸이 검붉어 다른 홍어와 그 모양에서 확연히 구분됨. 껍질이 연하여 요리할 때 껍질을 벗기지 않고 그대로 요리하며, 암컷이 수컷에 비하여 2배정도 비쌌.

② 자원화 방안

○ 진짜 흑산홍어를 맛보게 하고, 관광기념품으로 개발함.

- 흑산 홍어는 현지에서도 없어 못 팔 정도이고 외지에서 주문량이 쇠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흑산도를 방문한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진짜 흑산 홍어를 맛볼 수 있는 배려를 할 필요가 있음.
- 흑산도 홍어는 어획량이 적기 때문에 흑산도를 방문한 관광객들도 큰맘을 먹지 않으면 먹어보기 힘들 정도임. 따라서 흑산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진짜' 흑산 홍어를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두 점씩 소량으로 판매하는 공인된 가게를 운영토록 함.
- 또한 흑산 홍어에 대한 강한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부모나 친지에게 선물을 할 수 있도록 소량으로 진공포장을 하여 관광객이 구입하여 가져가기 편리하도록 함.

6. 관광기념품 및 문화콘텐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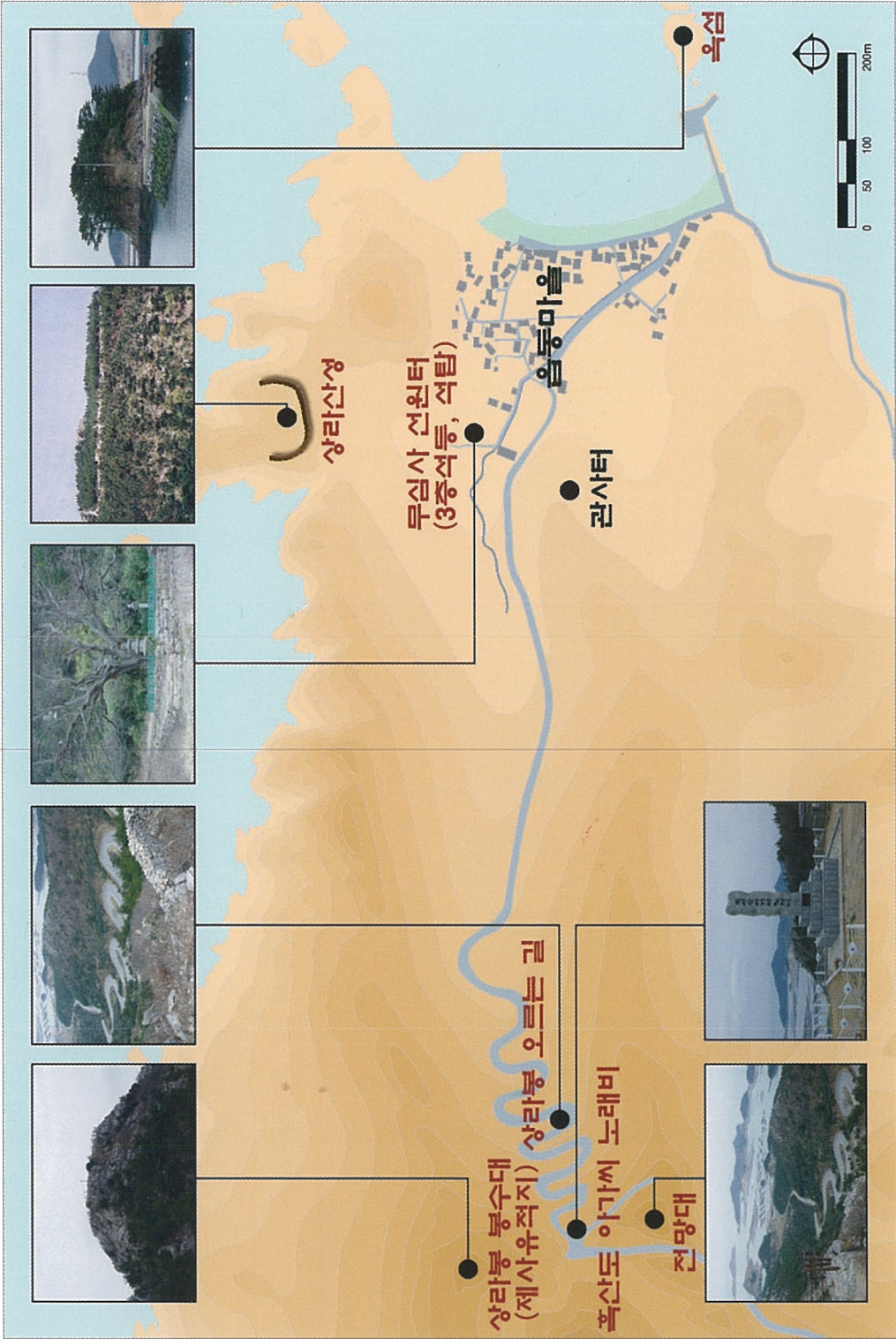
- 사람은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독자적인 활동영역을 갖고, 그 영역을 보존하기 위해 경계표시를 하는 본능을 갖고 있음.
- 관광객이 여행지에서 기념품을 구입하는 것은 자신이 새로운 영역(여행지)을 차지했음(여행했음)을 증명하는 증거품을 남기고자 하는 본능의 또 다른 표현방법이라 할 수 있음.
- 사람들은 자기가 여행한 지역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여행지에서의 즐거움을 지속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관광기념품을 구입하며, 관광기념품의 구입은 관광활동의 커다란 한 부분을 차지함.
- 흑산면에서 관광기념품 또는 문화콘텐츠로 개발 가능한 문화유산과 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1) 관광기념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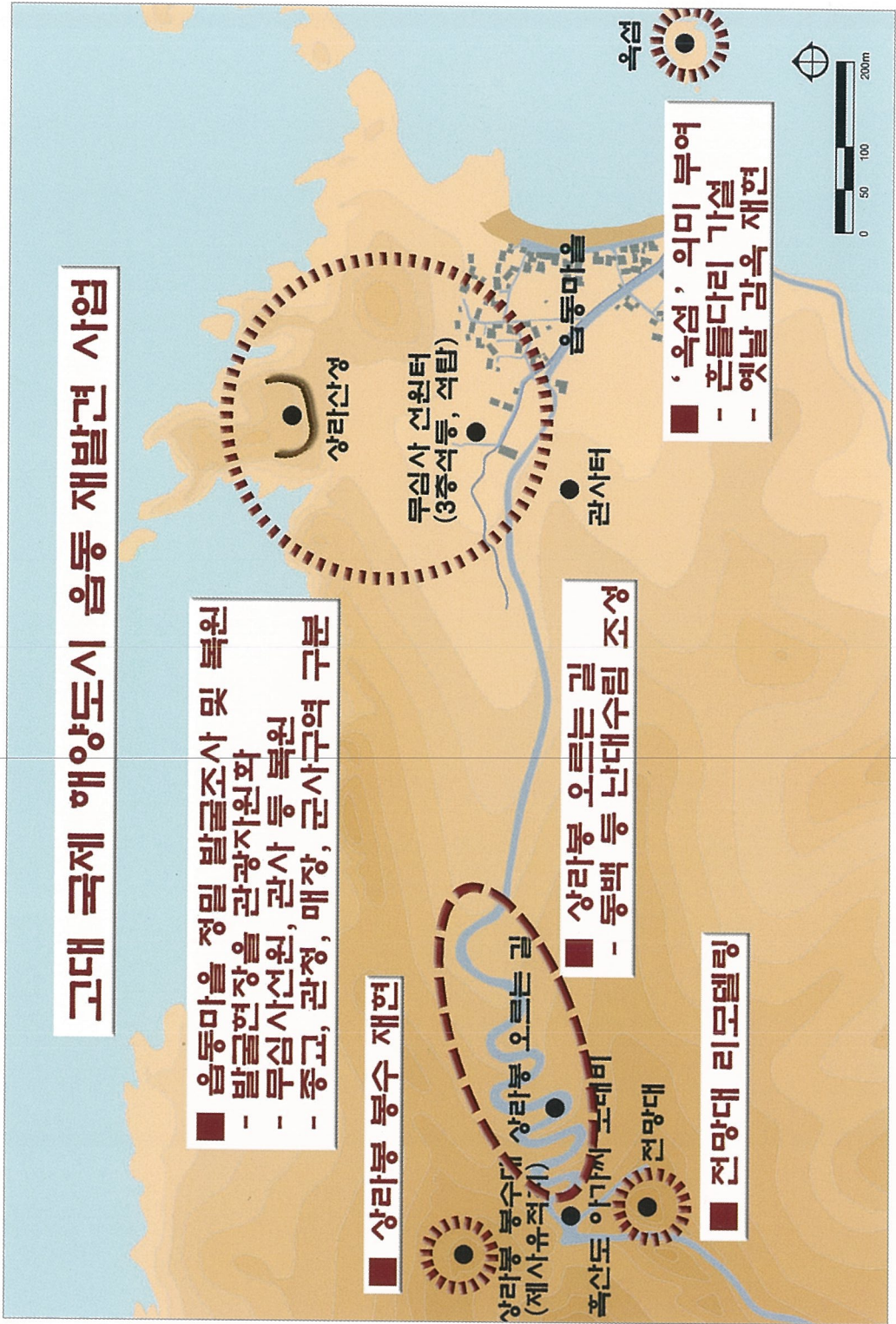
- 흑산도의 상징인 '흑산홍어'를 소량으로 진공 포장하여 관광기념품으로 판매함.
- 여행객(항해자)의 '수호신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 鐵馬를 목걸이, 귀걸이, 자동차 열쇠고리 등의 악세서리로 개발함.
- 진리 당의 설화에 등장하는 피리를 神笛이라는 이름을 붙여 기념품으로 판매함.
- '흑산도 아가씨' 등 섬을 주제로 한 가요를 모아 테이프나 CD로 제작하여 판매함.

2) 문화콘텐츠

- 옥섬, 유배공원, 표해록, 진리 당 등 흑산도의 여러 흥미로운 설화 및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 컴퓨터 게임프로그램이라는 문화상품으로 개발함.
- 인터넷에 사이버 진리당을 짓고 이 곳을 젊은이들이 사랑의 메시지(E-mail)을 주고받는 장소로 활용토록 함.
- 홍어장사 문순득의 표류와 관련한 내용을 TV드라마로 제작하여 방영함.
- 가거도 뱃노래(멀치잡이 노래) 및 흑산도 심리의 해녀노래 등을 CD로 제작.



흑산도 읍동 자원현황도



흑산도 읍동 기본계획도

